

19711036

R

630.951

L293 L

1999

1997 년 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 립 부



목 차

제1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6년도 농업동향	35
제1장 경 제 동 향	37
제1절 국내외 경제동향	37
1. 국내 경제동향	37
가. 경제성장	37
나. 물가와 금리	42
다. 고용과 임금	44
라. 경상수지와 환율	46
2. 해외 경제동향	49
가. 경제성장과 고용	49
나. 교역과 경상수지	51
다. 물 가	53
제2절 농촌경제 동향	54
1. 농업구조	54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54
나. 농경지	56
2. 농가경제	59
가. 농가소득	59
나. 가계비	64
다. 농가자산	65
라. 농가부채	66
마. 농가 편의용품 보유현황	69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69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70
가. 개 황	70
나. 농가판매가격 동향	70
다. 농가구입가격 동향	73
4. 농림어업 부가가치	75
5. 농업 생산성	77
제3절 '90~'95 농업경영변동 분석결과	78
1. 재촌탈농형 인구이동	78
2. 농업경영구조의 조정	79
3. 농업부문 신규참여 농가비율	81
4. 성장 잠재력에 따른 작목별 규모변동	83
5.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 변화	87
6. 경영주 학력별 영농형태 변화	89
7. 향후 영농계획 전망	90
제2장 국내 농산물 수급 동향	96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96
1. 식량작물	96
2. 원예·특용작물	100
가. 채 소 류	100
나. 과 실 류	101
다. 특용작물	102
라. 잠 사 류	103
마. 인 삼 류	104
3. 축산물 및 사료작물	104
가. 축 산 물	104

나. 사료작물	107
제2절 식품수급 동향	109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109
2. 식품수요 및 공급 현황	111
가. 식품수요	111
나. 식품공급	116
3. 식품가공산업 현황	118
가. 생산 현황	118
나. 생산업체 현황	120
다. 고용 실태	121
제3절 농림산물 교역 동향	123
1. 농림산물 수출입 동향	123
가. 수출 동향	123
나. 수입 동향	124
2. 농림산물 남북교역 동향	125
가. 농림산물 교역 규모	125
나. 농림산물 교역 동향	125
제3장 국제농업 동향	128
제1절 국제수급 동향	128
1. 국제곡물 수급 동향	128
가. 생 산	128
나. 소 비	128
다. 교 역	129
라. 기말 재고	129
2. 국제곡물 가격 동향	130
제2절 외국의 농업경제 동향 및 농업정책	131
1. 미 국	131

가. 농업경제 동향	131
나. 1996년 미국 농업법	133
2. 중 국	136
가. 농업경제 동향	136
나. 주요 농업정책	137
3. 일 본	138
가. 농업경제 동향	138
나. 신농업기본법 제정 추진	138
4. E U	139
가. 농업경제 동향	139
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141
제 4장 농림사업 중간평가	145
제1절 농림사업 1단계 중간평가	145
1. 중간평가 개요	145
가. 실시 배경	145
나. 중점 추진사항	145
2. 중간평가 결과	146
제2절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147
1. 추진배경	147
2. 평가총괄	148
가. 농어촌 투융자와 농정개혁 주요평가	148
나. 산업별 주요성과	148
3. 분야별 평가	149
가. 농정개혁의 추진과 성과	149
나. 산업별 성과와 과제	152
4. 종합평가	156
5. 향후 추진계획	157

제 2 편 1996년도에 시행한 주요농정시책 159

제 1 장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163

제 1 절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 농특세 예산조달 163

제 2 절 법률 제·개정 등 제도개선 164

- 1.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164
- 2. 농림분야 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추진 165
 - 가. 추진배경 165
 - 나. 추진상황 166
 - 다. 주요 개선내용 167
- 3. 재해지원제도 개선 추진실적 168

제 2 장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171

제 1 절 개방화·국제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능력배양 171

- 1. 전문농업 경영체의 육성 171
 - 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171
 - 나. 법인경영체의 육성 172
 - 다.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174
- 2. 농업경영혁신목표관리제 도입 175
- 3. 농업인의 자조노력 고취 176
 - 가.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176
 - 나. 농업경영기술의 개발 보급 180
 - 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181

제 2 절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 184

- 1. 생산기반 정비 184
 -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184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86
다. 밭 기반정비사업	186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88
마. 배수 개선사업	189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90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190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191
2. 농작업의 기계화	192
가. 농업기계 공급 지원	192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195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 강화	196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199
3. 영농의 규모화 추진	200
4. 농업자재 공급	201
가. 우량종자의 공급 확대	201
나. 농약의 수급관리	202
다.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203
5. 병해충 방제	205
가. 병해충 발생 상황	205
나. 병해충 방제 상황	206
다. 병해충 방제 시책	207
제3절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	208
1. 식량작물	208
가. 양질미 생산과 생산비 절감	208
나. 보리 생산의 자급유지	210
다. 두류 및 잡곡류의 고품질 생산	211
라. 서류의 생산	212

2. 채소·과실류	212
가. 채 소 류	212
나. 과 실 류	214
3. 축 산 물	215
제4절 환경농업 육성	217
1.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218
가.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218
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219
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219
라.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220
2.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220
가.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	220
나. 농업용수 수질관리대책	221
3. 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221
가. 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현황	221
나. 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223
제 5절 농업의 첨단산업화 및 복합산업화	226
1. 농업기술 개발	226
가. 개 요	226
나. 쌀 생산대책 기술개발 보급	227
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229
라.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개발	231
마. 첨단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232
바. 농업기자재 개발	233
사. 국제농업기술 협력 강화	234
2. 농업기술 보급	235

가. 개 황	235
나. 농업기술 보급실적	235
3. 농업시설 현대화	237
가. 원예·특작 유통시설 지원	237
나. 인삼산업 육성 지원	238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239
4. 주요 품목별 복합산업화	240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240
나.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241
다. 가축계열화사업 추진	242
5. 식품제조·가공업 참여 확대	242
가. 규제완화 추진	242
나. 정책지원업체 현황	243
다.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사업 참여 현황	244
라. 식품가공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244
제 6절 국제협력 증진 및 수출농업의 도약	245
1. 국제협력 증진	245
가. WTO 활동 참여	245
나. FAO 활동 참여	248
다. OECD 가입	249
라.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	251
마. 김치의 Codex규격 추진	254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255
가. 해외시장 개척	256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257
3. 수입관리	258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258
나. WTO가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수입관리	259

제 7절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	259
1. 산지유통시설 확충	259
2. 소비지유통시설 확충	261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261
나. 농산물공판장 건설	261
다.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262
3.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	262
가. 추진배경	262
나. 주요 추진내용	262
4. 생산자단체의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 역할 확대	264
제 8절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개발된 소득원의 내실화	266
1. 농공단지 조성	266
2.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267
3. 농촌특산단지 육성	268
4.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확대	268
제 9절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269
1. 정주생활권 개발	269
가. 추진배경	269
나. 사업추진 내용	269
2. 농촌생활여건 개선	273
3. 농어업인 복지증진	275
가. 농어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275
나.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기회 확대	277
다. 농어민 연금제 실시	279
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281
마. 농작업 재해공제에 대한 지원	282

제 3 편	1997년도 농정시책	285
제 1 장	1997년도 농업정책방향	287
제 1 절	1997년도 농정목표	287
제 2 절	1997년도 농정방향	288
1.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288
2.	주요 농산물의 자급기반 확충 및 시설현대화	289
가.	쌀 자급기반의 지속적 확충	289
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289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기 완비	290
라.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 촉진	290
3.	실용기술 개발과 농업정보화의 촉진	291
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급안정	291
5.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농업 육성	292
6.	수출농업의 육성	292
7.	농촌활력증대와 복지증진	293
제 3 절	1997년도 농림부문 예산	293
1.	농림부문의 예산지원	293
2.	예산편성에 반영된 제도개선	296
제 2 장	일류국가를 향한 농림업 부문의 도약	297
제 1 절	농림업 전문경영체의 육성	297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297
2.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298
3.	농림수산계 교육 활성화	299
가.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299

나.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300
4. 농업경영기술의 개발·보급	301
5. 축산종합 컨설팅사업 실시	302
제 2절 주요농산물의 자급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	303
1. 쌀 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303
가. 배 경	303
나. 시책내용	303
2.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305
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306
나.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	306
다. 한우개량	306
라. 사료공급기반 확대	307
마. 한우고기 유통구조의 개선	307
3. 생산기반 확충	309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309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310
다. 밭 기반정비사업	311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11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312
4. 농업 기계화	314
5.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314
가. 원예 및 특용작물	314
나. 인삼류	315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315
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316

제 3절 농업기술 개발과 정보화 촉진	317
1. 농업기술 개발	317
가. 개 황	317
나. 분야별 기술개발	318
2. 농업기술 보급	323
가. 개 황	323
나. 농업기술보급 계획	324
3. 농업정보화 촉진	325
가. 추진배경	325
나. 농림수산 정보화 촉진 계획	326
제 4절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	333
1. 추진배경	333
2. 추진계획	333
가. 산지유통체제 확립	333
나. 산지가공공장의 사후관리 강화	334
다. 유통경로의 다원화	335
라. 물류표준화로 물류비용 절감	336
마. 산지 포장개선 시범사업 실시	336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337
사.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품질 차별화	338
아. 농산물 안전성 조사품목 확대 시행	338
자. 품질인증제의 내실화	339
차. 생산자조직 중심의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구축	339
제 5절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과 환경농업 육성	340
1. 농축산물 안전성과 품질향상	340
2. 환경농업 육성	341

제 6 절	농산물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343
1.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343
가.	수출여건 및 전망	343
나.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344
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344
라.	농업무역정보망 구축	345
마.	수출 관련 지원체제 강화 및 개편	345
2.	수입관리대책	346
가.	'96년도 평가	346
나.	'97년도 수입관리 대책	347
제 7 절	농촌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350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350
가.	정주생활권 개발	350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351
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352
라.	농촌생활여건 개선	353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354
가.	농공단지 운영 지원	354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354
다.	농촌특산단지 조성	355
라.	한계농지 등의 개발	355
마.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실시	356
3.	농업인 복지증진	356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기회 확대	356
나.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사업 추진	357
다.	농어민연금제의 내실화	358
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358

제2부 임업부문

제 1편 1996년도 임업동향	361
제 1장 국내외 임업동향	363
제 1절 해외 임업동향	363
1. 세계의 산림자원 현황	363
2. 세계의 목재수급 동향	365
3. 임업분야 국제회의 및 협약체결 동향	369
가. 임업분야 국제회의	369
나. 한·몽골 임업협력약정 체결	372
4. 외국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372
가. 미 국	372
나. 일 본	377
다. 캐 나 다	378
라. 뉴질랜드	379
제 2절 국내 임업동향	381
1. 산림자원 현황	381
2. 우리나라의 임업현황	384
제 2장 임산물 수급동향	386
제 1절 임산물 생산동향	386
1. 용 재	387
2. 종실류	388
3. 버섯류	389

제2절 임산물 수출입 동향	390
1. 임산물 수출	390
2. 임산물 수입	391
제 2편 1996년도 임정의 성과	395
제1장 21세기 임정추진기반 구축	397
제1절 21세기 우리 산림의 비전 정립	397
1. 산지의 자원화 촉진	397
2. 경쟁력있는 임업육성	397
3. 산림휴양과 산림문화 보급	398
4.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	399
제2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399
1. 산림법령	399
2. 임업진흥촉진법	400
3. 입목에 관한 법률	400
제3절 산림행정조직 개편	400
1. 산림청	401
2. 임업연수원	401
3. 산림항공관리소	401
4. 인력증원	401
제4절 행정규제 완화	401
1. 추진개요	401
2. 주요 규제완화 내용	402

제2장 경쟁력있는 임업 육성	403
제1절 산지이용체계 재편 마무리	403
1. 산지이용체계 재편 내용	403
2. 추진경위	403
3. 산지이용체계 재편 결과	404
4. 기대효과	405
제2절 산림자원 조성	405
1. 조 립	405
2. 육 립	407
3. 종 묘	408
제3절 임업경영기반 확충	409
1. 임업전문인력 확보	409
가.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육성	409
나. 영림단·기능인 양성	411
2. 임도시설의 확대·내실화	412
가. 현 황	412
나. '96 계획 대 실적	412
다. 문제점 및 대책	413
3. 임업기계화 촉진	414
4. 임산물 유통·이용·가공	415
가.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	415
나. 임산물 가공·이용	417
제4절 임업기술 개발	418
1. 산림환경 분야	418
2. 임산공학 분야	419
3. 산림생물 분야	420

4. 산림경영 분야	420
5. 생산기술 분야	421
6.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개량종자 생산	422
7. 단기소득원인 유실수 신품종 개발	422
8. 생물공학 응용 신물질 개발	423
제5절 국유림경영 개선	423
1. 국유림 책임경영제 실시	423
2.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	424
가. 사업목적	424
나. 사업내용	424
다. 추진실적	424
3. 국유림 확대 및 관리	424
제6절 해외 산림개발	426
제3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30
제1절 환경임업 육성	430
1. 산림의 녹색담 기능 강화	430
2. 환경림·공해방지림 조성	431
3. 산림환경 보전운동 전개	431
가. 녹색수업	431
나. 푸른 산 사랑 운동	432
제2절 산림휴양시설 확대	433
1. 자연휴양림 조성	433
2. 수목원 조성과 산림박물관 건립	434
제3절 산촌 종합개발	435

제4절 야생 동·식물 보호	436
1. 야생동물 보호	436
2. 야생식물 보호	437
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437
나. 자생식물종 보존사업 현황	437
제5절 산림문화 창달	439
제6절 산림재해 극복	439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439
2. 산림병해충 방제	442
3. 산사태 예방	445
제 3편 1997년도 임정시책	447
제1장 '97년도 임업정책 방향	449
제1절 임정의 목표와 방향	449
제2절 임업부문 예산	450
1. 임업예산	450
2. 임업자금 지원	452
제2장 「경영임정 구현」을 위한 중점추진 시책	453
제1절 산지의 자원화	453
1. 조 립	453
2. 육 립	454
3. 종 묘	455
제2절 임업의 산업화	456
1. 임업 전문인력 확보	456

가.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456
나. 영림단·기능인 양성	456
다. 협업체 조직 육성	457
라. 임업전문학교의 설립 추진	458
2. 임도시설의 확대·내실화	459
가. '97 임도시설 계획	459
나. 기본방향	459
다. 추진계획	460
라. 임도시설 장기계획	461
3. 임업기계화 촉진	461
4. 임산물 유통·이용·가공	462
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462
나. 임산물 가공·이용	463
5. 임업기술 개발·보급	463
가. 임업기술 개발	463
나. 임업기술 보급	463
6. 국유림경영 개선	465
가. 자립경영체제 확립	465
나.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으로 선진임업 선도	465
다. 국유림 확대 및 관리 강화	465
제3절 산림의 공익화	466
1.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공급기반 확충	466
가.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	466
나. 환경림·공해방지림 조성	467
2. 산림휴양시설 확충	468
가. 휴양시설 확대	468
나. 휴양시설 조성·운영개선방안 강구	469

3. 산림문화 창달	469
가. 추진배경	469
나. 기본방향	470
다. 추진계획	470
4. 산촌개발	472
5. 야생 동·식물 보호	473
가. 야생동물 보호	473
나. 야생식물 보호	474
6. 광릉숲 보전대책	474
제4절 산림재해 예방	475
1. 산불방지	475
2. 산림병해충 방제	478
3. 산사태 예방	479
제5절 임업의 세계화	481
1. 임산물 수출입	481
가. 임산물 수출여건과 전망	481
나. '97 임산물 수출진흥시책	481
다. 수입관리대책	482
2. 해외산림 개발	483
3. 국제협력 강화	484
제3장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485
제1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485
제2절 행정규제 완화	486
1. 추진상황	486
2. 주요 규제완화 내용	486

제3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계획 추진	487
제 4장 제 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489
1. 기본계획수립 배경	489
2. 여건변화와 정책목표	489
가. 여건변화	489
나. 정책목표	490
3. 추진계획	490
※ 주요 농정일지	491

표·그림

제1부 농업부문

제 1편	1996년도 농업동향	35
표 1-1-	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추이	38
2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39
3	농림어업의 성장률 추이	40
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40
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41
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41
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42
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추이	43
9	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45
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46
1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50
12	선진국의 실업률 추이	51
13	세계무역 신장률과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52
14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53
15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54
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현황	55
그림 1-1-	1 경지면적 변동 추이	56
표 1-1-	17 경지증감 사유별 면적	57
18	농경지 이용 추이	58
19	농가소득의 구성 추이	59
20	경지구모별 농가소득 현황	60
21	지대별 농가소득 현황	60
22	농업소득의 구성 추이	61

표 1-1-23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현황	62
24	지대별 농업소득 현황	62
25	농외소득의 구성 추이	63
26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현황	63
27	지대별 농외소득 현황	64
28	가계비 구성 추이	64
29	농가자산 현황	65
30	용도별 농가부채 현황	66
31	차입처별 농가부채 현황	67
32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현황	67
33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현황	68
34	농가자산과 부채비중 현황	68
35	농가편의용품 보유 현황	69
36	전·겸업 농가별 주요 현황	69
37	농가교역조건 연도별 추이	70
38	유별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72
39	유별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74
40	연도별 농촌임금 동향	75
41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76
42	농림어업 구조 추이	76
43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추이	77
44	농업생산성 지표 추이	78
45	연도별 인구 현황	79
46	농업경영 구조의 변화	80
47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위탁영농 비율	80
48	농업경영 변동농가 현황	81
49	작목별 변동유형	82
50	작목별 경영규모 변동 현황	83
51	영농규모 확대농가의 규모변동 추세	84
52	영농규모 축소농가의 규모변동 추세	85
53	영농 규모유지 농가, 신규농가의 최다분포 규모 ...	86

표 1-1-54	경영주 연령분포(규모확대 농가, 유지 농가)	87
55	경영주 연령분포(규모축소 농가, 신규 농가)	88
56	경영주학력(확대 농가, 유지 농가)	89
57	경영주학력(축소 농가, 신규 농가)	90
58	연령별 영농계획 기간	91
59	주 소득 작목별 영농계획 기간	91
60	농가유형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92
61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92
62	주 소득 작목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93
63	농가 유형별 영농형태 전환 계획(향후 5년내)	93
64	경영주 연령별 작목전환 계획	94
65	주 소득 작목별 영농형태 전환 계획	95
표 1-2-	1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	96
	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 상황	97
	3 연도별 쌀 수급 상황	98
	4 '96 주요 양곡수급 현황	98
	5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99
	6 채소류 수급 동향	101
	7 과실류 수급 동향	102
	8 특용작물 수급 동향	102
	9 누에고치 생산과 가격 동향	103
	10 누에고치 수급 동향	103
	11 인삼 생산 동향	104
	12 '96 축산물 수급 동향	105
	13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 추이	105
	14 축산물 소비량 추이	106
	15 사료수급 추이	107
	16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추이	108
	17 초지조성 실적 추이	108

표 1-2-18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추이	109
19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추이	110
20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111
21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112
22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	113
23	영양권장량(RDF)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114
24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115
25	주요식품 공급량 추이	116
26	주요식품 자급률 추이	117
27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추이	118
28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가공업체수 추이	120
29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종업원수 추이	122
30	농림산물 수출 실적 추이	123
31	농림산물 수입 실적 추이	124
32	남북교역 동향 총괄	125
33	반출입 통관 실적	126
34	주요 품목별 반출 실적	126
35	주요 품목별 반입 실적	127
표 1-3-	1 세계 곡물 기말재고 상황	129
	2 세계 곡물 수급 상황	130
	3 국제 곡물가격 동향	131
	4 미국 농업의 주요지표 추이	133
	5 EU 농업의 주요지표('94)	141
표 1-4-	1 산업별 성장률 현황	150
	2 농축산물 수출 추이	150
	3 농가경제의 성장 현황	151
	4 농업 생산액중 주요품목 비중 현황	151

제 2편 1996년도에 시행한 주요농정시책 159

표 2-1-	1	'96 제·개정 법률	164
	2	농림분야 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166
	3	과수·화훼·버섯류 대과대 지원단가	169
	4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169
	5	'96 재해지원 실적	170
표 2-2-	1	'96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171
	2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174
	3	농업인 상담실적	180
	4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현황	183
	5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185
	6	연차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186
	7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187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188
	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189
	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90
	1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191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192
	13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193
	14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194
	15	'96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실적	195
	16	'96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실적	196
	17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197
	18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198
	19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199
	20	농지구입자금 지원실적	200
	21	농지매매자금 지원실적	201
	22	정부 보급종 공급량 및 갱신을	202

표 2-2-23	연도별 농약소비상황	203
24	비료 소비량 추세	204
25	'96 주요 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20kg당)	205
26	병해충 발생현황	206
27	병해충 방제현황	206
28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8
29	추곡수매 실시현황	209
30	'96년산 추곡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내용	209
31	보리생산 현황	210
32	두류 및 잡곡 생산현황	211
33	서류생산 현황	212
34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14
35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215
36	환경농업 실천농가 현황('96. 8. 31현재)	221
37	특수농법 실천현황('96. 8. 31현재)	222
38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계획	224
39	자금지원 실적	225
40	'96 기업체 기술이전과제 내역	227
41	'96 벼 신규 장려품종	228
42	'96 맥류 신규 장려품종	230
43	'96 두류 및 기타작물 신규 장려품종	230
44	'96 품목별 지원실적	238
45	'96 인삼산업 육성 지원실적	239
46	'96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내역	240
47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241
48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실적	242
49	박람회 참가 및 수출계약 실적	256
50	해외농업무역관 현황	257
그림 2-2-1	정보보급 체계도	257

표 2-2-51	'96 산지 유통시설 확충실적	260
52	안전성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	264
53	농·축협 산지유통 비율	265
54	농·축협 소비지 유통시설 현황	266
55	농공단지 조성실적	267
56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실적	267
57	농촌특산단지 조성실적	268
58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	272
59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현황	276
60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계획	276
61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	277
62	'96 농어촌학생 특례입학 현황	279
63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279
64	'96 농어민연금 가입신고 현황	280
65	농어민연금 지원계획(농특세)	281
66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투자계획	282
67	공제보장 한도('97년 예시)	283

제 3 편 1997년도 농정시책

표 3-1- 1	농림부문 예산규모	294
2	농림부 소관 '97 예산내역	295
표 3-2-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297
2	'97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계획	299
3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원현황	301
4	일반경지정리 추진계획	310
5	연차별 대구회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310
6	연차별 받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311
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312

표 3-2- 8	'97 원예·특작, 생산·유통 및 인삼류 지원사업	315
9	'97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계획	316
10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 이용현황	326
11	경영지원용 S/W개발 현황(정보화지원사업)	327
12	국내외 농림수산물 정보 제공현황	328
13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329
14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 구축계획	330
15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계획	330
16	정보통신이용 교육현황(정보화 지원사업)	331
17	'97년도 농산물 수출전망	343
18	'96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346
19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347
20	도로포장 현황	351
21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351
22	상수도 보급현황('95년말 현재)	352
23	농촌생활용수 개발 계획	352
24	농촌휴양자원 개발 계획	354
25	농촌특산단지 조성 계획	355
26	'97 농어촌학생 특례입학 현황	357

제2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6년도 임업동향	361
표 1-1- 1	세계의 산림면적	363
2	국가별 산림면적	363
3	지역별 임목축적	364
4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국	364
5	개도국의 인공조림	365
6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개도국('95)	365
7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현황('94)	366
8	품목별 5대 생산국('94)	367
9	뉴질랜드의 주요 임산물 수출실적	380
10	뉴질랜드의 라디아타소나무 원목수출가격	380
11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381
그림 1-1- 1	선진임업국의 ha당 임목축적	382
그림 1-1- 2	임목축적 및 ha당 임목축적 추이	382
표 1-1-12	임상별·영급별 임야면적	383
그림 1-1- 3	영급별 임목축적 추이	383
그림 1-1- 4	소유규모별 산주수 추이	384
표 1-1-13	사유림 소유형태별 추이	385
그림 1-2- 1	1996년도 임산물 생산액	386
그림 1-2- 2	1996년도 용재 생산량	387
표 1-2- 1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388
2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389
3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390
4	임산물 국별 수출실적('96)	391
5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입실적	392
6	임산물 국별 수입실적('96)	393

제 2편	1996년도 임정의 성과	395
표 2-2-	1 산지이용체계 재편 결과	404
	2 '96 조립실적	407
	3 '96 육립실적	408
	4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410
	5 연도별 시·도별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411
	6 '96 임도시설 실적	413
	7 연도별 임도시설 추진실적	414
	8 임업기계·장비보급 실적('96)	415
	9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현황	417
	10 임산물 가공·이용 지원실적	418
	11 채종원 조성면적 및 종자 생산량	422
	12 연도별 국유림 확대실적	425
	13 업종별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현황('96)	426
	14 국별 개발목 도입실적	427
	15 품목별 개발목 생산 및 국내도입 실적('96)	427
	16 전년 대비 주요품목 생산 및 도입실적	428
	17 연도별 해외조립 실적	428
	18 연도별 해외조립 융자금 지원실적	429
표 2-3-	1 5대강유역 조립실적('96)	430
	2 환경조립 실적('96)	431
	3 자연휴양림 조성실적 및 계획	434
	4 산촌개발 마을 현황('96)	436
	5 야생조수 서식밀도 현황	436
	6 연도별 특산식물자원 보존사업 실적	438
	7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복원현황	438
	8 산불발생 현황	441
	9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442

표 2-3-10	연도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443
11	연도별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443
12	'96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444
13	'96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	445
14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추이	446
제 3편	1997년도 임정시책	447
표 3-1-	1 임업부문의 예산비율	450
	2 사업별 투자예산	451
	3 임업자금 융자현황	452
표 3-2-	1 '97 조림계획	454
	2 '97 육림계획	455
	3 '97 임업기능인 및 시범부락 작업단 조직계획	457
	4 협업체 조직현황('96)	457
	5 '97 임도시설 계획	459
	6 임도시설 장기계획	461
	7 임업기술지도원 배치운영 상황	464
	8 5대강유역 산림사업 계획('97)	467
	9 월드컵 대비 국토경관 조성계획('97)	468
	10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469
	11 산촌종합개발 세부사업 내용	472
	12 '97 산림병해충별 방제계획	478
	13 '97 산사태위험지 현황	480
	14 산사태 발생예보 및 행동요령	480
	15 '97 임산물 수출목표	482

제1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6년도 농업동향

제 2 편 1996 년도에 시행한 주요농정시책

제 3 편 1997 년도 농정시책

제 1 편 1996 년도 농업동향

제 1 장 경 제 동 향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1. 국내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

1996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도의 8.9%보다 낮은 7.1%를 기록하였다. 이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에 기인한다. GNP 규모는 4,804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했으나, 성장률은 전년의 8.7%에서 6.9%로 하락하였다. 1인당 GNP는 전년의 10,037달러에서 10,548달러로 5.1% 증가하여 세계 34위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3.5%), 광공업(7.3%) 및 건설업(6.7%)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전기·가스·수도사업(10.7%)과 서비스업(8.2%)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1) 소비지출

최종 소비지출은 '95년의 7.2%에서 6.9%로 0.3% 포인트 감소하였다. 민간소비(6.9%)와 수출(물량기준, 14.1%)이 각각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중화학 공업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설비투자(8.2%)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정부지출이 전년의 1.0%에서 7.1%로 크게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부문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불경기로 인해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

민간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둔화되었으나, 승용차, 에어컨,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전화기 등 내구소비재와 해외 여행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의복, 화장품 등 준내구재와 통신, 외식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출 증가가 민간소비의 증가를 촉진하였다.

또한 정부지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조직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인건비, 물건비 등에 대한 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90	'93	'94	'95	'96(p)
국내총생산(GDP)	9.5	5.8	8.6	8.9	7.1
국민총생산(GNP)	9.6	5.8	8.4	8.7	6.9
농 립 어 업	△4.6	△2.9	1.6	3.7	3.5
광 공 업	8.7	4.9	10.4	10.6	7.3
전기가스수도사업	17.9	13.0	12.6	8.7	10.7
건 설 업	25.7	8.4	4.7	8.6	6.7
서 비 스 업 ¹⁾	10.9	7.6	10.8	10.0	8.2
소 비	10.1	5.3	7.0	7.2	6.9
- 민 간	(10.3)	(5.7)	(7.6)	(8.3)	(6.9)
- 정 부	(8.9)	(3.0)	(4.2)	(1.0)	(7.1)
총고정자본 형성	18.3	5.2	11.8	11.7	7.1
- 건 설	(29.1)	(8.9)	(4.5)	(8.7)	(6.3)
- 설 비	(18.4)	(△0.1)	(23.6)	(15.8)	(8.2)
수 출	4.2	11.3	16.5	24.0	14.1
- 상 품 ²⁾	(3.4)	(9.7)	(14.6)	(25.3)	(14.5)
수 입	14.4	6.7	21.7	22.0	14.8
- 상 품 ³⁾	(14.0)	(5.6)	(21.8)	(21.3)	(13.9)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귀금속서비스(공제), 수입세를 포함.

2) F.O.B. 기준 3) C.I.F. 기준

자료: 한국은행

(2) 저축과 투자

총저축률은 정부 총저축률이 정부의 인건비 및 물건비 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세 수취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다소 높아졌으나, 민간 총저축률이 낮아져 전년에 비해 1.6% 포인트 낮은 34.6%를 기록하였다.

국내 총투자율은 고정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데다 재고가 크게 늘어나 전년의 37.4%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38.6%를 나타냈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본 국내 총투자율과 총저축률은 각각 38.6%와 34.6%로 전년의 37.4%의 36.2%에 비해 국내 총투자율은 증가하고 총저축률은 하락하였다. 경기 악화로 대외 투자율도 $\Delta 5.0\%$ 로 '94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표 1-1-2>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단위: %)

구 분	'90	'93	'94	'95	'96(p)
총 저 축 률	35.9	35.2	35.4	36.2	34.6
- 민 간	27.4	26.7	26.0	25.7	23.7
- 정 부	8.5	8.6	9.3	10.6	10.8
국 내 총 투 자 율	37.1	35.2	36.2	37.4	38.6
- 민 간	32.7	30.1	31.2	32.5	33.1
- 정 부	4.3	5.1	5.0	4.9	5.5
대 외 투 자 율	$\Delta 0.9$	0.1	$\Delta 1.2$	$\Delta 2.0$	$\Delta 5.0$

자료: 한국은행

(3) 산업별 생산활동

전기·가스·수도사업과 정부 및 민간 비영리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농림어업은 전년의 3.7%에서 3.5%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농업부문은 비중이 큰 미곡 생산이 쌀산업발전대책의 강력한 추진과 일기 호조로 크게 늘어났으나, 야채 및 과일류 생산이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부진한 데다 축산업 생산도 젖소 및 닭의 사육두수 감소로 증가율이 낮아져 전체로서는 3.3% 성장에 그쳤다. 어업은 원양어획(명태, 다랑어류)이 줄었으나, 지난해 기름 유출 사고 및 적조 현상으로 감소했던 연근해 어획(고등어, 오징어)과 해면 양식(피조개, 바지락)이 호조를 보여 전년대비 5.4% 증가하였다.

〈표 1-1-3〉

농림어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3	'94	'95	'96
농 립 어 업	△4.6	△2.9	1.6	3.7	3.5
농 업	△4.9	△4.0	1.0	5.4	3.3
- 재 배 업	△6.0	△6.0	1.7	4.9	3.3
- 축 산 업	△1.5	12.4	△3.8	9.6	3.7
임 업	△9.3	△9.8	8.0	△7.0	1.9
어 업	△0.2	8.0	3.7	△5.1	5.4

자료: 한국은행

제조업은 전년의 10.8%에서 7.4%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경공업은 섬유, 피혁, 신발 및 모피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내수 부진과 대외경쟁력 약화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2.6% 감소하였다. 중화학 공업은 전기·전자와 수송장비의 생산이 계속 늘어났으나, 산업기계, 비금속광물 등의 생산이 수출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95년도의 14.8%에서 '96년 10.5%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표 1-1-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3	'94	'95	'96
광업 및 채석업	△6.8	△4.1	4.0	△4.6	△5.3
제 조 업	9.7	5.0	10.5	10.8	7.4
경 공 업	2.7	△3.8	3.5	△0.4	△2.6
중 화 학 공 업	12.7	8.9	13.1	14.8	10.5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전년의 8.6%에 못미치는 6.7%의 성장에 그쳤다. 민간건설은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전철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토목건설이 호조를 보였으나, 아파트·상가·공장 등 대부분의 건물 건설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3.9% 성장에 그쳤다. 정부건설은 도로 건설이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전년도에 시설안전점검 강화 등으로 큰폭으로 감소하였던 철도 및 지하철 건설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도시토목 및 상하수도 건설 등도 활기를 띠어 14.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1-1-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3	'94	'95	'96
건설업	25.7	8.4	4.7	8.6	6.7
민간건설	27.5	10.0	2.2	10.7	3.9
정부건설	12.9	2.5	8.3	1.1	14.3

자료: 한국은행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와 산업용 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10.7%의 성장을 유지하였다. 전기업은 공공 및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힘입어 9.2% 성장하였다. 가스 및 열공급업은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와 지역난방의 확대에 따라 26.2%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표 1-1-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3	'94	'95	'96
전기·가스·수도	17.9	13.0	12.6	8.7	10.7
전기업	15.6	12.1	11.4	7.4	9.2
가스 및 열공급	34.8	27.9	26.6	26.5	26.2
수도업	10.2	7.5	11.0	△0.8	3.5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운수 및 통신부문에서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의 10.1%에서 8.2%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도소매업·숙박·음식은 자동차 보유의 증가로 수리수선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산품을 중심으로 한 내수 거래가 부진하고 수출입 상품의 거래 둔화로 인해 6.2% 성장에 그쳤다. 운수·창고·통신업은 이동전화, 무선호출기 등의 이동통신부문과 정보통신부문을 중심으로 한 통신업의 성장으로 13.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은 통화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권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6.8% 성장하였다.

<표 1-1-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3	'94	'95	'96
서비스업 ¹⁾	9.9	7.6	10.8	10.1	8.2
도소매·숙박·음식	9.7	4.3	8.6	8.3	6.2
운수·창고·통신	10.5	8.1	12.6	13.3	13.7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11.8	12.4	9.8	7.7	6.8
사회 및 개인 서비스	7.8	6.1	9.8	9.3	4.3

주¹⁾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고 금융귀금속서비스는 삭감.
자료: 한국은행

나. 물가와 금리

(1) 물 가

'96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3.4%에서 3.5%로 오름세가 약간 높아지고, 소비자 물가는 전년의 4.7%에서 4.5%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생산자 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된 것은 전력·수도·도시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3%에 그치고 농림수산물 가격도 '93년 이전의 두 자리수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인 4.1%에 머무른 데 기인한다.

〈표 1-1-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추이

(전년말월대비 등락률, %)

구 분	'90	'93	'94	'95	'96
생 산 자 물 가	7.2	2.0	3.9	3.4	3.5
- 농 림 수 산 물	20.6	11.1	6.3	0.3	4.1
- 공 산 품	5.0	0.8	3.7	4.0	3.5
- 전력·수도·도시가스	△4.4	0.0	1.1	4.9	0.3
소 비 자 물 가	9.4	5.8	5.6	4.7	4.5
- 식 료 품	11.7	8.0	7.0	2.3	3.1
- 식 료 품 이 외	8.0	4.7	4.9	5.9	5.2

자료: 통계청

연초에 작황부진과 곡류재고량 부족으로 강세를 보이던 농림수산물 가격은 상반기에 축산물·채소류·건어패류 등의 가격하락으로 완만한 오름세를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과일·채소류의 작황 호조와 어획량의 증가에 따라 내림세로 반전하였다.

'96년에 생산자 물가의 연간지수 상승률이 전년대비 2.7%에 그친 것은 연말 농림수산물 가격의 큰 폭 하락에 힘입었다. 공산품 가격은 석유제품 및 담배에 대한 교육세의 부과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이 2/4분기까지 작황부진과 곡류의 재고 감소 등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하반기 들어 농산물 작황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내림세로 반전하였다. 공산품 가격은 식료품 가격, 석유제품, 담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10월 이후 가전제품의 가격인하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서비스 가격은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과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다가 4/4분기 들어 정부의 인상억제 방침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2) 금 리

시장금리는 4월까지 하향 안정세를 지속했으나 5월 이후에는 신탁제도 개편에 의한 장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수급 불균형 때문에 오름세로 반전하여 9월까지 상승기조를 유지하였다. 자금수급 불균형은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를 신탁 수신 등이 뒷받침하지 못한 데 기인하였다. 10월 이후는 통안증권 유통수익률과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2%대에서 안정세를 보인 반면, 콜금리는 12~17% 수준에서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연말에 12%대로 낮아졌다.

다. 고용과 임금

(1) 고 용

'96년 전체 산업의 취업자수는 1.9%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 2.7%보다 더욱 낮아졌으나, 이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과 같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전년의 2.0%라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2.4%를 기록, 취업자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였다.

고용동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림어업의 취업자수는 전년에 비해 올해에도 5.4% 줄어 들었다. 광공업 전반과 제조업은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취업자수 감소가 연중 이어져 전년도보다 2.0% 줄어 들었다. 건설업의 취업자수도 3.7% 증가하여 전년도 성장률인 6.7%에 비하여 거의 반으로 증가세가 감소하였다. 공공 및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96년에 4.7% 증가하여 전년도의 증가율 5.2%에는 못미쳤으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이와같은 타산업의 고용저조와 공공 서비스업의 고용호조로 총취업자 가운데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의 64.0%에서 65.8%로 높아졌다.

〈표 1-1-9〉

취업자수와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90	'93	'94	'95	'96	구성비
경제활동인구	18,539	19,803	20,326	20,797	21,188	-
취업자수	18,085	19,253	19,837	20,377	20,764	100.0
- 농림어업	3,237	2,828	2,699	2,541	2,405	11.6
- 광공업	4,990	4,704	4,735	4,799	4,701	22.6
- SOC기타서비스업	9,858	11,721	12,403	13,037	13,657	65.8
실업률	2.4	2.8	2.4	2.0	2.0	-

자료: 한국은행

(2) 임금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년의 11.2%에 비하여 더 높아진 11.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가 전년에 이어 안정되어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의 6.4%에 비하여 다소 높은 6.6%를 기록하였다. 임금수준은 1/4 분기에 전년의 경기 오름세가 이어져 13.7%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후 2/4분기에는 경기하강에 따른 초과근무시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10.3%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3/4분기 이후에는 12%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이 지속되었다.

산업별로는 '96년 6월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 이후 통신업에서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운수·창고·통신업의 임금상승률이 더욱 높아졌고,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임금상승세가 거의 연중 지속되었다. 그러나 금융보험부동산업의 임금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8% 수준에 머물렀으며, 건설업도 하반기에 부진을 면하지 못하여 9%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4분기에 5건에 그쳐 전년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이후 전년동기와 비슷한 건수의 분규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분규발생으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 차질액은 각각 전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라. 경상수지와 환율

'96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의 악화로 237.2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어 적자폭이 전년의 89.5억달러에 비하여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수지가 외국인 주식투자, 국내기업의 외화증권 발행 등에 의한 큰 폭의 순도입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수지는 '91년이후 처음으로 57.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1) 무역수지

무역수지 적자폭은 152.8억달러로 전년의 47.5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수출이 반도체 등 수출주력제품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4.1% 증가에 머물렀음에도 수입은 1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수출물량 증가율은 19.0%로 수입물량 증가율 11.7%를 상회하였으나 가격면에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보다 105억달러 증가하였다.

수출단가의 하락은 반도체, 화공품 등 중화학공업제품 가격하락에 의해 주도되었다. 수입단가는 곡물과 원유의 수입단가가 강세를 보였으나 자본재의 수입단가가 기계류,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하락함에 따라 소폭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출입 단가의 변동으로 순상품 교역조건이 전년보다 12.5% 악화되어 '95년이래 2년 연속 악화 추세를 나타내었다.

<표 1-1-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단위: 10억달러)

구 분	'90	'93	'94	'95	'96
경 상 수 지	△2.2	0.4	△4.5	△8.9	△23.7
- 무역 수 지	△2.0	1.9	△3.1	△4.7	△15.3
· 수 출	63.1	80.9	93.7	123.2	128.3
· 수 입	65.1	79.1	96.8	127.9	143.6
- 무역외 수지	△0.5	△2.0	△2.0	△3.6	△7.7
· 순이전거래	0.3	0.5	0.6	△0.6	△0.8
· 장기자본수지	0.6	8.9	5.9	7.8	11.8
· 기초수지	△1.6	9.3	1.3	△1.1	△11.9
· 단기자본수지	3.3	△2.0	3.2	5.6	5.4
오 차 와 누 락	△2.0	△0.7	△1.7	△1.4	0.7
종 합 수 지	△0.3	6.5	2.8	3.0	△5.7

자료: 한국은행

(가) 수 출

'96년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297.2억달러를 기록하여 '9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는 의류, 신발류 등 일부 경공업 제품과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그동안 수출증가를 주도해왔던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이 전년대비 0.9% 증가한 887.4억달러에 그침으로써 총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70.3%에서 68.4%로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자동차가 각각 71.3억달러와 114.6억달러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금속제품과 전자제품은 각각 73.0억달러와 244.2억달러로 전년에 비하여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엔화 약세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중국 및 중남미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전년보다 낮은 15.6% 증가에 그쳤다. 대개도국 수출비중은 55.8%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수출시장 다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결과이다.

신시장 개척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과 동유럽에 대한 수출은 그 비중이 2.1%와 1.6%로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50%를 상회하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낸 점이 특기할만 하다.

(나) 수 입

'96년중 통관기준에 의한 수입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503.4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6년 경기가 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통신설비, 컴퓨터 등 정보화시설과 하역기계 등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원유수입과 소비재 수입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입을 품목별로 보면 자본재가 전년대비 10.0%, 원자재가 10.2% 증가하여 전체 수입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소비재 수입도 전년보다 2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입 중 자본재와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2%, 49.6%를 나타내었으며 소비재의 비중은 11.3%로 전년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입을 보면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은 정밀기기, 유무선통신기기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7.8%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와 사무기기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조금 상승하여 34.4%에 이르렀다.

(2) 무역외 수지

'96년중 무역외수지는 76.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운수 관련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광고선전비, 각종 수수료 등의 지급이 늘어나 전년에 균형을 이루었던 기타 용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무역외수입은 해운수입 증가세의 둔화, 여행수입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한데 그쳤으며, 무역외수입이 경상수입(상품수출+무역외수입+이전수입)에서 차지한 비중도 '95년보다 하락한 18.8%를 기록하였다. 반면, 무역외지급은 해외운항경비, 여행경비, 광고선전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4.4% 늘어나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상지급(상품수입+무역외지급+이전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다소 높은 20.5%를 기록하였다.

'96년중 이전수지는 전년에 이어 7.6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었다. 이전수지는 '95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96년중 적자폭이 확대됨으로써 적자기조로 전환되었다. 이전수지의 적자 전환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외환자유화가 확대됨으로써 해외로의 개인송금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3) 환 율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95년 8월 이후 절하세로 반전하였고 '96년 6월 이후 절하 속도가 빨라져서 연말까지 이어졌다. 이는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달러화 강세는 미국경제의 호조와 강한 달러를 원하는 미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달러화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과 국내경기 및 증시 약화에 따른 외환유입 둔화도 달러환율 상승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가 대폭적인 약세를 지속함에 따라 '96년중 3.1% 절상되었으며, 대마르크화 환율은 '96년 전반기의 절상추세가 후반기에 절하추세로 반전되어 전체적으로는 0.7%의 소폭 절하를 나타냈다.

2. 해외 경제동향

가. 경제성장과 고용

(1) 경제성장률

'96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남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연평균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는 '95년 수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체제전환국 경제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던 것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유럽연합 경제가 부진하였으나 미국과 일본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95년 수준보다 더 높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는 '96년초에 폭설에 따른 자연재해와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 GM 파업 등 경기불안정 요인들이 나타났으나, 연방준비은행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활기를 띠어 2.4%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일본 경제는 14조엔이 집중 투자된 공공사업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년보다 2.2% 포인트 늘어난 3.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또한 재해복구 노력과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주택자금대출 비용의 감소가 민간주택건설 투자에 활력을 더함으로써 경기 오름세를 부추겼다.

'95년 하반기부터 침체되기 시작한 유럽연합 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금리인하 조치와 달러에 대한 환율의 평가절하로 수출이 늘어

나면서 '96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1/4분기와 2/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전체 경제 성장률은 1.6%에 머물렀다.

개도국 경제는 '93~'94년 사이 6%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95년에 6.0%로 조금 주춤하더니, '96년에는 6.5%를 기록하여 회복세에 올라섰다. ASEAN 경제는 '96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국제가격 하락과 선진국의 수입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그리고 경기과열로 인한 일부국의 긴축정책 채택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은 빠른 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적정 성장을 위한 긴축정책을 견지하고 있어 '96년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졌다.

'95년에 멕시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중남미 경제는 '95년말부터 물가안정과 수출증가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특히, '9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이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체제전환국 경제는 0.1%의 성장률을 기록, 오랜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하였다. 러시아 경제는 성공적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부족, 재정적자,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96년에도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표 1-1-1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90	'93	'94	'95	'96
전 세계	2.7	2.7	4.1	3.7	4.0
선진국	2.7	1.2	2.8	2.5	2.5
- 미국	1.3	2.3	3.5	2.0	2.4
- 일본	5.1	0.1	0.6	1.4	3.6
- 유럽연합	3.0	△0.5	2.9	2.5	1.6
개도국	4.0	6.5	6.8	6.0	6.5
아시아 NIEs	7.7	5.9	6.8	7.4	6.9
체제전환국	△3.6	△6.3	△6.7	△0.8	0.1

주: IMF 추정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5.

(2) 고용

'96년 선진국 고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진국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7.3%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미국 실업률도 전년 수준과 비슷한 5.4%를 나타내 2년 연속 '9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였다. '96년 들어 일본 경제는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이 정체상태를 보여 실업률은 오히려 전년의 3.1%보다 조금 오른 3.3%를 기록 하였다. 유럽연합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전년 수준보다 높은 11.3%를 기록하여 여전히 고실업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실업률은 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임시직과 시간제 고용의 확대, 자영업 장려정책 등의 결과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

<표 1-1-12>

선진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90	'93	'94	'95	'96
선진국	5.9	7.7	7.6	7.3	7.3
- 미국	5.6	6.9	6.1	5.6	5.4
- 일본	2.1	2.5	2.9	3.1	3.3
- 유럽연합	8.1	11.1	11.6	11.2	11.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5.

나. 교역과 경상수지

(1) 교역

'96년 세계교역(물량기준) 증가율은 5.6%를 기록하여 전년의 9.2%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진국은 수출과 수입, 개도국은 수입 증가율에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선진국은 유럽연합의 경제부진에 따라 전체적으로 무역 신장률이 떨어졌고, 개도국은 경제성장의 뒷받침으로 활발한 교역을 유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교역제품들이 설비확대와 선진국의 수입수요 둔화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국제가격이 떨어져 세계 교역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96년 선진국의 수입은 5.3%의 비교적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자본재와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떨어졌고 달러화의 평가절상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들었다. 일본은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엔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소비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내수 전환, 그리고 낮은 가격의 소비재 수입감소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떨어졌다. 유럽연합은 전체적인 경기부진으로 산업생산이 줄고 기업의 설비투자 수준이 낮아지면서 역내외 교역 모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더욱이 달러화의 강세는 수입금액 규모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

개도국의 수입은 전년 수준보다 낮은 8.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SEAN은 여전히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내림세였다. 이는 현지에 들어선 외국기업들의 생산이 차츰 커지면서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고, 자본재와 원자재 중심의 수입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정책과 대만과 확대된 긴장관계의 영향으로 인근 국가와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표 1-1-13>

세계무역 신장률과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억달러)

구 분	'90	'93	'94	'95	'96
세 계 무 역	5.5	4.1	9.2	9.2	5.6
선진국 수출	6.7	3.4	8.9	8.4	5.0
수입	5.7	1.8	9.7	8.7	5.3
개도국 수출	6.7	7.1	12.4	11.2	15.3
수입	5.9	8.8	7.2	11.6	8.3
교역조건					
선진국	△0.4	1.1	-	-	△0.1
개도국	1.8	△1.7	0.4	2.0	0.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5.

(2) 경상수지

'96년 선진국의 경상수지는 '95년 214억달러에서 크게 떨어진 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1,6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적자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더욱 불어났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95년에 1,114억달러의 흑자에서 '96년에 658억 달러로 약 40%나 흑자 폭이 떨어졌다. 이에 반하여 유럽연합의 경상수지는 '96년에 86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수준보다 52% 이상 늘어났다. 한편, 개도국은 '94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어 '96년에 98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1-14>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구 분	'90	'93	'94	'95	'96
선진국	△965	525	△83	214	60
미국	△947	△999	△1,484	△1,482	△1,651
일본	358	1,320	1,306	1,114	658
유럽연합	△315	112	259	573	869
개도국	△240	△1,167	△870	△933	△98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5.

다. 물가

'96년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지속하여 '95년 2.6%보다 조금 낮은 2.4%를 기록하였다. 이는 각국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여 알맞은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잇따른 고실업률로 임금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상반기에 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았으나 의류를 비롯한 소비재 가격이 떨어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95년 상반기에 엔화의 초강세 영향으로 마이너스 0.1%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던

일본은 '96년에도 임금 안정으로 0.1%의 물가상승률에 머물렀다. 유럽 연합의 경우, 물가안정이 통화통합의 충족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은 전년의 3.0%보다 낮아진 2.5%를 나타냈다.

〈표 1-1-15〉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구 분	'90	'93	'94	'95	'96
선진국	5.2	3.1	2.6	2.6	2.4
미국	5.4	3.0	2.6	2.8	2.9
일본	3.1	1.2	0.7	△0.1	0.1
유럽연합	5.4	3.8	3.0	3.0	2.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7. 5.

제 2 절 농촌경제 동향

1. 농업구조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96년말 현재 총농가수는 1,480천호이고, 농가인구는 4,692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21천호(1.4%), 농가인구는 159천명(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현황

구분	단위	'90	'95	'96	전년대비		6개년('90~'96) 평균증감률(%)	
					증감	증감률(%)		
농가호수	천호	1,767	1,501	1,480	△21	△1.4	△2.9	
농가인구 (총인구 비중)	천명 (%)	6,661 (15.5)	4,851 (10.9)	4,692 (10.3)	△159	△3.3	△5.7	
호당 농가인구	명	3.77	3.23	3.17				
연령별 농가 인구	50세 이상 (구성비)	천명 (%)	2,298 (34.5)	2,122 (43.7)	2,173 (46.3)	51	2.4	△0.9
	50세 미만 (구성비)	천명 (%)	4,363 (65.5)	2,729 (56.3)	2,519 (53.7)	△210	△7.7	△8.7
성별 농가 인구	남자 (구성비)	천명 (%)	3,279 (49.2)	2,373 (48.9)	2,263 (48.2)	△110	△4.6	△6.0
	여자 (구성비)	천명 (%)	3,382 (50.8)	2,478 (51.1)	2,429 (51.8)	△49	△2.0	△5.4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농가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10.3%로 일본의 12.0%('95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농가인구에 있어서는 50세 미만의 농가인구가 '95년도에 비해 7.7%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의 농가인구는 2,173천명으로 '95년도의 2,122천명보다 2.4% 증가하여 고령 농가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비율은 남자가 48.2%, 여자가 5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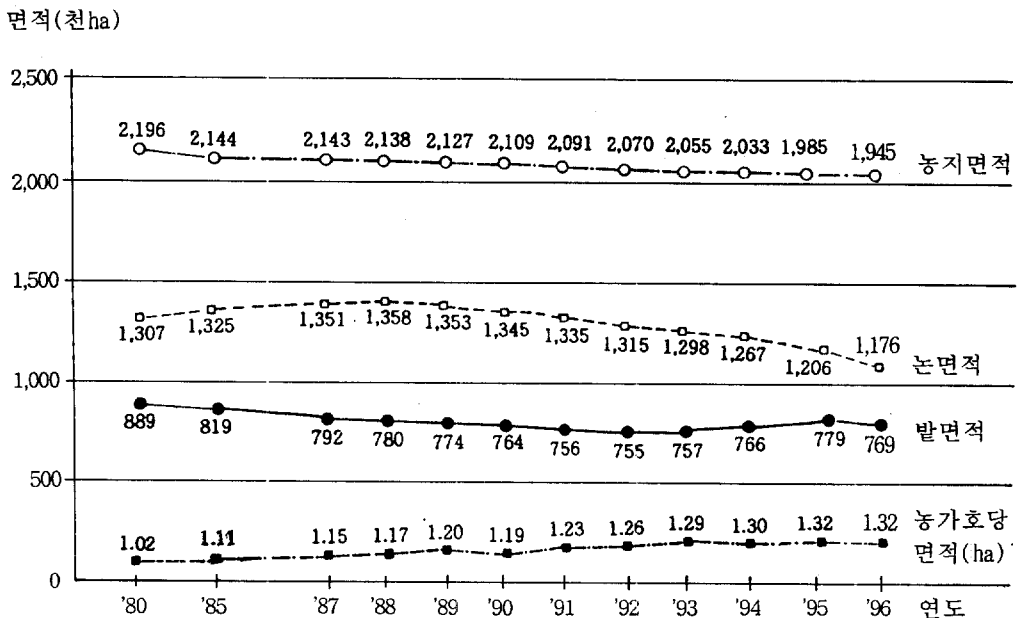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 면적이 크게 증가되고 유희지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5년간 해마다 연평균 29.1천ha씩 줄고 있다.

'96년말의 경지면적은 '95년보다 40천ha 줄어든 1,945천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논은 전년에 비하여 30천ha 감소한 1,176천ha이고, 밭은 10천ha 감소한 769천ha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의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건물·건축용 16.8천ha, 공공시설용 6.6천ha, 기타사유 28.5천ha로 총 51.9천ha 감소하였으며, 개간·간척 9.4천ha, 복구 등 2.7천ha로 총 12.1천ha 증가하였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 추이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표 1-1-17>

경지증감 사유별 면적

(단위 : 천ha)

	증 감	증 가				감 소				
		계	개간	간척	복구	계	건물 건축	공공 시설	유희지	기타
'90	△17.9	3.9	1.9	1.2	0.8	21.8	9.8	4.8	3.5	3.7
'91	△17.9	5.4	1.3	3.3	0.8	23.3	8.9	5.0	5.7	3.7
'92	△20.9	5.0	1.0	1.4	2.6	25.9	8.4	4.8	7.4	5.3
'93	△15.1	10.0	2.1	5.0	2.9	25.1	7.8	4.5	9.2	3.6
'94	△22.1	9.9	4.9	3.5	1.5	32.0	11.2	6.5	10.0	4.3
'95	△47.5	15.6	5.1	9.0	1.5	63.1	24.7	11.2	17.9	9.3
'96	△39.8	12.1	8.9	0.5	2.7	51.9	16.8	6.6	20.3	8.2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96년의 경지 이용면적은 2,142천ha로 전년보다 55천ha가 감소하였으며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8.1%에서 107.9%로 낮아졌다. 경지 이용 면적의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이 6천ha 감소하고,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도 전년보다 49천ha가 감소했다. 휴경면적은 34.3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30.3천ha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휴경지 생산화에 기인한 것이다.

<표 1-1-18>

농경지 이용 추이

(단위 : 천ha)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경지이용면적	2,409	2,332	2,261	2,285	2,205	2,197	2,142
식 량 작 물	1,669	1,563	1,478	1,467	1,403	1,346	1,340
- 미 곡	(1,244)	(1,208)	(1,157)	(1,136)	(1,103)	(1,056)	(1,050)
- 맥 류	(160)	(127)	(103)	(117)	(85)	(90)	(95)
- 두 류 등	(265)	(228)	(218)	(214)	(215)	(200)	(195)
경 제 작 물	740	769	783	818	802	851	802
- 채 소	(277)	(299)	(306)	(378)	(303)	(322)	(311)
- 과 수	(132)	(137)	(146)	(154)	(161)	(172)	(171)
- 기 타 ¹⁾	(331)	(333)	(331)	(286)	(338)	(357)	(320)
경 지 면 적	2,109	2,091	2,070	2,055	2,033	1,985	1,945
경지이용률(%)	113.3	110.6	108.1	110.4	107.3	108.1	107.9
- 논	(107.7)	(105.4)	(103.4)	(105.5)	(102.5)	(104.1)	(106.1)
- 밭	(123.1)	(119.7)	116.4	(118.9)	(115.7)	(114.7)	(110.7)

주 : 1) 특·약용작물, 시설작물, 과수원, 병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2. 농가경제

가. 농가소득

'96년도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3,298천원이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은 한육우의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조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곡생산량 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미곡조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채소, 과수등의 조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5% 증가한 10,83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외소득은 상업 및 서비스업의 수입증가와 기타 노임, 임대료, 배당이자 등 사업외의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8.0% 증가한 7,487천원이었다. 이전수입은 축조의금 등 피증보조금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3.0% 증가한 4,974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9〉

농가소득의 구성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90	'93	'94	'95	'96	중 감 륜		
						'94	'95	'96
농 가 소 득	11,026	16,928	20,316	21,803	23,298	20.0	7.3	6.9
농 업 소 득	6,264	8,427	10,325	10,469	10,837	22.5	1.4	3.5
농 외 소 득	2,841	5,040	6,184	6,931	7,487	22.7	12.1	8.0
(비 중)	(25.8)	(29.8)	(30.5)	(31.8)	(32.1)			
이 전 수 입	1,921	3,461	3,807	4,403	4,974	10.0	15.7	13.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을 보면 0.5~1.0ha를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20,031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86.0% 수준에 불과하며, 5.0ha 이상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35,584천원으로 평균농가소득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5ha 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은 55.4%에 달하며 5.0ha이상 농가의 경우 농외소득 비중은 13.8% 수준으로 나타나, 영농규모가 커질수록 순수 농업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소득	23,298	21,370	20,031	22,688	26,074	28,691	32,806	35,584
농업소득	10,837	4,342	7,143	11,645	15,006	18,209	21,735	27,302
농외소득	7,487	11,841	7,854	5,982	5,185	4,965	6,185	4,916
(비 중)	(32.1)	(55.4)	(39.2)	(26.4)	(19.9)	(17.3)	(18.9)	(13.8)
이전수입	4,974	5,187	5,034	5,061	5,883	5,517	4,886	3,367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지대별 농가소득을 보면 도시근교와 평야는 평균보다 높고 중간과 산간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외소득 비중은 도시근교가 44.5%로 가장 높고 산간이 24.4%로 가장 낮았다.

<표 1-1-21>

지대별 농가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농가소득	23,298	25,746	25,818	23,281	20,390
농업소득	10,837	8,919	12,859	11,174	10,085
농외소득	7,487	11,457	7,737	7,269	4,982
(비 중)	(32.1)	(44.5)	(30.0)	(31.2)	(24.4)
이전수입	4,974	5,370	5,222	4,838	5,32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1) 농업소득

(가) 농업조수입

'96년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조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17,284

천원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곡은 단보당 생산량의 증가와 정부수매가의 인상 및 농가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9.3% 증가한 7,049천원이었다(조수입중 미곡의 비중은 40.8%로 전년보다 6.8%포인트 증가함). 채소류에 있어서 마늘, 수박, 토마토 등은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양파, 참외, 김장무·배추, 오이 등의 가격상승과, 고추, 김장무·배추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사과, 포도, 감 등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사과, 배, 밀감 등 과실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8.0% 증가하였다. 축산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호당사육 두수는 증가하였으나 돼지를 제외한 소, 닭의 가격하락으로 전년대비 22.5% 감소하였다.

〈표 1-1-22〉

농업소득의 구성 추이

(단위 : 천원, %)

	'94		'95		'96		증감률 ('96/'95)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업소득	10,325		10,469		10,837		3.5
○농업조수입	15,347	100.0	16,012	100.0	17,284	100.0	7.9
미곡	5,599	36.5	5,450	34.0	7,049	40.8	29.3
채소	3,192	20.8	3,386	21.2	3,808	22.0	12.5
특용작물	947	6.2	805	5.0	733	4.2	△8.9
과수	1,474	9.6	1,542	9.6	1,666	9.6	8.0
축산	3,419	22.3	3,981	24.9	3,085	17.9	△22.5
기타	716	4.6	848	5.3	943	5.5	11.2
○농업경영비	5,022	100.0	5,543	100.0	6,447	100.0	16.3
비료비	326	6.5	345	6.2	377	5.8	9.3
농약비	334	6.7	350	6.3	389	6.0	11.1
농구비	733	14.6	808	14.6	916	14.2	13.4
양축비	1,087	21.6	1,261	22.8	1,604	24.9	27.2
노임	409	8.1	441	8.0	489	7.6	10.9
임차료및수리비	1,020	20.3	1,099	19.8	1,289	20.0	17.3
기타	1,113	22.2	1,239	22.3	1,383	21.5	11.6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나) 농업경영비

농업경영비는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농기계 보유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경상수리비의 증가와 노임과 농지임차료, 비료, 농약, 사료비 등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6.3% 증가하였다.

<표 1-1-23>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ha 이상
농업소득(A)	10,837	4,342	7,143	11,645	15,006	18,209	21,735	27,302
농업조수입(B)	17,284	9,503	11,262	17,955	23,585	29,090	35,832	51,415
농업소득률(A/B)	62.7	45.7	63.4	64.9	63.6	62.6	60.7	53.1
농업경영비	6,447	5,161	4,119	6,310	8,579	10,881	14,097	24,11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표 1-1-24>

지대별 농업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업소득(A)	10,837	8,919	12,859	11,174	10,085
농업조수입(B)	17,284	15,157	21,186	18,343	15,524
농업소득률(A/B)	62.7	58.8	60.7	60.9	65.0
농업경영비	6,447	6,238	8,327	7,169	5,43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2) 농외소득

'96년도 호당평균 농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배당이자 등 사업외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8.0% 증가한 7,487천원이었다.

<표 1-1-25>

농외소득의 구성 추이

(단위 : 천원, %)

	'90	'94	'95	'96
농 외 소 득	2,841	6,184	6,931	7,487
○ 겸 업 소 득	589	1,347	1,527	1,522
- 겸 업 수 입	1,038	2,481	2,842	3,285
- 겸 업 지 출	449	1,134	1,315	1,763
○ 사 업 이 외 소 득	2,252	4,837	5,404	5,965
- 사 업 이 외 수 입	2,550	5,384	5,976	6,649
· 노 임 · 급 료	2,196	4,619	5,163	5,672
· 임 대 료 · 배 당 이 자	280	612	688	807
· 기 타	74	153	125	170
- 사 업 이 외 지 출	298	547	572	684
· 차 입 금 이 자	290	519	538	660
· 기 타	8	28	34	24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경지규모별 농외소득을 보면 농외소득 의존도가 높은 0.5ha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55.4%로 가장 높고,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외소득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농산물 가공이나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인 겸업소득도 5.0ha이상의 농가가 3,899천원으로 가장 높고 노임·급료 등 사업이외 소득은 0.5ha미만의 농가가 9,075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26>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ha 이상
농 외 소 득	7,487 (32.1)	11,841 (55.4)	7,854 (39.2)	5,982 (26.4)	5,185 (19.9)	4,965 (17.3)	6,185 (18.9)	4,916 (13.8)
겸 업 소 득	1,522	2,766	975	1,151	1,190	1,275	1,817	3,899
사 업 이 외 소 득	5,965	9,075	6,879	4,831	3,995	3,690	4,368	1,017

주 :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 비중임.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지대별 농외소득을 보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근교지역이 11,457천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중간 및 산간지대가 낮게 나타났다.

<표 1-1-27>

지대별 농외소득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 외 소 득	7,487	11,457	7,737	7,269	4,982
겸 업 소 득	1,522	2,111	1,460	1,491	1,314
사업이외소득	5,964	9,346	6,277	5,778	3,668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나. 가계비

'96년도 호당 평균 가계비는 17,039천원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하였다. 주거비와 피복 및 신발비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음식물비가 쌀값 상승과 부식비 구입가격 상승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교제증여비,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계비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앵겔계수는 전년의 21.1%에서 20.0%로 낮아졌으며, 가처분소득중 가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 성향은 전년의 68.3%에서 73.8%로 조금 증가하였다.

<표 1-1-28>

가계비 구성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94	'95	'96	증감률 ('96/'95)
가 계 비	13,334	14,782	17,039	15.3
음 식 물 비	2,998	3,118	3,411	9.4
주 거 비	1,105	1,187	1,199	1.0
피복 및 신발비	573	627	677	8.0
광 열 · 수도비	410	484	583	20.5
교육·교양오락비 (교 육 비)	1,491 (1,350)	1,703 (1,553)	1,895 (1,737)	11.3 (11.8)
교 제 증 여 비	2,949	3,450	4,478	29.8
관 혼 상 제 비	1,604	1,755	1,944	10.8
보 건 의 료 비	875	1,001	1,089	8.8
교 통 통 신 비	708	793	914	15.3
기 타	621	664	849	27.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다. 농가자산

'96년도 호당 평균 농가자산은 168,901천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평가액의 증가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물과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대농구의 평가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미곡 등 재고 농산물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3.3%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유통자산의 경우 대부금과 보험·적립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다.

〈표 1-1-29〉

농가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94	'95	'96	증감률 ('96/'95)
농 가 자 산		141,901	158,171	168,901	6.8
고 정 자 산	토 지	97,649	105,444	111,080	5.3
	건 물	16,535	19,306	21,772	12.8
	대 농 구	2,861	3,057	3,474	13.6
	대 동 물	4,400	5,539	5,162	△6.8
	대 식 물	902	988	1,177	19.1
소 계		122,347	134,334	142,665	6.2
유 동 자 산	소 동 물	201	288	264	△8.3
	재 고 농 산 물	3,698	3,647	4,590	25.9
	재고 생산 자재	174	163	198	21.5
	소 계	4,073	4,098	5,052	23.3
유 통 자 산	현 금	381	330	381	15.5
	예 금 · 저 금	11,344	15,403	15,703	1.9
	대 부 금	1,394	1,306	2,205	68.8
	보험·적립금	1,445	1,749	1,890	8.1
	기 타	917	951	1,005	5.7
소 계		15,481	19,739	21,184	7.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라. 농가부채

'96년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11,734천원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하였다.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토지, 건물, 대동물 구입과 겸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 생산성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생산성부채 증가율 : 24.6%) 또한 교육비, 가계생활비, 관혼상제비용 등 가계성 부채와 채무상환용 부채도 전년대비 각각 31.4%, 57.9% 증가하였다.

농가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을 보면 토지구입, 건물의 신·증축, 대농구 구입비 등과 겸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 생산성부채가 77.9%를 차지하고 가계성 부채 및 채무상환용 부채는 각각 12.4%, 9.7%로 나타났다.

<표 1-1-30>

용도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90	'94	'95	'96	증감률 ('96/'95)
농 가 부 채		4,734	7,885	9,163	11,734	28.1
생 산 성	토 지 · 건 물	1,202	2,933	3,810	4,564	19.8
	대 동 물	284	471	576	596	3.5
	농 기 계	722	1,327	1,263	1,352	7.0
	단기영농비등	938	1,459	1,682	2,624	56.0
	소 계	3,146	6,190	7,331	9,136	24.6
가 계 성	교 육 비	210	237	231	273	18.2
	생 활 비	601	603	674	993	47.3
	관혼상제비	204	215	205	192	△6.3
	소 계	1,015	1,055	1,110	1,458	31.4
채 무 상 환 용		573	640	722	1,140	57.9
비 중	생 산 성	66.5	78.5	80.0	77.9	-
	가 계 성	21.4	13.4	12.1	12.4	-
	채 무 상 환 용	12.1	8.1	7.9	9.7	-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전년 대비 31.4% 증가한 10,992천원으로 전체 부채중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차입 부채는 전년대비 7.1%가 감소한 742천원으로 6.3%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부채의 차입구조면에서는 건전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31〉

차입처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90	'94	'95	'96
금 용 기 관 (농 협)	4,078 (3,858)	7,288 (6,613)	8,364 (7,364)	10,992 (8,500)
개 인 차 입 (비 중)	656 (13.9)	597 (7.6)	799 (8.7)	742 (6.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전혀없는 농가는 전년의 19.5%에서 18.9%로 낮아졌으며, 5,000만원이상 고액부채 농가는 전년의 3.6%에서 5.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부채의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토지, 건물, 대동물, 대농구, 겸업자금, 재산적 지출 등 생산성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1-32〉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현황

(단위 : %)

구 분	'94		'95		'96	
	분 포	누적분포	분 포	누적분포	분 포	누적분포
부채없는 농가	18.6	18.6	19.5	19.5	18.9	18.9
200만원 미만	16.9	35.5	17.6	37.1	18.2	37.1
200 ~ 400	14.1	49.6	13.3	50.4	11.1	48.2
400 ~ 600	10.4	60.0	9.2	59.6	7.2	55.4
600 ~ 800	6.5	66.5	5.5	65.1	5.3	60.7
800 ~ 1,000	4.9	71.4	4.5	69.6	3.7	64.4
1,000 ~ 2,000	15.8	87.2	15.3	84.9	14.8	79.2
2,000 ~ 3,000	6.0	93.2	6.3	91.2	8.3	87.5
3,000 ~ 4,000	3.4	96.6	3.2	94.4	4.0	91.5
4,000 ~ 5,000	1.7	98.3	2.0	96.4	3.0	94.5
5,000만원 이상	1.7	100.0	3.6	100.0	5.5	100.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가부채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0.5~1.0ha 경작농가의 부채는 8,613천원으로 평균의 73.4% 수준이며, 5.0ha이상 경작농가의 부채는 평균부채의 3.5배 수준에 해당하는 41,433천원이다. 이는 호당 경지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증대에 따라 부채의 절대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33〉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부채	11,734	9,572	8,613	10,733	14,944	16,883	27,485	41,433	
차입처별	금융기관 (비중)	10,992 (93.7)	8,594 (89.8)	8,063 (93.6)	10,255 (95.5)	14,139 (94.6)	16,199 (95.9)	26,103 (95.0)	40,397 (97.5)
	개인차입	742	978	550	478	805	684	1,382	1,036
용도별	생산성 (비중)	9,136 (77.9)	7,025 (73.4)	6,439 (74.8)	8,316 (77.5)	11,685 (78.2)	13,565 (80.3)	21,961 (79.9)	38,473 (92.9)
	가계성 (비중)	1,458 (12.4)	1,320 (13.8)	1,249 (14.5)	1,508 (14.0)	1,769 (11.8)	1,818 (10.8)	2,707 (9.8)	1,553 (3.7)
	채무상환용 (비중)	1,140 (9.7)	1,227 (12.8)	925 (10.7)	909 (8.5)	1,490 (10.0)	1,500 (8.9)	2,817 (10.3)	1,407 (3.4)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자산 대 농가부채 비중은 55.4% 수준이며, 예·저금에 대한 농가부채는 74.7% 수준으로 나타나 부채 상환 능력면에서 여전히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농가자산과 부채비중 현황

(단위 : %)

구분	'90	'94	'95	'96
부채/유통자산	72.5	50.9	46.4	55.4
- 부채/예·저금	112.7	60.2	59.5	74.7
부채/농가자산	6.0	5.6	5.8	6.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마. 농가 편의용품 보유현황

농가 편의용품중 칼라TV, 냉장고, 전화, 가스렌지는 모든 농가에 보급되었으며, 자동차와 컴퓨터의 보급률도 증가하여 자동차는 2.8호당 1대꼴, 컴퓨터는 6.1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5>

농가 편의용품 보유 현황

(100호당 : 대)

구 분	'90	'94	'95	'96
칼라 TV	96.3	129.5	133.6	137.9
세탁기	37.4	77.4	81.0	85.1
냉장고	100.0	108.2	109.4	110.6
전화	98.0	99.0	99.9	100.0
가스렌지	95.4	101.7	102.6	102.6
자동차	5.0	23.7	29.6	35.5
컴퓨터	미조사	9.4	12.3	16.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전·겸업 농가별 현황을 보면 농가소득, 농업소득 및 부채는 1종겸업 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계비와 자산은 2종겸업농가, 이전 수입은 전업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36>

전·겸업 농가별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

	전업농가 (A)	1종겸업 (B)	2종겸업 (C)	대 비	
				B / A	C / A
농가소득	21,070	26,718	25,282	126.8	120.0
농업소득	13,671	16,156	4,407	118.2	32.2
농외소득	1,741	5,270	16,502	302.7	947.8
이전수입	5,658	5,292	4,373	93.5	77.3
가계비	16,034	18,425	18,442	114.9	115.0
농가자산	160,356	182,046	185,467	113.5	115.7
농가부채	12,636	17,012	10,009	134.6	79.2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가. 개 황

1996년도중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5.0% 상승하였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이보다 다소 낮은 4.7% 올라 농가교역 조건이 102.6으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호전되었다.

<표 1-1-37>

농가교역조건 연도별 추이

(1990 = 100)

구 분	1980	1985	1990	1994	1995	1996
농가판매가격지수(A)	53.3	74.1	100.0	124.3	135.6	142.4
농가구입가격지수(B)	52.8	77.3	100.0	125.2	132.6	138.8
농가교역조건 (A/B×100)	100.9	95.9	100.0	99.3	102.3	102.6

자료 : 농협중앙회

나. 농가판매가격 동향

1996년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2.4(1990=100)로 전년도의 135.6에 비해 5.0% 상승하였다. 이를 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곡 물

1996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8.0으로 맥류를 제외한 미곡(16.2%), 잡곡(7.6%), 두류(2.7%), 서류(16.0%)의 가격이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4.6% 상승하였다.

미곡은 일반미(16.1%), 참쌀(20.4%) 가격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잡곡은 옥수수(7.5%), 수수(11.6%), 조(8.6%)의 가격이 올랐다. 두류는 팥(△9.0%)을 제외한 콩(2.4%), 콩나물콩(2.3%), 녹두(41.5%) 가격이 올랐다. 서류는 고구마, 감자가 가격이 각각 26.9%, 7.1% 상승하였다.

(2) 청과물

1996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51.2로 채소가 3.9% 올랐으나 과실이 13.8% 떨어져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3.2% 하락하였다.

채소의 경우 엽채류는 양배추($\Delta 5.5\%$)와 열무($\Delta 24.6\%$) 가격은 떨어졌으나, 배추(9.4%), 시금치(55.5%), 상추(52.7%), 쪽갓(97.1%)의 가격이 올라 16.9%의 오름세를 보였다. 근채류는 당근($\Delta 3.4\%$)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무(59.8%)값이 올라 55.3% 상승하였다. 과채류 역시 수박($\Delta 18.8\%$), 토마토($\Delta 10.7\%$), 가지($\Delta 5.7\%$)의 가격은 떨어졌으나 참외(34.4%), 호박(18.3%) 가격의 강세로 3.1%의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조미채류는 양파(67.8%), 파(10.3%)의 가격은 올랐으나 마늘($\Delta 38.0\%$)이 약세를 보여 7.1% 하락하였다.

과실의 경우는 배(6.0%)와 밤(10.0%)이 오른 것을 제외하고 사과($\Delta 27.3\%$), 복숭아($\Delta 2.5\%$), 포도($\Delta 18.3\%$), 감귤($\Delta 8.2\%$), 감($\Delta 0.6\%$)의 가격이 내려 전년 대비 13.8%의 하락세를 보였다.

(3) 축산물

1996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6.5로 가축($\Delta 0.2\%$) 가격이 다소 떨어졌고 유란(1.7%)이 오르기는 했으나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가축은 한우(0.8%), 돼지(2.3%), 염소(1.3%)가 다소 오르기는 했으나 유우($\Delta 4.5\%$), 한우송아지($\Delta 3.2\%$), 유우송아지($\Delta 13.4\%$)의 가격은 떨어졌으며, 유란은 계란($\Delta 1.3\%$)이 하락한 반면 우유(3.7%), 벌꿀(0.6%)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4)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 잠견, 화훼, 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1996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2.2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용작물은 참깨($\Delta 2.9\%$), 들깨($\Delta 5.0\%$), 땅콩($\Delta 3.5\%$) 가격이 내렸으나 인삼(4.1%), 표고버섯(44.8%), 느타리버섯(24.5%)이 올라 지난해에 비해 5.8% 상승한 반면, 화훼류는 국화(4.0%)가 다소 오르기는 했으나 장미($\Delta 13.0\%$), 안개꽃($\Delta 11.9\%$) 가격이 내려 9.0% 하락하였다. 이밖에 잠견과 부산물(벚짚)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7%, 0.2% 상승하였다.

< 표 1-1-38 >

유별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990=100)

구 분	가중치	1995			1996		
		지 수	동락률 (%)	기여도 (%포인트)	지 수	동락률 (%)	기여도 (%포인트)
총 지 수	1000.0	135.6	9.1	9.091	142.4	5.0	5.015
곡 물	414.9	129.2	9.5	3.738	148.0	14.6	5.752
- 미 곡	362.7	126.2	9.3	3.122	146.6	16.2	5.457
- 맥 류	21.5	129.9	0.0	0.000	129.9	0.0	0.000
- 잡 곡	5.8	155.7	45.5	0.227	167.6	7.6	0.051
- 두 류	14.1	175.7	15.8	0.272	180.5	2.7	0.050
- 서 류	10.8	153.9	10.9	0.131	178.5	16.0	0.196
청 과 물	252.2	156.2	10.2	2.942	151.2	△3.2	△0.930
- 채 소	162.5	143.2	12.5	2.113	148.8	3.9	0.682
- 과 실	87.0	180.8	6.9	0.819	155.8	△13.8	△1.604
축 산 물	282.3	126.5	9.5	2.498	126.5	0.0	0.000
- 가 축	248.1	127.4	9.9	2.295	127.2	△0.2	△0.037
- 유 란	34.2	119.8	6.1	0.190	121.8	1.7	0.050
기타농산물	50.6	135.5	△1.5	△0.085	142.2	4.9	0.250
- 특용작물	44.6	138.4	△2.5	△0.126	146.4	5.8	0.263
- 잠 견	2.4	109.2	0.0	0.000	112.2	2.7	0.005
- 화 껍	2.1	128.3	20.2	0.036	116.7	△9.0	△0.018
- 부 산 물	1.5	100.0	3.3	0.004	100.2	0.2	0.000

자료 : 농협중앙회

다. 농가구입가격 동향

1996년 농가구입가격지수(1990=100)는 138.8로 지난해의 132.6에 비해 4.7%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1996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51.6으로 식료품을 비롯한 피복비, 주거비, 가계광열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가 모두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6.8% 상승하였다.

식료품은 쌀, 밀가루 등 곡류(13.1%)와 무, 배추, 상추 등 채소류(10.3%), 두부, 라면 등 가공식품(7.1%) 등이 올라 2.6%의 상승세를 보였다.

보건의료비는 입원료 및 진찰료 등 병원비(15.8%)와 한의원이용비(10.4%)가 올라 11.9% 상승하였다.

교육교양오락비도 전년대비 11.0% 상승하였는데 납입금 등 교육비(11.3%)와 월간잡지 등 신문도서비(27.8%)가 다소 큰 폭으로 올랐다.

교통통신비는 기차요금(12.4%), 시외버스료(9.1%), 우편료(11.1%) 등이 올라 7.0% 상승하였으며, 피복비, 주거비, 가계광열비, 미용위생 등 기타 잡비는 각각 3.2%, 0.9%, 4.0%, 4.6%의 오름세를 보였다.

(2) 농업용품

1996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5.7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다.

이 가운데 석유(13.9%), 경유(16.9%), 휘발유(3.8%) 등 영농 광열비가 다소 많이 올라 12.5%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종자는 0.7%, 비료 0.3%, 농약 2.1%, 농기구 0.6%, 사료 4.5%, 영농자재는 2.1%씩 각각 올랐다.

반면 가축은 새끼돼지(1.2%), 병아리(13.1%)를 제외한 한우(Δ 1.5%), 송아지(Δ 3.2%), 유우송아지(Δ 12.5%) 가격이 내려 전년에 비해 2.7% 하락하였다.

<표 1-1-39>

유별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90=100)

구 분	가중치	1995			1996		
		지 수	등락률 (%)	기여도 (%포인트)	지 수	등락률 (%)	기여도 (%포인트)
총 지 수	1000.0	132.6	5.9	5.911	138.8	4.7	4.676
가 계 용 품	539.9	142.0	6.0	3.450	151.6	6.8	3.909
- 식 료 품	102.0	141.0	6.2	0.668	144.7	2.6	0.285
- 피 복 비	47.2	151.0	3.3	0.181	155.9	3.2	0.174
- 주 거 비	55.5	113.5	△1.6	△0.084	114.5	0.9	0.042
- 가계광열비	30.4	111.1	1.0	0.027	115.5	4.0	0.101
- 보건의료	71.3	121.4	5.7	0.370	135.8	11.9	0.774
- 교육교양오락	133.1	161.2	11.1	1.712	179.0	11.0	1.787
- 교통통신	62.4	170.7	6.2	0.493	182.6	7.0	0.560
- 기타잡비	38.0	124.5	2.4	0.088	130.2	4.6	0.163
농 업 용 품	369.8	115.3	6.5	2.068	115.7	0.3	0.112
- 종 자	15.5	148.4	1.8	0.032	149.5	0.7	0.013
- 비 료	31.7	108.7	3.2	0.086	109.0	0.3	0.007
- 농 약	26.9	114.3	1.1	0.026	116.7	2.1	0.049
- 농 기 구	75.7	79.4	1.0	0.048	79.9	0.6	0.029
- 영농광열	7.9	116.9	△1.0	△0.008	131.5	12.5	0.087
- 가 축	116.9	143.6	13.1	1.550	139.7	△2.7	△0.344
- 사 료	68.9	105.5	4.6	0.253	110.3	4.5	0.249
- 영농자재	26.3	107.0	3.5	0.076	109.2	2.1	0.044
농촌임료금	90.3	147.7	4.2	0.433	157.4	6.6	0.661
- 농업노동	40.7	179.4	6.8	0.374	196.6	9.6	0.528
- 기타임금	3.4	183.1	3.6	0.017	194.3	6.1	0.029
- 도 정 료	14.8	113.3	1.2	0.015	117.3	3.5	0.045
- 농기계임차료	31.4	119.1	0.9	0.028	121.6	2.1	0.059

자료 : 농협중앙회

(3) 농촌임료금

1996년도 농촌임료금지수는 157.4로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6.6% 상승하였다. 이 중 농업노동임금은 남자, 여자 각각 8.8%, 10.8%

올랐는데 남자의 경우는 급식물평가액을 포함하여 하루 3만 6,156원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2만 6,349원이었다.

목수와 미장이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 임금도 6.1% 상승하였는데 목수와 미장이의 하루 임금은 급식물평가액을 포함하여 각각 7만 1,934원, 7만 44원이었다.

한편 쌀도정료는 전년대비 3.5% 상승하였으며, 농기계임차료는 경운기(4.1%), 트랙터(2.6%), 이앙기(3.7%) 등이 올라 2.1%의 상승세를 보였다.

〈표 1-1-40〉

연도별 농촌임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포함)

구 분		1980	1985	1990	1994	1995	1996
농업노임	남자	6,509	9,695	18,563	31,313	33,237	36,156
	여자	4,841	6,940	13,224	22,041	23,791	26,349
기타임금	목 수	13,185	19,130	37,059	64,789	67,221	71,934
	미장이	12,612	18,205	36,014	64,568	66,792	70,044

자료 : 농협중앙회

4. 농림어업 부가가치

'96년도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한 농림어업의 실질부가가치는 17조 5,829억원으로 전년의 16조 9,865억원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15조 234억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농업서비스를 제외한 재배업과 축산업에서 모두 3% 이상 성장해 농업부문내에서 균형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축산부문은 '95년도에 9.7%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96년도에도 3.7%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농업부문 성장을 주도하였다.

임업은 전년대비 1.8%의 성장에 그쳤으나, 어업부문의 부가가치는 2조 161억원으로 전년대비 5.4% 성장해 '96년도 농림어업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1-1-41>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10억원 <1990년 불변>)

구 분	'90	'93	'94	'95	'96	증감률(%) (전년대비)
농림어업	15,592.4 (15,592.4)	16,122.6 (18,832.5)	16,380.4 (21,498.3)	16,986.5 (23,012.9)	17,582.9 (24,476.7)	3.5
농업	13,264.7	13,649.9	13,792.6	14,540.8	15,023.4	3.3
- 재배업	11,700.9	11,709.1	11,909.1	12,493.3	12,902.6	3.3
- 축산업	1,323.8	1,694.9	1,630.9	1,787.9	1,854.6	3.7
- 농업서비스	237.0	245.9	252.6	259.6	266.3	2.6
임업	648.2	531.2	573.6	533.5	543.4	1.8
어업	1,682.6	1,941.5	2,014.2	1,912.2	2,016.1	5.4

주: ()은 경상가격
자료: 한국은행

농림어업 구조를 보면 최근 들어 농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94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재배업의 비중 변화가 큰 특징이다. 어업과 임업이 농림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년에 각각 10.0%, 3.8%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표 1-1-42>

농림어업 구조 추이

(단위: 10억원, %)

구 분	'90	'93	'94	'95	'96
농림어업	15,592.4 (100.0)	18,832.5 (100.0)	21,498.3 (100.0)	23,012.9 (100.0)	24,476.7 (100.0)
농업	85.1	84.5	83.8	85.5	86.2
- 재배업	75.0	74.2	73.0	73.7	75.3
- 축산업	8.5	8.7	9.4	10.3	9.4
- 농업서비스	1.5	1.5	1.5	1.5	1.5
임업	4.2	4.3	4.1	3.9	3.8
어업	10.8	11.2	12.1	10.6	10.0

주: 경상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5. 농업 생산성

'96년도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요소를 보면 노동시간은 호당 1,293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83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영농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도작을 비롯한 영농작업에서 농업기계화가 광범위하게 진전되어 노동을 대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호당 농업자본투자액은 25,707천원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다.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의 135.4a에서 1.2a 늘어난 136.6a였다.

〈표 1-1-43〉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추이

구 분	단 위	'91	'92	'93	'94	'95	'96
영 농 시 간	시 간	1,398	1,367	1,447	1,396	1,376	1,293
농업자본액	천 원	11,984	13,928	17,439	19,217	21,323	25,707
경 지 면 적	a	120.3	118.4	133.6	135.0	135.4	136.6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업노동생산성은 영농시간당 10,573원으로 전년보다 1,186원 증가했으며, 10a당 토지생산성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001천원이었다. 경지면적당 영농자본액인 자본집약도는 농업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19.5% 증가하였다.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농자본에 대한 농업부가가치로 나타낸 자본생산성은 전년의 0.61에서 0.53으로 하락하였다. 경지면적에 얼마만큼의 영농시간을 집약적으로 투입했는지를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4년 기준, '95년에 4.7% 감소한 반면 '96년에는 7.0% 감소하였다.

〈표 1-1-44〉

농업생산성 지표 추이

구 분	단위	'91	'92	'93	'94	'95	'96
노동생산성	원/시간	6,043	6,462	6,940	8,714	9,387	10,573
토지생산성	천원/10a	702	746	778	929	954	1,001
자본생산성	원/원	0.70	0.63	0.60	0.65	0.61	0.53
노동집약도	시간/10a	116	115	108	107	102	95
자본집약도	천원/10a	996	1,176	1,305	1,424	1,575	1,882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제 3 절 '90~'95 농업경영변동 분석결과

1. 재촌탈농형 인구이동

총가구 및 총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는 달리 농가 및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농가 인구 변동 형태는 점차 재촌 탈농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90년 이전에는 농가인구의 감소는 단순하게 농촌을 떠나 도시로 대량 유출되는 후진국형 인구이동 형태였으나, 최근 5년간은 재촌 탈농형으로 변모되어 농가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촌 인구의 감소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95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501천호, 농가인구는 4,851천명으로 농가인구비중은 '95년 인구주택 센서스의 총인구 44,606천명의 10.9%로 일본의 10.2%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중 읍·면 인구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농촌인구는 '85~'90년 사이에 2,903천명(연평균 581천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컸으나, '90~'95년 사이에는 1,530천명(연평균 306천명)이 감소하여 감소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었다.

<표 1-1-45>

연도별 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80(A)	'85(B)	'90(C)	'95(D)	B/A	C/B	D/C
① 총 인구	37,436	40,448	43,411	44,606	8.0	7.3	2.8
② 농촌인구	16,002	14,005	11,102	9,572	△12.5	△20.7	△13.8
③ 농가인구	10,827	8,521	6,661	4,851	△21.3	△21.8	△27.2
④ 농립업인구	4,429	3,554	3,152	2,424	△19.8	△11.3	△23.1
② / ①	42.7	34.6	25.6	21.5	-	-	-
③ / ①	28.9	21.1	15.3	10.9	-	-	-
④ / ①	11.8	8.8	7.3	5.4	-	-	-

주 : 1. 농가인구 감소율 : ('91/'90) 8.9% → ('96/'95) 3.3%

2. 농립업 인구는 15세 이상 종사자 인구임.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촌 인구의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의 취업기회 확대와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농가인구가 농촌에 살면서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농업 경영구조의 조정

농업경영구조는 상업농 체제의 소득작목 중심으로 전문화되어가는 추세로 재편되면서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의 농가 비중이 줄어든 반면, 축산, 채소, 과수 등으로 소득작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보급 확대로 시설 재배형 전천후 영농도 확산되고 있다.

경지규모는 1ha미만 경영농가 비중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영세소농 구조속에서 30·40대 농업인을 중심으로 경영규모가 확대(40대 이하가 5ha이상 57%, 1ha미만 25% 경영)되어 가고 있는데, 5ha 이상 경영농가수는 '90년 6.7천호에서 '95년에는 15.7천호로 2배이상 증가되었다.

축산은 가축사육 농가수는 줄고 가구당 사육두수는 늘어나 '90년 이후

5년간 가축사육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는 대규모 전업형 축산농으로 변하고 있다.

<표 1-1-46>

농업경영 구조의 변화

(단위 : 천호, %)

	'90년		'95년	
		구 성 비		구 성 비
논 벼 위 주 농 가	1,232	69.7	823	57.8
채 소 위 주 농 가	172	9.8	247	16.4
축 산 위 주 농 가	89	5.0	156	10.4
과 수 위 주 농 가	107	6.1	144	9.6
※ 시 설 원 예 농 가	97	5.5	138	8.8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벼농사는 농기계 보급이 확산되고 농작업 과정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가 호당 동력 농기계의 평균 보유 대수가 '90년의 1대에서 '95년에는 2대 수준으로 많아졌으며, 위탁영농 체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노령층 중심으로 위탁영농에 의존하는 농가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1-1-47>

주요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위탁영농 비율

	'90년	'95년
이앙기 대당 농가호수(호)	8	4
트랙터 대당 농가호수(호)	35	13
모내기 위탁영농 비율(%)	58.4	62.5
벼베기 위탁영농 비율(%)	63.6	78.3

영농목적도 자급위주의 영농체제에서 판매위주로 농업을 경영하는 상업적 영농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인데, 판매위주의 전체 농가

비율은 83.8%이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과수 97.0%, 축산 92.2%, 채소 84%, 논벼 80.7% 등이며, 경지규모가 1ha미만이 74.0%, 2ha이상인 99.2%로 경영규모가 클수록 판매농가 비율이 높았다.

3. 농업부문 신규참여 농가비율

'90~'95년 기간중에 계속 농업을 경영한 농가수는 1,265천가구로 '90년 전체 농가수의 71.6%이었고, 소멸농가는 28.4%인 502천가구 이었으며, 신규 참여 농가수는 13.3%인 235천가구로 이 기간중 266천 농가가 감소되었다.

〈표 1-1-48〉

농업경영 변동농가 현황

(단위 : 천호, %)

'90 농가수	'95 농가수	'90~'95 증감내역		
		증 감	소멸농가 ¹⁾	신규농가 ²⁾
1,767 (100)	1,501 (84.9)	△ 266 (△15.1)	502 (28.4)	235 (13.3)

주 : '90~'95년 기간중에 계속 농업을 경영한 농가는 1,265천 가구임.

¹⁾ '90년 조사시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95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²⁾ '90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95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작목별로 농가수 변동추세를 보면, 재배안정성이 높은 논벼, 한육우, 사과 등의 작목은 계속 농사를 짓는 농가비율이 높은 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화 및 구조조정 진행 작목인 젓소, 돼지, 복숭아, 보리 등은 계속 농사를 짓는 농가비율이나 전환농가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신규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미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농가의 인기가 높은 포도, 배, 시설수박, 시설화훼 등의 작목은 타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비율이 낮은 편이나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는 활발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영상 기복이 심한 시설무, 시설배추 등의 작목은 장기간 계속 농사를 짓는 농가 비율은 낮으나 신규참여 및 전환농가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1-49>

작목별 변동 유형

(단위 : 천호, %)

작 목 별	'95 총농가	계속농가		신규농가		'90 ¹⁾ 전환농가	
			%		%		%
논 벼	1,203.3	1,036.1	86.1	167.2	13.9	469.5	31.2
한 옥 우	514.9	361.6	70.2	153.3	29.8	247.0	40.6
사 과	71.8	44.0	61.4	27.7	38.6	26.8	37.9
젓 소	22.5	13.3	58.8	9.3	41.2	21.1	61.4
돼 지	46.5	26.7	57.4	19.8	42.6	112.7	80.8
보 리	92.7	58.4	62.9	34.4	37.1	232.7	79.9
복 승 아	25.0	14.7	58.9	10.3	41.1	24.8	62.8
배	25.0	7.8	31.2	17.2	68.8	7.9	50.4
포 도	48.3	20.6	42.6	27.7	57.4	14.9	42.0
시설수박	26.1	6.0	22.8	20.2	77.2	4.5	43.0
시설화훼	8.3	2.3	27.8	6.0	72.2	3.7	61.9
시설오이	20.4	4.7	23.3	15.7	76.7	12.4	72.4
시 설 무	11.8	0.8	7.1	11.0	92.0	9.7	92.1
시설배추	22.3	2.7	12.2	19.6	87.8	14.7	84.4
닭	101.2	19.8	19.6	81.3	80.4	112.0	85.0

주 : %는 '90년 해당작목 전체농가에 대한 비율임.

¹⁾ '90년 조사시 재배(또는 사육)하던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바꾸었거나 탈농 등으로 '95년 조사시에는 해당작목 재배(사육)농가에서 제외된 가구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가변동 유형을 시·도별로 보면 지역여건이나 영농조건, 기타 지역 특성에 따라 계속농가 비율이나 신규참여농가 비율이 각각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95년 계속농가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전남, 광주,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충북 등이고, 신규참여농가 비율이 높은 시·도는 제주, 대전, 강원 등이었으며, '90년 이후 소멸농가 비율이 높은 시·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이었다.

4. 성장 잠재력에 따른 작목별 규모변동

'90년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중에는 작목별 성장 잠재력, 규모화를 위한 구조조정, 농가별 영농구조의 특성 등에 따라 작목별로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모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90년 조사 때보다 규모를 확대한 농가비율이 큰 작목은 시설수박, 젓소, 포도, 배 등이며, 규모를 축소한 농가비율이 큰 작목은 논벼이고 규모를 유지하며 계속 영농을 해온 농가비율이 비교적 큰 작목은 한육우, 돼지 등이다.

<표 1-1-50>

작목별 경영규모 변동 현황

(단위 : 천호, %)

작 목 별	계속농가	규모확대	규모유지		규모축소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논 벼	1,036.1	458.4	44.2	39.0	3.8	538.7	52.0
보 리	58.4	28.7	49.2	3.6	6.2	26.0	44.5
한 육 우	361.6	201.5	55.7	109.0	30.1	51.1	14.1
젓 소	13.3	10.0	75.1	0.6	4.2	2.7	20.7
돼 지	26.7	14.1	52.7	6.0	22.6	6.6	24.7
닭	19.8	9.9	49.9	1.8	9.3	8.1	40.9
시 설 무	0.8	0.5	59.6	0.1	8.8	0.3	31.7
시설배추	2.7	1.5	56.8	0.2	8.2	1.0	35.0
시설오이	4.7	3.0	63.2	0.6	12.0	1.2	24.8
시설수박	6.0	4.7	79.5	0.3	4.8	0.9	15.7
시설화훼	2.3	1.2	52.2	0.1	4.5	1.0	43.3
사 과	44.0	26.4	60.0	2.2	5.1	15.3	34.8
배	7.8	5.0	63.7	0.4	5.7	2.4	30.6
복 승 아	14.7	8.2	55.4	0.7	4.9	5.8	39.7
포 도	20.6	14.0	68.0	0.8	4.2	5.7	27.8

자료: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영농 규모를 확대한 농가의 작목별 변동내역 및 특성을 보면, 대부분 영세농가의 규모확대 비율이 감소하고 규모화 농가의 규모확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작목은 농가 최다분포 규모가 상향이동된 반면 일부 작목은 최다분포 규모의 변동없이 농가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규모화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시설무 등 이미 규모화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작목은 영세규모 농가의 감소와 함께 규모화 농가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51〉

영농규모 확대 농가의 규모변동 추세

작 목 별	'90 최다분포		'95 최다분포		변동의 내용 및 특성
		%		%	
젓 소	10두 미만	32.6	20~30두	32.5	영세농의 감소와 경영규모 확대농가의 증가로 작목구조의 규모화가 진전
시설오이	300~500평	40.2	500~1,000평	45.6	
시설화훼	500~1,000평	39.1	1,000~3,000평	50.8	
시 설 무	1,000~3,000평	30.0	1,000~3,000평	42.7	1,000평미만 영세농가의 감소와 함께 1,000 ~ 3,000평 규모로 접근
시설배추	1,000~3,000평	33.7	1,000~3,000평	50.4	
시설수박	1,000~3,000평	52.9	1,000~3,000평	70.2	
논 벼	1ha미만	75.1	1ha미만	54.0	농가 최다분포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구성농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더욱 큰 규모쪽으로 농가분포가 이동
보 리	1ha미만	96.5	1ha미만	78.9	
한 육 우	10두 미만	96.0	10두 미만	80.9	
돼 지	30두 미만	57.6	30두 미만	36.9	
닭	5,000수 미만	91.2	5,000수 미만	84.6	
사 과	1ha미만	88.8	1ha미만	69.4	
배	1ha미만	79.2	1ha미만	60.2	
복 승 아	1ha미만	93.9	1ha미만	80.7	
포 도	1ha미만	95.6	1ha미만	81.7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영농규모 축소농가를 보면 짓소, 시설화훼는 '90년보다 농가 최다분포 영농규모가 하향이동된 반면 논벼, 보리등은 농가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변동없이 '90년보다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영세화가 심화되는 추세이었으며, 시설오이, 시설수박 등 영농규모화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작목은 농가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변동없이 '90년보다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농가 구성비가 감소하였고, 한육우·돼지·닭·사과·배·복숭아·포도등은 농가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변동없이 '90년보다 최다분포 영농규모의 농가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시설 무·시설 배추 등은 농가 최다분포 영농규모와 농가 구성비가 '90년과 큰 변동이 없었다.

〈표 1-1-52〉

영농규모 축소 농가의 규모변동 추세

	'90 최다분포		'95 최다분포		변동의 내용 및 특성
		%		%	
짓 소	20~30두	28.9	10두 미만	35.3	규모축소농가의 증가로 농가최다 규모 분포가 '90년보다 하향조정
시설화훼	1,000~3,000평	43.4	500~1,000평	38.1	
시 설 무	1,000~3,000평	31.8	500~1,000평	31.8	농가 최다분포 규모의 변동없이 각 농가별로 규모축소
시설오이	500~1,000평	40.5	500~1,000평	38.6	농가별로 현 규모에서 500평이하 규모로 하향 이동
시설수박	1,000~3,000평	70.3	1,000~3,000평	56.0	
논 벼	1ha미만	63.5	1ha미만	84.3	농가 최다분포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구성농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더욱 작은 규모쪽으로 농가분포가 이동
보 리	1ha미만	92.5	1ha미만	98.6	
한 육 우	10두 미만	87.4	10두 미만	94.5	
돼 지	30두 미만	55.1	30두 미만	70.1	
닭	5,000수 미만	89.3	5,000수 미만	93.1	
시설배추	1,000~3,000평	41.7	1,000~3,000평	41.8	
사 과	1ha미만	72.4	1ha미만	83.6	
배	1ha미만	61.8	1ha미만	77.3	
복 송 아	1ha미만	86.2	1ha미만	90.0	
포 도	1ha미만	90.2	1ha미만	94.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종전 영농규모유지 농가는 일부 시설채소 작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목에서 최소 영농규모에 최다 농가가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영세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농가의 경우 젓소와 시설재배 작목은 비교적 규모를 갖춘 농가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나 논벼와 과수, 닭 등은 아직도 영세 규모 농가가 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3〉

영농 규모유지 농가, 신규 농가의 최다분포 규모

	유지농가		신규 농가			
		%	비농가 전입	%	작목전환	%
논 벼	1ha미만	83.5	1ha미만	82.1	1ha미만	86.9
보 리	1ha미만	97.5	1ha미만	90.8	1ha미만	86.9
한 육 우	10두미만	99.2	10두미만	80.8	10두미만	86.2
젓 소	10두미만	26.8	20~30두	26.9	10두미만	24.9
돼 지	30두미만	97.3	30두미만	37.8	30두미만	67.5
닭	5,000수미만	95.0	5,000수미만	89.4	5,000수미만	97.9
시 설 무	500~1,000평	26.0	1,000~3,000평	29.7	100~300평	23.3
시설배추	1,000~3,000평	32.3	1,000~3,000평	33.1	1,000~3,000평	23.4
시설오이	300~500평	46.9	1,000~3,000평	37.7	500~1,000평	30.7
시설수박	1,000~3,000평	59.9	1,000~3,000평	57.5	1,000~3,000평	49.8
시설화훼	500~1,000평	42.7	500~1,000평	35.4	1,000~3,000평	42.4
사 과	1ha미만	86.2	1ha미만	69.3	1ha미만	87.2
배	1ha미만	78.2	1ha미만	65.8	1ha미만	80.9
복 승 아	1ha미만	87.1	1ha미만	82.4	1ha미만	84.8
포 도	1ha미만	93.8	1ha미만	90.5	1ha미만	89.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5. 경영주 연령별 영농형태 변화

영농규모 확대 및 종전규모 유지 농가의 작목별 연령구조를 보면 평균 연령은 각 작목별로 3~4세 정도 높아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규모 확대 농가의 경영주 연령은 논벼, 보리, 축산(젓소 제외), 과수재배 농가는 높은(54세이상) 반면, 젓소, 화훼 재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낮게(48세이하) 나타났으며, 작목별 경영주의 주 연령대(50%이상 밀집)는 논벼, 보리, 과수, 축산 농가는 50~60세로 고령구조인 반면, 젓소, 화훼 농가는 40~55세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 유지 농가는 규모확대 농가보다 2~3세 정도의 높은 연령대를 구성하는 추세이나 한육우와 돼지 사육농가는 4~5세 이상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1-1-54〉

경영주 연령분포(규모확대 농가, 유지 농가)

(단위 : 세)

작 목 별	규 모 확 대 농 가			유 지 농 가	
	평 균 연 령		주연령대 (50%밀집)	평균연령	주연령대 (50%밀집)
	'90	'95			
논 벼	52.5	56.0	48.6~60.8	58.5	51.8~66.6
보 리	52.4	56.3	49.9~63.5	58.2	52.4~64.9
한 육 우	52.2	56.0	49.3~63.3	59.9	54.7~67.0
포 송 도	52.0	55.6	48.2~63.3	57.4	50.1~65.4
복 송 아	52.1	56.0	48.8~63.5	57.0	45.5~63.9
배	51.2	55.0	47.2~62.9	56.6	49.3~63.8
사 과	50.6	54.4	46.9~62.1	55.8	48.1~63.5
돼 지	50.0	53.5	45.4~61.4	59.1	53.4~66.0
닭	50.7	54.4	46.3~62.5	56.0	48.6~63.8
시 설 무	50.2	54.4	47.4~61.0	54.5	45.7~62.8
시 설 배추	48.9	52.9	45.7~59.6	53.8	47.3~60.5
시 설 오이	47.1	50.9	44.1~57.6	53.7	46.1~61.7
시 설 수박	47.9	51.5	44.4~58.8	52.8	46.4~59.1
시 설 화훼	43.9	47.9	40.4~54.6	48.5	40.9~56.1
젓 소	44.8	48.1	40.5~54.8	50.8	43.5~57.8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영농규모 축소 및 신규참여 농가의 연령구조는 각 작물별로 평균연령이 '90년보다 4세 이상 높아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농규모 축소 농가는 각 작목 전반에 걸쳐 규모확대 농가보다 2~3세, 신규 농가보다 5~6세의 높은 연령구조를 보이고 있다.

신규참여 농가는 기존 농가보다 훨씬 젊은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어 확대 농가보다 2~4세, 규모축소 및 규모유지 농가보다 4~7세 정도 낮은 연령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축산, 시설재배 작목에 젊은층의 신규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5>

경영주 연령 분포(규모축소 농가, 신규 농가)

(단위 : 세)

작 목 별	규 모 축 소 농 가			신 규 농 가	
	평 균 연 령		주연령대 (50%밀집)	평균연령	주연령대 (50%밀집)
	'90	'95			
논 벼	54.1	58.1	51.3~66.2	53.6	43.6~63.4
보 리	53.9	58.2	52.2~65.1	54.8	45.8~54.8
한 육 우	53.7	58.0	51.5~65.6	52.7	42.7~62.2
젖 소	47.8	51.1	43.2~58.7	43.9	36.2~50.7
돼 지	52.0	56.1	48.9~63.5	49.2	39.7~58.4
닭	52.0	56.0	48.7~63.7	51.3	41.4~60.7
시 설 무	50.8	54.1	46.7~61.4	50.9	41.9~59.8
시설배추	50.0	54.0	46.9~61.3	50.1	40.7~59.3
시설오이	49.1	53.0	45.5~60.7	47.6	38.7~56.1
시설수박	47.7	51.7	44.9~58.4	45.8	37.1~53.6
시설화훼	44.8	49.1	41.7~55.7	44.8	36.7~52.0
사 과	51.5	55.6	48.0~63.4	50.8	41.2~59.8
배	52.0	55.9	48.1~63.7	51.3	42.2~59.7
복 송 아	52.8	56.9	48.8~64.3	53.3	44.1~62.3
포 도	53.2	57.0	49.6~65.1	52.1	42.3~61.7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6. 경영주 학력별 영농형태 변화

영농규모 확대 및 유지농가의 작목별 학력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농가 비율은 '90년보다 조금 감소(3~5%)하였으나 대부분의 작목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영농규모확대 농가의 경우, 논벼, 보리, 한옥우 경영농가는 대부분 초졸 이하의 저학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시설화훼, 잣소 등 일부 성장 작목은 중졸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농가가 70~8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유지 농가는 잣소, 시설화훼, 배 등 일부 작목을 제외하고 각 작목별로 60~80%가 초졸이하 저학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56〉

경영주 학력(확대 농가, 유지 농가)

(단위 : %)

작 목 별	확 대 농 가				유 지 농 가	
	초 등 학 력		전 문 대 이 상		초 등 학 력	전 문 대 이 상
	'90	'95	'90	'95		
논 벼	71.7	67.9	1.2	1.6	72.5	1.5
보 리	71.7	68.8	0.9	1.0	74.1	0.9
한 옥 우	76.3	72.8	0.7	0.9	82.2	0.6
잣 소	40.0	34.2	4.8	5.6	37.8	4.5
돼 지	56.4	51.6	3.4	4.2	79.1	1.1
닭	62.2	59.2	2.8	3.5	66.6	1.8
시 설 무	53.1	47.7	2.0	2.6	60.3	2.7
시 설 배 추	55.1	51.6	1.6	2.1	58.7	1.3
시 설 오 이	58.6	53.0	1.1	1.2	66.4	1.0
시 설 수 박	60.2	54.1	1.2	1.7	64.1	0.3
시 설 화 훼	21.8	22.4	9.7	9.1	29.1	2.9
사 과	61.6	58.3	2.7	3.1	60.2	2.8
배	53.3	49.3	4.5	5.6	54.0	3.9
복 승 아	67.3	64.1	1.6	1.8	64.8	1.9
포 도	63.5	59.8	1.7	2.2	60.5	2.5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영농규모 축소농가와 신규농가의 초등학력 비율은 '90년보다 약간 감소(2~3%)하였으나 대부분의 작목에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축소 농가의 논벼, 보리, 한육우 농가는 70% 이상이 초졸이하 저학력으로 나타났고, 신규농가는 기존 농가보다 고학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중 젓소, 시설화훼 작목에서는 고학력자의 참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57>

경영주 학력(축소 농가, 신규 농가)

(단위 : %)

작 목 별	축 소 농 가				신 규 농 가	
	초 등 학 력		전 문 대 이 상		초 등 학 력	전 문 대 이 상
	'90	'95	'90	'95		
논 벼	74.4	72.8	1.2	1.4	57.1	3.9
보 리	76.2	75.6	0.7	0.8	65.5	1.8
한 육 우	76.1	75.5	1.0	1.1	66.0	1.8
젓 소	39.1	36.6	6.7	7.5	33.9	6.5
돼 지	60.3	59.1	2.9	3.2	51.3	4.9
닭	65.2	63.3	2.8	3.0	61.1	3.3
시 설 무	54.2	50.0	0.8	0.8	55.7	2.5
시설배추	56.5	51.7	1.4	2.3	53.5	2.6
시설오이	59.9	57.2	1.0	0.9	47.2	2.8
시설수박	61.6	56.9	1.9	1.6	53.3	2.1
시설화훼	20.9	20.1	9.3	9.7	20.8	11.9
사 과	59.8	58.9	3.5	3.9	57.7	3.7
배	50.1	50.0	5.1	5.2	49.4	5.1
복 승 아	67.3	67.0	1.9	2.1	58.4	3.8
포 도	63.0	60.3	2.3	3.1	57.0	3.2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7. 향후 영농계획 전망

경영주 연령별 영농계획기간 조사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농가 634.5천 가구중 48.8%인 309.4천가구는 향후 5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조사

되었고, 50세이상 농가 1,081.7천가구 중 74.0%인 800.4천가구는 향후 10년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40세 이하 젊은 연령층도 14.3천가구가 5년 이내에 이농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58>

연령별 영농계획 기간

(단위 : 천호)

	농가수		5년미만		5~10년		10~15년		15년이상	
		%		%		%		%		%
합 계	1,500.7	100	403.9	26.9	514.6	34.3	259.2	17.3	323.1	21.5
30이하	12.3	0.8	1.9	15.7	2.1	17.3	1.5	12.4	6.7	54.8
30~40	134.2	8.9	12.4	9.2	21.3	15.9	21.6	16.1	78.9	58.8
40~50	272.5	18.2	22.0	8.1	58.3	21.4	66.8	24.5	125.4	46.0
50~60	447.2	29.8	58.2	13.0	190.7	42.6	117.1	26.2	81.2	18.2
60~70	444.6	29.6	169.1	38.0	204.3	46.0	46.4	10.4	24.9	5.6
70이상	189.9	12.7	140.3	73.9	37.8	19.9	5.8	3.1	6.0	3.1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주소득 작목별 향후 영농 계획기간중 논벼와 기타(양잠, 전작 등) 작목은 10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영농계획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축산 부문은 15년 이상의 장기 영농계획 농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9>

주 소득 작목별 영농계획 기간

주소득작목	농가수	5년미만	5~10년	10~15년	15년이상
합 계	1,500.7천호	26.9%	34.3%	17.3%	21.5%
논 벼	823.5	28.8	36.2	16.6	18.3
축 산	155.9	17.3	29.8	20.4	32.6
과 수	143.6	19.8	32.4	19.4	28.4
채 소	246.6	27.7	33.1	17.3	22.0
특용작물	45.7	23.6	33.7	18.9	23.7
기 타	85.4	37.1	30.9	13.5	18.6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전체농가의 60% 이상이 향후 5년간 현재 규모의 영농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규모확대 계획농가는 전체의 17%수준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농가들이 단기간내 규모를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확대 계획은 계속농가보다는 신규 참여 농가 쪽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60>

농가유형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단위 : 천명)

구 분	계	현규모유지		규모확대		규모축소		모 롬	
			%		%		%		%
전 체	1,500.7	909.4	60.6	263.3	17.5	101.2	6.7	226.8	15.1
계속농가	1,265.5	773.1	61.1	216.8	17.1	86.3	6.8	189.4	15.0
신규농가	235.2	136.3	58.0	46.5	19.8	14.9	6.3	37.4	15.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젊은층의 40% 이상 농가는 경영규모 확대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반면, 40세이상 농가는 현재 규모를 유지하려는 농가비율이 5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50세이상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규모축소와 '모르겠다'는 농가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 비율은 미미한 편이다.

<표 1-1-61>

경영주 연령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연 령 별	총농가수	현규모유지	규모확대	규모축소	모 롬
	천호	%	%	%	%
30세미만	12.3	39.4	42.3	4.7	13.6
30~40세	134.2	41.8	43.4	3.5	11.4
40~50세	272.5	52.1	32.4	3.7	11.8
50~60세	447.3	65.1	16.3	5.3	13.4
60~70세	444.6	67.6	7.1	8.4	16.9
70세이상	189.9	60.6	3.8	13.1	22.5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대다수 농가는 향후 5년간 경영규모 변경없이 주 소득 작물을 현 규모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과수, 논벼, 채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영규모 확대에 대하여는 축산부문이 30% 이상으로 적극성을 보인 반면 특용작물, 채소, 과수, 논벼등 작목의 경우는 20% 미만으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영규모 축소계획에 대하여는 모든 작목에서 농가비율이 10% 미만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규모변경에 유동적인 농가비율은 논벼와 채소, 기타작물이 15%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축산, 과수, 특용작물은 13% 이상이 아직 미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2>

주 소득 작목별 경영규모 변경 전망

주소득작목	농가수	현규모유지	규모확대	규모축소	모름
	천호	%	%	%	%
논 벼	823.5	62.6	15.3	6.6	15.6
축 산	155.9	49.9	32.2	4.7	13.2
과 수	143.6	63.8	16.5	6.6	13.0
채 소	246.6	60.0	17.4	7.3	15.2
특용작물	45.7	58.3	19.4	8.9	13.4
기 타	85.4	58.6	13.8	9.5	18.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농가유형 구분없이 절대다수의 농가는 향후 5년내 작목형태를 전환하지 않고 현재의 작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작목전환 희망 농가의 선호작목은 축산, 논벼, 특용작물, 과수, 채소, 기타 순이었으나 전환 희망 농가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표 1-1-63>

농가 유형별 영농형태 전환계획(향후 5년내)

구분	농가수	현작목유지	논벼	축산	과수	채소	특용작물	기타
	천호	%	%	%	%	%	%	%
전체	1,500.7	78.7	3.8	8.3	2.3	2.0	3.2	1.7
계속농가	1,265.5	78.1	4.0	8.6	2.4	2.0	3.2	1.6
신규농가	235.2	81.8	2.8	6.2	2.0	2.0	3.1	2.1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경영주 연령 구분없이 전체의 70% 이상 농가가 현재 작목을 계속 경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60세이상 농가는 84~89%가 현재 작목을 선호하고 있다. 작목 전환대상으로는 축산, 논벼, 특용작물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젊은 층은 축산과 특용작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50세이상 고령층은 축산과 논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64〉

경영주 연령별 작목전환 계획

연령별	농가수	현작목 유지	논벼	축산	과수	채소	특용 작물	기타
	천호	%	%	%	%	%	%	%
30세미만	12.3	69.6	3.1	14.0	2.8	2.7	5.3	2.5
30~40세	134.2	68.6	3.2	14.2	3.0	2.7	5.7	2.5
40~50세	272.5	71.5	3.7	12.2	3.2	2.6	4.8	2.1
50~60세	447.3	77.2	4.1	9.0	2.6	2.2	3.3	1.7
60~70세	444.6	83.7	4.0	5.5	1.8	1.7	2.1	1.4
70세이상	189.9	88.6	3.6	2.9	1.2	1.2	1.3	1.3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모든 작목에서 절대다수 농가가 현재 작목의 계속 경영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 과수재배 농가는 현재 작목의 계속경영 유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채소, 특용작물재배 농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65>

주 소득 작목별 영농형태 전환 계획

작목별	농가수	현작목 유지	논벼	축산	과수	채소	특용 작물	화훼
	천호	%	%	%	%	%	%	%
논 벼	1,203.3	77.4	45	9.1	2.3	2.0	3.2	0.3
보 리	92.7	69.7	8.0	12.5	2.6	2.5	3.1	0.2
한옥우	514.9	71.7	4.5	15.1	2.4	1.9	3.1	0.2
젓 소	22.5	84.0	1.7	10.4	1.3	0.6	1.2	0.2
돼 지	46.5	76.8	3.4	11.6	2.0	1.8	2.5	0.3
닭	101.2	73.2	4.1	12.0	2.7	2.1	4.1	0.4
시설무	11.8	70.5	3.7	9.1	2.0	4.7	7.9	0.9
시설배추	22.3	68.1	3.8	9.7	2.1	5.5	8.5	1.2
시설오이	20.4	64.3	3.2	10.0	2.3	8.2	9.6	1.5
시설수박	26.1	70.4	2.0	11.4	2.3	4.5	8.0	0.7
시설화훼	8.3	81.8	0.7	1.8	0.9	1.1	2.2	10.8
사 과	71.8	75.6	1.6	11.1	6.7	1.2	3.0	0.1
배	25.0	76.1	1.7	7.7	10.8	0.9	1.9	0.3
복숭아	25.0	77.4	1.7	10.6	6.2	1.2	2.0	0.2
포 도	48.3	79.6	1.7	7.4	7.0	0.9	2.5	0.2

주 : 양잠 등 비율이 경미한 작목은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제 2 장 국내 농산물 수급동향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1. 식량작물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식생활의 고급화와 다양화로 식품 소비 형태가 곡물 위주에서 축산물, 수산물, 채소류 등 고단백질, 신선식품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 수요의 변화는 경지이용 및 식량작물 생산형태에 영향을 준다.

작물별 재배면적의 추이를 보면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소류, 과실류 등 수익성이 높은 원예작물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총 재배면적중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95년의 61.3%에서 '96년에는 62.6%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벼 재배면적의 적극 확보와 함께 맥류·서류의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감소추세도 전년의 57천ha보다 훨씬 줄어든 6천ha로 둔화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표 1-2-1〉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

(단위 : 천ha, %)

년도	경지이용면적	식량작물					채소		과실		기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92	2,261	1,478	65.4	1,157	103	218	306	13.5	146	6.5	331	14.6
'93	2,285	1,467	64.2	1,136	117	214	318	13.9	154	6.7	346	15.2
'94	2,205	1,403	63.6	1,103	85	215	303	13.7	161	7.3	338	15.3
'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6	172	7.8	357	16.2
'96	2,142	1,340	62.6	1,050	95	195	311	14.5	171	8.0	320	14.9

주 :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전체양곡 생산량은 경지면적 감소 등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96 양곡년도의 경우 냉해 등 기상재해로 생산이 '95년보다 312천톤 감소한 5,504천톤이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최근 식량용 쌀 소비 감소 둔화와 밀, 콩 등 기타곡물의 소비 증가로 그 감소 추세가 정체된 반면, 사료용 곡물 등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96 양곡년도 전체양곡 소비량은 '80년도의 1.6배 수준인 20,598천톤에 이른다.

전체곡물 자급도는 '80년의 56.0%에서 '96년도에는 26.7%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식량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식생활의 고급화로 육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밀, 옥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의 소비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양 곡 년 도	'80	'85	'90	'94	'95	'96
생 산	7,048	7,102	7,013	5,465	5,816	5,504
수 입	5,051	5,051	10,022	13,073	14,258	14,278
소 비	12,596	14,667	16,282	19,530	19,974	20,598
- 식 량 용	10,124	9,921	9,981	10,373	10,601	10,495
- 사 료 용	2,472	4,746	6,301	9,157	9,373	10,103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019	3,119	2,303
자 급 륜(%)	56.0	48.4	43.1	28.0	29.1	26.7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2.7)	(55.7)	(52.4)
1인당 연간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9	160.5	160.4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우리의 주식이며, 1인당 공급 에너지의 37.0%('95년 기준)를 공급하는 쌀의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생산량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8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계속된 기상재해로 인하여 크게 감소되었다('96년산은 기상호조 등에 힘입어 대풍 : 5,323천톤). 또한, 식용사용에 부적합한 재고미 210천톤은 가공·주정용 등으로 공급하였다. '96 양곡년도말 쌀 재고는 전년보다 435천톤 줄어든 245천톤 이었다.

〈표 1-2-3〉

연도별 쌀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양 곡 년 도	'80	'85	'90	'94	'95	'96	'97(전망)
공 급	6,468	6,929	7,470	6,570	6,216	5,490	5,645
- 전년 이월	752	1,247	1,572	1,820	1,156	680	245
- 생 산	5,716	5,682	5,898	4,750	5,060	4,695	5,323
- 수 입	-	-	-	-	-	115	77
수 요	5,402	5,501	5,445	5,414	5,536	5,245	5,040
- 식 량	5,057	5,259	5,127	4,814	4,777	4,747	4,688
- 가 공	36	43	80	351	222	210	101
- 기 타	309	199	238	249	537	288	251
연 말 재 고	1,066	1,428	2,025	1,156	680	245	605
1인당 연간소비량(kg)	132.4	128.1	119.6	108.3	106.5	104.9	102.7
자 급 륜(%) (가공용 제외시)	95.1 (95.7)	103.3 (104.1)	108.3 (110.0)	87.8 (93.8)	91.4 (95.2)	89.5 (93.2)	105.6 (107.8)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표 1-2-4〉

'96 주요양곡 수급 현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공 급	677	3,398	9,838	1,889	234
- 전년 이월	292	362	1,336	262	-
- 생 산	288	11	74	160	233
- 수 입	97	3,025	8,428	1,467	1
수 요 량	392	2,882	8,996	1,618	234
- 식 량	72	1,082	-	86	109
- 가 공 용	277	1,061	1,847	337	64
- 사 료	5	721	7,095	1,180	23
- 종 자	10	-	-	5	15
- 감 모 · 기 타	28	18	54	10	23
연 말 재 고	285	516	842	271	-
1인당 연간소비량(kg)	1.6	34.0	3.6	9.3	3.5
곡물자급도(%)	73.5	0.38	0.8	9.9	99.6
식량자급도(%)	74.4	0.51	3.9	36.5	110.4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경지면적이 협소한 우리의 농업여건상 계속 증가되는 사료와 가공용 곡물수요를 국내생산 증대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밀·옥수수·콩 등의 자급률 하락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인당 연간 식량작물 소비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75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쌀 소비감소 추세 둔화와 '93년의 농약 밀 사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던 밀가루 소비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96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60.4kg으로 전년보다 0.1kg이 감소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5〉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92	163.8	112.9	1.5	32.6	2.8	7.9	2.9	3.2
'93	159.2	110.2	1.7	29.9	3.1	7.8	3.4	3.1
'94	160.9	108.3	1.7	32.5	3.0	8.9	3.1	3.4
'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96	160.4	104.9	1.6	34.0	3.6	9.3	3.5	3.5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곡종별로 보면, 쌀 소비량의 경우, '70년대에는 120~130kg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96년은 '95년에 비하여 1.6kg이 감소된 104.9kg이었다. 보리의 경우, '75년까지는 35kg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소비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96년에는 1.6kg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75년 소비량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주식으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밀의 소비량은 가공식품

등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급격히 증가, '70년대 중반부터 보리쌀 소비를 앞지르기 시작한 후 연간 소비량이 30kg 수준을 넘고 있다.

한편, 옥수수·콩의 소비량은 '70년대에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80년대 이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잡곡 소비량은 '70~'90년에는 감소추세였으나, 최근에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96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7% 감소된 388.7천ha였으며, 생산량은 10,209천톤으로 과잉생산 되었던 '95년보다 3.6%가 감소되었으나 평년생산량 9,861천톤보다는 3.5%가 증가되었으며, 1인당 소비량은 145.7kg인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9.0%가 증가된 1,510천톤이 생산되었으나 봄철 초기가뭄과 저온 등으로 가격은 일시 큰폭 상승하였고, 고랭지무·배추는 생산량이 442천톤으로 전년보다 7.2% 증가되었으며 태풍피해가 없는 등 일기가 양호하여 수급상 어려움이 없었고, 가을무·배추는 생육기의 기상여건 호조로 '95년보다 10%가 늘어난 2,774천톤이 생산되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98천톤을 산지에서 수매한 후 폐기처리하였다.

그리고, 고추는 재배면적이 90.8천ha로 전년보다 증가된데다 기상여건 호조로 풍작을 이루어 수요량(190천톤)보다 29천톤이 많은 219천톤이 생산되었고, 마늘은 재배면적 42.0천ha로 평년보다 늘었으나 작황이 부진하여 수요량 수준인 456천톤이 생산되었으며, 양파는 재배면적이 9.7천ha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된데다 작황도 부진하여 수요량(630천톤)보다 51천톤이 적은 579천톤이 생산되어 부족물량을 수입하여 충당하였다.

〈표 1-2-6〉

채소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90	'94	'95	'96
수요	계	8,697	9,385	10,670	10,337
	내수 수출	8,677 29	9,358 27	10,611 59	10,302 35
공급	계	8,697	9,385	10,670	10,337
	생산 수입	8,677 29	9,222 163	10,586 84	10,209 128
1인당 소비량(kg)		132.6	140.8	158.5	145.7

주 : 수입물량중 고추, 마늘, 양파는 MMA물량임.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나. 과실류

과수 재배면적은 사과, 복숭아의 노목원 폐원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 재배면적이 '96년말 173천ha로 전년대비 0.4% 감소하여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과실작황은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저온영향과 여름 고온 등으로 과실비대가 부진하여 전체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수확기에 비가 적고 일조량이 충분해 당도가 높은 과실이 생산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았으며, 과실가격도 농안기금 지원 등을 통한 출하 조절로 안정세를 보였다.

과실수출은 사과는 적극적인 수출지원 강화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배는 생산량 증가와 외국인들의 황금배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반면, 감귤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주산지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실생산·유통 지원도 총사업비를 1,890억원으로 확대하여 생산비절감과 산지유통 효율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1-2-7>

과실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90	'93	'94	'95	'96
공 급	생 산	1,766.2	1,920.1	1,929.6	2,300.1	2,207.0
	수 입	37.2	174.7	180.1	183.5	187.7
소 비	내 수	1,790.4	2,085.7	2,103.1	2,472.7	2,383.7
	수 출	13.0	9.1	6.6	10.9	11.0
1인당 소비량(kg)		41.7	47.3	47.3	55.4	52.3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다. 특용작물

참깨는 재배면적이 42천ha로 전년대비 19% 감소하고 생산량은 29천톤으로 8% 감소하였으나, 소비량은 전년대비 7.7천톤이 증가하였다.

땅콩 재배면적은 5.7천ha로 전년대비 40%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37% 감소한 10.8천톤을 기록하였다. 연간 땅콩 소비량은 소비대체가 가능한 아몬드 등 견과류 수입증가에 따라 감소추세이며, 자급률은 53% 수준이다.

<표 1-2-8>

특용작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참 개				땅 콩			
		'93	'94	'95	'96	'93	'94	'95	'96
수 요	계	88.4	98.0	88.9	103.0	37.6	36.0	31.1	36.5
	당년소비	79.0	79.0	86.3	94.0	31.7	32.7	28.8	32.7
	차년이월	9.4	19.0	2.6	9.0	5.9	3.3	2.3	3.8
공 급	계	88.4	98.0	88.9	103.0	37.6	36.0	31.1	36.5
	전년이월	6.5	9.4	19.0	2.6	6.2	5.9	3.3	2.3
	생 산	29.1	16.3	27.9	31.9	19.2	17.0	16.8	17.2
	수 입	52.8	72.3	42.0	68.5	12.2	13.1	11.0	17.0
자 급 률 (%)		37	21	32	34	61	52	58	53

주 : 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라. 잠사류

'96년의 잠업은 소득이 높은 누에가루 생산 등 양잠산물 생산에 치중되어 누에사육량 49,492상자의 99%인 49,061상자가 누에가루 생산용으로 사육됨으로써 누에고치 생산량은 12톤에 머물렀으며, 누에가루 생산량은 245톤 수준이었다.

〈표 1-2-9〉

누에고치 생산과 가격 동향

(단위 : 톤, 원/kg)

	'90	'93	'94	'95	'96
누에고치생산량	4,635	1,723	911	210	12
누에고치가격	7,226	8,108	8,108	8,108	8,108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표 1-2-10〉

누에고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분	'90	'91	'92	'93	'94	'95	'96	
수요 (A)	계	6.7	6.0	6.0	5.0	2.9	2.5	1.1
	내수	2.5	2.6	1.7	1.5	1.0	1.5	0.8
	수출	4.2	3.4	4.3	3.5	1.9	1.0	0.3
공급 (B)	계	9.8	8.1	7.4	5.8	3.7	2.7	1.2
	이월	2.9	2.3	2.1	1.4	0.8	0.8	0.2
	생산 수입	4.4	3.8	2.6	1.6	0.8	0.2	-
재고 (B-A)	2.3	2.1	1.4	0.8	0.8	0.2	0.1	
잠사류수출액(백만\$)	515	567	581	586	526	452	497	

주 : 1. 수출은 생사로 생산되어 견연사와 견직물의 가공원료로 공급된 양임.

2. 잠사류 수출액 : 견연사, 견직물, 견제품의 수출총액임.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마. 인삼류

인삼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이나 최근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산업이 침체되고, 인삼관련 업무가 '96년 7월 1일부터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농림부에서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96년에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9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96년에 8,940ha로 전년대비 4.6%, '90년 대비 26.6% 감소되었다.

인삼은 식재후 3~5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므로 재배 기간중 기상환경에 따라 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96년 생산량은 '94년 한발, '95년 수해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표 1-2-11〉

인삼 생산 동향

	'90	'93	'94	'95	'96
면 적	12,184ha	10,986	10,123	9,375	8,940
생 산 량	13,889톤	14,874	14,292	11,971	10,147
농 가 수	36,404호	30,327	30,500	23,172	23,304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3. 축산물 및 사료작물

가. 축산물

'96년 육류 소비량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1,303.2천톤이었다. 이중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322.9천톤, 돼지고기 소비량은 5.3% 증가한 696.9천톤, 닭고기 소비량은 5.7% 증가한 283.4천톤이었으며, 계란 소비량은 3.4%가 증가한 469.9천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소비량으로 환산해 보면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28.8kg으로 이중 쇠고기는 7.1kg으로 전년도보다 6.0% 증가했고, 돼지고기가 4.1% 증가한 15.4kg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는 6.8% 증가한 6.3kg이었다. 계란은 3.0% 증가하여 1인당 10.4kg(189개)을 소비하였다.

한편, 우유는 2,034천톤이 생산되었고 2,465천톤이 소비되었으며 그 차이는 전년도 이월분과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표 1-2-12〉

'96 축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공 급				소 비	수 출	차년이월
		이 월	생 산	수 입	계			
	계	12.3	1,142.3	198.3	1,352.9	1,303.2	37.1	12.6
육 류	쇠 고 기	5.7	173.9	147.1	326.7	322.9	-	3.8
	돼지고기	4.4	691.8	41.4	737.6	696.9	36.9	3.8
	닭 고 기	2.2	276.6	9.8	288.6	283.4	0.2	5.0
	우 유	66.0	2,034.0	474.0	2,574.0	2,465.0		109.0
	계 란	0.1	469.8	-	469.9	469.9		-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2-13〉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 kg)

		'80	'85	'90	'94	'95(A)	'96(B)	증감(B/A)
		계	11.3	14.4	20.0	25.8	27.4	28.8
육 류	쇠 고 기	2.6	2.9	4.1	6.1	6.7	7.1	6.0
	돼지고기	6.3	8.4	11.9	14.2	14.8	15.4	4.1
	닭 고 기	2.4	3.1	4.0	5.5	5.9	6.3	6.8
	우 유	10.8	23.8	42.8	46.8	47.8	54.5	14.0
	계란(개)	6.5 (118)	7.2 (133)	9.2 (167)	9.9 (180)	10.1 (184)	10.4 (189)	3.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96년도 육류 자급률은 총소비량 1,303.2천톤중 국내산이 1,102.4천톤으로 84.6%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품목별로 보면 쇠고기 53.9%, 돼지고기 94.0%, 닭고기 96.5%, 우유 80.8% 수준이었다.

<표 1-2-14>

축산물 소비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90	'92	'93	'94	'95	'96
총 소 비 량	육 류	853.8	1,043.3	1,086.9	1,147.0	1,230.9	1,303.2
	국 내 산	769.1	916.1	983.6	1,017.0	1,047.71	1,102.4
	수 입	84.7	127.3	103.4	129.9	83.2	198.8
	(자 급 률)	(90.1)	(87.8)	(90.5)	(88.7)	(85.1)	(84.6)
	쇠 고 기	177.0	226.9	233.0	269.8	301.2	322.9
	국 내 산	94.9	99.6	129.6	147.3	154.7	173.9
	수 입	82.1	127.3	103.4	122.5	146.5	149.0
	(자 급 률)	(53.6)	(43.9)	(55.6)	(54.6)	(51.4)	(53.9)
	돼 지 고 기	504.8	585.0	613.2	632.5	661.7	696.9
	국 내 산	502.2	585.0	613.2	613.9	625.0	654.9
수 입	2.6	0	0	18.3	36.7	42.0	
(자 급 률)	(99)	(100)	(100)	(97.1)	(94.5)	(94.0)	
	닭 고 기	172	231.5	240.8	244.7	268.0	283.4
						(5.7)	(9.8)
	계 란(백만개)	7,151	7,709	8,099	8,047	8,262	8,544
	우 유	1,879	1,920	1,984	2,078	2,144	2,465
	국 내 산	1,879	1,850	1,844	1,947	1,948	1,991
	수 입	-	70	140	131	196	474
	(자 급 률)	(100)	(96.4)	(92.9)	(92.3)	(90.9)	(80.8)

주 : 닭고기 ()내는 수입물량임.
 자료 : 농림부 축산물국

나. 사료작물

가축용 사료는 농후사료가 16,827천톤, 조사료는 7,395천톤으로 추정되어 총 수급량은 24,222천톤으로 전년도보다 3.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양축용 배합사료 생산은 15,933천톤으로 전년도보다 7.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규모화를 통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2-15〉

사료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80	'85	'90	'93	'94	'95 (A)	'96 (B)	증감률 (B/A)
합 계	7,561	13,250	17,154	21,640	22,559	23,302	24,222	3.9
농 후 사 료	3,996	7,322	11,211	13,909	14,488	15,700	16,827	7.2
- 배 합 사 료	3,464	6,467	10,567	13,144	13,678	14,856	15,933	7.2
- 농가자급사료	532	855	644	765	810	844	894	5.9
조 사 료	3,565	5,928	5,943	7,731	8,071	7,602	7,395	△2.7
- 사료작물및초류	781	1,974	2,832	2,548	2,505	2,498	2,291	△8.3
- 산야초,볏짚등	2,784	3,954	3,111	5,183	5,566	5,104	5,104	-

주 : 조사료는 풍건물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96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살펴보면 비육우용 12.4%, 양돈용 5.7%, 양계용 2.2%, 낙농용 3.5%가 각각 증가하였다.

지난 10여년간 배합사료 생산이 매년 늘어난 것은 국민 식생활 및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하여 가축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사육규모가 전업화되었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에 필요한 원료곡물 수입량도 크게 늘어났다. 약 76% 이상의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외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초지 개발과 청예 및 담리작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6년도에는 신규로 373ha의 초지를 조성하였다.

〈표 1-2-16〉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톤, %)

	'80	'85	'90	'93	'94	'95 (A)	'96 (B)	증감률 (B/A)
계	3,464	6,467	10,529	13,144	13,678	14,856	15,933	7.2
양 계 용	1,872	2,310	3,274	3,610	3,492	3,766	3,849	2.2
양 돈 용	769	1,924	3,551	4,397	4,481	4,725	4,994	5.7
낙 농 용	514	994	1,790	2,054	2,057	2,095	2,168	3.5
비육우용	306	1,209	1,667	2,662	3,194	3,681	4,136	12.4
기 타	3	30	247	421	454	589	785	33.3

자료 : 농림부 축산국

'96년말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63천ha로 441천톤(풍건물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으나 초지조성은 지가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1-2-17〉

초지조성 실적 추이

(단위 : ha, 천톤, %)

	'85	'90	'92	'94	'95(A)	'96(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5,111	616	473	525	413	373	△ 9.7
관리 면적	80,732	89,903	88,230	69,474	66,301	62,649	△ 5.5
목초 생산량	649	742	728	469	462	441	△ 4.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제 2 절 식품수급 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1인당 연간 곡류 소비량은 '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쌀의 소비는 '80년 132.9kg에서 '95년 110.0kg으로 매년 1.25%씩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과일류, 육류, 우유류의 소비는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소비량은 1980년과 비교해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2-18〉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추이

(단위: Kg, %)

	'80	'85	'90	'93	'94	'95	연평균 증감률
곡 류	185.0	185.4	175.4	170.0	172.1	171.4	△0.51
- 쌀	132.9	128.0	120.8	113.7	112.3	110.0	△1.25
서 류	21.5	11.8	11.0	14.7	12.2	12.3	△3.65
설탕류	5.2	10.3	11.7	15.9	17.4	17.8	3.71
두 류	9.7	10.7	10.3	9.8	11.1	10.8	0.72
채소류	120.6	98.6	132.6	153.5	140.8	158.5	1.84
과실류	16.2	26.6	29.0	35.1	35.3	40.9	6.37
육 류	13.9	16.5	23.6	28.6	29.7	31.5	5.61
계란류	5.9	6.2	7.9	8.5	8.4	8.5	2.46
우유류	10.8	23.1	31.8	34.8	33.9	37.6	8.67
어패류	22.5	30.7	30.5	31.6	32.6	34.4	2.87
해조류	4.5	6.5	5.7	11.7	12.3	11.6	6.52
유지류	5.0	9.2	14.3	13.3	14.5	14.1	7.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에너지공급량도 '90년 2,853Kcal에서 '95년에는 2,980Kcal로 증가하였다. 내용면에서 보면, 전분질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종래의 곡물 중심의 에너지 공급 패턴이 육류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95년의 경우 총 에너지의 85.3%를 식물성 식품으로부터 섭취하고 있으며, 그 중 곡물류에서는 61.1%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어 에너지의 곡물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물성 식품의 에너지 구성비는 1990년 12.5%에서 '95년에는 14.7%로 증가하였다.

〈표 1-2-19〉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추이

(단위: Kcal, %)

	'80	'85	'90	'93	'94	'95	연평균 증감률
총 에너지	2,485 (100.0)	2,687 (100.0)	2,853 (100.0)	2,872 (100.0)	2,950 (100.0)	2,980 (100.0)	1.2
- 식물성	2,257 (90.8)	2,384 (88.7)	2,457 (87.5)	2,464 (85.8)	2,534 (85.9)	2,451 (85.3)	0.8
· 전분질	1,898 (76.4)	1,943 (72.3)	1,837 (67.6)	1,803 (62.8)	1,839 (62.2)	1,821 (61.1)	△0.3
· 채소류	149 (5.9)	128 (4.8)	162 (6.0)	195 (6.8)	198 (6.2)	217 (7.3)	2.5
· 기 타	211 (8.5)	313 (11.7)	458 (14.0)	466 (16.2)	497 (17.5)	503 (16.9)	5.9
- 동물성	227 (9.2)	303 (11.3)	395 (12.5)	408 (14.2)	416 (14.1)	439 (14.7)	4.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식생활 패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식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부터 '96년 사이 외식비는 연간 26.7%씩 증가해 왔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식료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 20.4%에서 '96년에 33.6%로 증가하였다.

식료품 중에서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육류, 과일류, 빵 및 과자류 등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2-20〉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추이

(단위: 천원, %)

	'80	'85	'90	'94	'95	'96	연평균 증감률
소비지출	179.3	317.0	685.7	1,140.4	1,265.9	1,426.9	13.8
식료품	74.2	119.0	219.5	338.7	364.1	406.1	11.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곡류	26.3	33.4	42.0	41.7	40.9	47.6	3.8
	(35.4)	(28.1)	(19.1)	(12.3)	(11.2)	(11.7)	
육류	7.2	14.9	26.2	38.4	42.2	44.3	12.0
	(9.7)	(12.5)	(11.9)	(11.3)	(11.6)	(10.9)	
우유·계란	3.0	6.0	10.4	13.7	14.2	14.5	10.3
	(4.0)	(5.0)	(4.7)	(4.0)	(3.9)	(3.6)	
어패류	6.1	10.3	21.1	30.4	33.3	36.2	11.8
	(8.2)	(8.7)	(9.6)	(9.0)	(9.1)	(8.9)	
채소·해초류	10.0	15.1	24.6	36.3	35.4	37.4	8.6
	(13.5)	(12.7)	(11.2)	(10.7)	(9.7)	(9.2)	
과실류	4.0	7.4	15.6	28.0	28.5	30.5	13.5
	(5.5)	(6.2)	(7.1)	(8.3)	(7.8)	(7.5)	
유지·조미료	6.5	10.6	11.7	16.8	15.7	16.5	6.0
	(8.8)	(8.9)	(5.3)	(5.0)	(4.3)	(4.1)	
빵 및 과자류	3.3	6.8	12.6	19.1	20.9	23.7	13.1
	(4.4)	(5.7)	(5.7)	(5.6)	(5.7)	(5.8)	
음료	1.7	3.5	7.0	11.1	11.8	12.8	13.4
	(2.3)	(2.9)	(3.2)	(3.3)	(3.4)	(3.2)	
주류	2.7	1.8	3.1	4.9	5.0	5.4	4.4
	(3.6)	(1.5)	(1.4)	(1.4)	(1.4)	(1.4)	
외식	3.1	8.9	44.8	97.8	115.7	136.6	26.7
	(4.2)	(7.5)	(20.4)	(28.9)	(31.8)	(33.6)	
식·음료서비스	0.3	0.3	0.4	0.5	0.5	0.6	4.4
	(0.4)	(0.3)	(0.4)	(0.2)	(0.1)	(0.1)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2. 식품수요 및 공급현황

가. 식품수요

최근 들어 육류, 과실류, 빵 및 과자류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 품목의 소비 수준은 그리 높은 것은 아니며,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급받는 식품의 상당부분은 곡류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 중에서 곡류, 두류, 채소류, 어패류 등은 서구 국가들의 소비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반면, 과실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및 유지류 등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속한다. 특히, 육류와 과실류의 소비수준은 서구 국가들의 1/3 수준이며, 우유류의 경우 그 차이는 거의 7배에 달한다.

<표 1-2-21>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kg)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서독	파키스탄
연 도	'95	'94	'93	'86~'88	'86~'88	'86~'88
곡 류	171.4	118.1	93.2	100.0	98.2	152.2
서 류	12.3	38.4	20.8	58.8	75.9	4.4
설 탕 류	17.8	19.7	25.3	62.1	44.9	24.8
두 류	13.8	9.5	29.4	11.7	6.6	5.8
채 소 류	158.5	120.7	98.8	104.8	85.4	24.8
과 실 류	40.9	61.0	144.6	125.2	122.6	31.0
육 류	31.5	42.5	70.3	119.4	108.4	11.3
계 란 류	8.5	20.4	14.2	14.2	16.1	1.5
우 유 류	37.6	89.2	20.2	246.7	224.8	73.4
어 패 류	46.0	68.4	48.7	18.3	11.3	1.8
유 지 류	14.1	18.4	25.2	27.7	34.7	1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 영양소별 섭취량을 보면, 나이아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방질과 비타민A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였다.

'95년의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7.1g으로 전년대비 2.5g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95년에는 전체 공급단백질의 39.8%를 차지하였다.

'95년도 지방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78.8g으로서 전년의 77.3g보다 1.5%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물성 지방은 전체 공급지방의 34.7%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어 우리 나라 국민의 지방질 섭취 패턴이 동물성 식품에서 유지류 등의 식물성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슘과 철 등 무기질의 국민 1인 1일 공급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95년 국민 1인 1일당 칼슘과 철의 공급량은 각각 605mg, 25.9mg으로, 연평균 각각 1.13%, 4.92%씩 증가하고 있다. 기타 다른 영양소들도 나이아신을 제외하면,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C 등도 대체로 공급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1-2-22>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추이

	'80	'85	'90	'93	'94	'95	연평균 증감률(%)
단 백 질(g)	73.6	86.6	88.9	91.7	94.6	97.1	1.86
- 동물성단백질비중(%)	27.4	32.9	37.1	38.7	38.5	39.8	-
지 방 질(g)	36.6	51.8	61.6	74.1	77.3	78.8	5.24
- 동물성지방질비중(%)	41.5	35.4	35.3	34.4	33.7	34.7	-
칼슘(mg)	511	413	478	601	573	605	1.13
철(mg)	12.6	30.5	26.7	25.1	25.3	25.9	4.92
비타민A(IU)	3,037	3,046	4,467	5,750	6,020	6,388	5.08
비타민B ₁ (mg)	1.92	1.70	1.86	1.90	1.94	2.02	0.34
비타민B ₂ (mg)	1.03	1.16	1.44	1.49	1.51	1.59	2.94
나이아신(mg)	23.4	18.0	19.9	19.1	19.8	20.3	△0.94
비타민C(mg)	125	96	124	160	142	156	1.4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¹⁾ 대비 섭취율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섭취하는 총에너지는 권장량의 85%

1) 중등(中等)활동을 하는 몸무게가 60Kg이고 연령이 20~49세 사이의 성인 남자 1인이 1일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권장량. 한국에서는 FAO 한국지부에서 발표한다.

1인 1일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에너지소비량}) = B_m \times t_s + \sum E_n \times t_w$$

밖에 되지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별로 보면, 단백질, 철분,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C 등의 영양소는 권장량보다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철분과 비타민 C의 섭취율은 권장량에 최고 2배에 가까운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칼슘(91.8%)과 비타민 A(62.0%) 등은 권장량보다 과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23〉

영양권장량(RDF)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단위: %)

영양소 연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A	티아민	리 보 플라빈	나이 아신	비타민C
'80	93.5	94.6	81.9	96.4	90.2	128.4	89.3	131.7	176.9
'85	91.1	110.4	93.0	112.0	81.2	122.9	93.8	182.1	125.0
'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92	90.0	118.8	85.1	175.1	81.5	114.9	96.0	124.5	194.2
'93	90.0	117.9	84.0	176.1	67.7	140.1	97.3	120.6	175.6
'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6. 10

국민 1인1일당 영양공급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공급영양소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반면,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속한다. '95년 우리나라 국민 1인1일당 에너지공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980Kcal이나 3,500Kcal 이상인 미국, 서독 등에 비교할 때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begin{cases} B_m : \text{기초대사량 (Kcal/분)} \\ t_s : \text{수면시간 (분)} \\ E_n : \text{각종 활동 중 에너지 소비량 (Kcal)} \\ t_w : \text{각종 활동시간 (분)} \end{cases}$$

에너지원을 보면, 한국과 파키스탄은 에너지원의 60% 이상을 곡류를 통한 전분질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도 50% 이상을 전분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독의 경우를 보면 전분질을 통한 에너지보다 육류 소비를 통한 동물성 에너지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원이 점차 전분질 식품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95년도 우리나라 국민 1인1일당 단백질 공급량은 97.1g으로, 일본의 88.9g(1994년), 대만의 95.6g(1993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고, 미국의 109.0g(1988년), 서독의 103.5g(1988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 국가와 큰 차이는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소비하지만, 간장, 된장, 두부와 같은 식물성 고단백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24>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서독	파키스탄
	'95	'94	'93	'86~'88	'86~'88	'86~'88
에너지(Kcal)	2,980	2,627	2,904	3,644	3,528	2,167
- 전분질(%)	61.1	49.5	39.3	23.2	25.3	61.2
- 설탕(%)	6.3	7.9	9.1	15.9	12.4	11.2
- 동물성(%)	13.5	21.3	23.2	30.9	27.1	8.3
- 유지류(%)	11.5	13.9	21.1	17.0	19.0	15.5
- 기 타(%)	7.6	7.4	7.4	13.0	16.3	3.8
단 백 질 (g)	97.1	88.9	95.6	109.0	103.5	57.0
- 동물성(g)	38.7	47.0	50.4	72.2	66.1	12.9
지 방 질 (g)	78.8	85.5	130.6	163.5	152.6	56.2
- 유지류(g)	38.6	39.5	68.6	69.9	75.0	37.9
1인당 GNP(\$)	10,076	34,630	7,512	19,813	19,754	36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1일당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95년 78.8g이지만, 대만의 130.6g, 미국의 163.5g, 서독의 152.6g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 축산물의 섭취량 부족, 유지류의 공급 부족 등에 기인한다.

나. 식품 공급

총생산량에서 수출입과 종자용 및 감모, 폐기 등을 감안한 '95년 순식용 식품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9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곡류의 공급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늘었는데, 쌀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밀가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의 공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류나 두류, 어류 등의 공급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에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2-25〉

주요 식품 공급량 추이

(단위 : 천톤)

	'80	'85	'90	'93	'94	'95
곡 류	7,067	7,610	7,520	7,491	7,686	7,687
- 쌀	5,075	5,257	5,177	5,008	5,005	4,933
- 밀가루	1,122	1,313	1,274	1,318	1,447	1,521
서 류	822	486	473	648	540	552
두 류	370	440	440	429	495	486
채 소 류	4,607	4,047	5,685	6,760	6,253	7,109
과 실 류	621	1,090	1,241	1,547	1,562	1,832
육 류	530	677	1,010	1,258	1,323	1,413
- 쇠고기	100	120	177	228	264	295
- 돼지고기	242	345	505	601	620	648
- 닭고기	91	126	172	236	240	263
계 란 류	224	257	338	375	373	383
우 유 류	412	945	1,364	1,534	1,459	1,687
어 패 류	862	1,259	1,307	1,390	1,446	1,544
어 류	723	929	899	866	1,017	1,05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95년 주요 식품의 자급률²⁾을 보면, 전년에 비해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어패류 이외의 모든 식품의 자급률이 100%를 밑돌고 있다. 쌀의 자급률은 1994년의 87.7%에서 '95년 91.1%로 상승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에 있어 이는 일시적인 상승현상으로 보인다.

채소류의 자급률은 '95년에 99.2%로 꾸준히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실류도 자급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9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육류의 자급률은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95년에 자급률 90%선이 무너졌고 앞으로도 육류의 자급률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5년 쇠고기 자급률은 51.4%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도 최근 하락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26>

주요 식품 자급률 추이

(단위: %)

	'80	'85	'90	'93	'94	'95
곡 류	53.3	49.2	43.8	34.4	28.3	30.1
- 쌀	95.1	103.4	108.3	96.8	87.7	91.1
두 류	40.1	24.8	24.5	16.8	14.9	11.7
채 소 류	100.2	98.0	98.9	98.4	97.8	99.2
과 실 류	98.6	93.6	102.5	92.1	92.1	93.0
육 류	97.4	99.6	92.9	93.1	91.0	89.2
- 쇠고기	93.0	97.5	53.6	55.6	54.6	51.4
- 돼지고기	97.5	100.0	100.3	100.9	98.3	96.9
- 닭고기	100.0	100.0	100.0	99.4	99.2	98.1
계 란 류	100.0	100.0	100.0	100.4	99.6	99.9
우 유 류	109.7	100.6	92.8	93.2	92.9	93.3
어 패 류	132.7	129.6	121.7	110.7	106.7	100.6
유 지 류	19.0	15.5	8.0	7.3	3.8	4.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2) 식품의 자급률은 해당 식품의 국내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구했다. 즉,

$$\text{식품의 자급도} = \frac{\text{국내생산량}}{\text{국내소비량}}$$

3. 식품가공산업 현황

가. 생산 현황

가공식품의 소비 확대에 따라 식품가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해가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94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조 6,505억원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6.9%에 달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 5인미만 영세 식품가공업체의 생산액을 더하면 전체 식품가공산업 생산액은 '94년 현재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 동향을 보면 '80년 3조 4,780억원에서 '94년 20조 6,505억원으로 14년간 약 6배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189.0%에 이른다.

〈표 1-2-27〉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생산액 추이

(단위 : 억원)

부 문 별	'80	'85	'90	'93	'94
○ 제 조 업	362,791	770,329	1,779,088	2,559,261	2,992,462
○ 음·식료품	34,780	65,940	131,043	180,898	206,505
- 식 료 품	26,766	52,259	103,522	147,263	163,719
- 육 가 공	405	2,580	8,715	15,365	20,495
- 유 가 공	4,075	8,291	15,188	24,882	30,179
- 수 산 가 공	2,265	6,077	14,203	19,467	19,808
- 과 채 가 공	719	1,319	3,422	7,812	7,382
- 곡 물 가 공	2,961	4,691	8,101	15,008	16,616
- 식 용 유 지	1,645	5,068	6,456	4,142	4,796
- 빵·과자·국수	7,112	12,519	24,113	31,302	30,398
- 식품첨가물	1,620	3,689	6,870	10,684	13,546
- 기타식료품	5,965	8,024	16,453	18,600	20,499
- 음 료 품	8,014	13,680	27,521	33,635	42,786
- 알콜성음료	6,070	9,375	14,498	19,654	23,074
- 비알콜성음료	1,944	4,306	13,022	13,981	19,71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가공산업의 부문별 성장 추이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간별로 '90년대 들어 식용유지산업, 과채가공산업 및 빵·과자·국수산업의 생산액은 감소 내지 정체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들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생산액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육가공산업, 유가공산업, 비알콜성음료산업의 신장세가 현저하였다.

육가공산업은 육류소비 증가에 힘입어 다양한 종류의 수입육을 통한 육가공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육가공산업의 생산증가율은 앞으로 다양한 육가공품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국내생산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나 소비증가에 따라 당분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유가공산업의 생산은 요구르트와 치즈, 아이스크림 등을 중심으로 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유제품의 수입개방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공산업의 생산증가율도 둔화 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알콜성음료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지향적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층의 음료소비 확대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비알콜성음료의 생산은 소비자의 건강지향성 식기호에 맞추어 새롭고 다양한 음료품 생산을 통해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가공업체의 생산액 절대규모 면에서 보면 빵·과자·국수제조업, 유가공산업, 알콜성음료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빵·과자와 국수제조업의 생산액은 전체 식품가공산업 생산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공산업, 알콜성음료산업도 각각 14.6%, 11.2%의 생산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가공식품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식품산업 부문별 생산 비중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제품과 육가공품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가공산업과 육가공산업이 식품가공산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생산업체 현황

식품가공업체수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80년 4,425개 업체에서 '94년 5,702개 업체로 28.9% 증가하였다. 또한 5인 미만 영세 식품가공업체 약 36,000개 업체를 더하면 '94년 식품가공업체수는 약 41,700개소에 이르고 있다.

〈표 1-2-28〉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가공업체수 추이

(단위 : 개소)

부 문 별	'80	'85	'90	'93	'94
○ 제 조 업	30,823	44,037	68,872	88,864	91,372
○ 음 · 식 료 품	4,425	4,484	4,476	5,637	5,702
- 식 료 품	3,186	3,497	3,886	5,106	5,194
- 육 가 공	83	75	138	365	377
- 유 가 공	108	62	63	110	116
- 수 산 가 공	796	1,239	1,434	1,982	1,899
- 과 채 가 공	140	164	216	376	408
- 곡 물 가 공	695	238	522	714	759
- 식 용 유 지	94	67	73	64	69
- 빵·과자·국수	630	560	550	680	694
- 식품첨가물	113	132	167	205	245
- 기타식료품	527	960	723	610	627
- 음 료 품	1,246	987	590	531	508
- 알콜성음료	1,239	946	530	335	296
- 비알콜성음료	25	41	60	196	212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산업내에서 식료품제조업체의 수는 증가한 반면 음료품제조업체의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식료품 제조업체 중에서 육가공산업, 과채가공산업의 업체수는 이들 산업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증가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활성화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신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음료품 제조업체수는 '80년 1,246개 업체에서 '94년 508개소로 59.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알콜성음료산업의 업체수 감소 때문이다. 알콜성음료 제조업체수는 전통민속주인 탁주 제조업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80년 1,239개 업체에서 '94년 296개 업체로 76.1%나 감소하였다. 반면 비알콜성음료산업의 업체수는 비알콜성음료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에 25개 업체에서 212개 업체로 748.0%나 증가하였다.

식품제조업체중 업체수 비중은 '94년 기준 수산가공산업이 33.3%로 가장 높으며, 곡물가공산업과 빵·과자 및 국수제조업, 기타식품산업도 각각 13.3%, 12.1%, 11.0%로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다.

다. 고용실태

식품가공산업은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94년 184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해 제조업 전체 종사자 2,930천명의 6.3%에 달한다. 식품가공산업 종사자는 '80년 161천명에서 '94년 184천명으로 14.3% 증가하였지만, '90년대 이후만 보면 인력절감 측면에서 시설자동화의 진전으로 그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3D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른 인력난과 시설자동화설비의 확대 추세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94년 기준 종업원수의 구성비가 높은 부문은 수산가공산업과 빵·과자와 국수제조업이며, 이 중 수산가공산업은 식품가공산업 전체 고용의 2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산가공산업의 업체가 다른 식품가공산업의 업체에 비하여 영세하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단순가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빵·과자와 국수제조업은 식품가공산업 전체 고용의 22.9%를 차지한다. 식품가공산업내에서 이 두 산업이 전체 식품가공산업 고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공산업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매우 낮다. 이는 유가공산업이 장치산업으로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인 194백만원은 식품가공산업 평균 112백만원에 비하여 73% 정도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경향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음료품산업과 식용유지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음료품산업과 식용유지산업의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은 각각 220백만원과 180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표 1-2-29>

식품가공산업 부문별 종업원수 추이

(단위 : 명)

부 문 별	'80	'85	'90	'93	'94
○ 제 조 업	2,014,751	2,437,997	3,019,816	2,885,349	2,929,898
○ 음 · 식료품	160,839	171,181	197,672	188,707	183,819
- 식 료 품	131,565	149,745	172,920	169,245	171,958
- 육 가 공	4,218	5,719	11,441	16,217	18,455
- 유 가 공	10,608	9,434	10,240	13,638	15,532
- 수 산 가 공	28,557	45,947	53,139	47,657	45,324
- 과 채 가 공	7,346	7,620	8,754	11,076	12,179
- 곡 물 가 공	14,734	10,975	10,360	10,507	10,696
- 식 용 유 지	4,652	4,747	4,857	2,735	2,671
- 빵·과자·국수	41,552	41,611	45,633	44,368	42,158
- 식품첨가물	2,119	7,575	9,979	8,633	10,006
- 기타식료품	17,716	22,236	18,517	14,414	14,937
- 음 료 품	29,274	27,436	24,752	19,462	19,412
- 알콜성음료	20,473	17,035	12,792	11,300	10,451
- 비알콜성음료	8,801	10,401	11,960	8,162	8,961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제 3 절 농림산물 교역 동향

1. 농림산물 수출입 동향

가. 수출동향

농림산물 수출액은 1,829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129,715백만달러의 1.4%를 차지하였고, 전년 1,747백만달러 대비 4.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농산물이 1,164백만달러(64%), 축산물이 260백만달러(14%), 임산물이 405백만달러(22%)를 차지하였다.

〈표 1-2-30〉

농림산물 수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

	'90	'92	'93	'94	'95	'96	전년대비 증감률
총 수출	65,016	76,632	82,236	96,013	125,058	129,715	3.7
농림산물	1,405	1,349	1,263	1,463	1,747	1,829	4.7
- 농축산물	795	800	810	952	1,243	1,424	14.6
- 임산물	610	569	453	511	504	405	△19.7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가 전반적인 수출여건의 악화와 함께 농림산물 수출증가 추세도 크게 둔화하였으며, 종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배, 고추 가공식품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김치·인삼류·화훼류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임산물은 화강암 등 주요 수출품이 환경문제, 중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증대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주요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농림산물 수출액 중 대일본 수출이 824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산물 수출액의 45%를 차지하였고, 러시아 연방에 대한 수출액은 245백만달러로 가공식품의 높은 수출 신장에 따라 주요 수출 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나. 수입동향

농림산물 수입액은 10,940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150,339백만달러의 7.3%를 차지하였고, 전년 9,677백만달러 대비 13.1%가 증가하였다. 농림산물 총 수입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옥수수 1,576백만달러, 소맥 725백만달러, 쇠고기 503백만달러, 대두 473백만달러, 사탕수수당 443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표 1-2-31>

농림산물 수입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

	'90	'92	'93	'94	'95	'96	전년대비 증감률
총 수입	69,844	81,775	83,800	102,348	135,119	150,339	11.3
농림산물	5,419	6,067	7,269	7,989	9,677	10,940	13.1
- 농축산물	3,754	4,183	4,571	5,426	6,899	8,152	18.3
- 임산물	1,665	1,884	2,698	2,563	2,778	2,788	0.4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내 자원개발이 어려운 목재수입은 원목 수입이 줄어들고 제재목, 건축용 목제품 등 가공목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석제품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3,950백만달러를 수입하여 전년 3,506백만달러 대비 12.7%가 증가(전체의 36%)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사료곡물 수출중단으로 미국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입이 크게 증가('95 : 1,239 → '96 : 1,444백만달러)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사료용 곡물의 수입은 감소 되었으나, 면실유박, 참깨 등의 계속된 수입으로 '95년 637백만달러 대비 28.6%가 증가된 819백만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5%를 차지하였다.

2. 농림산물 남북교역 동향

가. 농림산물 교역 규모

'96년 농림산물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 2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며, 통관기준으로는 1,460만달러로 21% 감소하였다. 이는 국가전체 승인액 2억 4,410만달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관기준으로는 국가전체 통관액 2억 5,200만달러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96년에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를 위하여 분유 278톤을 처음 반출하였다.

〈표 1-2-32〉

남북교역 동향 총괄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승 인 실 적			통 관 실 적		
	'95	'96	증감률	'95	'96	증감률
전 체	309.8	244.1	△21	287.3	252.0	△12
농림산물	27.6	23.1	△17	18.5	14.6	△21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농림산물 교역 동향

(1) 반출입 통관 실적 총괄

반출입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257만달러로 전년의 71만달러보다 362%가 증가하였으며, 반입은 1,206만달러로 전년의 1,777만달러보다 32% 감소하였다. 반출의 경우 농산물이 250만달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산 반입에 따른 물물교환 형식의 반출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입의 경우에도 농산물이 843만달러로 농림산물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33〉

반출입 통관 실적

(단위 : 천달러)

		'95	'96	증감률(%)
반 출	계	710	2,567	361.5
	농 산 물	504	2,544	404.8
	임 산 물	206	23	△88.8
반 입	계	17,768	12,055	△32.2
	농 산 물	10,795	8,429	△21.9
	임 산 물	6,973	3,626	△48.0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통관 실적

농림산물 반출 총 품목수는 9개 품목으로 전년도 5개 품목에 비해 4개 품목이 증가하였다. 이 중 농산물은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6개 품목이고, 솔잎기름, 고사리 등 임산물 2개 품목이 금년도 신규로 반출되었다.

〈표 1-2-34〉

주요 품목별 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주요품목	연도별 반출실적		
		'95	'96	증감률(%)
농 산 물	밀 가 루	454	809	78.2
	분 유	-	1,415	-
	기 타	50	320	540.0
	소 계	504	2,544	404.8
임 산 물	호 두	206	-	-
	고 사 리	-	5	-
	솔잎기름	-	18	-
	소 계	206	23	△88.8
농림산물 계		710	2,567	361.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림산물 총 반입품목은 25개로 농산물이 16개, 임산물이 9개 품목으로서 '95년보다 6개 품목이 증가되었다. 농산물 16개 품목 중 녹두, 참깨 등 반입제한 대상품목이 6개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시장접근물량 대상품목 위주로 북한산 반입이 증가한 반면, 임산물은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

녹두, 참깨 등과 같이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반입할 때는 사전에 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반입후에도 반입원가에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도록 하는 등 무관세 반입에 따른 국내 수급상의 문제, 특정 수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96년에 처음 반입된 품목은 더덕(430천달러), 향료용식물(155천달러), 참나무잎(47천달러) 등 10개 품목이며, 호두, 한약재, 고사리, 도토리 등은 '89년 남북교류이후 '95년까지 계속 반입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이중 팔, 호두, 한약재는 농림산물 전체 반입액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1-2-35〉

주요 품목별 반입 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주요품목	연도별 반입실적		
		'95	'96	증감률(%)
농 산 물	팔	709	1,701	139.9
	메 밀	144	434	201.3
	참 깨	158	423	167.7
	들 깨	932	928	△0.4
	한 약 재	6,626	2,614	△60.5
	기 타	2,226	2,329	△4.6
	소 계	10,795	8,429	△21.9
임 산 물	호 두	4,806	866	△82.0
	버 섯 류	1,018	752	△26.1
	고 사 리	395	666	68.6
	소나무꽃가루	305	800	162.3
	더 덕	-	430	-
	기 타	449	112	△75.1
	소 계	6,973	3,626	△48.0
농림산물 계		17,768	12,055	△32.2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제 3 장 국제농업 동향

제 1 절 국제수급 동향

1. 국제곡물 수급 동향

가. 생 산

'96/'97년 세계곡물 총생산은 최근 2~3년간의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됨으로써 곡물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작황 또한 양호하여 전년보다 8.6% 증가한 1,991백만톤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수입국들의 생산이 늘어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정될 전망이다.

최근 곡물생산이 회복됨에 따라 기말 재고율이 '95/'96년도의 14% 수준에서 금년에는 15%로 회복될 전망이나, FAO적정재고 수준인 17~18%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96/'97년도의 세계 소맥생산량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과 구소련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생산이 대폭 늘어나 전년보다 7.9% 늘어난 581.2백만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쌀 생산은 버마·타이의 작황이 부진한 반면, 중국·인도네시아·호주·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1.6% 증가한 377.4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옥수수는 세계 생산량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이 49백만톤을 증산하는 등 전년보다 14.2% 증가한 588.8백만톤으로 예상되며, 콩도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국가의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호조로 전년대비 6.4% 증가한 132.5백만톤으로 전망되었다.

나. 소 비

'96/'97년도 곡물소비량은 밀·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을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보다 3.7% 증가한 1,963.4백만톤으로 예상되며, 특히 밀·잡곡류등 사료소비는 678.2백만톤으로 전년보다 5.9% 증가가 예상된다.

다. 교역

미국·남미·호주 등 수출국뿐 아니라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중국 등의 국내생산 증가로 옥수수·쌀의 교역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보다 1.3% 줄어든 264.5백만톤으로 전망된다.

라. 기말 재고

'95년도의 경우, 주요 곡물생산 국가의 옥수수 등 잡곡류에 대한 급격한 생산감소로 기말 재고율이 14%에 불과하였으나, '96/'97년도에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백만톤 증가한 294.7백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말 재고율도 15%에 이를 전망이다.

<표 1-3-1>

세계 곡물 기말재고 상황

(단위 : 백만톤, %)

	전체곡물		밀		옥수수		콩		쌀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생산량	1,991.1	8.6	581.2	7.9	588.8	14.2	132.5	6.4	377.4	1.6
소비량	1,963.4	3.7	577.1	4.5	570.2	4.9	135.0	2.5	375.8	1.4
교역량	264.5	△1.3	113.0	3.1	68.0	△11.3	34.9	9.1	18.5	△8.4
기말재고	294.7	10.3	109.3	3.9	84.6	28.0	14.2	△15.0	51.8	3.0

자료 : USDA '97. 5. 12. 발표자료 근거

〈표 1-3-2〉

세계 곡물 수급 상황

(단위 : 백만톤, %)

		'94/'95	'95/'96(A) (잠정)	'96/'97(B)	증감률 (B/A)
전체곡물	생 산	1,898.3	1,832.6	1,991.1	8.6
	소 비	1,905.8	1,893.1	1,963.4	3.7
	수 출	268.6	268.0	264.5	△1.3
	기말재고	327.9	267.1	294.7	10.3
쌀	생 산	364.9	371.5	377.4	1.6
	소 비	367.1	370.5	375.8	1.4
	수 출	22.0	20.2	18.5	△8.4
	기말재고	49.3	50.3	51.8	3.0
밀	생 산	524.6	538.4	581.2	7.9
	소 비	547.3	552.0	577.1	4.5
	수 출	110.9	109.6	113.0	3.1
	기말재고	119.5	105.2	109.3	3.9
옥수수	생 산	561.4	515.8	588.8	14.2
	소 비	540.1	543.8	570.2	4.9
	수 출	72.3	76.7	68.0	△11.3
	기말재고	94.0	66.1	84.6	28.0
콩	생 산	137.6	124.5	132.5	6.4
	소 비	132.0	131.7	135.0	2.5
	수 출	32.1	32.0	34.9	9.1
	기말재고	23.7	16.7	14.2	△15.0

주 : 1. 전체곡물은 밀, 옥수수, 쌀, 콩과 잡곡(보리, 호밀, 귀리, 수수등)을 포함한 수취입
 2. 중·단립종 쌀생산량은 세계 쌀생산량의 10%수준, 교역량의 16%수준 추정
 자료 : USDA '97. 5. 발표자료 근거

2. 국제곡물가격 동향

국제곡물가격은 기상이변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때에는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72/'73년도, '83/'84년도에는 생산감소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과거 2~3년간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감소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나,

'96/'97년도 생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옥수수·밀·쌀 등 대부분의 곡물가격이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밀은 전년보다 가격이 23.9% 내린 톤당 166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옥수수는 41.1% 내린 톤당 12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쌀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1등급 가격에 전년보다 11.6% 내린 톤당 4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콩의 경우에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 미국의 콩 재고가 2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등 수급불안이 계속되면서 전년동기보다 7.8% 오른 3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표 1-3-3〉

국제 곡물가격 동향

(단위 : \$/톤, FOB, 현물가격, %)

	'93평균	'94평균	'95평균	'96			'97		대비 (B/A)
				4월	5월(A)	평균	4월	5월(B)	
밀	140	146	174	215	218	188	167	166	△23.9
옥수수	102	106	119	189	209	159	128	123	△41.1
콩	240	240	235	302	308	288	324	332	7.8
미국쌀	394	499	418	480	474	468	419	419	△11.6

주 : (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급 가격, (옥수수·콩) US. Gulf 2등급 가격, (미국쌀) US. California, Medium 1등급 가격

제 2 절 외국의 농업경제 동향 및 농업정책

1. 미 국

가. 농업경제 동향

미국은 약 4억ha의 농지에서 2천억 달러에 이르는 농업생산을 올리고 있는 세계최대의 농업국가이다. 현재 최고의 산업국가인 미국이지만 과거에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이었으며, 농업부문에서 형성된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농업

인구는 약 785만명으로 총 인구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서서히 하락하고 있다. 미국의 농장은 가족농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회사 형태의 기업농 등도 적지 않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 현재 전국의 가족농·기업농을 모두 합쳐 농업경영단위가 되는 농장수는 207만호로 농장당 농지면적은 190ha 정도이며, 농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장당 농지면적은 소폭이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약 3억톤에 달하는 곡물생산을 바탕으로 세계의 주요 식량공급처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소·과일 그리고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회계년도 기준)은 1996년 중 598억달러로 총 수출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은 대두·옥수수·소맥·쇠고기·채소·과일 순이며, 나라별로는 일본·캐나다·멕시코·한국·대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지만 동시에 수입도 많이 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액은 1996년에 324억달러로 농산물 수출액의 54% 수준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절대금액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나 총 수입에 대한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96년의 경우 총 수입에 대한 농산물 수입의 비중은 4.2%이었다.

미국의 농업이 막대한 농지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농업의 특성을 보조금 산업이라 할만큼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를 뒷받침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농가의 농산물 수취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보조와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보조가 그것으로, 농가소득 중 정부보조에 의한 수입이 연간 약 70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은 3년 내지 5년마다 제정되는 농업법(Farm Bill)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WTO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균형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7년간 농업보조금을 30%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표 1-3-4>

미국 농업의 주요 지표 추이

구분		단위	'90	'91	'92	'93	'94	'95
농업인구	총인구	백만명	250	253	255	25.8	261	263
	농업인구	천명	7,929	7,913	7,899	7,886	7,868	7,854
	농업인구비율	%	3.2	3.2	3.1	3.1	3.0	3.0
농장규모	농장수	천호	2,146	2,117	2,108	2,083	2,065	2,073
	농지면적	백만ha	399	397	396	395	394	393
	농장당면적	ha	186	188	188	190	191	190
농산물무역 (회계연도 기준)	총수출	억달러	3,663	3,943	4,259	4,334	4,693	5,342
	농산물수출	억달러	402	376	424	426	435	542
	농산물비율	%	11.0	9.5	10.0	9.8	9.3	10.1
연도 기준)	총수입	억달러	4,807	4,863	5,129	5,620	6,312	7,289
	농산물수입	억달러	226	226	243	245	264	295
	농산물비율	%	4.7	4.6	4.7	4.4	4.2	4.0

자료 : 농업인구 : FAO, "Production Yearbook", 1995.
 농장규모 :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1996.
 농산물무역 : USDA, "Agricultural Outlook", 1996.

나. 1996년 미국 농업법

1996년 미국 농업법의 정식 명칭은 연방농업개선 및 개혁법(1996 FAIR Act :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P.L. 104~127)으로, 총 9개의 장(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 조문의 수로 보면 이전의 1990년 농업법(총 25장)이나 1985년 농업법(총 17장)에 비해 조문들이 대폭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6년 농업법은 UR 농산물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UR 타결이후 처음으로 제정한 농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농업에서 차지하는 미국 농업의 비중으로 볼 때 UR 이후의 세계농업에 대해 미칠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1996년 미국농업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1973년 농업법이래 미국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어왔던 목표가격과 그에 근거한 부족분 지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그 대신 소득지지가 생산과 아무런 연계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디커플링제도인 생산탄력계약지불제도(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s Payment)로 대체했다는 점이다. 1973년 이후 미국의 상품 프로그램은 주요 작물인 소맥, 사료곡물, 쌀, 면화에 대해서 목표가격과 부족분지불제도를 통해 작물별 기준면적과 프로그램 단수, 시장가격에 근거한 가격 및 소득지지제도를 20년이상 운용해 왔다. 그러나 1996년 미국 농업법 제1장인 농산물시장전환법(Agricultural Market Transition Act)에 의해 생산면적, 생산량 및 시장가격과는 관계없이 농민에게 매년 고정된 정부지불금(연차적으로 감소)이 향후 7년 동안 지급되게 됨으로써, 농민소득 지지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미국 농업정책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수정했다는 점에서 1996년 미국농업법은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농정기조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은 미의회의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다.

2002년까지 연방정부의 균형예산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출감축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농업예산 지출규모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회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과거 융자단가(Loan Rate)가 가지던 최저지지가격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1996년 농업법에서 개별작물에 대한 융자단가가 이전 5개년도 농가수취가격 이동 평균치의 85%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1990년 농업법과 동일하지만, 융자단가의 상한을 1995년도 개별작물의 융자단가로 고정시켜 시장상황이 변동하더라도 융자단가가 정해진 수준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결국 융자단가가 담당하던 실질적인 의미의 최저지지가격으로서의 역할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농업정책이 기존의 공급관리형 기초에서 시장지향적 기초로 대폭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미국의 농업정책은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농업 생산력 증대로 인한 만성적인 과잉생산압력을 식부면적감축계획(ARP)과 휴경제도(Set-Aside) 등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상품신용공사(CCC)의 9개월 기간의 비상환용자와 3년 기한의 농가보유비축제도(FOR)를 통해 시장 출하량 과잉으로 야기될 시장가격의 하락을 예방해 왔다. 그러나 1996년 농업법은 식부면적 감축계획, 휴경제도를 폐지하였고, 농가보유비축제도는 동법의 시효동안 잠정적으로 실시를 중단했다. 또한 작물 특정적인 식부기준면적(Crop-specific Acreage Base)은 사실상 총 기준면적(Total Acreage Base)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과거 옥수수 기준면적에는 옥수수의 식부만이 가능했고 이 기준면적의 15%(NFA : 정규탄력면적)에만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여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 기준면적 개념의 도입에 따라 총기준면적에는 어떠한 작물(단, 과일과 채소 제외)도 식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990년 농업법에서 15%의 식부탄력성이 있었지만, 1996년 농업법에서는 사실상 100%의 식부탄력성과 생산자우권이 농민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는 곧 미국의 농업생산이 시장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 생산통제정책의 전면적 해제와 시장지향적 농업생산체계의 대폭적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세계 농산물시장에 대한 미국 농업의 적극적 대응의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농산물 수출정책의 경우, 그 자금 지원면에서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신흥 민주주의국가(Emerging Democracies)로의 농산물 수출, 가공농산물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비중 증대 등이 1990년 농업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수출 농산물의 구성도가 변화하고 있고, 또한 UR 타결과 그에 따른 소득 증가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의 질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 및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1990년 농업법에서 도입되었던 환경보전조치들이 통합된 반면, 환경보전을 위한 여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됨으로써 환경보전정책이 1990년 농업법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2. 중 국

가. 농업경제 동향

'96년 중국의 농작물 생산은 투자 증대, 농업 과학기술 수준 제고 및 보급 확대, 양호한 기후조건 등에 힘입어 식량 총생산량이 4억 9천만톤에 달하는 역사상 최고기록을 이루었다. 당료, 연초, 채소, 과일, 차잎 등 작목은 계속 증산된 반면 면화, 유지 등은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아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은 물론 중국 정부의 최대 당면과제의 하나인 인플레이 억제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농산물 구매가격의 제고와 공산품 및 생활 소비 소비자가격에 대한 거시적 조정에 따라 통화 팽창률을 억제시킴으로써 농촌 주민들이 실익을 보게 되어 1,926RMB에 이르게 되었으며, '95년에 비해 346RMB가 증가한 것으로 물가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실제수입은 9%가 늘어난 것이다. 이렇듯 '96년도 중국 농촌주민 실제 수입이 “8.5계획” 이래 최고기록을 넘으로써, 금세기말 중국 농촌경제 발전을 실현하는데 매우 좋은 발판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94년 이전에는 식량의 수출입 상황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95년부터는 식량 수입이 2,040만톤(쌀 164, 소맥 1,159, 옥수수 518), 식량수출이 64만톤(쌀 5, 소맥 2, 옥수수 11)으로 식량수입국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채소, 과일, 육류 등 원료농산물 및 단순가공 농산물의 수출은 증대하여 수입액의 4~5배에 달하고 있다.

'96년도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5번째 수출 상대국인 동시에 2번째 수입국으로서 '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교역 규모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리적 근접성, 비슷한 기후, 식문화의 유사성, 가격의 저렴성 등으로 인해 양국간 교역규모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주요 농업정책

중국은 농업을 모든 경제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발전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요 농업정책 내용을 보면 첫째, 주요 농산물의 풍작을 계속 유지하여 농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96년도에는 농촌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식량의 연속 3년 풍작을 이뤄 “식량 4억 9천만톤 생산”이라는 역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면화, 유지작물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 모두가 증산되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지가 적으며 자연재해가 항시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식량과 면화의 파종면적을 적정 확보하고 한·수해를 적극 방지함으로써 식량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농민 수입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종자개량, 비료시비, 병충해 방제 등 선진농업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기술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농업과학기술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 경영체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생산 책임제를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식량유통 체제를 계속 합리적,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혁하고 보호가격제도를 완성하여 농민의 재배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농업생산자재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유지와 쌀 생산 성장 책임제, 채소생산 책임제, 기본농경지 보호제도를 지속 추진하여, 각종 건설로 인한 경작지의 전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경지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수리시설의 강화이다. 중앙 및 지방의 수리·건설기금을 조성하여 수리건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수자원의 개발, 종합이용,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자원의 유상 사용을 점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 부담의 완화이다. 농업생산에 따른 농민 소득 증가를 이유로 최근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농민의 실제부담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외 기타 항목의 부담을 금지하고 농민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는 것이다.

3. 일 본

가. 농업경제 동향

'95년 일본의 농업생산은 두류, 화훼류, 우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4.7% 감소하였다. '95년도 농업 총생산액은 10조 4,341억엔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하였으며, '95년도 판매농가의 농가 총소득은 8,917천엔으로 이중 농업소득이 1,442천엔, 농외소득이 5,453천엔, 연금증여 등이 2,002천엔이다. '95년도 농업취업인구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327만명인데 64세 이하 각종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가 총 호수는 '96년에 3,388천호로 최근 5년간에 10.6% 감소되었고 이중 판매농가는 2,606천호로 5년간 11.2% 감소되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은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수입의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식육, 신선채소, 과일가공품 등의 수입량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96년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8조 2,837억엔이며, 국가 총 수입액에서 점하는 비율은 21.8%로 전년(22.6%)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수출액은 3,164억엔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지난해에 비해 엔화의 가치가 하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농림수산물 수입국의 자리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농림수산물은 '96년 2,167억엔으로 총 농림수산물 수입액중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수입대상국중에서 9번째 나라로 되어 있다.

'96년도 쌀 MMA 511천톤(현미기준)이 미국, 태국, 호주, 중국 등에서도 도입되었다. 돼지고기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96년 7월부터 발동하였으나 전년과 대비하여 물량은 13%, 금액면에서는 19% 증가를 보여 식육수입의 급증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나. 신농업기본법 제정 추진

일본은 1961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농지정책, 농업생산기반정책, 농촌정비 등을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농업기본법은 제정된지 36년이 경과하여, 농업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기본법 제정을 위해 '94년 10월 「UR 농업합의관련 대책대강」에서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을 착수하기로 하고, '95년 10월 농림수산성 대신의 사적 연구회로서 “농업기본법에 관한 연구회”가 발족하여 '96년 10월에 농업 신기본법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정부가 식품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소비자를 중시하고,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여 농업과 농촌을 국민과 좀더 가깝게 연결시키는 것이 농업발전의 조건이 됨을 강조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깊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 종사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널리 모집하여 기술경영 연수 및 농업조건의 정비실태, 즉 마을영농, 농업서비스 사업체 등에 대해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일본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총리대신 산하에 각계 대표로 구성된 「식량·농업·농촌 기본문제조사회」를 2년 한시 기관으로 설치하고 ('97. 4.)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농협에서도 “식품, 농업·농촌지역에 관한 새로운 기본법”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여 국민적인 합의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4. E U

가. 농업경제 동향

EU 15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41백만ha, 농가수 781만호, 호당 경지면적 16.4ha,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약 788만명이며 농업 총생산액은 2,065억ECU 정도이다. 농산물 생산액중 우유 생산이 1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쇠고기 12.1%, 돼지고기 10.5%, 신선채소 9.7%, 와인 5.0%, 가금육 및 신선과일이 각각 4.8%, 4.5% 순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곡물생산 비중이 높고 이태리,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주로 과채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등은 축산물을 많이 생산한다. EU 전체로 볼 때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인데,

영국(2.2%), 벨기에(2.5%), 룩셈부르크(2.8%)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그리스(20.8%), 오스트리아(13.3%), 아일랜드(12.0%), 포르투갈(11.6%)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생산액은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인데, 독일(0.8%), 영국(0.9%), 룩셈부르크(0.9%) 등 낮은 국가와 그리스(7.5%), 아일랜드(5.4%) 등 비교적 높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U의 농업생산은 공동농업정책 추진, 가맹국 확대, 기술변화에 의한 단수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EU 농산물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 15.1%, 설탕 14%, 쇠고기 14.7%, 돼지고기 20.3%, 탈지분유 37.4%, 치즈 40.8%, 버터 26.3%, 전지분유 43.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공급 증가가 수요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농산물의 자급률을 보면 곡물 전체는 125%(쌀 제외), 소맥 141%, 보리 122%, 옥수수 108%, 육류 105%, 전지분유 211%, 탈지분유 122% 등으로 소맥을 비롯한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1.2%이며 수입이 11.9%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1.5%), 일본(6.7%), 스위스(6.7%), 러시아(6.2%) 등이며 최근에는 일본 이외에 러시아,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과채류, 육류 등이다. 농산물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도 미국(11.9%)이 으뜸으로 높고 그 외 브라질(8.1%), 아르헨티나(4.6%) 등으로 주로 과채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 증가율이 역외 무역 증가율보다 높다. 농산물 무역적자는 1994년 현재 193억ECU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5>

EU 농업의 주요 지표('94)

국 가 (15개국)	농림어업 종 사 자 (천명)	농 업 총 생 산 액 (백만ECU)	식량자급률(%)	농 산 품 무역수지 (백만ECU)	농산물 비중(%)		
					수 출	수 입	가계비
벨 기 에	95	6,864	54	147	11.9	13.1	17.3
덴 마 크	146	6,392	128	5,171	29.8	16.7	20.7
독 일	1,035	31,396	112	△15,889	5.9	11.6	15.0
그 리 스	790	8,722	93	△577	33.2	17.7	36.4
스 페 인	1,151	22,174	89	△1,082	16.5	15.8	20.0
프 랑 스	1,048	43,917	249	6,679	14.9	12.0	18.3
아일랜드	140	4,307	98	3,779	21.5	11.2	34.8
이 태 리	1,572	32,332	82	△11,819	7.3	16.6	20.1
룩셈부르크	6	186	-	147	11.9	13.1	18.2
네덜란드	264	16,808	30	12,484	24.4	16.2	14.6
포루투갈	514	3,217	44	△2,504	8.3	7.4	32.1
영 국	565	17,831	101	△10,288	7.6	8.8	20.7
스 웨 덴	135	3,357	-	△765	6.0	11.8	19.9
핀 랜 드	168	3,581	-	387	8.7	9.1	23.2
오스트리아	476	5,512	110	△1,104	5.7	17.0	19.1
전 체	7,878	206,496	125	△19,334	8.4	12.0	19.7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European Union", 1996.

나.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EU는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감축, 관세화 및 관세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UR 협상 타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책조정 필요성에 따라 1992년 5월 CAP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CAP 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지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고 그에 따른 소득 손실분은 휴경을 전제로 한 직접 소득보상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EU는 1992년 개혁을 통해 종래 가격지지 위주에서 직접 소득보상제를 병행하여 농업지지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992년 CAP 개혁의 목표는 지지가격을 30% 낮추고 휴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있다. 또한 지지가격의 인하는 사료용 농산물 등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함이다. 또 다른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UR 농업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사전적인 정책조정이다. 새로운 농업보호장치의 도입을 제한하고 전체적인 지원 수준을 낮추도록 한 UR 협정의 테두리 속에서 지지가격의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EU의 중요한 과제였다. EU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부족분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유사한 보상지불제(compensatory payment)를 도입하여 UR 협상에서 허용대상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지가격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경종작물 중 1992년 개혁조치에 포함된 품목은 주로 곡물 및 유지작물이고 쌀과 원당, 포도주, 과채류 등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곡물의 목표가격, 개입가격, 경계가격은 1992년 수준에서 30% 인하하고 그에 따른 소득손실은 휴경을 조건으로 단위 면적당 보상지불을 통해 보상한다. ha당 보상지불액은 1986/87~90/91년의 지역평균 단수에 기초하여 지급된다.

보상지불의 조건으로 부과되는 휴경의무의 비율은 순환휴경(rotational set-aside)의 경우 15%, 비순환 휴경(non-rotational set-aside)의 경우는 20%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휴경의무가 면제된다. 즉 곡물, 유지작물, 단백질작물 재배농가 중 곡물 92톤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면적보다 작은 규모의 농가(약 20ha 이하 농가)는 휴경을 하지 않고 보상지불을 받을 수 있다.

유지작물 분야는 1993/94년부터 최대보증물량한도제(Maximum Guarantee Quantities : MGQs)를 폐지하고 과거 단수추세에 따라 계산된 ha당 작물보조(arable crop aid)가 적용된다. 곡물류와 마찬가지로 작물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경작면적의 15% 휴경 의무가 부과된다. 대신 휴경 기준면적은 전체 경종작물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는 곡물 또는 유지작물에 관계없이 전체 경종작물 재배면적의 15%만 휴경하면 된다.

축산물 중 쇠고기의 개입가격은 세 단계에 걸쳐 15% 인하하고 정상적인 개입물량 상한선도 연차적으로 감축한다. 지지가격의 인하에 따른 사육농가의 소득 손실분은 목초지 ha당 최대 가축밀도를 기준으로 숫송아지 장려금, 암송아지 장려금, 쇠고기 가공 장려금, 조방화 장려금 등 네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지지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장려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목초지 ha당 최대 가축밀도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과도한 사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낙농정책의 핵심인 생산쿼타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우유 생산 쿼타량은 1993/94~1994/95 유통연도 중 2% 감축시킨다. 우유 및 낙농제품의 개입가격은 1993/94~1994/95 유통연도 중 5% 인하한다.

시장조치의 개혁과 함께 조기은퇴 지원, 조립 지원, 환경보전에 부합하는 영농방식의 지원 등 3가지 부속조치가 도입되었다. 부속조치의 이행에 따른 예산은 공동체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조기은퇴 지원제도는 새로운 시장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55세 이상의 고령농민에게 조기은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은퇴로부터 방출되는 토지는 영농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농민에게 넘겨서 경영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규모는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년 4,000ECU에 ha당 250ECU를 더한 금액인데 농가 호당 1만 ECU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995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1992년 개혁시 포함되지 않았던 쌀에 대한 개혁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쌀에 대한 개혁안은 지지가격의 인하와 함께 보상지불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1992년 개혁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마련되었다. 종전에 인디카형과 자포니카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던 개입가격을 인디카형에 적용되던 가격으로 통일하고 쌀의 개입가격은 1997/98년부터 3년간 15% 인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른 소득손실은 각 회원국의 평균 수량에 기초하여 계산된 ha당 보조금 지불로 보전될 것이다.

쌀에 대한 개혁조치가 곡물류와 다른 점은 쌀에 대해서는 최대보증

면적제가 설정, 운영된다는 점이다. 각 회원국별로 동일한 기준기간의 평균재배면적에 의해 산정된 최대보증면적이 부과되어 실제 경작면적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보조금 규모를 줄이도록 하였다. 실제 재배면적이 기준면적을 5% 이하로 초과하는 경우는 전 회원국의 모든 생산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감축하지만 재배면적이 이 수준 이상으로 초과하면 초과한 해당 회원국에 대해서만 최소한 5% 이상의 보조금 삭감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예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6/97년 쌀의 개입가격은 톤당 352ECU로 고정되고 이듬해인 1997/98년에는 315.90ECU로, 1998/99년에는 298.35ECU로 인하한다. 참고로 1995/96년 톤당 쌀의 개입가격은 373.84ECU였다.

쌀의 개혁안에는 UR 농업협정 이행에 의한 쌀의 시장접근 보장으로 수입 쌀의 유입에 대비한 품질 차별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즉 품질과 품종에 따른 가격 차이가 개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과 과징금의 부과를 쌀의 품종 및 품질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입을 줄이는 대신 개입가격의 60%를 선지급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쌀을 저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 4 장 농림사업 중간평가

제 1 절 농림사업 1단계 중간평가

1. 중간평가 개요

가. 실시배경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92년부터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94년에 수립한 농어촌 발전대책에 따른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의 신설 등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규모를 크게 확대하였다.

< 국고투융자계획 >

- 42조원 구조개선사업('92~'98년) : 35조 4,000억원
- 15조원 농특세 사업('94~2004년) : 15조원

또한,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농정으로 전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된 농정환경하에서 농촌투자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 상반기에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중점 추진사항

중간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림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아래에 예산평가반, 정책평가반, 집행평가반, 농정모니터반 등 4개의 실무작업반을 두었다.

정책평가에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 실시하였다. 내부평가는 사업 추진목표 및 세부 실천계획의 타당성,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제도·시책의 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계 등 전문가와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토론회(4회)를 개최하여 각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여론을 수렴하였다. 외부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13개팀을 구성하여 농림사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어촌발전위원 10인으로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 발전대책의 기본취지와 목표가 현재의 투융자사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는 한편, 현지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자체평가와 토론회 및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국과 해당 외부평가팀간에 정책토론회(3회)를 거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사업집행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96 상반기에 2회에 걸쳐 전국 26개 시·군에 대하여 농림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농림부 감사와 시·도 자체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 중간평가 결과

중간평가 결과 나타난 주요성과를 보면, 첫째, 영농형태가 종전의 쌀 중심에서 고소득 작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가수는 감소하는 대신 호당 영농규모가 늘어나고, 축산·원예 등을 중심으로 상업적 영농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농가 경영주의 학력수준이 규모화된 농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기계화 영농이 진전되고 토지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셋째, 가공·유통 등에 직접 참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늘어나 농업의 2·3차 복합산업화가 촉진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부문의 구조개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기술농업과 환경농업기술의 실용화로 농업노동력이 절감되어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졌다.

다섯째,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통식품 등 농축산물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생활여건이 꾸준히 개선되어 농촌을 떠나는 농가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능력있는 도시인이 농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주요 보완과제로는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향식 농정추진방식의 시행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부실화나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농업분야의 기술·시장·경영정보의 공급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경쟁력제고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노령 농가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농정체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실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간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별 사업별로 지적된 4개 분야 85개 주요 보완과제에 대하여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1. 추진배경

'96년도에 실시한 농림사업 1단계 중간평가는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과 보완방향 제시를 위하여 실시하였으나, '96년 하반기부터 '97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쌀, 원예, 축산업 등 주요 산업의 정책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농지, 유통, 인력, 추진체계 등 지원제도의 정책개혁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2. 평가 총괄

가. 농어촌 투융자와 농정개혁 주요평가

'80년대 후반과 '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농업부문이 '94년 이후 연간 3.6%의 성장세를 보여 농업성장률이 회복되는 등 농업 투자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90년대 농업부문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자본장비율도 크게 향상되었다. '94~'96년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를 기록하였으며, 농가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여 '96년에는 '90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0년대 농축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쌀과 축산농가가 감소하고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고소득작목 재배농가가 증가하는 동시에 전부문에 걸쳐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농업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20~30대 고학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으로의 신규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신선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농산물 수출이 '94년 이후 13%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생활 환경과 농업인 복지부문에 농특세 재원이 신규로 투자됨에 따라 농촌생활 여건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나. 산업별 주요 성과

쌀산업은 지속적인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로 규모화와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및 시장지향적인 수매방출제도로의 전환에 따라 유통효율성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의 수입개방 가능성에 대비하여 규모화와 생산비절감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규모화와 계열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분야로 평가되었다. 양돈업은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우

산업은 수입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제고되어 50% 이상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업은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규격품 생산체제 마련이 요구되며,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이 당면과제로 지적되었다.

시설원예산업은 연중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고 가격안정화 추세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수출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도 빠르게 농업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보조는 적격자 선정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과수산업은 생산성 향상, 규모화의 성과가 미약하여 향후 기술개발, 생력화를 위한 구조조정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생산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투융자 확대와 농정개혁으로 농업과 농촌은 전반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4년 쌀 시장개방 등에 대비하여 앞으로도 농업기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끝나는 1999년 이후의 농업투융자 추진계획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분야별 평가

가. 농정개혁의 추진과 성과

(1) 농정개혁의 추진

농정개혁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 지속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농정제도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으로 전문인력의 육성과 생산기반 정비 및 영농규모화, 농업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농업기술혁신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었다.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 및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소득원 개발과 도로포장·주택개량·상하수도 등 농촌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시 등 의료, 복지 기반이 확충되었다.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저해했던

농지·양정·시장유통·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농정추진 체계도 자율적인 상향식 농정체제로 전환되었다.

(2) 농정개혁의 성과

'80년대 후반과 '93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농업부문이 '94년 이후 연간 3.6%의 플러스 성장률을 거두어 농업투자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표 1-4-1>

산업별 성장률 현황

(단위 : %)

	'86~'90	'91~'93	'94~'96
전 체	10.2	5.4	8.1
농 립 어 업	△ 0.9	1.5	3.6
광 공 업	11.3	4.8	8.9
서 비 스	9.8	8.4	8.4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농축산물 수출이 '94년 이후 연평균 13% 이상 증가하여 수출농업국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고, 농축산물 가격이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서민가계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

농축산물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90	'91	'92	'93	'94	'95	'96
수 출 액	1,405	1,343	1,349	1,263	1,463	1,747	1,829
증 가 율		(△4.4)	(0.4)	(△6.4)	(15.8)	(19.4)	(4.7)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농가소득은 '90~'96년에 연평균 13.3%씩 늘어나 '90년 대비 '96년에 2.1배로 증가하였고,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부채는 '90년에 비해 '96년에 2.5배로 증가했지만, 78%가 생산성 부채로 가계성 부채의 비중은 매우 낮아 농가경제가 건실해지고 있으며 농가자산도 '90년에 비해 2.2배로 늘어났다.

<표 1-4-3>

농가 경제의 성장 현황

(단위 : 천원/호, %)

	1990	1996	대비 (배)	연평균
			'96/'90	증감률(%)
농 가 소 득	11,026 (100.0)	23,298 (100.0)	2.1	13.3
농 가 부 채	4,734 (100.0)	11,734 (100.0)	2.5	16.3
- 생산성부채	3,146 (66.5)	9,136 (80.0)	2.9	19.4
- 가계성부채	1,015 (21.4)	1,458 (12.1)	1.4	6.2
- 기 타	573 (12.1)	1,140 (7.9)	2.0	12.1
농 가 자 산	75,352 (100.0)	168,901 (100.0)	2.2	14.4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시장지향적인 상업적 영농체제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쌀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채소, 화훼, 과실류 등 원예산업과 축산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농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품목별 구조조정과 함께 규모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1-4-4>

농업 생산액중 주요품목 비중 현황

(단위: %)

품 목	'90	'95	증 감
쌀	37	30	△ 7
원 예	26	31	5
축 산	22	24	2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농업인력은 '85년에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96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농가인구의 29%를 차지하여 노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ha 이상 경영농가는 40대 이하 연령의

농가수가 '90년 3.3천호에서 '96년 9.9천호로 크게 늘어 젊은 영농인력을 중심으로 전업농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비농업부문에서 농업부문으로 전입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산업별 성과와 과제

(1) 쌀 산업

쌀 매매업과 도정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쌀가격의 계절진폭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시장경쟁체제가 구축되고 유통의 서비스 향상과 유통 마진이 감소하는 등 유통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수매방출 제도를 시장원리에 따라 개편한 결과, 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이 시장가격에 접근하고 양곡관리재정 적자가 축소됨으로써, '93년 이후 수매가격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쌀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었다.

쌀 생산의 주요 거점에 미곡종합처리장, 영농회사법인, 전업농체제가 구축되면서 소규모 자경방식에서 대규모 위탁경영방식으로 급속히 진전되었다. 또, 수확후 벼 관리비용의 30% 절감과 함께 규격포장, 품질인증된 지역특산미가 일반화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생산과 마케팅이 결합된 효율적인 대규모 경영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a당 쌀 생산비는 '90~'96년에 실질가격으로 총 19%(연평균 3.4%) 감소하였다. 쌀 생산농가의 감소와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쌀생산 농가는 '85년 1,632천호에서 '95년 1,203천호로 23.3% 감소하였고, 3ha이상 쌀 농가는 9.3천호에서 33.6천호로 늘어나는 등 생산 농가수의 감소와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90년대의 품종개발과 기반정비 및 기계화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 확대로 노동생산성이 '90~'93년 7.3%에서 '93~'96년 17.2%로 늘어나고 있다.

쌀 생산정책의 과제로서 먼저, 경지정리, 용배수개선 등의 생산기반정비가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쌀의 자급유지와 생산성 증대, 노동력 절감, 농지이용률 제고, 휴경화 방지 등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생산기반 확충은 투자의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농지자원 조사와 경지정리의 비용편익분석이 요구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경지정리계획을 조정하고, 일반 경지정리사업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메뉴를 개발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농민 호응도를 높이는 시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수원공 개발보다는 기존 저수지의 준설 등 시설물 개보수와 보강 개발을 우선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일반농가 보조지원을 용자방식으로 전환하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규지원은 축소하되, 경영실적이 우수한 법인에 대한 대체농기계 구입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쌀전업농 및 농업회사법인의 기계구입 보조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용자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식량안보용 양곡의 적정비축 규모 설정과 함께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농지전용 규제강화 등 일시적인 규제방식보다는 산지전용을 통한 농지전용 보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축산업

축산 농가 가구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경영 규모는 한우 50두 이상의 전업가구수 비중이 '90년 0.2%에서 '96년에는 0.5%, 젓소는 2.0%에서 7.6%, 양돈은 1.1%에서 11.0%로 각각 늘어나고 있어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양계업을 중심으로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이 빠르게 진전되고 사육농가의 생산차별화와 계열화, 제품 브랜드화 및 유통혁신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품질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돼지고기 수출의 증가로 '96년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배이상 늘었고 한우쇠고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로 자급률이 수입개방 이전 수준인 5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축산정책의 과제는 축산부문 투융자사업을 축종별·목적별로 통합운영하고 통합된 사업들간의 자금 풀링(pooling)제를 도입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한우 번식부문에 대한 투융자 확대로 한우 번식기반의 확립과 양돈·양계부문의 수출규격품 생산기반 확충 및 모돈 두수 제한규제 완화조치와 함께 축사 신·증축과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병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3) 시설원예산업

시설원예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90년 이후 각각 연평균 10%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영규모도 '90~'95년에 1,000평 이상의 재배농가 비율이 28%에서 39%로 증가하였고, 소규모 농가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특히 시설 면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1,000평 이상 재배농가들의 면적 비중이 60%에서 7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채소 및 화훼의 생산량 확대와 연중 공급에 따라 가격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

시설원예산업의 발전에 따른 후방연관효과로 국산 시설자재의 매출액이 연간 35%이상 급증하고 있고, 전방연관효과로는 저온처리실, 예냉실, 저온수송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 산업정책의 과제는 유리온실에 대한 지원액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불요불급한 시설투자에 따른 경영부실화를 최소화하고, 비닐 온실의 고정화 또는 자동화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촌진흥원 또는 주산단지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술개발 및 농가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4) 과수산업

과수산업은 '90년 이후 1ha 이상 농가비중이 조금 증가하여 완만한 속도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도와 감귤의 1ha이상 농가비중이 사과나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수취가격은 '90년 이후 계속 상승추세에 있어 생산기반 정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품질개선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배와 포도 재배농가의 실질소득이 늘어난 반면, 사과 및 감귤 재배농가의 실질소득은 각각 29%, 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이후 사과를 제외하고는 생산기반 확충에 따른 노동투입량 절감으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량이 향상되었다.

과수정책 과제는 획기적인 규모확대와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과의 경우, 왜성대묘사업의 확대, 왜화수형 도입, 배는 Y자 밀식수형 보급확대, 포도는 평야지집단화 및 기계화모델 개발 등 과종별로 중장기 과원구조개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과원의 구조개선과 생력화를 위하여 정책투자는 관련기술 개발과 생산기반조성 분야에 주력하되, 시기별 가격진폭 완화와 부족노동력 안배를 위해 조·중·만생별 품종개발·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특작산업(버섯, 인삼)

버섯생산은 농한기 부업 생산에서 재배시설 현대화로 연중생산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업적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고, 버섯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모두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버섯의 호당 평균 생산액은 실질가격으로 '92~'95년에 61.5%가 증가하였고, 느타리버섯의 경우에는 동기간에 65%가 증가하였다.

인삼의 경우는 재배시설을 현대화하고 이식과정 등의 기계화로 노동력투입이 절감되어 실질 생산비는 인하추세에 있다. 또한, 연간 1,000~2,000평 식재규모의 규모화된 인삼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작산업의 과제는 버섯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배지재료 연구·개발이 시급하고, 버섯 생산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보조비율 축소와 함께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삼 정책서도 우량 묘삼 생산, 재배시설 현대화, 인삼 전용 농기계지원에 대한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하여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6년근 홍삼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근별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산지에 생산농가가 직접 출하할 수 있는 도매시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종합평가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 확대와 규제 위주의 농정을 시장지향적인 자율농정체제로 전환한 결과, 생산·유통의 계열화 및 규모화, 상품성과 부가가치의 제고 등 민간주도와 시장기능에 의한 소비자 지향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촉진되고, 농업부문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농림산물 수출이 증대하는 등 UR 타결직후의 우려와는 달리 농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원예산업 발전에 따라 시설기자재를 포함한 전방, 후방산업에 대한 연관효과도 커지고, 농산물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여 가격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증가하고 생산성 증대와 경영규모 확대로 낮은 가격에서도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림예산을 투자재원과 융자재원으로 분리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고유 역할 분야인 기반조성, 농업인 복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에 한정하고, 영농규모화, 전업화,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은 농가의 이윤추구 동기에 따라 투자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정부는 농가들의 투자재원을 금융자금으로 조달해 주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투융자사업은 품목별, 기능별로 단순화하고, 품목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재원을 단순화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별 농가의 소득증대만으로는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으므로 농촌지역에 환경 친화적인 2·3차 산업 유치에 대한 제도 보완과 농촌생활환경 개선부문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의료, 연금에 대한 농어민의 부담과 수혜 서비스가 도시민과 형평을 이룰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의 당면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며, 2004년의 쌀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업기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 되므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1999년 이후의 2단계 농업투융자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향후 추진계획

농림사업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시장 지향적인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구성을 위해, '97년 4월부터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주관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6개 연구기관과 학계전문가 7인이 공동 참여하는 「농림사업평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농림사업 평가를 분야별로 분담·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외부평가는 주요 산업별 평가 4부문과 제도 및 정책평가 10부문 으로 나누어, 산업별 평가는 대학교수 등 품목별 전문가 위주로 평가 하도록 하였으며 제도 및 정책평가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1997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이번 평가는 평가과정에서 평가기관별, 담당분야별 세미나와 분야별 관련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농정의 현장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편 1996년도에 시행한 주요농정시책

총괄

'96년은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94.6)」이 본격 추진된 지 2년차가 되는 해로서 각종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해였다.

42조원 구조개선 투자와 15조원 농특세 재원을 바탕으로 생산·유통 기반 확충과 농촌생활·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농림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평가도 본격 실시하였다.

특히, '96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림사업 1단계 중간평가」는 그 범위와 내용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면적인 자체평가였으며, 일선 시·군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사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은 농촌 투자재원의 효과적 집행은 물론 피드백(feed back)을 통한 정책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별 성과와 보완과제에 중점을 둔 상반기의 중간평가에 이어 '96년 10월부터는 농정제도와 쌀, 축산 등 산업별 구조개선 성과 및 과제 도출을 위한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에 착수하였다.

'96년은 또한 사상 유례없는 풍년농사를 달성함으로써, 쌀 수급여건을 호전시키고 쌀 자급유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해였다.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의 감소와 자연재해 등으로 쌀 생산이 수년간 감소한 결과 쌀 수급상황도 쌀 재고전망이 FAO의 권고수준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휴경논 생산화 등 적극적인 쌀 증산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장기적인 쌀 자급기반의 확충과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96년 6월 14일 발표하였다.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은 벼재배 면적의 확보, 쌀 생산비절감과 품질 향상방안과 함께, 추곡수매제도를 약정수매제로 개편하고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6년도 쌀 생산량은 3,969만석으로 '92년이래 최대의 풍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10a당 수확량은 507kg으로 사상 최고를 달성하였다. 쌀의 대풍은 침체상태에 있던 우리경제 전체성장률을 4/4분기중 1%포인트나 끌어올리는 등 전체 경제성장에도 기여하였다.

이와함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안전·고품질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였다. 농산물검사소가 안전성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96년 8월부터는 쌀, 배추, 딸기, 사과 등 20개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협동조합합병 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등 5개의 법률이 정비되었으며,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관련시설의 설치확대 등 '93년이래 총 388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업관련 거시지표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95년 21,803천원에서 '96년에는 23,298천원으로 늘어났으며, 경지정리율은 76.4%에서 79%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6.1%에서 97.1%로 높아졌다.

농림산물 수출도 그동안의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힘입어 '95년 17.5억불에서 '96년에는 18.3억불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정주권개발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과 농촌학생 대학특별 입학 정원의 확충, 농촌보건소에 한방의료시설 신설 등 농업인 복지 증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제 1 장 농촌발전대책 추진 지원토대 확립

제 1 절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 농특세 예산조달

농어촌발전대책의 추진을 위한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와 농어촌발전 특별세 사업비를 '96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투융자사업은 물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96년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는 '95년보다 21.0% 증액된 5조 7,610억원으로 인력육성(4,083억원), 생산기반 정비(1조 5,337억원) 등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부문에 5조 796억원을, 농어촌소득원개발 및 생활 환경개선 부문에 6,814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구조개선촉진을 위한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되도록 하였다. '96년까지의 42조원 구조개선사업비의 국고 투융자액은 20조 8,724억원으로 국고 투융자 목표 35조 3,977억원의 59.0%에 달하며, '96년 국고 투융자를 기준으로 연평균 23%수준을 예산에 증액 반영하면 '98년까지 투융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성금적 성격인 농특세는 경쟁력강화 대책 뿐만아니라 농어촌 생활여건의 정비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대책에도 균형있게 투자 할 계획으로 '96년에는 총 1조 5,900억원을 확보하여 대구획경지정리(3,623억원), 농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1,614억원), 어항건설(1,211억원) 등 경쟁력 강화 부문에 9,549억원(60.1%)을 투자하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6,351억원(39.9%)이 지원되도록 하였다.

특히 세수부족시에도 농특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특 및 국채관리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개정하였다.

제 2 절 법률 제 · 개정 등 제도개선

1.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농업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 5건의 법률을 제 · 개정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세입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장기적인 쌀 자급기반 확보와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 약정수매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자조조직인 농업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유도하여 농협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환지등 농어촌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고, 농업분야의 유통여건 변화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농업창고인가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근거법인 농업창고업법을 폐지하였다.

제 ·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1〉

'96 제 · 개정 법률

법률명	주요 제 · 개정 내용	공포일 (시행일)
1. 농업창고업 법폐지법률	○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스스로 창고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산물의 수집상 및 저장·보관업자들도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창고업이 가능하게 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함.	○ '96.8.14 ('96.8.14)
2. 농어촌특별세관 리특별회계법	○ 동 회계의 세입재원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과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신설함.	○ '96.12.12 ('96..12.12)

법률명	주요 제·개정 내용	공포일 (시행일)
3.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의결 특례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2/3이상 출석, 2/3 찬성 → 조합원 과반수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 ○ 합병조합의 임원 임기를 연장하고 (1년→2년), 흡수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잔여임기가 2년미만인 경우 2년 까지 연장 ○ 합병조합에 대한 자금·세제지원 ○ 조합합병추진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12.31 ('97.1.1)
4. 양곡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수매제 도입 및 선금 지급근거신설 ○ 약정수매부진시 추가매입 실시근거 마련 ○ 약정체결등 업무대행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13 ('97.2.1)
5. 농어촌정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 농업생산기반등 정비사업의 수혜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인으로 하되 100인 초과하는 수혜자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토지소유자별 환지 지정면적 1,000㎡까지는 산정면적의 20%이내 제한을 받지않고 증감이 가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13 ('97.7.14)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2. 농림분야 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추진

가. 추진배경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과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를 맞아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농림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의 농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불합리한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였다.

나. 추진상황

'93년 3월부터 시작된 문민정부의 규제개혁작업은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등 행정의 전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작업과 아울러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법령과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부담경감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작업을 통하여 '93년이래 총419건의 농림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388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과제(31건)에 대하여도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표 2-1-2>

농림분야 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96. 12. 31현재)

과 제 발 굴	확정 과제	완료 과제	추진중 과제
행 쇄 위 과 제	171	154	17
경 제 행 정 규 제 개 혁 과 제	112	102	10
농 립 업 인 불 편 해 소 과 제	136	132	4
계	419	388	31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다. 주요 개선내용

WTO체제의 대응 및 농어촌발전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 아래 농림분야의 행정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첫째, 농업인 등의 생산·유통·가공활동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며,

둘째, 농림업의 구조개선사업 기반확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셋째, 농림관련 산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품질향상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농림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며,

넷째, 농림업에 필요한 농지·산지 등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농촌지역에 2·3차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업관련 단체 및 생산자 등으로부터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개별규제가 제정되었던 당시의 목적과 근거를 현재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분야별 주요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분야>

- 개발제한구역내 농업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 버섯재배사 설치범위 확대 : 300m²이하 → 500m²이하
 - 미곡종합처리장(2천m²이내), 농산물종묘배양장(110m²)설치 허용
-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농어업용시설 설치시 농지조성비 감면범위 확대
 - 농업진흥지역 안 : 1,500m²→3,300m²까지 면제(초과면적 50% 감면)
 - 농업진흥지역 밖 : 3,300m² → 면적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축산분야>

-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신고에 의한 축사 건축면적 확대 (200m²→400m²미만)

- 돼지사육두수 규제완화(등록 : 500→1,000두, 허가 : 1,000두→2,000두)

〈유통분야〉

- 양곡매매업의 신고없이 판매할 수 있는 포장양곡 확대 (5kg→20kg이하)
- 기준 제조수량 폐지 등 면허요건 완화로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 제조업 참여 확대(과실주 등 3종 → 소주, 브랜드 등 모든 주류)

〈산림 분야〉

- 국유림내 약초재배 허용 확대(불요존 국유림→요존 국유림으로 확대)
- 국유림 대부(공공사업 등→임산물가공시설사업 등 추가) 및 분수림 설정(조림목적→과수재배 추가) 허용범위 확대

3. 재해지원제도 개선 추진실적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영농자금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와 농지개량조합비 감면대상을 30~50% 피해농가의 경우 2ha 이상의 농지 소유농가는 지원이 되지 않던 것을 경지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모든 피해농가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인삼관련 재해에 대하여도 차광망시설과 묘삼대를 복구지원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유실·매물·침관수로 인하여 대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배추기준의 1,318천원의 대파대를 지원하였으나, 과수·화훼·버섯류에 대하여는 묘목대, 종묘대, 종균대의 지원을 신규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재해복구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표 2-1-3>

과수·화훼·버섯류 대파대 지원단가

(단위 : 천원/ha)

과수(묘목기준)	화훼(종묘기준)	버섯류(종균기준)
사 과 1,700	백 합 18,200	30,000
배 1,600	안개초 10,500	
단 감 1,400	장 미 10,500	
복 송 아 1,200		
단 감 1,200		
감 귤 2,100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한편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가축입식비 등의 복구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재해지원 제도를 개선하였다.

<표 2-1-4>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내역

	종 전	개 선
농 경 지	3,998	5,340원/m ²
경 운 초 지	2,520	2,930천원/ha
철재비닐하우스	5,600	5,810원/m ²
산 란 계 사	79,800	99,000원/m ²
새끼돼지입식비	44,000	45,630원/마리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표 2-1-5>

'96 재해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지원액 합 계	직 접 지 원			간 접 지 원					농업 시설
	계	농약대	대파대	계	영농자 금이자 감면	수업료 제	무상양곡 지 원	이재민 구 호	
183,683	10,568	1,388	9,180	18,308	3,941	818	9,485	4,064	154,807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제 2 장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제 1 절 개방화 · 국제화에 대응한 농업인의 능력배양

1. 전문농업 경영체의 육성

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국내 농림업이 생산성 높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고급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우리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 후계자를 '81년도부터 선정하기 시작, '92년부터는 매년 9,000명(어업인 후계자 1,000명 제외) 수준으로 증원하여 선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95년 13,132명, '96년에는 14,615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표 2-2-1〉

‘96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계	22,842	18,234	4,608
농업인후계자	8,227	3,619	4,608
전업농	14,615	14,615	-

주 : 축산전업농 육성사업은 '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농업인후계자는 평균 2,000만원,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평균 5,000만원 수준을 지원하되,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자금지원 이외에도

기술교육, 해외연수 실시, 각종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95년부터 경영규모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선정, 그 사업장을 모델농장으로 조성하여, 농과계 학생과 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도에 65개소를 선발, 개소당 4,500만원씩 지원하였고, '96년도에는 70개소를 선발, 8,000만원씩 지원하였다.

나. 법인 경영체의 육성

(1)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경영체로서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90년 1개소, '91년 26개소, '92년 60개소, '93년 230개소, '94년 1,016개소, '95년 1,207개소, '96년 947개소 등 총 3,487개소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매년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영농의 규모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고, 둘째,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업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타 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원 공제후 그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조합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교육세 감면으로써,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제하고 농지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촌지도소 등에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2)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대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91년부터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 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까지 허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게 하는 등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4. 12. 22)에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은 농업인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설립자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구입자금, 농업기계의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90년에 6개소를 시작으로 '91년 59개소, '92년 166개소, '93년 280개소, '94년 338개소, '95년 326개소, '96년 244개소 등 '96년까지 총 1,419개소가 설립되었다.

다.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현재 전국에 약 3만여명의 농림수산계 고교생이 재학중에 있으나 매년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졸업후의 영농종사율도 20%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 여건이 타산업에 비하여 진로가 어려운 것에서 연유하나 그보다도 농업계학교가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시설장비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농(어)장 경영실습과 선진기술교육이 어려워 영농기반 및 의지가 있는 학생들도 농림수산계 학교 입학에 기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농어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농수산계 대학도 연구시설 미비, 시설장비의 노후등으로 선진 과학기술교육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속에 우리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업농 체제로의 이행 등 농업구조의 개선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계 고등학교중 농고는 도별 1개교씩 9개교, 수고는 해역별 1개교씩 3개교를 자영자 양성 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농업계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산하에 농업전문학교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농림수산계 대학은 지역, 기능, 분야를 고려하여 16개 특성화대학을 선정, 지역 농림어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 개발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였다.

따라서 '96년도에는 12개 자영자 양성 농수산고등학교에 138억원, 9개 특성화대학에 60억원 등 총 198억원을 실험실습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99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2〉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자 영 농 · 수 고	-	184	138
농 업 전 문 대	-	13	-
특 성 화 대 학	20	50	60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2. 농업경영혁신목표관리제 도입

WTO체제 출범으로 농업분야에도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다. 이와같은 무한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농업관 정립과 새로운 농업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농업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족단위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 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외에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혁신목표관리제(벤치마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경영혁신목표관리제는 농업인 스스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보완해야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진단하여 경영개선을 통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품목별로 농업인 스스로 자기수준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진단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기로 하고 우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업전문가들이 품목별 경영핵심사항을 선정하여 쌀·한우등 10개품목의 진단표를 고안하였다.

경영진단표는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 생산과 소득, 자금지원 및 부채현황을 기록하는 농가일반현황과, 자신의 농업경영성과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설정된 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 수준을 세부요소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영요소별 세부진단표, 경영요소별 세부진단표에 표시한 등급을 종합 경영진단 평가표에 기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기반, 재배관리, 경영관리 등 분야별 및 세부 경영요소별 수준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점수화된 종합경영진단 평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진단표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봄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투융자 효과도 높이는 것이다.

향후 위의 10개품목 외에도 다른 품목들에 대한 진단표를 작성 보급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종전의 평균적·획일적 교육방법을 탈피하고 수준별·중점관심 사항별 교육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을 미리 제시하는 학원식 교육체계도 정립하여 수요자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 경영·기술교육 효과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 농촌지도기관, 농과계대학, 생산자 단체 등의 기능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영·기술컨설팅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경영·기술지도를 하고, 농업인들이 경영·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만큼 조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행 사업별, 품목별 위주의 정책자금지원 방식을 사람별로 발전단계별로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업인의 자조노력 고취

가.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통한 국제기술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한 농가의 농업기술정보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약 113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1)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70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영농지도자의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소득작목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 농정시책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2) 전업농가 교육

21세기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전업농육성사업은 '96년 자금수혜자 13,090명(중앙 1,633, 지방 11,457)을 대상으로 전업농가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함양을 위해 농정시책·정신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밭작물, 채소, 화훼, 특작분야는 중앙단위 연구소·시험장에서 3일간, 과수분야는 특화작목시험장·연구소에서 2일간, 쌀분야는 지방단위에서 2일간씩 각각 실시하였다.

(3) 선도개척농 교육

선도개척농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선도농업 실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종 2개 분야, 원예 3개 분야, 축산 3개 분야의 25명에 대해 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선도농업경영체 교육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 모든 방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농업경영체로 선발된 80명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모델화를 위하여 정부시책, 교육기법, 교육장설치, 현지견학 등 4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5) 산업기능요원 교육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예정인 농업인 예비후계자 1,075명을 대상으로 각도 농촌진흥원에서는 3일간에 걸쳐 영농정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정시책교육과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 양성에 기여하였다.

(6)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

농업후계인력에 대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96년에 선정한 농업인후계자 및 사업승계자 8,247명에 대하여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2일간씩 교육을 실시하였다.

(7) 경영 기술연찬 교육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존후계자 6,414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후계자로 육성되도록 도농촌진흥원과 시군농촌지도소에서 2일간씩 전문기술 교육과 경영교육 및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다.

(8) 영농공개강좌

KBS와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전국 18개 지역에서 5,471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교육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화품목의 개발 육성을 촉진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9) 개방화에 대응한 선도지도자 교육

개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이 의욕과 자신감을 갖고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여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중견 농촌지도자의 지도력 함양을 위하여 1,503명의 선도지도자에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적응태세, 지도자의 역할과 농업인조직 육성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도력 배양에 힘썼다.

(10)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지역별 주력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조직농업인 중심의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자율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별 3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 12만 5,368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연 4회에 걸쳐 상설교육을 실시하였다.

(11) 새해 영농설계 교육

1~2월중 전국적으로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작목기술반, 생활개선반 등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 60만 9,393명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영농상의 문제점 개선, 수입개방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 고취, 작목별 개방화 대응전략과 핵심기술, 주요농정 시책 등을 교육함으로써 농업인이 새해영농을 알차게 설계하고 영농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12) 농업기계 교육훈련

요즈음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기계가 농가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에 의한 각종 기계의 생산 공급에 주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책에 부응하여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중앙단위교육에서는 전국 농업기계교관 235명을 대상으로 새로 보급되는 기종의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전문기술 등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을 1주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업계 실과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정비수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후계기능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 37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378명(회사대표 205명, 지도담당공무원 173명)에게 회사설립에 필요한 등기절차와 세무 및 경영, 농업기계 공동관리 등을 교육하여 회사운영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이 주관하는 도단위교육에서는 기계화 영농사 835명과 일선 농촌지도사 302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기종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3~4주간의 심도있는 정비수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기계화영농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였다.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단위교육에서는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기종 구입농가 중심의 농업기계 실수요자 1만 5,166명을 대상으로 포장작업과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촌부녀자의 영농역할 확대에 따라 농업기계보유농가 부녀자 5,391명에게 운전조작과 포장작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노동력 부족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0만 6,281명에게 주행중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62개소의 농촌지도소에서 437명(농기계교관 146명, 수리요원 291명)의 수리 전문지도반을 편성, 204대의 순회차량을 이용하여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2만 9,103개의 오지마을을 2만 274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19만 4,706대의 고장 기대를 수리해주는 동시에, 24만 9,323명에 대한 개별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자가정비 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 농업경영 기술의 개발 보급

전문경영체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농업회사법인과 양돈단지의 합리적 경영모형을 제시하였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브랜드단지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농가에 맞는 경영기술을 지도하기 위하여 벼 어린모·직파재배 노동력 절감기술, 저수고 초밀식 왜성사과 전문경영농가의 경영모형, 비육돈 출하체중 제고, 시설원에 생산관리 적정규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한편, 농가 경영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농가경영혁신 지원의 중심체로 운영하여 단위농가가 건설한 전문경영체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기술중심 지도에서 「기술+경영+농의활동」 종합상담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지도인력을 작목별 「기술+경영+농정」의 상담요원으로 전문화하는 등 농가경영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과학적인 농가경영상담을 위하여 농가별로 전산화한 「농가경영실태조사자료」 활용 및 「전업농 경영기술」, 「영농의사결정지원 시스템」 등 각종 농가경영상담용 자료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개별농가의 특성에 알맞는 농가경영상담을 실시하였다.

〈표 2-2-3〉

농업인 상담실적

(단위 : 천명)

분야별	상 담 인 원				
	계	내방상담	전화상담	현지상담	토론·교육
농업기술	1,746	234	399	753	360
농업경영	594	55	402	110	27
농의활동	696	117	136	193	250
계	3,036	406	937	1,056	637
지도소당 1일 상담인원	52	7	16	18	11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전산망 조직 확대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여 한국농업과학기술전산정보망(KA-STINS)을 구축하고 '95년부터는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개발과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한 각종 농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가공하여 농업기술종합정보시스템(ATINS)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지도기관 및 농업인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개발의 과학화를 통한 연구 효율성 향상, 농업정보의 화상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농업 생산의 환경제어 컴퓨터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농업인에 대한 정보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농업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업발전과 농촌의 정보문화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다.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1) 지방직화의 배경과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출발

'97년 1월 1일을 기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규정 등이 개정됨으로써 전국의 각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6,696명의 농촌지도공무원이 지방직화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우리나라의 지방화 추세에 부응한 조치로써 조직과 인력의 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것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초한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방직화 이후에도 농촌지도사업은 기존의 조직체계 내에서 농촌진흥법에 의한 고유의 기능인 농업기술보급과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 교육, 생활개선 등 각종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앙은 농촌지도사업의 목표, 시책방향,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지방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법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에 의거 교육훈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고, 지방에서는 이 기본계획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162개 시군농촌지도소에 농과계 학교 교원, 농업행정 담당관, 지역연고 연구·지도공무원, 인근 시험·연구기관장, 농협 등 유관단체 대표, 선도농업인 등으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농업의 문제 해결 등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체가 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를 구성하여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제고를 기할 계획이다. '97년 5월 현재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는 30개회가 결성되어 981명의 회원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데, 연찬교육, 세미나·학술행사 및 연수프로그램 참가 등 지도공무원 전문지도능력 제고가 주요 활동이다. 앞으로도 이 조직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제고의 핵심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직으로 전환된 지도공무원에게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중앙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전문능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3)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정보의 지원 확대

지방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농업인의 기술지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지도기관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험·연구 결과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현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

결과 지도사업 활용자료」를 제작 지원하고, 매주·매월 간격으로 농업인에게 보급·지도할 핵심기술지도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전 시군에 동시 제공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다. 대학교수, 연구·지도전문가 등 186명을 3개분야 14개반으로 편성하여 중앙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식량작물, 원예축산, 작물보호 등 분야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 농업인대상 전문교육 및 필요한 기술지원 등 일선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4) 농업인에게 한자리 종합상담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농촌지도소에 조사, 분석, 시험기능을 보강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지역 유망 특화작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리온실 등 현대화 시설과 지역유망소득작목시험시설 등 새기술실증시험포를 지도소별로 2ha내외의 규모로 갖추고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관, 우량종묘생산시설 등 과학영농시설을 완비함으로써 농촌지도소가 명실공히 지역농업기술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2-2-4〉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93이전	'94	'95	'96	'97	'98이후
○ 새기술실증시험포 (사업비)	136 (48,795)	-	9 (2,670)	9 (2,670)	30 (8,901)	44 (19,608)	44 (14,946)
○ 과학영농시설 (사업비)	5종 680 (18,937)	5종 404	5종 102 (6,442)	5종 106 (8,112)	4종 68 (4,383)	-	-
계	816 (67,732)	404	111 (9,112)	115 (10,782)	98 (13,284)	44 (19,608)	44 (14,946)
국 비	(33,866)		(4,556)	(5,391)	(6,642)	(9,804)	(7,473)
지 방 비	(33,866)		(4,556)	(5,391)	(6,642)	(9,804)	(7,473)

주 : 새 기술실증시험포 - 136개소(162개 시·군농촌지도소중 특·광역시 6, 일반시 17 신설 1을 제외한 시군)

자료 : 농촌진흥청

한편, 전국 162개 전 시군농촌지도소에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기술 수준, 영농규모 등 개별농가 수준에 맞는 심층 상담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여기에는 농사기술백과 등 농업기술이나 경영관련 정보를 D/B화하고 농림사업의 홍보, 사업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컴퓨터 및 CD-ROM에 의한 이동식 상담지도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이 한자리에서 기술, 경영, 생활상담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국물의 자급기반 확충

1. 생산기반 정비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0~30천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보조율도 '80년대 국고 50%, 지방비 30%, 주민부담 20%를 여러차례 개선하여 지방비 및 농민부담을 줄이고 국고지원을 늘려 왔으며, '93년도 봄마무리부터는 주민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93년 봄마무리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93년 가을착수부터 사업비 상승 억제를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농어촌 시·군에서는 추가되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등 계획물량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실제 소요사업비 수준으로 예산단가를 현실화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쌀 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자급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96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목표면적 902천ha의 79%인 713천ha를 국고 2조 8,114억원, 지방비 9,698억원, 농민부담 2,711억원 등 4조 523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바 있으며, '96년에는 국고 4,773억원과 지방비 1,802억원 등 6,575억원을 투자하여 '95년 가을에 착수한 24천ha를 5월에 완료하였고, '96년 가을에 27천ha를 착수하여 '97년 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2-5>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96까지	'97이후
사 업 량 (천ha)	1,206	902	713	189
- 진 흥 지 역	744	735	651	84
- 진 흥 지 역 밖	462	167	62	105
사 업 비		93,866	40,523	53,343

주 : 면적은 마무리 수준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생산 핵심 우량농지이나 경지정리 시행 당시의 영농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농기계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워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 생산핵심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쌀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200천ha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96년 봄마무리까지 25천ha를 완료하고, '96년 가을에 16천ha를 착수하여 '97년 봄에 16천h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 지역주민의 사업시행 희망도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필지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매필지마다 접하도록 설치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 1.5~4m를 4~7m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으로 쌀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사업이다.

<표 2-2-6>

연차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96까지	'97계획	'98~2004
사 업 량	200	25	16	159
사 업 비	43,000	6,874	3,760	32,366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다. 밭 기반정비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밭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

개발, 농로개설, 발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현대화된 밭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1970년대에 일부지역에서 밭기반정비가 시행되었으나 쌀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정비된 밭도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여 잡곡 등 밭작물과 고품질의 과수선택에 따른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는 등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시간에 쫓기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는 70%, 1996년에는 80%로 상향조정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 방식으로 조정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발관정의 전기요금이 양곡생산 전기료보다 과중하여 1997년 6월부터는 양곡 생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곡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밭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시설채소 등 관련 사업이 연계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논으로 확산재배되고 있는 밭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면적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96까지	'97계획	'98이후
사 업 량	769	110	13.5	8	88.5
사 업 비		25,794	2,332	1,973	21,489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는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하였고 1985년부터는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수산부 주관하에 추진하여 오던 중,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소득원도로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는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1995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사업을 창설하였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으로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기존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상태로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생산성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 기계화경작로사업추진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함에 따라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1995년에 200km, 1996년에는 1,308km로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기계화경작로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개발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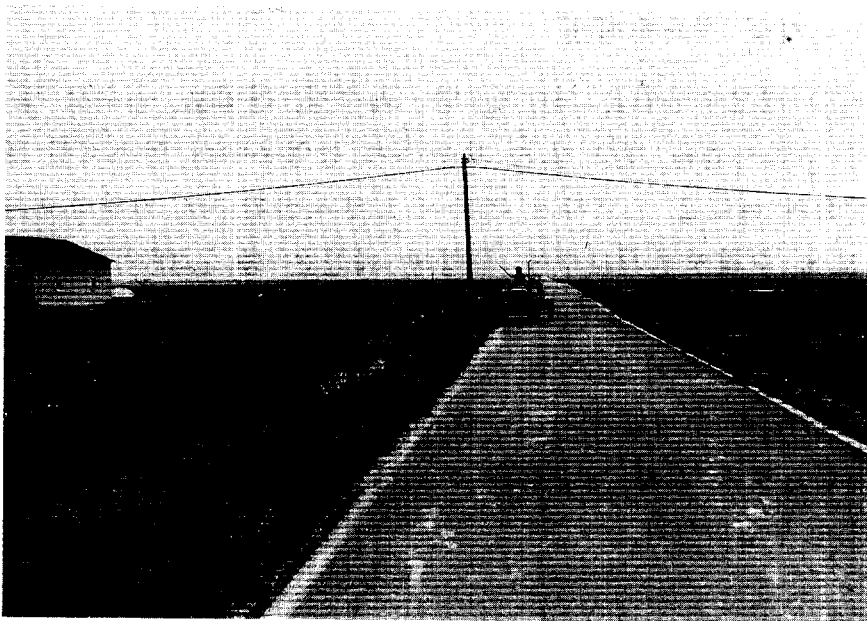
<표 2-2-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96까지	'97계획	'98이후
사 업 량	22	1.5	2	18.5
사 업 비	28,650	1,449	2,028	25,173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

마. 배수 개선사업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96년에는 1,060억원을 투입하여 약 3천ha를 준공함으로써 총 대상면적 207천ha중 70천ha를 완료하였다. 호우시 하루이상 침수되는 지역에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과습한 지역에는 흡수관 등 지하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2-2-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면적 : 천ha)

구 분	총대상		'96까지		'97계획		'98이후	
		%		%		%		%
지표배수	127	100	69	54	10	62	48	38
지하배수	80	100	1	1	-	1	79	99
계	207	100	70	34	10	39	127	61

주 : '97계획의 진도는 누계치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및 방조제 등의 수리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각종 재해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96년도에 수리시설개보수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06억원으로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에 888억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에 178억원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36억원이 투입되었고, 또한 '94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고갈되거나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함으로써 계획 저수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저수지준설 사업에 304억원이 투입되었다.

〈표 2-2-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개소)

구 분	개보수		'96까지		'97계획		'98이후	
	대 상	%		%		%		%
농조수리시설	12,708	100	4,562	35.9	150	1.2	7,996	62.9
국가관리방조제	80	100	37	46.2	9	8.7	34	42.5
지방관리방조제	1,392	100	277	19.9	27	1.9	1,088	78.2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현재 예산에 비해 사업시행중인 사업물량이 많아 준공지연으로 사업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시행지구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예산의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장기화는 심각한 문제로, 중규모용수개발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은 약 5~7년인데 비해 실제로는 10년 이상씩 소요되는 지구들이 있어 영농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다.

'96년 예산을 보면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137개지구에 1,940억원으로 지구당 평균지원액은 1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북 성주, 경남 하사, 전북 동화 3개지구에 463억원이 투입되어 10,752ha를 공사중에 있다. '96년도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37개 지구 중 15개지구 3,294ha를 준공하였으며, 소규모지표수개발, 지하수개발, 한발대비 등 일반 농업용수개발에 658억원을 투입하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표 2-2-11>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천ha)

총답면적	개발면적	'96까지	'97이후
1,206	1,100	907	193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지역을 개발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영농기반 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95년까지 총 21지구 267천ha를 추진하여 그중 13지구 134천ha를 완공하고 8지구 133천ha를 계속 시행하였다.

'96년에는 국고 1,977억원, 농지관리기금 775억원 등 총 2,752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시행중인 새만금지구 등 8지구를 추진하여 그 중 '80년에 착수한 대호지구를 마무리 하였으며, 특히 '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국고 1,324억원, 농지관리기금 450억원 등 총 1,774억원을 지원하여 어업보상과 방조제 물막이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의 27%를 달성하였다.

<표 2-2-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95까지	'96실적	'97이후	
계	21지구	266,937	48,219	19,140	2,752	26,328	
준 공	13지구	133,707	8,367	8,368	-	-	
시행중	8지구	133,230	39,852	10,772	2,752	26,328	
	대 호	7,700	1,856	1,810	46	-	'80~'96
	영산강Ⅱ	20,700	3,422	2,983	150	289	'76~'98
	금 강Ⅱ	43,000	4,184	486	210	3,488	'89~2004
	미호천Ⅱ	4,430	1,329	351	150	828	'89~'99
	홍 보	8,100	2,224	449	240	1,535	'91~2001
	영산강Ⅲ-1	13,160	5,723	843	90	4,790	'85~2003
	영산강Ⅲ-2	7,840	2,414	553	92	1,769	'89~2004
	새 만 금	28,300	18,700	3,297	1,774	13,629	'91~2004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2. 농작업의 기계화

가. 농업기계 공급 지원

'96년도에 경운기 83.3천대, 이앙기 38.5천대, 콤바인 7.6천대, 곡물건조기 7.3천대, 바인더 4.2천대, 관리기 44.6천대, 트랙터 19.6천대 등 총 281.6천대를 공급하여 벼농사의 경우,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95년 96%에서 '96년에는 97%로 높아졌으며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 등 밭작물 분야는 주산단지 중심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기계화 영농장면〉

〈표 2-2-13〉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단위 : 대, 백만원)

	'92	'93	'94	'95	'96
○ 농기계공급	164,259	197,624	222,113	245,902	281,559
- 경운기	36,437	60,971	81,799	79,750	83,269
- 트랙터	17,754	13,029	14,523	17,282	19,605
- 이앙기	32,459	37,072	29,193	34,234	38,524
- 바인더	5,153	4,060	4,844	3,597	4,189
- 콤바인	12,887	3,920	8,063	8,047	7,611
- 곡물건조기	3,021	3,646	4,880	5,313	7,311
- 관리기	44,580	58,598	44,194	47,617	44,581
- 기타	11,968	18,328	34,617	50,062	76,469
○ 자금지원	498,922	631,244	617,835	679,798	743,875
- 보조	56,759	222,287	285,465	310,864	355,852
- 융자	442,163	408,957	332,370	368,934	388,023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93년부터 『농기계 반값공급』을 실시하여 일반농가의 농기계구입은 농가당 200만원 이내에서는 구입비의 50%, 200만원을 초과시는 100만원을 보조지원하고, 농기계 이용조직(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공동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에게는 사업비의 50%를 보조지원하고 있다. '96년도의 농기계구입 지원 보조금은 3,559억원이고 융자금은 3,880억원이다.

'96년도의 주요 농업기계 공급량은 '95년보다 14.5%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96년말 주요 농업기계의 보유량은 3,201천대에 달하게 되었고, '96년 현재 주요농기계의 보급률은 농가 100호당 경운기 60.6대, 트랙터 7.5대, 이앙기 18.1대, 콤바인 4.9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89년 1월 1일부터 농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기계 가격이 9.1% 인하되는 효과를 거두었고, '96년에는 농업기계용 면세유 1,837천kl를 공급하여 1,652억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표 2-2-14>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단위:천대)

	'92	'93	'94	'95	'96
계	2,678.9	2,777.7	2,920.9	3,042.9	3,201.2
경 운 기	768.4	799.1	836.8	868.9	910.4
트 랙 터	64.2	76.8	88.7	100.4	113.3
이 앙 기	185.2	211.3	229.4	248.0	271.1
바 인 더	63.1	65.1	66.4	67.0	67.9
콤 바 인	61.2	67.7	70.2	72.3	73.8
관 리 기	106.7	162.3	201.5	239.5	272.8
방 제 기	723.0	718.2	717.0	712.9	716.8
양 수 기	353.1	352.7	375.1	384.9	407.6
탈 곡 기	222.2	150.6	138.2	122.0	109.9
곡물건조기	27.2	32.0	34.4	28.4	38.1
기 타	326.8	292.5	301.4	320.6	329.4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1) 농업회사법인 지원

농업회사법인은 '91년에 1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이래, '96년까지 총 1,273개소에 대해 농기계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40%, 자부담 10%로 지원하며, '96년에는 농기계 구입에 보조 103억원, 용자 82억원을 지원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 설치자금 37억원과 회사의 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경영비 21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43억원을 보조 및 용자로 지원하였다.

〈표 2-2-15〉

‘96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6까지 누계	'96 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용자 및 자담
1,273개소	206개소	20,565	5,141	5,142	10,282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2)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률 제고와 구입비 경감을 목적으로 '81년부터 조성해 온 기계화영농단은 '94년말까지 총 4만 4,960개소로 이 기간 중 해체된 영농단 2만 8,043개소를 제외하고 '96년말 현재 1만 6,917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기계화영농단은 5호 이상의 농가들로 임의조직됨으로써 법인격과 같은 주체가 없어 농기계가 사유화되거나, 공동관리로 인한 관심 소홀로 고장이 빈발하거나 내용연수 이내에 폐지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95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회원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등 공동작업 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에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명칭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바꾸어 사업을 시행하고 농기계구입자금은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용자 40%, 자담 10%로 지원하고 있다.

'96년도에는 보조금 331억원, 용자금 264억원을 지원하여 1,811개소의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였으며, 트랙터 1,980대, 이앙기 491대, 콤바인 944대, 방제기 344대, 기타 1,370대 등 총 5,129대의 농기계를 공급하였다.

〈표 2-2-16〉

'96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6까지 누계	'96 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용자 및 자담
3,137개소	1,811개소	66,147	16,534	16,534	33,079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 강화

(1) 사후봉사 및 기술훈련

농업기계의 공급확대에 따른 부품공급과 수리 등 사후관리지원을 강화하여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들로 하여금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부품공급과 신속한 수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81년도부터는 일정기준의 수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를 면·군·도단위로 구분하여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전문수리기사 확보를 위해 '96년에도 수리기사 146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점검 수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 영농사 835명을 양성하였다.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바, '96년에도 1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리용부품을 신속히 파악, 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봉사사업소간의 부품관리전산망을 확대 설치하였다.

한편, 대형정밀 농업기계가 많이 공급된 시·군지역에 농업기계 사후봉사사업소 합동으로 광역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도록 3개소에 2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17>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92	'93	'94	'95	'96
도 단위	35	40	40	35	34
군 단위	745	797	889	897	903
면 단위	2,121	2,201	2,237	2,155	2,096
계	2,901	3,038	3,166	3,087	3,033

자료: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과 정비능력 배양으로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의 전문화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농업기계 기술훈련은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교관요원 및 수리기사등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도단위 농민교육원에서는 기계화영농사와 농업기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형기종을 포함한 기종별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군단위 농촌지도소에서는 부녀자 및 소형기종의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훈련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정밀 기종은 정밀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생산업체에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으로 기술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96년도에 1,076백만원을 보조지원(국고 538백만원, 지방비 538백만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훈련용 농업기계 76대를 공급함으로써 '96년말 현재 훈련용 농업기계 4,643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2-2-18>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단위 : 천명)

	'92	'93	'94	'95	'96
계	68.9	80.0	77.6	86.4	184.9
전문기술인력	3.6	5.0	4.6	4.3	3.8
부녀자	5.1	5.1	5.1	5.0	5.4
실수요자	60.2	69.9	67.9	77.1	175.7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2) 농기계 보관창고 및 폐농기계처리장 설치

농업기계는 사용하는 기간보다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 농기계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 연장의 관건이 됨에 따라 마을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95년도에 100개소를 지원 설치한데 이어 '96년도에도 800개소에 371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업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폐농기계도 늘어나 농촌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폐농기계의 수집·해체·압착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폐농기계를 연중 수거할 수 있는 폐농기계처리장을 '95년도에 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96년도에도 4개소의 폐농기계처리장을 개소당 3억원씩 12억원을 지원 설치하였다.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94년 11월 11일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고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요령을 '95년 7월 6일자로 고시하였다.

'96년 12월까지 지정 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시설원에 및 과수를 대상으로 접목작업과 방제 등 관리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채소자동접목기와 무인자동방제기 등 6종의 농업기계이며 그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2-19〉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농 기계 명	제조업체명	형 식	주 요 특 성
무인자동방제기	중 앙 공 업 (주)	배터리구동형	온실내부 또는 노지에서 유도선을 따라 무인자동 주행하면서 방제작업 실시
원 거 리 용 고 성능 방 제 기	(주) 한성농산기계 제 작 소	견인및탑재형	농약살포장치의 상하, 좌우등을 원격조절하여 과수, 벼, 감자 등의 방제작업 실시
채소자동접목기	(주) 유 품 기 연	호 접 형	수박등 채소류를 자동으로 접목하고 클립핑
과수용 승용관리기	아세아산업공사	4 른 구 동 형 무 한 계 도 형	전·후방의 동력취출축과 작업기 부착장치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병충해 방제등 10여가지의 과수원 관리작업 실시
벼 섯 자 동 천 공 접 종 기	(주) 한 농 정 공	4 조 식	원목을 이용한 벼섯재배시 천공, 종균접종, 마개봉합 작업을 일관자동화
벼 품 위 자 동 판 정 기	쌍용기계산업사	탈 망 정 선 식	소량의 벼를 이용 제현율과 설현미율을 정확히 자동계측하여 벼 품위 판정의 정밀도를 향상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3. 영농의 규모화 추진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집단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지구입자금지원,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농지교환·분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영농의욕은 있으나 경제적 여력이 없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의 농지구입자금 6,580억원을 '88년도부터 '93년까지 78천 농가에게 지원하였다.

'90년부터는 농지구입자금 지원방식을 발전시켜 농어촌진흥공사가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전업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영세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의지와 능력있는 농가에 장기분할상환조건(연리 3%, 20년 균분상환)으로 매도함으로써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하는 농지 매매사업을 추진, '90년부터 '96년까지 1조 7,569억원을 68천명에게 지원하였으며, '95년부터는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쌀전업농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표 2-2-20>

농지구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천호, 천ha)

구 분	지 원 규 모	지원농가수	구입농지면적
'88	1,994	34	13
'89	1,998	23	10
'90	1,420	14	5
'91	596	4	2
'92	150	1	0.4
'93	422	2	0.6
계	6,580	78	31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표 2-2-21>

농지매매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천명, 천ha)

구 분	지 원 규 모	지원인원	구입농지면적
'90	934	4	2
'91	2,633	11	6
'92	3,156	12	7
'93	3,679	15	7
'94	2,152	8	4
'95	2,350	9	5
'96	2,665	9	5
계	17,569	68	36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한편,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영세농가와 은퇴농가가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를 장기(3~5년) 임대한 경우, 공사에서 임대료를 일시에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선지급하고 쌀전업농가에 임대하되, 전업농가는 임대료를 매년 균등 납부(시·군 조례의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96년도까지 1,300억원을 농지임차료 선급금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농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한곳으로 모아줌으로써 영농의 능률화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의 교환·분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96년도까지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4. 농업자재 공급

가. 우량종자의 공급 확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목별 용도에 알맞는 품종개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직파 기계화 적응성, 가공적성 등 품종특성시험을 강화토록 하였다.

특히 벼 육종기술의 발달로 새로 육성된 일반계 품종의 수량이 통일계 품종 수준인 500kg 이상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국민 쌀소비 수요도 양질미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보급종 공급도 양질미 우선으로 공급하였으며, 미질이 떨어지고 출수가 안되며 이삭수가 많은 「신금오벼」 1개품종은 장려품종에서 제외시켰다.

벼 이외에 보리, 옥수수, 감자종자도 농업인의 수요 추세에 알맞는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적극 주력하고 있다.

〈표 2-2-22〉

정부 보급종 공급량 및 갱신을

(단위 : 톤, %)

연도별	벼		보 리		옥수수		감 자	
	공급량	갱신율	공급량	갱신율	공급량	갱신율	공급량	갱신율
'94	8,854	16	1,584	23	270	59	8,212	25
'95	9,021	17	1,580	23	188	43	7,773	20
'96	10,094	19	1,601	22	142	32	9,492	19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나. 농약의 수급관리

'96년에는 두차례의 농약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약효·약해·독성·잔류성 등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농약 122개 품목을 추가 고시함으로써 농약품목수가 '95년 605개에서 727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농약의 총 소비량은 '91년에 27,476톤(성분량기준)으로 최대치를 보인 이래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96년 용도별 소비량은 수도용과 제초제가 전년대비 각각 4.2%, 2.5% 증가한 반면,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던 원예용은 12.1%나 감소하여 전체로 전년대비 4.6% 감소하였다.

농약 소비량이 감소한 것은 '96년부터 국산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가 본격 실시되면서 농약잔류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3〉

연도별 농약 소비상황

(단위 : 성분량, 톤)

연도별	계	수도용	원예용	제조제	기 타
'80	16,132	6,430	5,425	3,374	903
'85	18,247	8,069	5,938	3,994	1,246
'90	25,082	8,429	8,681	5,509	2,463
'94	26,282	5,512	12,606	5,506	2,658
'95	25,834	4,867	11,934	5,817	3,216
'96	24,641	5,073	10,490	5,962	3,116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농약의 공급은 농약판매 자율화계획에 따라 '90년부터 농약제조업체가 연간 수요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약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96년 총 수요량의 13%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소요량 전량을 제조업체와 일괄구매계약을 맺어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87%는 시판상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다.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1) 농업용 비료 소비량

'96년의 농업용 비료 총소비량은 성분량 기준 908천톤으로 이는 '95년 954천톤의 95% 수준이며, 비료 소비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456천톤(50%), 인산질 209천톤(23%), 가리질 243천톤(27%)으로 나타났다.

<표 2-2-24>

비료 소비량 추세

(단위: 성분량/천톤)

구 분		'90	'94	'95	'96
3요소별	질소질	562	475	472	456
	인산질	256	227	223	209
	가리질	286	268	259	243
계		1,104	970	954	908
단복비별	단 비	333	259	251	241
	복 비	771	711	703	667
ha당 소비량(kg)		458	440	434	424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비료 공급체계는 '88년 1월부터 정부의 비료판매 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전에 정부에서 취급하던 비료 공급업무가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96년 농협취급 비료의 공급량은 787천톤으로 전체 비료 공급량 908천톤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3%(121천톤)는 시판으로 공급되었다.

(2) 농업용 비료가격 안정시책 추진

농업인 영농비 경감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62~'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가격을 결정하고 비료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차손을 비료계정에서 부담하였으나, '87년 『비료산업개선대책』에 따라 '88년부터 비료판매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료의 생산 및 판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비료의 품질개선을 유도하였고, 비료판매 원가절감을 위하여 '89년 10월부터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료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비료 판매가격은 '88년부터 자율화하였으나 '90년 8월에 발생한 걸프 전으로 비료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비료가의 대폭

인상(25%)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비료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하여 '91년부터 농협취급 비료는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 차손을 매년 재정에서 보전해 오고 있다.('91~'96년 지원액 : 3,040억원)

〈표 2-2-25〉

'96 주요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20kg당)

(단위 : 원, %)

비종별	구매가격(A)	판매가격(B)	차액(C)	보조율(C/A)
요소	4,760	3,530	1,230	25.8
용성인비	4,640	2,580	2,060	44.4
이모작복합비료	4,900	3,860	1,040	21.2
일모작복합비료	4,760	3,870	890	18.7
평균	4,810	3,640	1,170	24.3

주 : 평균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체비종(15종)의 평균임.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5. 병해충 방제

가. 병해충 발생상황

'96년도의 기상은 벼 생육기간중에 여건이 좋아 적기영농이 실천되었고, 일조시간도 충분하여 병해충이 예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다. 다만, 벼 생육 후기에 중부지방의 수해와 자주 내린 비의 영향으로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이 문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발생이 많지않아 '96년도는 '95년에 이어 병해충 발생이 적었던 한해로 기록되었다.

- 평년의 64% 수준(평년 : 1,746천ha → '96 : 1,111)

<표 2-2-26>

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 천ha, %)

구 분	계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멸구류	이화명충 기 타
'96발생면적	1,111	51	379	0.3	246	425
'95 대 비	97	112	85	10	92	112
평 년 대 비	64	35	68	1	42	110

자료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나. 병해충 방제 상황

'96년도 병해충 방제횟수는 논 재배면적 기준으로 9.0회를 방제하였는데 '94년 9.5회, '95년 8.2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96년도의 방제면적은 9,408천ha로 '95년에 비하여 108% 수준이고 평년에 비하여는 75%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2-2-27>

병해충 방제현황

(단위 : 천ha, %)

구 분	계	도열병	문고병	백엽고병	멸구류	이화명충 기 타
'96방제면적	9,408	2,437	1,562	77	1,751	3,581
'95대 비	108	114	101	77	110	109
평 년 대 비	75	69	83	14	67	93

자료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이와 같이 방제가 평년에 비해 줄어드는 원인은 병해충이 적게 발생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나 농촌인력이 노령화·부녀화되고 있어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방제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쌀값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감수를 예상하면서도 방제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방제를 실시함에 따라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방제를 하는데 비하여 농약

사용량이 줄어든 점, 병해충종합관리(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의 교육을 받은 농업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행적인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는 점 외에도 소비자들이 농약을 덜쓰는 쌀을 비싼 값이라도 선호함에 따라 농업인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산미를 집중 생산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병해충 방제시책

정부에서는 병해충방제가 줄어들고 있는 주요원인을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인식하에 “농약을 덜 쓰고도 방제효과를 높이는 경제적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쌀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방제의 목표를 두었다. 이에따라 '96년도에 병해충방제로 인하여 쌀생산 감수를 방지한 효과는 대략 255만석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한 병해충 방제시책은

첫째, 내병성 품종의 개발과 작물의 내병성을 키우기 위한 농토배양 등 지력증진, 파종시기·비배관리등 경종적 재배법 개선 및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의 강화등 종합방제체계를 구축하였고,

둘째, 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9월중에 발생상황을 정밀예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들 스스로 방제를 실시하도록 방제의 기준자료로 삼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요 병해충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이나 위탁영농회사를 통하여 동시 공동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줄여가는 수단으로 유도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제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농약 및 장비등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공동방제용 농약대 5,354백만원(198천ha), 항공방제용 헬기용역대 787백만원(40천ha), 소형동력방제기 2,027백만원(6200대), 농약중독사고 방지용 방제복 2,067백만원(99천착)등 병해충방제 관련예산으로 10,235백만원을 투자하였다.

제 3 절 주요농산물의 수급안정

1. 식량작물

가. 양질미 생산과 생산비 절감

일품벼, 화성벼 등을 육성하여 맛, 윤기, 색깔, 향기 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였고, '95년 9,021톤, '96년 10,094톤의 보급종을 공급함으로써 양질미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육묘기간을 종래 35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하여 육묘에서 이앙까지 육묘비용을 54%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재배기술인 어린모 기계이앙을 '96년에 302천ha 실시하였고, 이앙을 하지않고 본답에 직접 파종함으로써 육묘·이앙노력을 73% 절감할 수 있는 직파재배를 '95년에 117천ha, '96년에 110천ha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38천ha, '95년에는 47천ha가 감소했던 벼 재배면적이 '96년도에는 휴경논 생산화, 간척지 벼재배확대, 논에 벼재배유도 등 재배면적 확보대책으로 '95년보다 6천ha 줄어든 1,050천ha가 확보되었으며,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 양질 다수성 품종확대, 벼포기수 늘려심기, 적기 병해충방제 등 알뜰영농을 적극 추진하였고, 생육기간 동안 기상여건이 좋아 단보당 수확량이 507kg으로 사상 최대의 풍작을 기록하여 '95년보다 628천톤이 증가된 5,323천톤을 생산했다.

〈표 2-2-28〉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천ha, 천톤)

	'90	'94	'95	'96
재배면적	1,244	1,103	1,056	1,050
생 산 량	5,606 (3,893)	5,060 (3,513)	4,695 (3,260)	5,323 (3,696)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한편, 소비자의 고품질 쌀 기호추세에 부응한 지역특산물 생산 장려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내산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93년산 9,220ha(13,640톤)에서 '94년산 15,738ha (32,502톤)로 확대 실시하였다.

'96년산 추곡수매량에 있어서는 WTO협정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 계획에 의하여 수매가능 물량인 1,267천톤(정부 720, 농협 547)중 97.9%에 해당하는 1,241천톤을 수매하였다.

〈표 2-2-29〉

추곡수매 실시현황

(단위 : 천호, 천ha, 천톤, %)

	미 곡 생산농가	재배면적	생산량	수 매 량			수매비율
				정 부	농 협	계	
'90	1,508	1,244	5,606	1,203	-	1,203	21.5
'91	1,435	1,208	5,384	1,078	144	1,222	22.7
'92	1,376	1,157	5,331	1,022	360	1,382	25.9
'93	1,322	1,136	4,749	933	504	1,437	30.3
'94	1,266	1,103	5,060	864	648	1,512	29.9
'95	1,205	1,056	4,695	792	583	1,375	29.3
'96	1,172	1,050	5,323	720	521	1,241	23.3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표 2-2-30〉

'96년산 추곡수매가격 및 수매량 결정내용

구 분	양곡유통위원회 건의내용	정 부 (안)	국 회 동 의
수매가격	○ 전년수매가 대비 - 2~4% 인상('96. 11. 2)	○ 전년수매가 대비 - 3%('96. 11. 27)	○ 전년수매가 대비 - 4%('96. 12. 16)
수 매 량	○ 880~900만석	○ 890만석 ┌ 정부수매 : 500만석 └ 차액수매 (농협) : 390만석	○ 880만석 ┌ 정부수매 : 500만석 └ 차액수매 (농협) : 380만석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나. 보리 생산의 자급유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보리재배 면적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94년산 부터는 생력기계화 촉진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맥주보리 재배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다.

보리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겨울 영농자금을 용자지원하고, 종자, 비료, 제초제 등 영농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영농비 부담을 덜어 주었고, 또한 농작업의 생력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소당 10ha 규모의 대단위기계화 재배단지와 대규모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력기계화 일관재배로 연결, 경영효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겨울철 소득작목 및 환경보전 작목으로서 보리재배를 유도하였다.

앞으로도 식용보리 자급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농가자율 재배를 장려하고 농협을 통해 희망농가와 계약재배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물량에 대하여는 농가 출하전량을 수매한 후 식용으로 필요한 물량은 정부에서 인수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주정용은 농협이 직접 수요업체에 공급하며, 또한 맥주보리의 수요는 국민소득 향상과 저알콜 맥류의 선호 경향에 따라 소비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표 2-2-31〉

보리 생산 현황

(단위 : 천톤)

	'90	'94	'95	'96
계	416.2	281.5	281.7	287.9
겉보리·쌀보리	286.1	110.0	142.0	149.0
맥 주 보 리	130.1	121.5	139.7	138.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한편, '96년산 일반보리는 일정수준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농협을 통해 희망농가와 약정재배하도록 하여 농번기 유희노동력의 활용은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약정물량에 대하여는 농가 출하 전량을 수매하였다.

다. 두류 및 잡곡류의 고품질 생산

두류의 주종을 이루는 콩의 수요는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용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70년대 중반이후 국제경쟁력 약화로 국내생산은 점차 줄어들어 상당한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메주, 두부, 장류 등 전통식품용 콩의 국내자급도 제고를 위해 일정면적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식 또는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검정콩, 풋콩, 콩나물 등은 용도별로 우량품종을 개발하여 확대 공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 집단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재배의 규모화, 집단화를 적극 유도하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였다.

옥수수는 1대 교잡종 종자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가격으로 농가 출하약정량을 전량 수매하였으며, 소득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곡식용 옥수수 생산에서 식용 풋옥수수 및 청예 사료용 옥수수 재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성출하기의 가격 안정과 지속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풋옥수수 가공원료 수매자금을 '9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팥, 녹두 등 기타 두류와 수수, 조, 메밀 등 기타잡곡은 국내에 특수한 용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율적인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팥, 녹두 등에 대해서는 수매량을 사전에 예시한 후 농협을 통해 수매를 실시하였다.

〈표 2-2-32〉

두류 및 잡곡 생산현황

(단위 : 천톤)

	'90	'94	'95	'96
계	404.2	276.5	275.8	272.6
콩	232.8	154.4	159.6	160.1
옥수수	119.9	88.6	74.5	72.2
조	3.9	2.4	1.6	1.1
팥	23.0	14.1	19.0	18.8
녹두	5.3	3.1	2.8	3.5
기타	19.3	13.9	18.3	16.9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라. 서류의 생산

감자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소비수요가 점점 다양화됨을 감안하여 식용 및 가공소비를 촉진하고 지역별, 계절별로 연중 생산체계를 정착시켜 농가의 소득보장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현재 국내감자 가공소비율은 15% 수준으로 일본 50%, 미국 60% 등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정이나 국민 소득수준 향상 및 식생활 개선에 따라 가공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가공용 및 저장용 감자 민간비축수매자금으로 56억원을 지원하여 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고구마는 남부 섬 및 해안지방의 주요 소득작물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재배면적 증가와 생육기 기상호조로 인해 전년보다 32천톤이 늘어난 337천톤을 생산하였다. 또한 농가가 출하하는 고구마는 전량 수매하여 주정용 및 전분용으로 공급하였다.

<표 2-2-33>

서 류 생 산 현 황

(단위 : 생서, 천톤)

	'90	'94	'95	'96
계	802	736	897	1,068
감 자	370	489	592	731
고 구 마	432	247	305	337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2. 채소·과실류

가. 채소류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크고, 가격의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관측을 전산화하고, 관측결과는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한 후 유통예고를 실시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1월, 4월, 8월 3회에 걸쳐 유통예고 전단 각 20만매를 배포하였고, 특히 9월부터는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재배 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기초로 농업관측월보를 발간, 매월 6만부씩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 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마늘, 양파에 대하여는 생산·출하약정제를 시행하여, 마늘 1,100원/kg, 양파 150원/kg으로 하한가격을 예시하고, 주산단지 재배농가와 농협간에 생산출하약정을 체결하여 적정물량이 생산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출하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95~'96년에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가격안정사업자금 1,100억원을 조성하고, '96년에 고랭지 무·배추, 가을무·배추, 마늘·양파, 대파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민간에 233천톤을 계약재배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켰다

과잉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던 가을무·배추에 대해서는 98천톤을 산지수매후 폐기처분하고 김치원료 수매자금 지원확대와 소비 촉진운동 등을 전개하여 과잉생산 물량을 흡수함으로써 가격이 안정 되도록 하였다.

고추는 과잉생산되어 수확기이후 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민간가공 및 저장업체와 산지농협에 농안기금 300억원을 지원하여 수매하도록 하는 등 고추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마늘은 '95년산 재고물량이 이월된데다 '96년산 재배면적 증가로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자단체가 자율감축을 추진하여 656ha를 포전폐기 함으로써 수요량 수준이 생산되었고, 수확기 이후 가격도 상승되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양파는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크게 부족함에 따라 '96년도에 최소시장 접근(MMA)물량 38천톤을 증량하여 총 41천톤을 수입하고, '97년 최소 시장접근(MMA)물량 14천톤중 8천톤을 '97년 1~3월중에 조기 수입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2-2-34>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90		'93		'94		'95		'9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 계	74.0	28,247	342.2	73,477	61.2	24,044	219.0	60,410	276.7	125,326
정부수매비축	8.9	17,914	12.0	40,562	-	-	57.6	24,982	1.1	1,234
고 추	3.5	15,204	7.6	35,769	-	-	-	-	-	-
마 늘	1.1	1,602	4.4	4,793	-	-	14.6	16,832	1.1	1,234
양 파	4.3	1,108	-	-	-	-	43.0	8,150	-	-
민간수매	42.3	8,805	87.1	24,361	27.9	18,478	76.6	17,969	44.6	47,492
마 늘	20.2	8,093	29.6	17,212	11.3	13,578	14.1	11,566	16.6	13,472
양 파	22.1	712	57.5	7,149	16.6	4,900	62.5	6,403	18.0	4,074
고 추	-	-	-	-	-	-	-	-	10.0	29,946
정부출하조정	22.8	1,528	243.1	8,554	33.3	5,566	3.8	157	98.0	4,300
계약재배	-	-	-	-	-	-	81.0	17,302	233.0	72,300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나. 과실류

'96년산 과실생산은 기상여건이 불리하여 총 생산량이 '95년산보다 93천톤 적은 2,207천톤에 이르렀다.

사과, 감귤, 복숭아는 생산량이 '95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포도는 재배면적 증가와 기술향상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과실가격은 작황에 따라 등락폭이 좌우되고 있다.

반면 배와 단감은 전년보다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소비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과실류의 가격안정용 농안기금은 축소지원하게 되었다.

<표 2-2-35>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93		'94		'95		'96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물 량	지원액
합 계	161,833	34,858	99,349	27,264	216,981	43,910	75,768	18,401
정부비축 사과수매	261	299	273	361	3,060	3,098	1,308	1,770
민간수매	161,572	34,559	99,076	26,903	213,921	40,812	74,460	16,631
(저장용)	26,443	17,068	14,503	11,644	20,173	15,905	8,150	6,033
사 과	19,955	12,770	9,397	7,212	15,359	11,225	5,398	4,051
배	3,332	2,737	3,355	3,211	2,952	3,270	2,227	1,519
단 감	1,035	561	1,347	855	1,268	1,141	525	463
참다래	2,121	1,000	404	366	594	269	-	-
(가공용)	135,129	17,491	84,573	15,259	193,748	24,907	66,310	10,598
사 과	31,353	3,410	42,800	7,671	107,694	15,130	34,668	4,642
복숭아	8,354	1,531	4,770	1,125	11,212	1,591	5,026	1,456
포 도	26,695	4,150	6,276	1,813	27,615	3,536	14,883	2,500
감 귤	68,727	8,400	30,727	4,650	47,227	4,650	11,733	2,000

3. 축산물

쇠고기 수급조절은 소 사육두수, 소비성향, 경제목표 등을 감안하여 총 수요량과 국내 생산예상량을 추정하고, 부족량은 수입계획에 의거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시기와 수입품목등을 결정하여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산지 및 도매시장 판매동향을 감안하여 쇠고기 수급 관리의 안정을 위해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한편 산지 소값 동향에 따라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였다.

'93~'95년간 산지 소값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송아지 입식 과열로 인해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광우병 보도('96. 3. 22)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산지 소값이 5월까지 하락하였으나, 수매 실시('95. 5)로 10월까지 상승후 12월 이후에는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적정 사육두수 및 가격유지를 위하여 사육두수 증가를 유발하는 축사 신축자금을 축소하였다. 생산비 절감 등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 한우개량단지를 중심으로 우량한우 생산지원 및 인공수정용 정액공급, 송아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쌍자송아지 생산기술 개발보급,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및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품질 차별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기술교육, 우수축출하포상금 지급, 육류도체등급제 확대 시행으로 육질의 고급화 및 차등거래가격 유도 등을 추진하였다.

2001년도에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생우도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기 때문에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개방시 경쟁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00만원(큰수소 500kg기준 2등급) 수준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비를 절감시키면서 수입쇠고기에 비해 품질이 좋고 한우 고유의 맛을 지닌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 닭, 계란의 수급조절사업은 산지가격이 경영비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생산자단체, 계열화업체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산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비축물량의 방출로 적정가격을 유도하였다.

돼지고기는 수출물량이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였고, 쇠고기관련 보도(광우병, O-157등) 영향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계획되어 있는 23.4천톤을 수입권공매 형태로 수입·공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족되는 18.0천톤을 수급조절용으로 수입하여 돼지고기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추진하였다.

'96년도 닭고기 산지가격은 위생문제의 대두,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닭고기의 품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계장 시설 현대화, 사전 방역체계 강화, 생산시설 개선 등을 통한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치즈, 조제분유 등 대부분 유제품이 '95년 1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됨에 따라 유업체·식품업제조업체들의 값싼 외국산유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우유위생 논쟁 등으로 우유 소비가 격감되었다. 반면, 젖소 사육두수 증가와 두당 산유량 증가로 우유 생산량은 늘어나 분유 재고가 누적되었으며,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한 낙농가의 위생우유 생산결의대회와 우유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다.

제 4 절 환경농업 육성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우리 농촌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을 비추어 볼 때 환경농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기본적인 국가업무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에서도 환경과의 조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기능은 매우 크며, 특히 논은 여름철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기능, 토양보전 기능, 수자원함양 기능 등 환경보전기능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조 8천억원에서 13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밖에도 농업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생태계를 보전하고 고유 전통문화의 유지·계승 및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으로 지역사회 유지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반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저해 요인으로는 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폐영농자재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제1단계에서는 환경농업의 목표설정, 추진 체계

및 유통체계 정비 등 환경농업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 이 기간중에도 실천가능한 부분은 기술체계를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제2단계에서는 개발된 환경농업의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지역단위의 환경농업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조성하며, 환경라운드(GR)대비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등 본격적인 환경농업의 보급단계로 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까지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기반을 확립하여, 새로운 기술과 자재 활용으로 차원높은 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정해 환경농업을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 정책, 둘째, 농토의 지력과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자원을 유지·개량하는 정책, 그리고 셋째로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우리나라 농촌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축산분뇨 발생 및 폐농기계·폐비닐·농약빈병과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사중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농약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은 '91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현재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농약사용량을 2004년까지 5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벼의 경우 병해충 방제를 80년대 10회 내외에서 현재는

8~9회로 줄었으며, 2004년까지는 3~4회로 줄여 농약 사용량을 감축하며, 천적이용 등 병해충 종합방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독성이 낮은 농약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나.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화학비료는 성분량으로 연간 91만톤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적정 시비량 추정치 70만톤보다 21만톤정도 더 사용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인산·가리가 과다 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의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화학비료의 사용절감을 위해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지도하여 현재 30%정도 더주고 있는 비료량을 줄이고, 축산분뇨·부산물 등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며, 완효성 비료를 개발·보급하여 비료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산분뇨는 '9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46백만톤 정도에 달한다. 축산분뇨 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 농가에게는 농림부에서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공동수거·정화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96년말 기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83천농가로 85%인 71천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설치농가중 74%는 퇴비화시설, 26%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축산분뇨는 본래 용도인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뇨를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였다.

라.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95년말 현재 3,043천대로 이중 약 4%인 12만대 정도의 농기계가 폐농기계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폐농기계 발생 수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는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94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6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폐농기계 일제 수집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무단으로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구하는 등 수거 체계를 개선하였다.

매년 각각 72백만개, 80천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유상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50~65%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과 11월중 중점 수집기간을 정해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분해가 빨리되는 비닐을 농촌진흥청과 유공고분자연연구소 공동으로 개발하여 포장실증 시험중에 있다.

2.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자원의 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등 농토배양사업

'96년에 토양개량제는 보조 50%, 자담 50%로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석회 190천톤, 규산 95천톤을 시용하였으며, 저위생산답을 개량하기 위하여 100%융자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16,597ha의 객토를 실시하였다.

나. 농업용수 수질관리대책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96년에 150개소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4%인 20개소가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 시설관리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수질측정망을 통한 수질조사결과를 환경부와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수질개선대책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수질개선 공법 연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 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가. 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자연농업 등 농약과 비료사용량을 줄여가는 환경농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유통·판매실태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 '9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환경농업 실천농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2-2-36>

환경농업 실천농가 현황('96. 8. 31현재)

(단위 : 호, ha)

	계		무농약, 무화학 비료재배		준 무농약, 무화학 비료재배		무농약, 화학비료사용억제재배		농약사용억제, 무화학 비료재배		농약, 화학비료사용억제재배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6,720 (100%)	7,264.6 (100)	805 (12)	780.9 (11)	357 (6)	344.3 (4)	1,083 (16)	1,131.1 (16)	557 (8)	576.9 (8)	3,908 (58)	4,431.4 (61)
벼	2,356	2,654.3	256	284.8	112	113.5	520	517.8	103	104.0	1,365	1,634.2
채소	3,019	3,002.8	388	357.3	180	163.9	440	446.0	284	281.6	1,727	1,754.0
과수	837	1,036.5	52	61.6	31	34.4	62	89.4	138	152.5	554	688.6
기타	508	571.0	109	77.2	44	32.5	61	77.9	32	38.8	262	344.6

자료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조사의 오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이 대상농가를 직접 방문조사하였는데,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 (사)흙살림연구소 등 민간단체 가입회원과 농협 우수 농산물작목반, 농림부가 조성한 「중소농사업」 단지회원 등 환경농업 실천이 예상되는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농업실천농가중 토종·오리·청정·우렁이·미꾸리 농법 등 특수한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는 다음과 같았다.

〈표 2-2-37〉

특수농법 실천현황('96. 8. 31현재)

(단위 : 호, ha)

	계		벼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1,654 (100%)	1,111.2 (100)	758 (46)	527.5 (47)	534 (32)	296.7 (27)	105 (6)	111.4 (10)	257 (16)	175.6 (16)
토종농법	308	309.3	51	57.9	125	111.3	54	67.8	78	72.3
오리농법	372	249.8	372	249.8	-	-	-	-	-	-
청정농법	782	451.7	143	119.4	409	185.4	51	43.6	179	103.3
우렁이농법	191	100.0	191	100.0	-	-	-	-	-	-
미꾸리농법	1	0.4	1	0.4	-	-	-	-	-	-

자료 :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

특히, '96년 12월 12일부터 연말까지 농협판매장, 풀무원, 한살림, 유기·자연농업협회, 정농회, 신협, 생협 등을 대상으로 환경농산물 유통현황을 조사하였다. 환경농산물 유통시장은 연간 약 600억원 규모였으며 농협, 정농회, 유기·자연농업협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 생산자 9개단체가 연간 175억원을, 한살림, 여성민우회, 생협, 신협 등 소비자 10개단체가 연간 137억원어치의 환경농산물을 각각의 유통망을 통하여 매출하고 있었고, 생산자 개인이 도시소비자에게 직거래하거나 일반시장에 판매량이 연간 216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비지의 생협은 생산자와 소비자회원간의 직거래방식을, 한살림, 자연농업협회는 소비지에 유통센타를 설치하고 택배하는 방식을, 유기농업협회는 백화점에서, 농협은 전문판매장에서 직거래 판매하는 등 다양한 직거래 방식으로 환경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있었으나, 취급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 수급조절 기능이 약하며 영세하여 소비확대의 한계가 있었다.

수급 불균형으로 판로가 막힌 경우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시장에서 가격차별화 없이 판매되는 등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은평, 관악, 강남, 은평, 용산)과 농협의 농산물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TV, 신문 등 대중홍보 매체를 통하여 환경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쌀을 비롯하여 상추, 쪽갓, 케일 등 40개품목 798농가의 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 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1)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품목별 경쟁력제고 대책에 의거 규모화를 추진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남게되는 중소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을 환경농업과 연계하여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개단지를 10ha(1ha정도의 경지소유 중소농가로 구성) 규모로 하는 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 1,000개소 조성을 목표로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중에 있으며, '95년과 '96년도 2개년에는 500억원을 투자하여 유기농업단지 98개소, 자연농업단지 55개소, 유기·자연농업 혼합단지 44개소, 토종농업 등 기타 3개소, 총 200개소의 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였다.

2,216ha(1개단지 평균 11.1ha)규모에 2,118농가(1개단지 평균 10.6농가)가 참여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36개소, 중산간지에 99개소, 평야지에 65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시설은 토착

미생물생산을 위하여 발효퇴비사 등 건축물 263동(15천평)과 배양기, 로다, 톱밥제조기, 배합기, 분쇄기 등 양질의 발효퇴비나 사료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대장비 566대와 예냉시설 88동, 냉장차 69대가 있다.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963동(77천평), 하우스 1,154동(224천평)을 설치하였다.

단지에서는 벼 1,203ha, 채소 717ha, 과수 244ha, 잡곡 등 기타 405ha를 재배하고 소 9천두, 돼지 46천두, 닭 445천마리, 염소·사슴 등 4천마리를 사육하며, 비닐하우스 2,980동 550천평에서 채소, 꽃 등을 재배하고 있다.

200개 단지중 77%인 154개소가 직거래하거나 농협 또는 민간협회에 위탁판매하고 127개소가 농검, 농협 등에 품질인증 또는 보증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86개소에서는 일반농산물보다 30%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95년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을 추정 조사한 결과, 사업참여 농가당 26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려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약 9백만원의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가 경영개념이 부족하여 시설의 과잉 투자 등으로 단지 운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단지와 유기·자연농업으로 생산한 고품질농산물이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일반농산물과 같이 일부 가격 차별화 없이 유통되는 아쉬움도 있었다.

〈표 2-2-38〉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95	'96	'97	'98	'99~2004
단지수	1,000	100	100	118	100	582
지원액	2,500	250	250	295	250	1,455
- 국고	879	125	125	118	75	436
- 지방비	500	50	50	59	50	291
- 용자	621	25	25	59	75	437
- 자부담	500	50	50	59	50	291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2) 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도시민에게는 맑은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에는 소득이 보장되는 유기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시작한 팔당지역은 서울시와 농협이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용인 등 6개시·군 25개 읍·면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농가당 4,000만원까지 연리 5%, 7년상환(2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환경농업시설 및 운전자금을 '95년부터 '96년말까지 2년동안 1,016농가에 267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39〉

자금지원 실적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축 산		원예작물		수도작·기타		합 계	
	농 가	금 액	농 가	금 액	농 가	금 액	농 가	금 액
'95	361	10,693	297	7,295	34	394	692	18,382
'96	183	5,089	127	3,098	14	176	324	8,363
계	544	15,782	424	10,393	48	570	1,016	26,745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은 팔당지역의 농업인 1,990명과 사업에 참여한 18개조합의 지도부장, 영농지도사 등에 대하여 유기·자연농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기술지도요원 3명을 상주 배치하여 농가 순회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질산염 간이측정기 등 각종 영농자재를 공급하였고, 서울시 양천, 강남, 은평, 관악, 용산 등 5곳에 전문판매장을 설치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판로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농협에서도 안동댐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1,500 농가를 대상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 600억원(연리 5%, 1년거치 2년상환)을 지원하는 환경농업 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농협이 보성, 동북, 주암, 충주, 대청댐 지역으로 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농업의 첨단산업화 및 복합산업화

1. 농업기술 개발

가. 개 요

농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의 기술과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 선진국들이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1세기 선진농업국 진입을 목표로 '96년도에 5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첨단기술개발사업과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하였다.

'96년도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개공모한 결과, 총 952개 과제가 접수되어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의 3단계 평가와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198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96년에는 과제 선정 평가방법을 기존의 1단계 사전검토와 2단계 비밀서면평가외에 3단계 공개발표평가를 추가하여 실용화·산업화의 가능성이 높은 과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연구수행능력이 있고 기본적인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과 연구자만이 기술개발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연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 수행 중인 560개 과제 중 177개 과제를 선별하여 본부 및 3청 관계관, 관리센터의 전문위원 등이 합동으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8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내용을 일부 수정·보완시켰고, 10개과제는 연구기간을 단축시켰으며, 8개 과제는 통합, 1개 과제는 당초의 연구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단시킨바 있다.

한편 '94년말부터 시작하여 '96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과제는 93개 과제로 이중 30개 과제는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고, 13개 과제는 특허를 출원 하였으며, 50개 과제는 농정시책 및 지도사업에 반영하는 등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96년도에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40>

'96 기업체 기술이전과제 내역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체	기술료 징수액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 동 대 학 교	영농농기구제작소	11,335천원
장어통발어선활어창 냉각시스템개발	한국어선협회	청강냉동공업사	기술료 감면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	(주) 우 진	(주) 우 진 테 크	26,370천원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 처리 시설 개발	상주산업대학	신 흥 기 업 사	9,000천원
계 : 4개 과제			46,705천원

자료 :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실

나. 쌀 생산대책기술 개발 보급

최근 벼 재배면적의 감소 등 쌀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농촌진흥청은 단수 제고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벼 품종육성 연구를 추진하여 677kg/10a의 초다수성 품종인 다산벼와 663kg/10a인 남천벼, 밥맛도

좋고 다수성인 일품벼 등 양질 다수성 신품종을 집중개발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쌀 수량성은 최근 5개년 평균 453kg/10a로 세계 92%의 쌀이 생산되는 몬순지대에서 최고수준에 있으며, '96년에는 직파적용성인 동안벼, 대산벼 등 7품종을 개발하였다.

〈표 2-2-41〉

'96 벼 신품종 장려품종

용도별	품종명	수량성 (kg/10a)	적용지역	주요특성
양질	대진벼 (수원407호)	504	중부평야 및 남부중산간지	중단간, 내도복성, 복합내병성, 양식미
"	서진벼 (남양17호)	522	중부내륙평야 및 해안지	양식미, 중단간, 내도복성, 호엽고병저항성, 간척지적용성
"	화삼벼 (밀양123호)	534	대전이남, 남부평야지, 남서해안지	양식미, 다수성, 흰잎마름병저항성, 벼멸구(I) 중도저항성
향미	향미벼2호 (수원413호)	614	중부평야, 남부평야, 남부이모작지	향미, 다수성, 내도복성, 복합내병성
직파적성	동안벼 (이리418호)	533	충남, 전남북, 경남북	직파적용성, 내도복, 양식미
"	대산벼 (밀양142호)	538 ¹⁾	경남북, 전남북, 소득작물후작지	직파재배 적용성, 양질, 내도복성, 다수성
만식적용성	금오벼2호 (밀양132호)	511	경남북, 전남북, 내륙평야지	만식적용성, 단기성, 초기신장성

주 ¹⁾: 직파재배 수량성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한편, 생력 저생산비 영농을 위하여 어린모 기계이앙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육묘일수를 35일에서 8일로 단축하고 육묘노력 62%, 육묘비용 54%를 절감하였으며, 육묘 및 본답정지, 이앙작업 등의 생략으로 중묘대비 노력과 비용을 각각 28%, 12% 절감한 직파재배법을 개발하여 110천ha에 보급하였다. 또한 초다수성벼의 안전재배방법을 구명하여

24%의 수량증대를 이룩하였으며 직파재배의 적정입모수 확보를 위하여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한 정밀 균평작업기술과 건담·담수파종기 및 약제살포기 개발, 담수표면산과 적정파종량 구명, 적정시비기술 확립, 도복경감 기술 등을 개발 보급하였다

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배(사양)되고 있는 69개 작목에 대하여 경쟁력 수준과 재배면적, 생산액, 자급도, 농가소득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 기초, 기타작목으로 분류하였다. 전략 작목은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신품종 개발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의 고급화 기술 개발에, 기초작목은 자급유지가 가능하고 국민 기호도에 맞는 다용도 신품종개발에, 기타 작목은 농가소득차원에서 기여도가 낮아 생산축소와 함께 성장작목으로 대체되어야 할 작목으로 지역특화작목 및 유전자원 확보에 연구초점을 맞춰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예분야에서는 조기출하용 사과 「서광」 추석 출하용 배 「신일」 등 과수 15품종과, 마디마디 열리는 오이 「원예501호」 등 채소 9품종, 흰녹병에 강한 가지 많은 소국화 「봉안」 등 화훼 9품종으로 총 33품종의 고품질 우량 신품종을 육성하였고 배 조기 다수확재배를 위한 Y자 수형 재배법으로 성과기를 15년에서 5~6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채소시설재배용 양액 8종, 배지 2종, 공정육묘용 상토 1종 등 총 11종의 양액재배 및 공정육묘기술을 개발하였다.

밭작물에서는 찰쌀보리 등 6품종을 개발하였고, 시비+경운·정지+파종+관리+수확+건조·조제 기계화 일관작업 체계를 확립하여 맥류에서는 54%, 두류는 66%, 옥수수는 62% 노력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비닐수거기, 참깨탈립기 등을 개발하여 저비용 생력화 영농에 기여하였다.

축산기술 분야에서는 소의 동결수정란 무독성 보호제 「그리콜」을 선발하였으며, 보리사료 급여에 의한 육질개선, 피콜린산크롬 사료급여에 의한 등지방두께 감소등 고품질 수출용 돼지 생산기술 기반을 확립하였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약 14종과 진단법 30종을 개발하였으며, 동물약품, 농약 등 113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2-2-42>

'96 맥류 신규 장려품종

맥종	품종명	수량성(kg/10a)		적용지역	주요특성
		전작	답작		
겉보리	서둔찰보리 (수원252호)	416	390	전국(전남, 제주 및 강원도산간 지 제외)	대립, 찰성, 조숙
"	머락보리 (밀양72호)	443	367	충남북, 전북, 경남북	준단간, 내도복성, 복합내병성, 양식미
쌀보리	두원찰쌀보리 (수원304)	361	374	전남, 제주	2조, 찰성, 쌀보리, 대립, 내도복
"	광활쌀보리 (이리35호)		403	충남이남 (제주제외)	호위축병 저항성, 내도복성, 양질
밀	금강밀 (수원267호)	530	422	전국(산간고냉 지 제외)	백맥 빵 및 건면용, 고제분 조숙, 내한성약(고사경율30.6%)

자료 :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표 2-2-43>

'96 두류 및 기타작물 신규 장려품종

작물명	용도별	품종명	수량성(kg/10a)	적용지역	주요특성
콩	장류콩	알찬콩 (이리6호)	291	중남부 이모작지역	다수, 광지역성
		다장콩 (밀양58호)	275	전남북, 경남북	두부 및 장류용(가공적성 좋음), 내재해성, 다수성
	나물콩	풍산나물콩 (이리5호)	281	전국(강원제외)	소립, 다수, 광지역성
	특수콩	진품콩2호 (수원177호)	263	경기, 강원	비린내없는 양질 다수성
검정콩2호 (수원179호)		257	경기, 강원	흑색, 중대립, 광택종피	
검정올콩 (YCS90-18)		215	전국	검정올콩, 대립다수성, 단기작형(조숙)	
팥	가공 및 혼반용	칠보팥 (수원24호)	166	전국	흑색, 대립, 양질

작물명	용도별	품종명	수량성(kg/10a)	적용지역	주요특성
녹두	가공용	경선녹두 (수원23호)	174	전국	무광택, 소립, 광지역성
옥수수	사일 래지용	수원옥 (수원118호)	1973	전국(제주제외)	후기녹체성, 사일래지용, 내도복
참깨	착유용	서든깨 (수원145호)	105.5	단작 : 충북제외 전국	내병, 고올래인, 다수성
		남산깨 (이리8호)	95.3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이모작적용, 다수성
들깨	종실과잎 겸용	아름들깨 (수원40호)	135	전국	고함유, 양질, 다수성, 엽 실겸용
땅콩	제과용	조광땅콩 (이리4호)	326	충남이남지역 (중산간지제외)	직립 소분지형, 극소립 다협 제과용
유채	기름 및 관광 화훼용	탐미유채 (목포112호)	286	전남, 제주	고품질, 조숙, 대화, 내재 해, 다수성

자료 : 농촌진흥청 연구조정과

라. 환경보존형 농업기술 개발

비료, 농약의 과다한 사용, 축산분뇨와 산업폐기물에 의한 토양과 수질 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환경문제가 농업생산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됨으로써 쾌적한 농촌환경유지와 지속가능한 환경보존형 농업 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저투입농업 기술개발을 추진한 결과, 2년 이내 완전분해되는 발토양 피복용 분해성필름과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약, 생분해 합성수지를 이용한 살충제, 신제형 줄농약 등 환경에 부담이 적은 농업자재를 개발하는 한편, 우수천적을 이용한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위해 애꽃노린재 등 천적 6종을 선발하였고, 진디벌 등 2종에 대한 대량사육기술을 개발, 실용화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토양자원조사를 통한 정보전산화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583천ha의 발토양에 대해 정밀조사를 수행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적절한 토양관리의 기본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발 토양 피복용 분해성 필름 개발 〉

- 주요특성 : 노출부위 → 광분해, 매몰 부위 → 생분해
- 작물별 분해개시 : 땅콩 55~77일, 참깨 70~80일, 고추 100~120일

마. 첨단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주요 농작물의 유용 유전자원확보와 재해저항성 신작물 개발 및 전기·전자·신소재 등 주변산업기술의 도입에 의한 첨단기초과학기술의 조기 정착 및 실용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산 생합성 유전자 「오메가-3」 등 신기능성 농업유전자 6종을 개발하였으며, 유전자전환에 의한 신작물로 총해 저항성 배추, 바이러스 저항성 토마토 등 2작물과 제초제 저항성 벼 형질전환체 2조합 94개체를 선발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기능성 약리물질을 이용한 기술로는 뽕잎, 누에를 이용한 혈당강하제 및 동맥경화방지제를 개발하였고, 참깨에서 항암 및 노화억제물질인 「리그난」, 들깨에서 고혈압 예방 및 두뇌발육 촉진물질인 「알파니롤렌산」 대량분리 추출 기술, 산화억제능력이 「알파토코페롤」보다 15배 높은 「세사미놀」 성분 분리 추출기술 등을 개발하였다.

주변 첨단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개발분야에서는 벼의 정선, 제현, 선별, 계량, 기록 등 모든 공정이 컴퓨터 자동제어로 작동되는 벼 품위자동판정기와 전자 및 경사감지센서를 이용한 농기계 횡전도사고 예방 경보장치, 화상인식에 의한 과일의 영상처리선별기 등을 개발 보급하였다.

바. 농업기자재 개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적게 투입함으로써 농업생태계를 보존하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이 필수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 우수한 농업기자재 개발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저독성 제초제 함유 비닐멀칭제 등 농약 신제형 4종을 개발하였으며, 응애·진딧물 방제용 줄제형 농약 2종, 천연 고효성 살균제 및 살충성 활성 물질 62종을 탐색, 개발을 추진하였다.

비료에 있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농업환경에 친숙한 완효성 복합비료로 벼용 1종, 밭농사용 3종 등 4종을 개발하였으며, 화학비료 대체 유용미생물 근류균제 1종과 천연수지를 이용한 전작용 완효성 비료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농업기계개발에 있어서는 대형 줄뿌림파종기를 개발하여 육묘 이앙 노동시간을 110.5시간/ha에서 3.0시간/ha로 단축시켰으며 농작업의 생력 기계화를 위하여 트랙터용 무는 정지균평기, 무·당근 수확기, 자주형 땅콩수확기를 개발하였고, 농업시설 자동화를 위하여 고온기 온실강하기술개발, 양액 혼입 및 공급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농가실증 시험중에 있다.



〈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한 논균평작업 〉

사. 국제농업기술 협력 강화

첨단농업기술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우리 농업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국제옥수수·밀 연구소에 “옥수수 및 밀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상주연구관을 파견하였으며, 국제반건조열대농업연구소와 기술협력 및 상주연구관 파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밖에도 국제농업연구협의단(CGIAR) 산하 16개연구기관, 18개 유엔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의 공동연구와 연구원연수 등 기술 교류협력을 수행 하였으며,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이태리 등 8개 주요 선진국,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북방국가 및 필리핀, 태국, 네팔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과도 농업기술 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 감귤생산 국제세미나 등 3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유전공학 및 기초과학 등 첨단농업분야에 101명의 연구원을 선진농업국의 관련기관에 연수를 실시하여 최신농업기술의 국내 도입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하였고, 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 등 세계농업 쟁점분야 전문 요원을 지정 활용하여 관련 국제회의 참여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익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앞선 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기 위하여 미국 생산, 축산, 잠업 등 6개분야에 대해 21개국 95명의 외국 농업기술자들을 국내에 초청, 분야별로 관련연구기관에 위탁 훈련을 실시하였고, 잠업, 원예, 농기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9개국에 13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과거 농업기술의 수혜자 입장에서 이제는 농업기술의 공여자로 전환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2. 농업기술 보급

가. 개 황

경쟁력있는 기술농업촉진과 지역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과 정보는 주로 농촌지도조직을 통하여 신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업연구와 지도가 같은 조직내에 두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농업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기술의 보급방법에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새기술정보를 자료화시켜 교재 또는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현장지도활동, 지도·연구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농업과학기술지원단 운영,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최근에는 농촌지도소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하여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등 총 91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기술보급사업에 적극 노력하였다.

나. 농업기술보급 실적

(1)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매년 개발된 시험연구결과를 지도공무원들과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조합하여 2,000부를 배부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농업인 교육훈련지침을 마련하여 3,000부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에서는 중앙의 지침서를 토대로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였다.

또한 주간 또는 월간 농사기술정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 시·군에 동시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22회에 걸쳐 발표함으로써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요 시기별로 44회 374명의 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농업인이 요청하는 지역이나 문제점이 있는 영농현장에 파견하였다.

(2) 새기술 보급 및 지역농업시범사업 추진

최신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벼 품종비교시범 등 식량작물분야 293개소, 우량꽃 생산시범 등 소득작목분야 122개소, 가축분퇴비화 시범 등 환경농업분야 473개소 등 총 14종 888개소를 설치하고, 새소득원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시범사업을 총 1,946개소(7,673명 참여)에 설치운영하여 참여농가소득이 연 4,104만원으로 인근농가보다 48%를 더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3) 품목별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보급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을 중앙, 도,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실용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정예농업인력 양성교육으로 8,331명, 도농촌진흥원에서는 지역특화작목 및 농기계교육 중심으로 19,194명, 시군농촌지도소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을 단계별 상설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1,102,477명을 실시하는 등 총 1,130,00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97년도 개교목표인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신축공사와 법령정비 및 모집요강 등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4-H회,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 조직 등 398천명에게 새기술 시범사업의 우선지원 및 현지연찬 등을 통해 기술보급 핵심요원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4)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술보급체계 정비

'97년부터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에 따라 중앙과 지방, 지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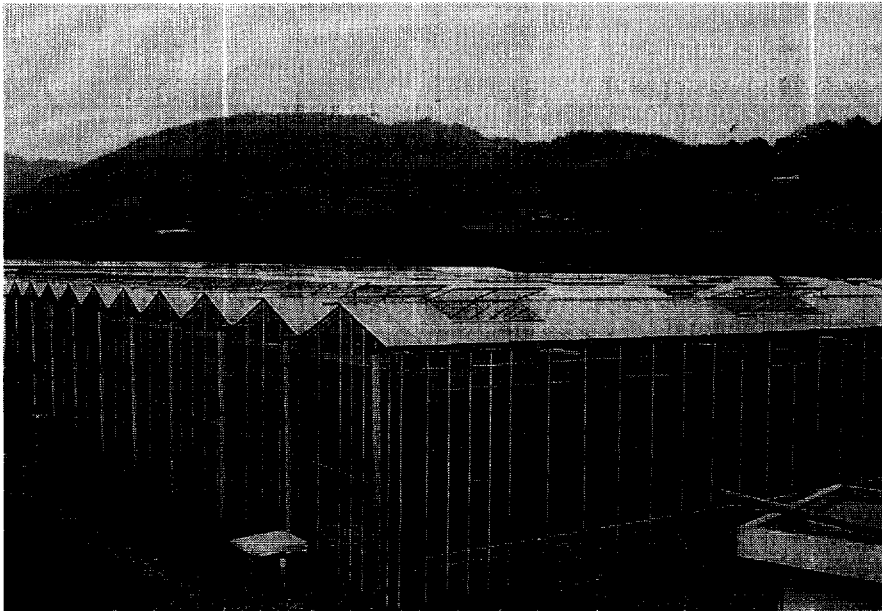
지방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농촌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운영,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에 대한 투자를 앞당기는 등 농업인에 대한 한자리 종합상담 및 기술보급기반을 구축하였다.

3. 농업시설 현대화

가. 원예·특작 유통시설 지원

자본·기술집약적이며 늘어나는 고품질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6년에는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생산유통시설에 종합지원하기 위하여 5,350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49개소, 양념채소 10개소, 고랭지 채소 20개소, 과수 150개소, 화훼 20개소, 특작 138개소등 총 387개소의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였다.



〈 청정원에 유리온실 〉

개소당 사업비는 시설채소 3,355백만원, 양념채소 3,268백만원, 고랭지채소 415백만원, 과수 1,260백만원, 화훼 3,862백만원, 특작(버섯) 564백만원으로 지원조건은 보조 50%(국고 25%, 지방비 25%), 융자 30%, 자담 20%이었다(단 버섯은 국고 10%, 지방비 10%, 융자 60%, 자담 20%).

현대화된 자동온실 보급은 유리온실 51ha, 경질판온실 5ha, 파이프비닐온실 276ha를 설치·지원하여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첨단기술농업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표 2-2-44〉

'96 품목별 지원실적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96 지원내역			
		계	국고	지방비	융자·자담
계	387	535,053	125,584	124,458	285,011
채소	79	208,909	52,921	51,795	104,193
- 시설채소	49	164,398	41,100	41,100	82,198
- 양념채소	10	33,961	8,171	8,170	17,620
- 고랭지채소	20	10,550	3,650	2,525	4,375
과수	150	189,000	47,250	47,250	94,500
화훼	20	77,240	19,310	19,310	38,620
특작	138	59,904	6,103	6,103	47,698

나. 인삼산업 육성 지원

인삼은 지금까지 인삼사업법에 의거 전매제에 의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이 제정발효됨에 따라 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관련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96년도에 259억원을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하여 인삼을 심을 때 농가에 17,040백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경감 및 재배의욕을 고취하고, 우량묘삼 생산 및 보급사업 10ha에 136백만원,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280ha에 3,724백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다.

인삼 생산지에 저장, 가공, 포장, 판매 등 인삼을 종합처리할 수 있는 시설 2개소에 2,520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지 인삼 유통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고려인삼 유통의 중심지에 인삼종합전시장 1개소를 설치하여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5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5>

'96 인삼산업 육성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별	단위	사업량	지원내역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계			185,192	4,780	3,872	21,140	155,400
○인삼생산지원							
-인삼식재자금	ha	2,130	170,400	-	-	17,040	153,360
-우량묘삼생산	"	10	272	68	-	68	136
-재배시설현대화	"	280	5,320	532	532	3,192	1,064
○인삼종합처리장	개소	2	4,200	1,680	840	840	840
○인삼종합전시장	"	1	5,000	2,500	2,500	-	-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한우는 '92년까지, 젓소·돼지·닭은 '93년까지 축사시설 개선사업 위주로 지원하여 왔으나,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양축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은 부지, 가축구입비 및 경영비를 제외한 기반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장비 시설 등을 개인은 2억원,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 축협은 자기자본의 400% 범위내에서 종합 지원하였다.

축산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축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추진·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여 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식과 사후관리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46〉

'96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한 우	3,636개소	90,000	4,500	4,500	63,000	18,000
젖 소	2,050	147,921	9,396	5,529	84,564	48,432
돼 지	2,079	242,655			166,950	75,705
닭	728	109,286			76,500	32,786

자료 : 농림부 축산국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96년까지 한우 2.8천호, 젖소 1.6천호, 돼지 1.3천호, 닭 0.7천호 등 총 6.4천호가 축산 전업농 수준으로 규모화되었다.

4. 주요 품목별 복합산업화

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생산한 벼를 산물로 수집하여 건조·저장·가공 및 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처리하는 현대화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 절감 및 물류 유통 합리화로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낮추고, 자동화시설을 이용한 포장의 규격화 및 미질의 차별화로 상품성을 높여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공급함과 아울러 수확기 농가보유물량을 흡수 처리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산지 쌀 유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미곡종합처리장은 '91년 농협에 2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92~'95년에 18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96년에는 33개소를 설치하였다.

'97년에도 '96년과 같은 33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쌀 주산지를 중심으로 4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 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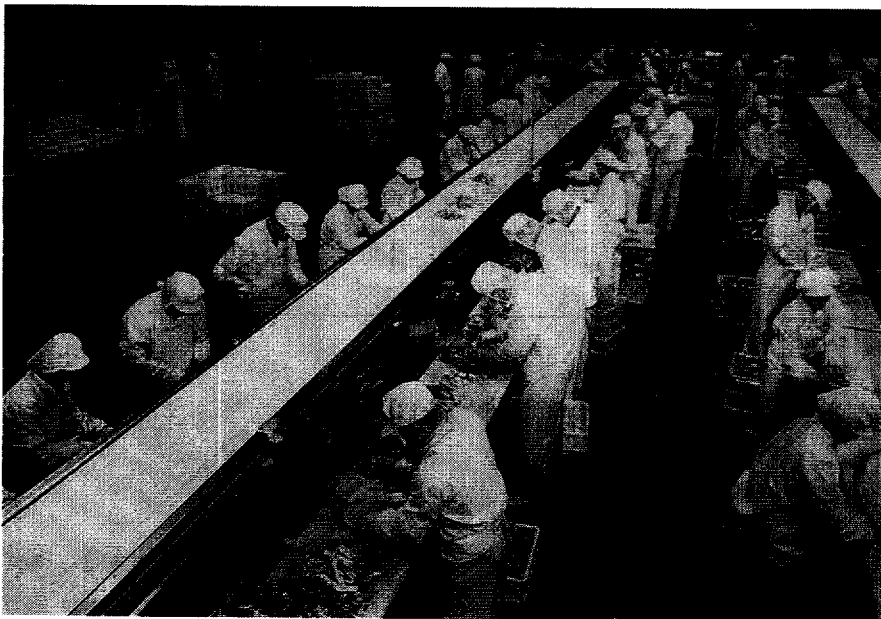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단위 : 개소, 억원)

	'91~'95	'96	'97 계획	'98~2004	계
개 소 수	187	33	33	147	400
사 업 비	3,336	435	500	2,760	6,966

나.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진공포장 냉장육등 해외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낙후된 국내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선진 육류 유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양축농가들이 계열화업체로 참여하여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적인 도축·가공으로 우수한 진공포장 냉장육을 생산하여 판매망 확보와 수출확대를 통하여 전후방 연관효과를 높여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육가공라인 〉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총 12개소를 건설하여 국내 도축물량의 30~40%를 처리할 계획으로 '94~'96년 사업으로 5개소가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96년까지 축발기금에서 237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가축계열화사업 추진

양축농가는 계열주체와의 계약에 의한 축산물 생산으로 일정소득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전문경영주체는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합 경영하도록 가축계열화 사업을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사육시설, 도축(도계)장, 종축 생산시설, 가공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리 5~8% 수준으로 종축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련 사업자나 기존 계열업체중 사육환경개선 또는 기타 시설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업체 및 계열참여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계열화사업을 통한 돼지고기, 닭고기 생산실적은 '96년말을 기준으로 돼지고기 7%, 닭고기 35% 수준이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2-2-48>

가축계열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축종별				사업비지원		
	계	한우	돼지	닭	계	기금지원	
						축발기금	농발기금
'95까지	27개소	2	12	13	877	451	426
'96	2	-	1	1	48	48	-

자료 : 농림부 축산국

5. 식품제조·가공업 참여 확대

가. 규제완화 추진

우리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수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89년부터 '96년까지 2,583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산지에 1,231개소의 가공공장건설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 등이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28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고 인·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는 신고만으로 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기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품목제조허가를 폐지하고 제품생산 보고로 대체하는 한편, 주류제조업의 경우 주조사 고용의무 면제, 기준 제조수량 폐지 등으로 농업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정책지원업체 현황

'96년 현재 정책지원 산지 식품가공업체수는 1,231개 업체에 이르며, 이중 전통식품업체 및 산지일반가공업체가 754개소로 6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특산단지업체 477개소이다.

이들 정책지원업체의 매출액은 '96년 기준 4,53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전통식품업체의 매출액은 1,457억원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일반가공업체의 매출액은 1,810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특산단지업체의 매출액은 1,265억원으로 정책지원업체 매출액의 27.9%를 점하고 있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3.1%로 매우 양호하였으며 '96 매출규모 4,533억원중 매출이익 932억원, 인건비, 기타 879억원 등 부가가치가 1,811억원으로 부가가치율이 40.0%에 달하여 제조업평균 부가가치율 26.4%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지역 토지의 자산평가가 낮아 농어촌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도시지역 투자보다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투자효율성 측면에서도 산지가공산업의 자본 투자효율이 32.9%로 제조업 평균 26.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기계 투자효율이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부문의 무리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보다는 융자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사업 참여 현황

농협·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식품가공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96년말 기준 농협이 181개소의 식품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5개소는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조합과 특수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은 176개소에 이르고 있다.

농협의 회원조합수가 단위조합 1,350개소, 특수조합 46개소로 모두 1,396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회원조합수는 157개 조합으로 회원조합 식품가공사업 참여율은 11.2%에 달하고 있다.

한편, 축협은 도축장을 제외하고 69개소의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이 5개소이며, 64개 회원조합이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축협회원조합의 가공사업 참여율이 33.2%(전체 회원조합수 193개)에 이르고 있다.

라. 식품가공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효과는 가공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농외소득화 및 유발수요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가격지지효과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유발수요 확대에 의한 가격지지효과가 크며, 농산물가공산업의 농가소득 증대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지만 일부 이행된 사례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연사과주스 가공사업으로 '92~'95년간 총 6,343억원의 사과 가격지지 효과와 362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4년간 약 6,705억원의 사과농가 소득증대 효과로 나타났다.

당근주스 가공사업은 '95년 한해동안 약 39억원, 유자주스가공사업은 '94~'95년 2년간 약 13억원, 대추음료가공사업은 '95년 한해에 약 6억원의 농가소득 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절 국제협력 증진 및 수출농업의 도약

1. 국제협력 증진

가. WTO활동 참여

세계무역기구(WTO)는 출범 2차년도를 맞아 그동안 각회원국의 WTO협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WTO협상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각료들이 참여하는 각료이사회(싱가폴 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거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거나 종료하기위해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나, WTO하에서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정치적인 수준에서 WTO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상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금번 싱가포르 각료회의는 '96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는 WTO각회원국들의 통상관련 각료들이 참석하여 WTO 제반협정 및 결정사항의 이행점검, 세계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무역문제에 대한 보고, 참석각료들의 정치적발언, 진행중인 WTO 후속협상문제, WTO의 장래의제(New Round issues)에 대한 검토, 추가적인 무역자유화(further trade liberalization),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채택등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였다. 각회원국들은 고위실무자를 파견하여 자국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통상산업부 장관을 수석대표로하여 농림부를 포함한 7개 관계부처의 실무자 3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번 싱가포르각료회에서는 각료선언문 채택이 있었으며 일반이사회에서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각위원회별 WTO활동상황 관련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주요한 논의사항을 보면, 당초 각료선언에 대한 사무국안은 농업위원회 향후 작업계획은 농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따른다고 되어있었으나,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인즈그룹은 당초 각료선언에 1997년부터 농업분야 준비작업을

시작한다는 알젠틴 제안을 삽입하려고 주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일본, EU를 위시한 농산물 수입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식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나, 케인즈그룹을 대표한 호주가 EU측과 접촉하면서 각료선언이 아닌 그 보다 약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에 삽입하려고 재차 시도하였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긴밀한 협조하에 대응하여 당초 사무국이 제시한 안대로 농업위 보고서 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차기협상을 위한 분석 및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예정되어있다.

무역과 환경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 경제발전, 환경보호간의 상호보완성에 주의를 환기하고 UR의 이행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업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알젠틴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ASEAN, 인도 등은 농업보조금 등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으로써 향후 국내보조금의 철폐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보인 반면에 EU, 스위스, 일본, 한국 등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각료회의 보고서에는 농업보조금이 환경 역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는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농업보조금의 환경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실증적 분석 등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정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섬유, 노동, 투자, 경쟁, 정부조달, 정보기술협정(ITA) 등 새로운 협상과제와 관련 선·후진국이 대립이 매우 심했으나 양측간에 합의로 문안을 조정, 일단 동 문제들을 WTO체제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으며, 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섬 유 : 섬유협정을 GATT체제로 조기에 통합하도록 노력. 섬유 분야에서의 다자규범의 중요성 및 무차별적인 교역 체제를 강조 (섬유 국별 쿼타제와 관련)
- 노 동 : ILO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핵심노동기준을 다루는 기관임을 확인하고 WTO사무국과 ILO사무국이 협조해 나감

- 투 자 : 무역과 투자의 관계규명을 위한 작업반 설치, 향후 협상은 회원국간에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시작됨
- 경 쟁 : 무역과 경쟁의 상호관계 규명을 위한 작업반 설치 (작업반 검토대상에 반덤핑 문제까지 포함)
- 정부조달 : 정부조달의 투명성 연구를 위한 작업반 설치, 작업반의 검토작업시 각국의 정책을 고려
- I T A : 정보기술품목(ITA)에 대해 2000년까지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철폐

이번 각료회의를 평가해 볼때,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들의 준비작업조기 개시시도는 일본, EU와 공동보조로 일단 저지하였으나, 농업위 보고서상의 향후 작업계획관련 문구에 대한 해석문제는 '97년에 개최될 농업위원회에서 다시 재론될 것이며 우리나라, 일본, EU등은 UR 이행점검이 정보교환 및 분석등 준비작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수출국들은 농업위 문구상 1997년부터 정보교환 및 분석등 준비작업을 시작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UR협상결과의 이행점검보다는 향후 협상할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UR 협상결과의 이행점검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고 보면서 선진국들의 새로운 협상 문제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 UR결과의 이행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최빈개도국들은 UR결과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노동, 경쟁, 투자, ITA등 새로운 협상 문제들에 대한 WTO체제내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새로운 협상 문제의 WTO체제 편입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각료회의 (1998년 5월, 스위스)에서는 새로운 협상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분야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향후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출국들의 농산물협상 조기 개시시도를 저지하고 예상되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극 개발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나갈 것이며, EU국가들이나 그동안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이집트 등과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FAO 활동 참여

최근 FAO 주요회의에서 제기된 과제는 환경보전과 연계되는 농업 생산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동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활용, 후진국 농업개발에서 여성의 역할, 농산물 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가공식품 국제규격 표준화, 위생 및 검역제도 표준화 등 국제농업기구의 역할 변화와, 국제기구 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문제였으며, '96년에는 최근의 국제적인 식량사정 악화에 따른 식량안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96년에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식량안보달성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태리 로마의 FAO본부에서 176개 회원국 및 7개 비회원국 등 총 183개국의 정상과 정부수반 등 고위급인사, 그리고 WTO 등 52개 국제기구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세계식량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정상들의 결의인 「로마선언문」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로마선언문 및 행동계획」은 FAO사무국이 준비한 초안을 중심으로 '96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검토회의를 통한 회원국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협상 및 조정의 결과로서, 논의 과정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정책우선순위에 있어 비교우위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식량수출국과 국가별 적정생산의 필요성 및 기초재고 보유 필요성 등을 주장하는 식량수입국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양그룹의 입장을 조화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다.

우리나라는 '96년 1월에 개최된 제21차 식량안보위원회부터 「로마

선언문과 행동계획」 마련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생산의 중요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단적인 무역자유화의 억제 등 우리가 주장한 사항을 상당부분 최종 문구에 반영함으로써 FAO의 실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요한 입장표명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식량안보와 무역과의 관계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국내생산의 문제 등 쟁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97년중에 FAO주요회의에 대하여는 세계농업의 흐름에 대한 신속한 정보의 입수 및 논의 동향의 파악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총회 및 이사회, 주요 전문가회의 등 20여개 회의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특히, '97년에 개최되는 제112차 이사회와 제29차 총회에서는 지난해 「세계식량정상회의」 시 「로마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반영된 식량안보에 관한 주요정책 및 전략들을 FAO의 주도하에 OECD 및 WTO 등 여타 주요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과정에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다. OECD 가입

'96년은 우리나라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OECD가입은 그 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세계화정책의 표현이며, 이로써 우리는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응하고, 대외정책을 다변화하는 한편, 선진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세계를 무대로 한 우리 국민의 활동기반 확충과 국가 이미지 쇄신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세계농업정책과 농산물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OECD 가입으로 우리 농업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선진 농업정보 습득과 국내농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OECD와의 농업정책 조화는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96년말까지 OECD 정회원국 가입」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도초부터 재경원을 비롯한 각 부처별로 OECD 각 위원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가입협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업분야는 '95년 가을에 개최된 제121차 농업위원회('95. 11. 7~9)에서 한국농업에 대한 정책검토를 마쳐 가입협약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으며, '96년 중에는 가입협약자료(Working Document) 작성,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등 타 위원회의 농업분야 가입업무를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무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일부 회원국들이 한국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OECD에 가입하더라도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으며, 이를 무역위원회 최종보고서('96. 8. 26)에 명시토록 하였다.

OECD 가입과 관련 OECD 규범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최종 확인하는 가입협약자료(Working Document)에서 농업분야는 12개 규범중 결정(Decision)은 「농업용트랙터의 공인시험을 위한 OECD 표준코드 제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 [C(87)53 Final]」만 국내 농기계산업의 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권고(Recommendation)는 「도시근교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있어 농업의 역할에 관한 이사회 권고 [C(79)18 Final]」만 우리 농업정책 방향과 부합되는 관계로 수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택적 활동기구(Optional Activities)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OECD 농업위원회가 협력연구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Programme)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속가능 농업체계를 위한 생물학적자원관리(Biological Resource Management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Systems)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OECD 이사회는 '96년 10월 11일 한국에 대한 가입 초청을 결정하였으며, 가입비준안에 대한 국회 동의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소관 분야에 대한 공청회를 '96년 11월 25일 국회에서 개최하고 의견서를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OECD 가입비준안은 '96년 11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96년 12월 12일 OECD 가입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OECD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지난 UR경험을 비추어 볼때 국제기구 가입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떠올리게 되는 관계로 농수산 공직자들과 농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OECD 가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다. 정부 합동교육교재와 농림부 자체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9만 5천명의 공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교재를 각 행정기관 민원실과 농협과 축협의 일선점포에 비치케 하여 대 농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한편 OECD농업위원회 읍서버 가입('94. 12. 19.)이후 정회원국과 다른없는 OECD활동을 해 온 농림부는 '96년도에도 각종 농업관련회의에 적극 참석하였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회의에 23회, 무역·환경위원회 등 타 위원회에도 13회나 참가하였다. 특히 제122차 농업위원회('96년 4월 22일~25일)에서는 한국농업 국별검토 일정을 확정하고, OECD 농업위원회가 회원국의 농업정책과 농산물 무역정책에 관해 작성하는 연례보고서인 「Monitoring and Evaluation 1996」에 한국관련 내용이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제23차 과채류그룹회의('96년 6월 17일~19일)에서 우리대표단은 우리나라 과채류정책과 무역에 대한 현황 발표와 함께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97년에는 한국농업 국별검토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규제개혁, 카르텔 금지 등 새로운 이슈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OECD 가입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농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OECD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여 국내농업정책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의 낙후된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농업관련 회의에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OECD 회의 참가는 OECD활동의 가장 핵심이며 회원국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

지난해의 양국간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교역상대국들이 자국의 관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관련 제도에 대해 많은 협의를 가졌으며, 이에 대해 상대국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중

정당성이 있는 분야는 적극 수용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과학적이고도 객관·타당성이 있는 논리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애로 해소와 상대국의 통상공세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상대국의 불합리한 무역제도나 관행을 조사하여 공세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였다.

(1) 미 국

미국은 우리 농림산물의 교역에서 수출은 4번째, 수입은 전체 농산물 수입의 36.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은 주로 라면, 국수, 잎담배 정도이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사료용 옥수수를 비롯하여 밀, 대두, 쇠고기 등으로 곡물과 축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농업통상현안은 주로 한·미 통상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논의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미측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농산물 검사검역, 저울관세운영문제 등이었으나 농산물 검사검역 문제는 작년에 우리 자체의 제도개선 계획에 의한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되었으며, 저울관세운영은 WTO에서 이미 합의한대로 운영하여 왔음을 상기시켜 왔다. 한편, 그동안 우리측도 적극적으로 제기의제를 발굴하여, 대미 감귤 수출시 생산 5개주 반입금지해제, 수출배의 현지검역철폐, 잔류농약검사기준완화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E U

한·EU간 농업분야의 통상현안은 동식물검역이 대부분으로 한·EU 고위실무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금육의 대 EU 수출허용을 EU측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동물검역분야에서 EU측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동물검역상 권역화의 원리(Principle of Regionalization) 적용과 EU산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허용을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은 EU 회원국의 가축위생상황은 국가별로 각기 상이하므로 EU 회원국 전체를 동물검역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국가의 품목별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가축위생 상태가

양호한 화란산 소 수정란·정액, 반추수 육류와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식물검역분야에서 화란산 화훼구근류의 격리재배면제 수입허용문제는 한·화란 공동시험결과 화란산 구근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기 때문에 격리재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입장이며, 스페인산 레몬, 자몽을 저온소독 조건부로 수입허용을 요청한데 대해 '96년 5월 스페인측에 공동시험 설계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3) 일 본

'96년도 우리나라의 대 일본 전체교역은 15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농림산물의 총교역량은 1,058백만달러였으며 589백만불의 흑자를 시현했다. 일본 시장은 우리 농림산물 수출액중 45%를 차지하는 제1위의 수출시장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의 '96년도 농림산물의 수입액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품 중 돼지고기가 크게 증가한 반면 대일 수출 비중이 큰 김치, 송이버섯, 화장압제품, 밤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지난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95년 하반기부터 엔화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일본 채소류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수출규격품의 생산부진 등으로 수출증대가 다소 부진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문제는 한·일 신경제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상호 논의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강화로 양국간 통상 마찰은 거의 해소된 상태이다.

(4) 중 국

중국과는 '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농산물 교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합판, 껌, 자당, 밤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참깨, 면실유박, 고추, 옥수수, 팥 등이다. 중국측은 최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등 육류와 과일 등의 대 한국 수출에 관심이 높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부과하고 있는 농림산물 조정관세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중국측에 인식시키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측은 한국산 인삼의 수출을 위해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중국 국내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한·중 양국간 부처차원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96년 3월 18일 우리 농림부와 중국 농업부간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96년 11월에 제1차 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여 농업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국제다자기구(APEC, WTO, FAO 등)에서도 농업환경이 유사하고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한·중간 공동보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마. 김치의 Codex규격 추진

우리나라 고유 전통식품인 김치가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국제식품으로 발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아틀랜타 올림픽에 공식음식으로 채택되어 공급된 바 있다.

그렇지만 김치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의 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입하는 국가에서 임의기준을 정하여 수입을 규제할 개연성이 있어, '95년부터 김치의 국제규격화를 위한 작업단을 설치하여 김치규격(안)을 만들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지난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3차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집행이사회에서 규격제정의 필요성을 추인받게 되었다.

규격이 제정되기까지는 총 8단계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2단계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7월 18일 규격초안에 마련 Codex사무국에 제출하였다. '97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는 제11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김치 규격초안심의를 위한 제4단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치의 국제식품규격이 만들어지면 국제교역에서 공정한 거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역의 원활화로 수출이 증가하고, 김치의 종주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우리식품을 세계로 알리는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90년이후 정체 상태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노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에 힘입어 '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여 '96년에는 1,829백만불로 UR협상이 타결된 '94년에 비해 25%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수출이 아직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수출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내적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생산·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외적으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급변하는 해외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 수출시장인 일본의 엔화가치 하락과 우리 수출품의 규격화, 등급화, 고급화 및 디자인과 포장 등 상품기술이 미흡한 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농림산물은 단시간내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수출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정부는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적으로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내가격 격차폭에 상관없이 일관된 수출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 정보망 구축과 해외농업무역관(KATIC : Korea Agricultural Trade and Information Center) 설치,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특별기획전 개최 등으로 농산물의 수출기반을 다져 수출증대에 노력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하여 작년에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시장 개척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 차원에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함으로써 구매선 확보·신상품 소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였고, 또한 일본과 홍콩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수출확대 전기 마련을 위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판매 활동을 전개하여 수출분을 조성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현지 수입업체 등 초청 간담회, 특별시음·시식회를 개최한 결과 78백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96년도에는 141백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다.



< 박람회 한국관 전경(동경) >

<표 2-2-49>

박람회 참가 및 수출계약 실적

(단위 : 회, 개, 천불)

연도	'92	'93	'94	'95	'96
구 분					
참 가 회 수	5	10	12	12	15
업 체 수	88	212	238	288	508
수 출 계 약	7,975	26,856	76,320	104,121	140,691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 농산물 수출지역에 권역별로 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하여 해외수출 활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현지정보 수집, 시장개척, 홍보, 판촉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무역관을 설치하였다. '96년에는 동경농업무역관을 확대 개장하였다.

〈표 2-2-50〉

해외농업무역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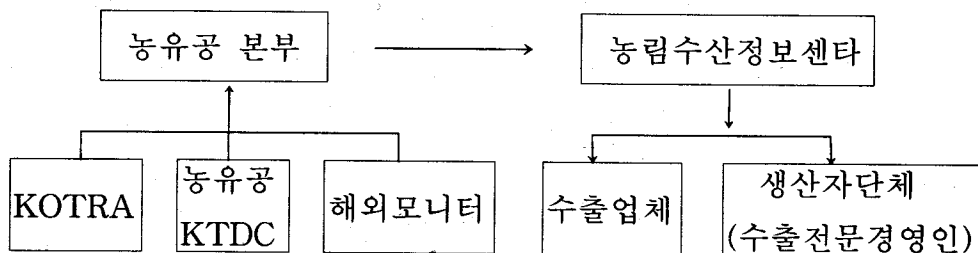
설치년도	'92	'93	'94	'95	'96
지역	화란	뉴욕	오사카	싱가폴, 북경	동경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해외시장의 살아있는 정보가 더욱 신속·정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100개의 수출전략품목을 무역정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품목별로 심층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산농가 및 무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무역정보 전산화를 추진하여 '96년에는 2단계로 35개 품목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그림 2-2-1〉

정보보급 체계도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의 우수 농산물 구매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료 구매자금, 시설자금 등을 '95년의 1,016억원에서 '96년에는 1,397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출절차의 간소화, 서류감축 등을 통하여 더욱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95년 3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96년 6월에는 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하였다. '96년 10월에는 가격상승 위협에 대한 가입대상 품목을 종전의 16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상비율도 종전의 보험 계약액의 4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계약체결 실적은 '95년도 4.5억원에서 '96년에는 32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또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96년도에 『농산물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운영한 결과, 총 160건에 달하는 수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장단기 해소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

3. 수입관리

'96년도의 수입관리는 WTO 이행 첫해인 '95년도와 동일하게 67개 품목군(세부품목 202개)의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신청 조정관세 부과 등 국내 관련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96년도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은 전체 67개 품목군중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참깨 등 19개 품목군은 국영무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등 8개 품목군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수입시기는 국내 생산시기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내수급과 WTO협정상의 수입의무의 이행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국영무역 : 5,076억원, 수입권공매 : 131억원)은 농산물가격안정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업용 원자재 가운데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종돈, 종계, 종자용 옥수수 등 8개 품목군과 국내

가공산업 보호를 위하여 저율관세 물량 확대가 불가피한 참깨, 대두, 팥, 전분 등 12개, 총 20품목군에 대하여는 저율관세 물량을 필요한 만큼 증량하여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나. WTO가 허용하는 각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수입관리

시장접근물량 이상의 물량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증가를 억제하였고, 더욱이 관세화 대상품목인 땅콩, 메밀 등 61개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 이외에 추가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96년 8개품목 93억원의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리는 관련 품목 수입 급증에 대처하였다. 이미 자유화된 품목중 저가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극 운용하여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에 대해 최고 90%까지 관세를 인상·조정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였다. 특히 모조분유에 대하여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농산물(180개) 원산지표시는 물론 국산 농산물(143개) 및 가공품(81개)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을 단속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하였고, 아울러 동·식물의 검역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였다.

제 7 절 생산자·소비자를 위한 물류체계 구축

1. 산지 유통시설 확충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화를 촉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및 편리를 도모하고자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산지에서 집하·세척·선별·포장·예냉·저장 등 유통기능을

일관처리함으로써 유통의 효율을 제고하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저장기능을 통한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산지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96년도에 농어촌특별세 사업으로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1,078개소 설치에 24,405백만원을, 농산물포장센터 28개소 건설에 7,200백만원을, 구조개선사업으로 청과물종합처리장 3개소 건설에 4,200백만원을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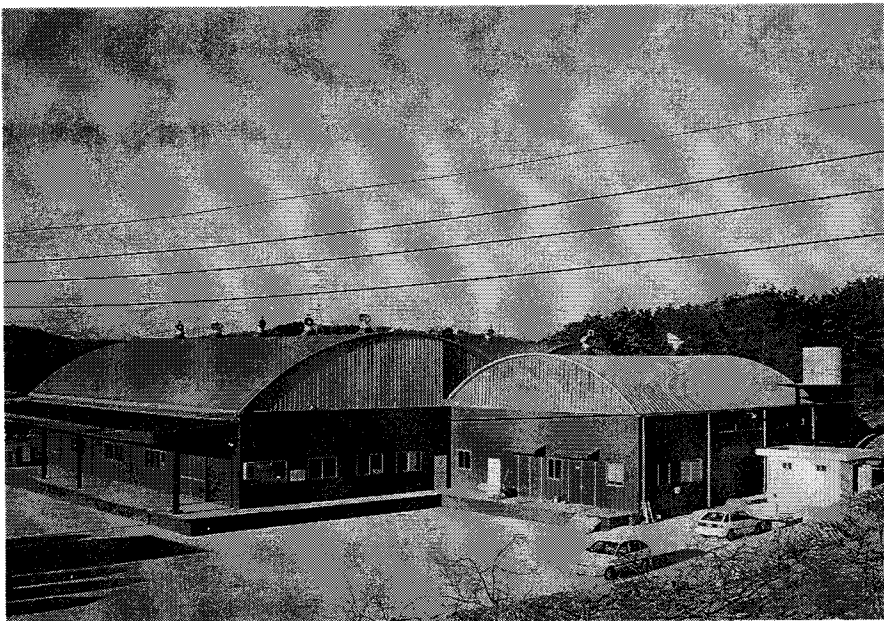
〈표 2-2-51〉

'96 산지 유통시설 확충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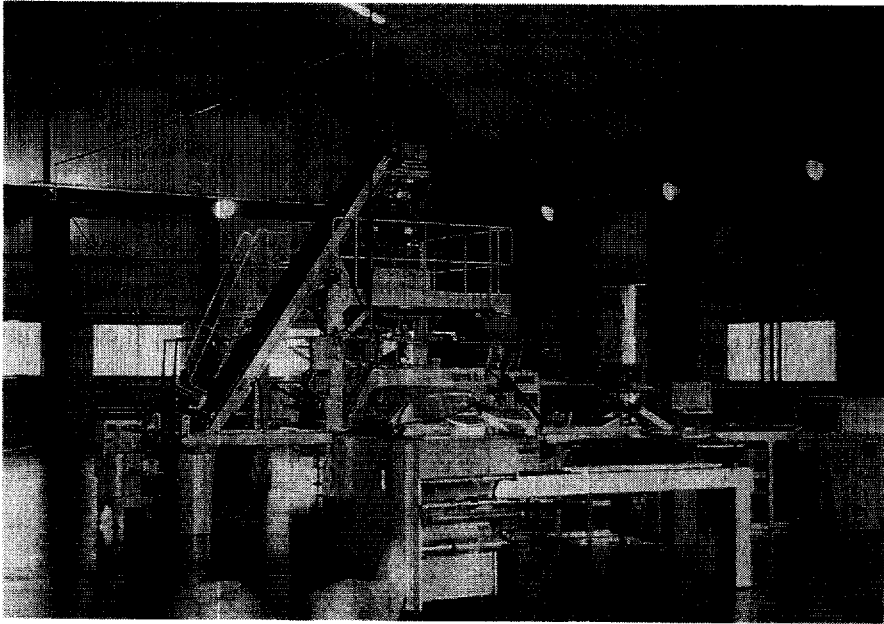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사 업 량	1,078	28	3
사 업 비	61,013	18,000	6,000
국 고	24,405	7,200	4,200
지 방 비	24,405	5,400	1,800
자 부 담	12,203	5,400	-

자료 : 농림부 유통정책국



〈 홍익영농조합법인 포장센터 전경 〉



〈 과실류 포장기 〉

2.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전국에 34개소의 도매시장을 건설한다는 기본계획하에 서울가락동, 대구, 청주, 울산, 광주, 대전, 부산, 전주, 수원, 인천, 천안, 창원, 충주, 춘천 등 15개소의 도매시장을 개장·운영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구리, 안양, 안산, 익산, 서울서남, 부산제2, 광주제2, 인천제2, 포항, 진주, 원주, 강릉, 정읍, 대전제2, 고양, 성남, 순천, 구미지역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건설공사 등을 추진하는데 72,0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나. 농산물공판장 건설

생산자의 판로를 보장하고 중간상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6년까지 48개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충북 괴산, 전북 전주, 경북 영주·상주, 경남 진해·밀양 등 6개소에 11,153백만원을 해당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였다.

'97년에는 강원 평창, 충남 부여·서산·논산·예산, 전북 장수, 경북 성주 등 7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98년까지 67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기존 도매시장과는 달리 주문에 의한 집·배송 형태의 새로운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 판매망을 직접 연결시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소비자 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95~'96년 계속사업지구로 양재동, 창동, 청주, 부산, 천안, 전주, 장성, 군위 등이 있고, '97년 신규사업지구로 대전, 김해 등이 있다.

3.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

가. 추진배경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부분에 대해 소홀하였으며, 최근 농약잔류 채소·과일, 불량우유 등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잦은 보도로 소비자들의 불안 증대 및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높았다.

우리 농축산물의 불신은 상대적으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을 촉진하게 되므로 우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6년 8월부터 20개 품목의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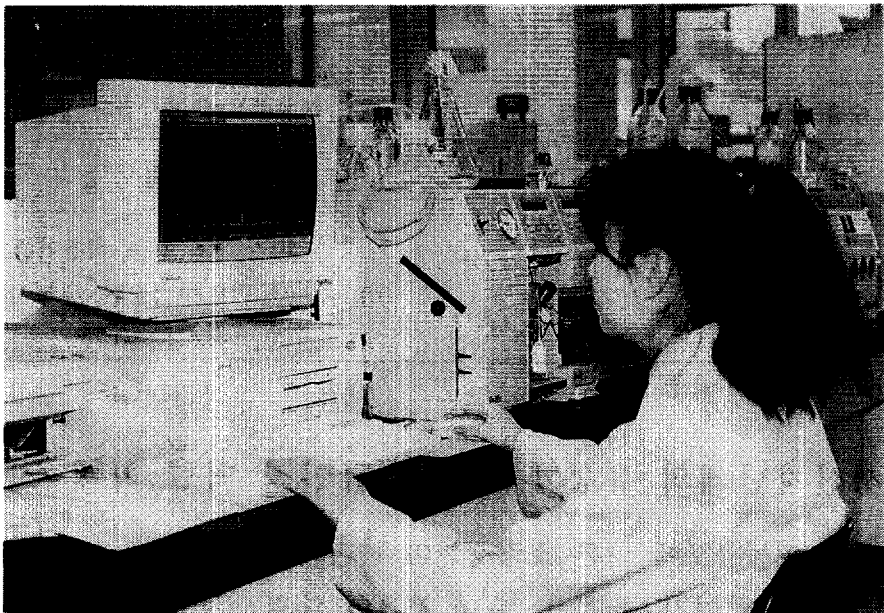
나. 주요 추진내용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추진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였으며,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생산자·소비자 및 농산관련 공직자들에게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대한 중요성

및 정부시책을 홍보·교육하였다.

또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농축산물안전성검사업무처리요령(농림부 고시)」을 제정하여 본 요령에 의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안전성조사를 위하여는 분석장비 및 시설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농검 시험소 및 4개지소(부산·경기·충남·전남)에 분석실을 설치하고 중금속분석기등 첨단분석장비('95년도 161대 → '96년도 409대)를 확충하였으며, 분석 적격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분석요원('95년도 38명 → '96년도 62명)을 확보함으로써 '96년도 8월부터 농산물안전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실험 장면 〉

'96년도 안전성 조사는 일반 농산물의 경우 생산·저장·출하단계에서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산단지 및 저장장소등 check point를 설정하여 752점에 대해 농약잔류, 중금속, 아프라톡신

등 유해잔류물질을 조사한 결과, 이중 13점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었으므로 자율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및 농가계도 등을 실시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표 2-2-52〉

안전성검사 결과 및 처리내역

구 분		조 사 건 수 (A)	부적합 (B)	부적합 비율 (B/A)	조사결과 처리내역
계		74,154	45건	0.06%	
소 계		1,314	38	2.9	
농 산 물	일 반 농 산 물	752	13	1.7	자율폐기 1농가, 용도변경 1, 출하연기 6, 농가계도 5
	품질인증 농산물 (유기·무농약재배)	499	25	5.0	인증취소 18(작목반 5, 농가 3), 인증표시 사용정지 7(작목반 2, 농가 4)
	수출농산물(감귤)	30	-	-	제주도에 조사결과 통보
	기타(신청검사품 등)	33	-	-	신청인에게 통보 등
축 산 물	소, 돼지, 닭 (유해잔류물질검사)	72,840	7 (소)	0.01	298건에서 검출, 허용기준초과 7건 (소각처리 소2두, 동물사료용 소 4두, 매몰 소1두)

자료 : 농림부 유통정책국

4. 생산자단체의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 역할 확대

영세한 영농규모에 따른 소량생산과 농촌의 인력난으로 농민의 농산물 유통까지의 참여가 한계가 있고, WTO 출범, OECD 가입으로 가격 정책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도 어려워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지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농산물 유통개선 및 농산물 수급조절의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우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조직규모와 공동규격출하 정도를 농산물검사소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공동규격출하나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관련 자금을 집중 지원토록 하였다. '96년에는 7,788개의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조직은 8.5%인 659개소, 우수조직은 63%인 4,942개소로 평가되었으며, 최우수조직,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간이집하장건설, 포장센터건설, 생산유통지원사업, 농산물규격출하자금, 생산자조직육성자금 등 총 9개사업, 5,200억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조직이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의 산지유통 점유비는 '95년 35% 수준에서 '96년 40% 수준(8조원)으로, 축협의 산지유통 점유비도 10% 수준에서 11% 수준(44백억원)으로 높아졌다.

〈표 2-2-53〉

농·축협 산지유통 비율

(단위 : %)

	'93	'94	'95	'96
농 협	29.8	32.7	34.5	39.5
(취급액, 억원)	(52,362)	(60,135)	(71,554)	(80,223)
축 협	8.7	10.5	10.6	11.1
(취급액, 억원)	(2,364)	(2,984)	(3,383)	(4,438)

자료 :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또한 전국적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96년에 참다래, 복숭아, 단감 등 3개의 품목별 전국협의회가 추가로 결성되어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17개로 늘렸으며, 특히 마늘 전국협의회는 농정사상 최초로 '96년산 마늘 자율폐기(8천톤)사업을 통해 산지마늘 가격을 지지하는데 성공하였고, 앞으로도 전국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격 및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인 농협, 축협은 산지유통뿐만 아니라 소비유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물류센터, 하나로클럽, 목우촌 등과 같이

신물류 유통시설을 소비자 선호 추세에 맞게 대형화, 전문화 함으로써 직거래를 통해 민간유통업체와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2-54〉

농·축협 소비자 유통시설 현황

(’97. 6월 현재)

	중앙회	자회사	회원조합	계
농 협	615개소	19	2,920	3,554
축 협	42	16	446	504

자료 :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제 8 절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개발된 소득원의 내실화

1.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등 농어촌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말까지 총 28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61개소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에 2,544개의 공장이 입주 가동중이며, 99천명이 취업하여 연간 약 9,128억원(’95년 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산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 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 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55>

농공단지 조성실적

구 분	합 계	'91까지	'92	'93	'94	'95	'96
단 지 수 (개소)	285	243	7	13	6	7	9
연 면 적 (천평)	12,748	10,914	345	561	249	292	387
입주(예정)공장(개)	3,637	3,345	96	118	32	46	-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2.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자연경관, 역사 유적지, 문화재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을 '8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표 2-2-56>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실적

구 분	합 계	'91까지	'92	'93	'94	'95	'96
사 업 량 (개소)							
- 휴 양 단 지	11	5	2	1	2	1	-
- 관 광 농 원	332	108	34	29	63	60	38
- 민 박 마 을	163	13	10	20	42	28	50
지 원 액(백만원)	109,538	21,440	8,712	9,286	22,310	23,600	24,190

주 : 관광농원 지구수는 '84~'96년까지 지정된 농원중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농원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3. 농촌특산단지 육성

농촌의 유희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96년까지 664개소의 농촌특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7,628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가구당 연간 평균 710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표 2-2-57〉

농촌특산단지 조성실적

	총계획	'96까지	'97계획
조성단지수(개소)	1,600	664	60
참여농가(호)	-	7,628	-
지원액(백만원)	293,397	159,949	10,740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4.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확대

새기술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작목별 주산단지 중심으로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273개소(원예 109, 축산 164)를 설치하여 새로운 품종과 신기술을 집중투입하는 동시에 작목별 재배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 새기술을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원예작물 분야의 10a당 평균생산량이 21~23%가 증가하였고, 소득은 8~23%가 향상되었으며, 소규모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설 및 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와 자원화 이용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였다.

한편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생력고품질 생산기술 및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의 조기정착 도모를 위하여 '96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 24개소, 원예작물 환경개선 시범 144개소,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육성시범 19개소

등 총 11종 30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95년도 시범설치한 자동화하우스 등 11종 241개소의 2년차 사업과 '94년도 시범설치한 고품질 과실생산 등 8종 288개소의 3년차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호당 평균소득이 41,040천원(인근농가 27,674천원)으로 48%가 증가하였고 '96년도 평가회시 농업인 16,360명을 대상으로 반응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농업인이 사업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범사업장을 현장중심의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한 결과 '95년 대비 자동화하우스는 9.3배(3,515ha), 양액재배시설은 21.2배(275ha)가 증가하는 등 지역특화 작목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다.

제 9 절 농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1. 정주생활권 개발

가. 추진배경

정부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9년도에 농어업인의 소득과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내용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0년도부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94년도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생산기반정비와 생활환경정비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 사업추진 내용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살면서 도시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공존하는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재정지원하에 주관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마을을 연계하여 군단위 중소도시에는 학교·병원·도로·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으로 중점 확충하고, 면단위 농어촌지역에는 우량농지를 가진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을 연계하여 종합정비해 나가고 있다.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마을단위로 생활환경을 집중 정비해 나가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면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90년도에 16개면에 대한 시범사업을 착수한 이래 '91년에는 120개면을 추가하여 전국 군당 1개씩인 136개면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90년에 138억원, '91년에 1,445억원 등 총 1,583억원(국고 392, 지방비 398, 용자 793)을 지원하여 마을내도로·상하수도·가로등 등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집하장·창고, 생산기반정비, 농어촌주택정비 및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에 집중 지원하였다.

'92년부터는 주요 사업비 재원을 국고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하여 '95년도까지 총 8,278억원(국고 56, 지방양여금 4,213, 지방비 1,725, 용자금 2,284)을 지원하였으며, '96년도에는 총 3,304억원(국고 64, 지방양여금 1,441, 지방비 618, 용자 1,181)을 지원하였다.

'96년도말까지 정주권개발사업은 제1단계 대상 772개면중에서 536개면에 대하여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면개발계획서에 의하여 359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그중 165개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면단위 중심마을을 중점개발하기 위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은 '96년말 현재 72개지구를 착수하여 그중 32개지구에 대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을 하고 주택건축 중에 있으며,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30개지구에 대하여 설치하였다.



〈 문화마을 (고창 고수) 〉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종합적인 농어촌지역개발계획수립을 통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계획수립과정과 사업시행과정에서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주요 사업비 재원을 국고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노후주택을 개량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제정 보급함으로써 건축경비를 절감하고 공사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2-58>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 억원)

사 업 명	단위	'95 까지		'96 실적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9,861		3,304		13,165
○ 문화마을조성	지구	51	1,493	21	854	72	2,347
○ 마을하수처리시설	지구	14	56	16	64	30	120
○ 일반정주권개발			8,312		2,386		10,698
- 마을기반정비			1,857		645		2,502
· 마을내도로	km	657	1,354	221	510	878	1,864
· 상수시설	개소	123	124	15	22	138	146
· 하수시설	km	313	328	98	90	411	418
· 기타	타		51		23		74
- 농어촌도로정비			2,708		591		3,299
· 도로	km	1,233	2,510	232	529	1,465	3,039
· 교량	개소	170	183	46	58	216	241
· 승차장	개소	122	15	42	4	164	19
- 문화복지시설			444		124		568
· 복지회관	동	64	158	9	33	73	191
· 마을회관	동	388	259	123	86	511	345
· 공동이용시설	개소	29	27	7	5	36	32
- 농어촌산업기반			694		181		875
· 농산물집하장	개소	32	40	1	1	33	41
· 저온저장고	개소	61	148	5	5	66	153
· 농산물선별장	개소	4	1			4	1
· 농로 등			505		175		680
- 농어촌주택정비			2,225		763		2,988
· 주택신축	동	10,383	1,949	3,727	737	14,110	2,686
· 주택개량	동	6,968	276	517	26	7,485	302
- 면개발계획등			384		82		466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2. 농촌생활여건 개선

농촌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작업환경개선, 농촌여성일감갓기, 농가가계관리, 농촌노인생활지도, 생활문화지도 등 다양한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였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금으로 15천호에 호당 280만원씩 420억원을 지원하여 부엌과 목욕실 개량 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을 실시하였다.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1,057억원 중 자부담 등이 639억원으로 60% 수준이며 농가당 평균 개량비용은 706만원으로 나타나 금후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농작업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28억원(국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80개소를 설치, 체력단련실, 찜질방, 목욕실, 휴식실 등의 시설과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하고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종합적인 건강관리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75개소에 각종 시설 및 환경개선과제를 집중투입하여 육성하였고,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마을공동쉼터 등의 건강관리시설 608개소 설치, 농작업보조기구 보급 등 농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여성의 능력을 활용한 농외소득 활동인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을 중앙시범지역 9개소, 지방자체사업 44개소에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여성들의 삶의 보람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지식 향상과 상호 정보교환의 계기를 제공하였고, 일감갓기 생산제품의 홍보를 위해 각 지역단위에서 특별판매전 실시는 물론 각종 행사시의 전시·판매를 통해 생산제품의 판로를 확대하였다.

농가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가계관리를 위해 농가 실정에 맞는 농가용가계부 7,500부를 제작하여 기록·지도하였고, 「근검절약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재 및 소비생활정보 소재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농촌노인의 활력있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09개소를 육성하여, 노인들의 요구에 맞는 노인교실, 공동부업, 건강 증진활동, 봉사활동, 전통문화 전승활동, 세대간 교류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노인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콩의 생산기반 확대와 안전한 전통장류 보급을 위해 우리 콩을 이용한 간장·된장 보급 사업으로, 5개도 13개마을에서 우리 콩을 이용한 장류를 생산하여 도시소비자 2,000가구에 공급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전통장류 식품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통 장류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였다.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실질적인 보급과 파급확산을 위한 제5차 생활 개선시범마을(1,380개) 육성 2차년도를 맞아 13,800호의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마을과 농가의 조화를 이룬 환경개선, 영양식품생산과 균형식 실천, 농작업환경개선, 합리적인 가게관리 등 각종 생활개선과제를 실천하도록 지도하였다.

전통문화의 발굴 전수와 농촌고유의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전승놀이 및 생활체육지도, 전통 음식, 전통 차, 생활용품 등의 내림습씨 보유자 발굴과 전수교육, 지역의 향토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향토유물관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농촌여성의 역할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추진하였는데, 생활개선임원 등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도단위 농촌여성 지도자반교육(1,400명)과 생활개선회원 등에 대한 시군단위 과제교육(21만 2,000명)을 통해 농촌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촌여성지도자로서 가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 개선회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확보('95 : 52천명→ '96 : 55천명)와 각종 교육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통해 과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수해지역 생활개선회에 현금 및 물자 지원, 자원봉사 등으로 후원활동을 하였다.

3. 농어업인 복지증진

가. 농어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은 질적·양적으로 도시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또한 가계비 지출중 교육비 부담도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어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모가 읍·면지역 및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어업인 자녀 중 실업계 고교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과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0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전원과 실업계고교 1,2학년생 등 188천명에 대하여 3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1년도에는 그 범위를 늘려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생 전원과 각종 학력인정 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여 225천명에 502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92년도에는 농어촌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학자금 지원혜택을 받는 중학교 신입생이 제외된 반면, 읍지역중 도서벽지 거주 농업인 등의 자녀로서 동일군 지역내 실업계 고교입학생과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183천명에 585억원의 학자금을 '93년도에는 전체 132천명에 453억원, '94년도에는 93천명에 411억원, '95년도에는 90천명에 433억원, '96년도에는 86천명에게 44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59>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90~'92	'93	'94	'95	'96
중 학 생	인 원	342	42	-		
	금 액	559	81	-		
실업계고등학생	인 원	254	90	93	90	86
	금 액	922	372	411	433	448
계	인 원	596	132	93	90	86
	금 액	1,481	453	411	433	448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로서 대학 및 전문대 등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금액을 졸업시까지 무이자로 용자함으로써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은 대학별 장학위원회 또는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추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장학회에서 심사·선발하여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95학년도 부터는 매년 2만명의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향후 10년간 총 2,000억원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2-2-60>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 소요액	'94	'95	'96	'97~2004
2,100	100	200	200	1,600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3) 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지원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기숙사를 각도에 1개소씩 건립 목표로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도시로 유학하여 공부하는 농어민 자녀의 하숙비 감면과 편의시설 제공으로 농어민의 교육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1차적으로 충남(유성), 경남(창원)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고 2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61>

농어촌출신학생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5	'96	'97	'98	'99	2000
사업량	9개	2	4	-	2	1	
사업비	360	40	60	60	80	60	60
국고	180	20	30	30	40	30	30
지방비	180	20	30	30	40	30	30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이외에도 농업계고등학교 재학생중 졸업후 영농에 정착할 우수한 학생에게 새마을 장학금과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96년도에는 2,384명에게 새마을 장학금 381백만원, 자영농과생 1,119명에게 급식비 67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나.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기회 확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농어촌학교 학생과 도시학교 학생과의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력격차는 결국 농어촌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농어업인은 그들의 자녀들이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며 하루라도 빨리 도시 소재학교로 유학보내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특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95년 6월 17일 교육법시행령과 대학학생정원령을 개정하여 '96학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농어촌학생에 대한 대학입학기회 확대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농어촌발전대책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으며, 대통령도 제3차 농정개혁추진회의('95. 2. 15)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농어촌고교생의 대학특례입학 문제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농어촌교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96학년도 대학입시 기본계획에 이 특별전형제도를 포함하여 발표('95. 3. 30)하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교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96 학년도부터 시행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 거주한 자로 하되, 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는 제외하였다.

둘째, 특별전형 대상자의 선발방법은 각 대학의 장이 교육적 기준이라는 적용준거에 따라 학생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선발방법에 대한 법적 쟁송이 있을때 적법성·타당성·형평성·공평성·합리성 등에 대하여 당해 대학이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입학정원은 대학학생 정원령에 의한 입학정원의외로 선발하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2%, 학과별 총학생수는 당해 학과 정원의 10% 내에서 선발하였다.

'9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특별전형의 모집단위(학과·전공·계열·학과군)와 모집구분(특차, 전·후기, 추가모집) 및 선발일정은 해당대학의 일반전형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특별전형 대상자의 복수지원과 이중지원 기준도 일반전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일대학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의 중복지원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96학년도에는 전국 315개 대학중 265개 대학이 실시하여 9,500여명의 농어촌학생에게 특례입학 기회를 부여하여 8,700여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62〉

'96 농어촌학생 특례입학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실시대학	미실시대학	모 집 정 원		합 격 생 수	
				비율(%)		비율(%)
계	265	50	9,562	1.77	8,750	91.5
일반대학	126	37	5,201	1.70	4,688	90.1
전문대학	139	13	4,361	1.86	4,062	93.1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다. 농어민연금제 실시

경제개발의 결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료기능이 개발됨에 따라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970년대에 총인구의 5.4%에서 1990년도에는 7.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0.3%, 2021년에는 18.5%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2-63〉

우리나라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70	'80	'90	2000	2021
총 인 구 (A)	31,435	37,407	43,390	46,489	50,586
60세이상 인구 (B)	1,704	2,268	3,320	4,809	9,358
60세이상비율(B/A)	5.4	6.1	7.7	10.3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인구 추계」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이농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도시보다 더욱 가속화되어 농어업인의 노후생계 보장측면에서 농어민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3년부터 보건복지부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94년 3월 14일~5월 4일까지 충남 홍성군내 3개읍면에 대한 1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4년 6월 농어민연금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94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94년 11월 21일~12월 27일까지 강원명주, 전남담양, 경북예천지역에 2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여 적용대상관리, 보험료 부과체계, 농어업인 등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을 '95년 1월과 4월에 개정 공포하여 농어민 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준비단계, 일제 신고단계, 전산화일 구축 등 단계별로 농어민연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96년도에는 2,207천명이 신고하여 2,085천명이 가입하였으며 이중 농어민 가입자는 1,175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2-2-64>

'96 농어민연금 가입신고 현황

(단위 : 천명)

신 고	가 입 자			
	계	농어민	비농어민	납부예외
2,207	2,085	1,175	507	403

자료 : 보건복지부

농어민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부과,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노령인구비율이 월등히 높은 농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해 '95년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미만의 고령 농어민에게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 한해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2,200원을 매월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분기납·선납·납부예외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표 2-2-65〉

농어민연금 지원계획(농특세)

(단위: 억원)

총 소요액	'94	'95	'96	'97~2004
8,000	10	455	598	6,937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현행의 의료보험제도는 '77년 5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88년에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8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형태, 소득과약률,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보험자(조합, 공단)를 구성하고 각 보험자별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합방식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수는 모두 373개(직장 145, 공·교 1, 농어촌 92, 도시 135)이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은 농어촌인구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보험재정이 취약하고 직장이나 도시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으며, 의료인력, 기관 등 의료자원이 적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방식을 도시에 비해 소득과표가 낮고,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액의 일정액('95년 8.3%에서 '96년에는 15.8%)을 차등지원하는 『국고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

의 특성을 감안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와 12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에 대하여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재정공동사업」을 실시하였다. 농어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40세 이상 농어민에 대한 건강 진단을 '95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95년에 210일에서 '96년에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농어촌 민간병원의 진료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4,785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2-66〉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총소요액	'94	'95	'96	'97~2004
계	4,785	96	905	819	2,965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1,415	96	505	419	395
민간병원지원	3,370	-	400	400	2,570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마. 농작업 재해공제에 대한 지원

작업중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있어 재해발생시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으나 농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닌 관계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작업중 상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였다.

또한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농기계 작업시 인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농협을 통한 농기계공제사업은 공제료의 부담이 커서 가입이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96년부터 농작업상해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로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자부담 50%)지원함으로써 공제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농작업상해공제는 연간 1만원 정도의 공제료를 납입하면 농작업으로 상해 또는 사망했을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공제료로 지원하게 되며 농기계종합공제는 경운기, 콤팩트, 트랙터 등 3종류의 농기계 운행시 사고가 났을 경우 일반자동차보험과 같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200만원 경운기의 경우 연간 9,67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면 농기계 피해나 운전자나 타인의 상해·사망에 대해 총 4,200만원 까지 보상하고 있다.

'96년도 실적을 보면 농작업상해공제의 경우 540천건, 농기계종합공제의 경우 35천건이 가입되어 5,739백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었으며, 농민이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공제금은 9,745백만원으로 농민들이 납부한 공제료 5,739백만원보다 4,006백만원이 더 많았다.

'97년도 추진계획은 농작업상해공제 665천건, 농기계종합공제 60천건, 합계 725천건이며 공제료는 '96년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67>

공제보장 한도('97년 예시)

구 분	계 약 기 준	연 간 공제료	보 장 한 도
농작업상해공제	1인, 1년, 2,000만원	12,700원	사 망 시 : 1,000만원 1급장해시 : 3,000만원 입원 및 통원치료 : 100만원
농기계종합공제	1년, 경운기(200만원)	9,670원	농기계 잔존가액 : 200만원 타인사망한도 : 3,000만원 자 기 손 해 : 1,000만원 계 : 4,200만원

제 3 편 1997 년도 농정시책

제 1 장 1997년도 농업정책 방향

제 1 절 1997년도 농정목표

최근 우리 농정은 WTO라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농특세 신설 등 농촌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다.

그결과 농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영개선이 촉진되어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났으며 농업인들도 수입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한 환경과 농정여건은 국내외적으로 더욱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인 여건을 먼저 살펴보면 '97년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농정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감과 동시에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경영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환경보전형 농업 육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와 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정운영방식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상향식 자율농정체제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증가는 여가와 문화생활, 보건위생 및 안전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식량공급기능을 주로 담당했던 농업의 역할도 생명산업, 환경산업, 관광산업 등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농촌은 산업발전과 환경보존,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산업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농업환경과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97년

에는 21세기 선진농업의 기틀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다음과 같이 농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적절한 식량자급률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곡인 쌀만은 자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명의 원천인 식량과 식품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국가기틀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할 것이다. 또 규모화, 기계화,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첨단기술을 개발, 품질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셋째,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단위 수출농업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농산물 최대수입국인 일본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개방에서 잃은 것을 수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수출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2 절 1997년도 농정방향

1.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춰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전업농 등 농업전문경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 개별 경영주체들로 하여금 경영혁신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도입,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선도경영체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농업경영교육을 강화하여 경영애로 해소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인경영체에 대한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법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기술지도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2. 주요 농산물의 자급기반확충 및 시설현대화

가. 쌀 자급기반의 지속적 확충

최근 불안한 세계 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쌀 생산량은 3,700~3,800만석이던 것이 최근 3,300만석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소비는 3,500만석 수준에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200~300만석 정도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쌀 자급도가 떨어지게 된 것은 재배면적이 '90년이후 연평균 33천ha씩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생산 단수도 10a당 450kg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쌀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한 벼 재배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척지,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에 대한 벼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산·남천벼와 같은 초다수성 벼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RPC를 중심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처리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한편, 2004년까지 쌀 전업농 60천호를 목표로 '97년에 11천호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쌀 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사전예시와 함께 가격을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를 실시하여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65세 이상 은퇴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보조를 통해 규모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정부에서는 금년초 소 수매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단기적인 소값안정 대책이외에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한 장기적인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한우경쟁력제고대책의 추진과정을 재점검하고, 공청회, 간담회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97년 7월 14일 21세기 선진축산업발전을 위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정부는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 소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대책방안과 고급육생산 및 한우고기 유통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기 완비

일반경지정리는 '97년에 27천ha를 추진하여, 진흥지역 논 735천ha를 '98년까지 정비완료하도록 하되, 2004년까지 집단화된 평야지 20만ha를 대구획으로 재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밭작물도 기계화와 시설재배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97년에도 경작로, 용수개발, 배수로 등 8천ha의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용수개발을 완료하도록 '97년에 47천ha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5대강 수계연결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 농업기계화와 시설현대화 촉진

농업의 기계화를 위해 앞으로는 중·대형 중심의 농기계 보급에 중점을 두고 공동이용조직 등에 의한 대형 일관기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대형 농기계의 적정대수를 확보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Recall제 등 사후봉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밭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고랑 크기, 식재거리 등 재배 양식을 표준화하도록 하고, 승용관리기 개발·보급 등을 통해 파종, 이식, 수확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한편, 시설현대화사업은 채소·화훼, 과수, 축산 등 품목별 특성에 맞춰 내실을 기해나갈 것이다. 채소, 화훼는 시설보다는 재배·경영기술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 역점을 두고 표준설계도의 추가 개발·보급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도 경감시켜 나갈 것이다.

과수는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점 지원하여 생산 및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선과장, 저장시설 등 공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축산은 시설현대화와 조사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농가를 규모화하고, 축산단지의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3. 실용기술 개발과 농업정보화의 촉진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연구성과를 조기 실용화하고 품목별로 품종육성·가공·유통까지의 일관기술연구체제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도농가 등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신설하고 연구실명제를 도입, 우수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메론 등 수출전략품목의 신품종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오던 벼, 보리 등 식량작물 종자생산은 민간에 개방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경쟁체제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산물의 생산·출하조절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97년중 시설 채소 생산·유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매정보를 전국 14개 도매시장에 전파하여 전자상거래제 등에 의한 시장별 분산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유통 역류현상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4.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수급안정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먼저 농협 등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체계를 혁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별·출하·계산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범농협을 선정, 집중 육성하고 우수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지에서의 규격품대량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물류센타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상장경매제를 더욱 확립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 포장·시설·장비 등을 표준화하고 하역의 기계화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수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조직에 의한 생산·출하조정 등 자율적인 수급안정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전국적인 생산자조직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5.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환경농업 육성

생산단계부터 잔류농약 지도 등 대농민 지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도축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품질인증제도를 사후 확인점검체제로 개선하도록 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제를 내실화 하는 한편, '97 하반기부터는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축산물은 전면 개방을 앞두고 「부위별·등급별·품종별」 구분 표시 판매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물 상품 차별화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농업생산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뤄 나가는 데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기농법 등 중소농의 특성을 살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유기·자연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개발·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6. 수출농업의 육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WTO 출범으로 넓어진 해외시장을 활용한 수출농업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96년에 18억불의 농림산물을 수출한데 이어 '97년에는 21억불의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가능품목을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하는 등 각종 수출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항구적인 수출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출촉진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 조성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규격품 생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이 '97년부터 '99년에 걸쳐 전국에 2개소의 대규모 「첨단시설 원예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품종선택에서 재배·생산, 선별·포장·가공시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유망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가고,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농업무역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깝고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점유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공세적인 수출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7. 농촌 활력증대와 복지증진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 도로, 상수도 등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농공단지 육성, 농촌 휴양자원개발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교육, 의료, 연금 등 농업인 복지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면의 중심지역에 대한 현대식 문화마을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촌학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등 교육여건을 한층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등 농촌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농촌을 산업발전과 환경보존, 휴식공간 제공 등 21세기 선진농업국에 걸맞는 1·2·3차 복합산업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

제 3 절 1997년도 농림부문 예산

1. 농림부문의 예산지원

'97년도 농림부문 예산은 7조 9,798억원(일반회계+재특회계+농특회계 기준)으로 국가 전체예산 74조 481억원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1>

농림부문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7		'96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A-B)	%
국가전체 예산순계	740,481	100.0	666,875	100.0	73,606	11.0
국가전체 일반회계	675,786	91.3	588,228	88.2	87,558	14.9
농림부문 예산 ¹⁾	79,798	10.8	79,059	11.9	739	0.9
- 농 립 부	73,107	9.9	73,245	11.0	△138	△0.2
- 농 진 청	3,252	0.4	2,932	0.4	320	10.9
- 산 립 청	3,439	0.5	2,882	0.4	557	19.3

주 : 1) 농림부문 예산은 일반회계, 농특회계, 재특회계를 합제한 금액으로 회계간 진출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임.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97년도 농림부문 예산의 특징은 42조원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특세사업의 투융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대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에서 나타난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투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표 3-1-2>

농림부 소관 '97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97예산(A)	'96예산(B)	증△감	
				%
1. 투융자사업	5,246,286	4,547,282	699,004	15.4
○ 생산기반조성	2,477,487	1,934,656	542,831	28.1
○ 농업기계화	446,338	447,603	△1,265	△0.3
○ 생산 및 유통개선	1,159,338	1,034,029	125,309	12.1
○ 기술개발 및 정보화	81,602	76,033	5,569	7.3
○ 인력육성	472,511	428,051	44,460	10.4
○ 농촌소득원개발 및 농자금지원	453,950	478,060	△24,110	△5.0
○ 생활환경개선	155,060	148,850	6,210	4.2
2. 기타(경상)수입	19,663	40,544	△20,881	△51.5
순 사업비	5,265,949	4,587,826	678,123	14.8
3.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743,735	577,474	166,261	28.8
4. 채무상환 등	784,770	1,047,729	△262,959	△125.1
5. 적자보전	284,100	200,000	84,100	42.1
6. 양곡지원	94,481	783,800	△689,319	△87.9
○ 수매지원	-	448,100	△448,100	△100.0
○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원	94,481	335,700	△241,219	△71.9
사업비 계	7,173,035	7,196,829	△23,794	△0.3
7. 기본전경비	137,710	127,726	9,984	7.8
합 계	7,310,745	7,324,555	△13,810	△0.2
양곡관리특별회계	1,771,341	1,592,675	178,666	11.2

자료 : 농림부 기획관리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받기반정비,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대단위농업개발 등 생산기반 및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조 4,775억원, 농업기계화사업 4,463억원, 생산 및 유통개선 1조 1,593억원, 기술개발 및 정보화 816억원, 정예인력육성

4,725억원, 농촌소득원개발 및 농가자금지원 4,540억원, 생활환경개선 1,551억원, 양곡지원 및 비료계정 적자보전 지원에 3,786억원, 기타 농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채무상환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2. 예산편성에 반영된 제도개선

'97년도 농림부문 예산 편성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국고보조율은 높이되, 농업인 지원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용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국고 보조율을 현행 12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인후계자 등의 예산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토지구입 등 사업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소액보조사업을 통폐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림사업 평가를 정례화하였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실적가산금 예산을 계상 지원하는 등 농림사업의 투용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개선하였다.

제 2 장 일류국가를 향한 농림업 부문의 도약

제 1 절 농림업 전문경영체의 육성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농업종사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와 부녀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난 1981년부터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1996년까지 총 8만 8,643명의 농업인후계자를 선정, 총 1조 13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은 1989년 이후부터 사업규모가 매년 축소되어 왔으나,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후계인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92년부터는 후계자 선발인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표 3-2-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94까지	'95	'96	'97계획
농업인후계자	70,686	9,730	8,227	8,526
전업농	3,040	13,132	14,615	11,200

주 : 축산전업농육성사업은 '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추진('95~'96 : 5,400명)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또한, '92년부터 추진해 온 전업농 육성사업은 '96년까지 총 30,787명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도 11,200명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규모 확대, 시설·장비 현대화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큼 발전한 농가와 법인 70개소를 '97년도 선도농업경영체로 선정, 그 사업장을 모델농장으로 조성하여 농과계 학생과 후계자 등에 대해

여 현장실기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후계자·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경영규모·기술·경영관리 능력면에서 현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2.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 산업 기능을 포괄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고, 경영체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과 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체제 미비 등으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자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실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규모,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정책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경영체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실적 보고,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의 등기 실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인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경영체에 대한 후속자금으로 '96년도에 5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도에 2,000억원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조성,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3. 농림수산계 교육 활성화

가.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농림어업 이외 타산업분야의 상대적 비중이 커짐으로써 농림어업 기초 인력 양성 기관인 농수산고등학교, 농수산계 전문대학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실험실습시설의 절대부족 및 노후 등으로 학교교육이 위축되고 있으며, 농림수산계 대학의 경우도 대학신설 붐으로 학교 및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모든 대학이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별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농림어업 기술인력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현장감각을 갖춘 전문 자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계 고등학교 중 12개교를 자영자양성고등학교로 선정하여 농림어업 기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95년부터 4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를 신설하여 국가 책임하에 기술 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역특성에 맞게 16개교의 농림수산계 대학을 특성화하여 농림어업 관련 첨단과학기술 및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과 지역농림발전을 위한 중심체로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7년도에 12개 자영농수고에 138억원, 2개 축산고에 40억원, 1개 농업전문대학에 4억원, 8개 특성화 대학에 80억원 등 총 262억원을 투입하여 첨단 실험실습시설·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 농림어업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

'97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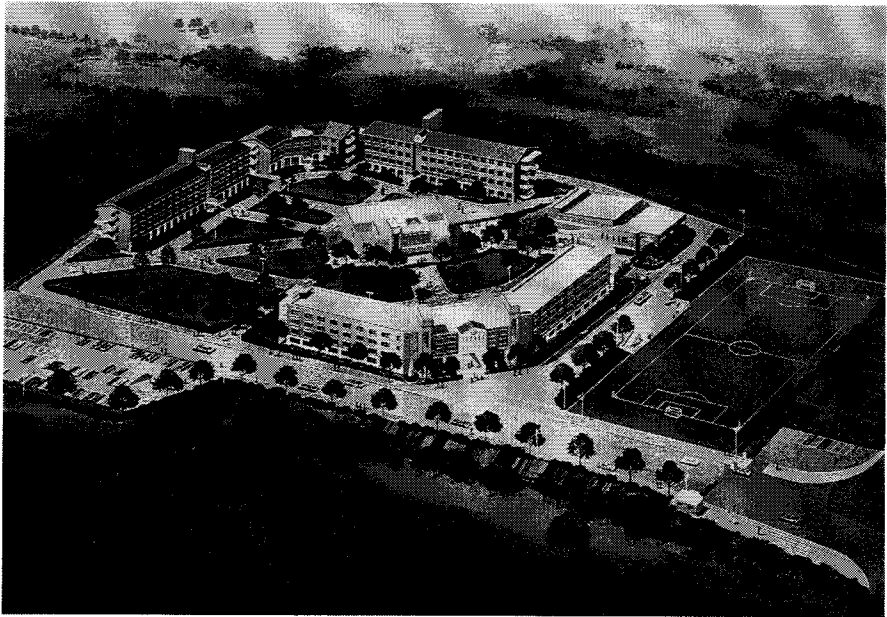
(단위 : 개교, 억원)

구 분	자영자 양성고등학교			특성화대학		
	계	농고	수고	계	농대	수대
지원대상학교	12	9	3	8	7	1
지 원 액	138	108	30	80	70	10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나.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실질적인 전문영농인력 양성교육을 위하여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바와 같이 농림부 산하의 전문학교 설립 운영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95년 7월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14742호)을 제정 공포하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토록 하여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과 등 6개과에 학과당 40명, 총 240명을 선발하여 '97년 3월 20일 개교하였다.



〈 농업전문학교 전경 〉

수업 연한은 3년이며 입학자격은 고졸이상의 자로서 출신학교의 장, 시·군·구의 자치단체장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영농의지와 승계받은 영농기반등 농촌정착가능성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입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기숙사비 및 교육교재 등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졸업생에게는 전문대학 졸업학력이 부여된다. 또한 이들은 농업인후계자로 우선 선발될 뿐 아니라 병역특례, 영농정착자금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중심의 지식,

기술, 경영능력 및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고 농업 및 농촌발전으로 선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3〉

한국농업전문학교 지원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95	'96	'97
지 원 액	127	99	23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4. 농업 경영기술의 개발·보급

전문경영체 육성지원을 위한 경영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양계단지의 계열화 경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수도작과 시설채소, 배 전업농을 개발하여 개방화에 대응한 품목별 경영모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단위의 수출활성화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시설채소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한우농가의 가격예측모형, 느타리버섯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양념채소류 출하시기에 관한 연구와 채소류 가격변동에 대응한 출하방안을 모색하여 지도소의 경영상담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환경보전형 벼재배기술의 경영경제적 연구와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화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며, 매년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익성을 조사분석하여 농가의 경영진단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

아울러 농업과학기술 개발보급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농업정보응용시스템개발을 목적으로 작목 입지선정모형, 농업생산환경 국토 정보관리시스템, 신품종 육성체계 정보화, 농산물 유통 및 가격동향 분석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정보 DB구축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농업기술 종합 정보 시스템 보완과 인터넷 웹서비스 DB와 원격

영농기술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생산가공 자동화 정보기술 개발을 위해 온실 환경제어관리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5. 축산종합 컨설팅사업 실시

WTO체제 출범이후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영세한 우리나라 축산업이 국제경쟁속에서 싸워야 하는 국제여건과 국내 축산업의 열악해지는 양축환경에서, 양축농가가 최대한의 경영성과를 올려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진단과 기능별 처방을 실시함으로써

① 개별농가의 경영소득 극대화, ②양축자금 지원효과 제고, ③축산현장과 밀착된 기술지도로 축협사업의 활성화 및 축산농가에 필요한 축협 조직상 구현을 위하여 '97년 7월부터 축산컨설팅부를 구성하여 업무에 착수했다

컨설팅 대상농가는 우선 축협사업과 연계된 농가, 지역별 축종별 파급효과가 큰 농가로부터 시작하여, 정책자금 지원농가, 전체 축협조합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컨설팅사업의 내용은 축종별(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사양 및 경영관리, 방역위생, 축사시설, 환경부문을 포함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도지회 컨설팅과, 회원조합 종합서비스센터와 및 중앙회 관련부서 및 지사무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축종별 규모별 표준경영지표를 설정하고, 대상농가 평가를 통한 경영개선사항 제시, 실천사항 확인 및 지도 등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축종별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영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 2 절 주요농산물의 자급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1. 쌀 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가. 배경

'90년대초까지만 해도 쌀 생산량은 37~38백만섬을 유지하여 연말 재고는 1천여 만석을 상회하였으나,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기상재해와 재배면적의 감소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안정된 재고수준의 확보는 물론 자급기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추곡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의 한계와 최근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추진 중인 구조개선의 가속화와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제곡물사정도 재고가 크게 줄어들고('95년 : 321백만톤 → '96년 : 251)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불안한 세계식량사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주식인 쌀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갖고 쌀의 생산·소득·유통기반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96년 6월 14일에 수립·발표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나. 시책내용

(1) 벼 재배면적의 확보

2004년까지 논면적 1,100천ha(벼 재배면적 920천ha 유지)를 확보하여 쌀 생산량 3,070만석(단수 480kg)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지 이용계획 수립, 무분별한 농지전용 억제, 진흥지역 논에 대한 농업경영 자금 특별지원 확대(연간 5,000억원)추진과 주택·공장용지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하되 환경친화적 산지개발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2004년까지 전문경영체(5~20ha) 6만호, 법인경영체(50~100ha) 2,000개소를 육성하여 기계화 전문경영체가 쌀 생산의 65%, 유통의 80% 수준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진흥지역내 논(74만ha)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으로 대형 기계화 일관체계를 건조작업까지 완료시켜 나감으로써 산업으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3) 쌀 유통혁신과 수매제도 개선

현재 정부수매 위주의 산지유통을 민간시장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하여 RPC등 능력있는 민간유통기구의 지원육성과 아울러 정부수매제도도 수매가 사전예시와 영농기 선금지급을 골자로 하는 약정수매제도로 개편하여 '97년부터 시행하였다. 약정수매제도는 파종기에 농가와 수매약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선금을 지급하고 수확기에 가서 농가의 자유의사로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출하하도록 하여 안정적 계획영농, 소득증대, 민간유통 활성화와 자율영농·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WTO체제 출범에 따라 쌀에 대한 가격지지 등 국내보조금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여 WTO체제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를 '96년도에 연구검토한 후, 우선 도입이 가능한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농림부가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모화촉진직접지불사업은 쌀농사를 지어온 고령농업인의 은퇴에 따른 소득을 보조하고, 이들이 내어놓은 농지를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와 연계하여 매매 또는 임대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을 추진되고 있으며, '97년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사업은 3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매·임대차(1ha 258만원 지급)를 합쳐 12,000ha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영농조건불리지역과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여부

를 검토하기 위해 현재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지불 제도는 우리의 경제여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 될 것이다.

2.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

금년초부터 경기부진에 따라 쇠고기 소비가 침체되면서 산지소값이 큰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소값회복을 위해 수입쇠 고기의 방출물량을 줄이면서 '97년 1월 25일부터 500kg이 넘는 큰수 소에 대한 수매를 시작하여 9월현재 8만두를 수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초 소 수매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단기적인 소값안정 대책이외에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응한 장기적인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의 한우경쟁력제고대책의 추진과정을 재점검하고, 공청회, 간담회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97년 7월 14일 21세기 선진축산업발전을 위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우산업의 발전과정과 각계의 토론내용을 정리하여 한우 산업백서를 발간하였다.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정부는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 소값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대책방 안과 고급육생산 및 한우고기 유통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

우선, 2001년 쇠고기가 수입개방된 경우를 상정하여 외국산 쇠고기 가격, 환율, 유통마진을 계산하고 한우고기와의 품질격차를 고려한 결과, 500kg 큰수소를 기준으로 할 때 1등급은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선이 된다면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쟁가능 예상가격을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의 경영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며, '97년기준 현재 1등급 270만원, 2등급 240만원인 소값을 연차적으로 안정시켜 2001년 개방시 까지 경쟁가능한 소값수준으로 맞춰나가 수입개방에 큰 충격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

쇠고기 수입개방을 전후하여 급격한 소값하락으로 국내번식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안정기준가격과 거래시세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키로 하였다.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시되면 사육농가, 축산관련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정기준가격 심의위원회가 사육농가와 비육농가의 생산비를 고려하여 안정기준가격을 산출함으로써 번식농가에게는 생산비를 제외하고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비육농가는 비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고도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게 된다.

정부는 이제도의 도입실시를 위해 '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총 4,4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지방자치단체와 참여농가에서 각각 10%씩 부담토록 하였다.

또한, 풍부한 초지자원을 가진 제주도를 우량송아지 생산기지로 개발해 나가기로 하고, 제주교잡우 2만4천두를 2004년까지 한우로 대체 입식키로 하였다.

나. 한우전업농 1만호 육성

수입개방시대에 한우산업을 전담할 전업농 1만호를 금년 하반기중에 선정하여 한우산업의 정예인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업농 선정자에 대하여는 사육규모, 사육형태, 조사료 확보등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축협중앙회에 컨설팅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축협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전업농가별로 지도·육성 체계를 수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우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책자금등은 앞으로 전업대상농가에게 집중 지원하게 된다.

다. 한우개량

수입개방시대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은 품질고급화이다.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산하의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여 한우고급육화 연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우연구소에서 개발되는 고급육 사양기술을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한우사육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9개소 도종축장을 수정란 생산 및 공급센터로 육성하여 농가의 우량송아지 생산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번식농가에 대한 자가인공수정기술 교육 실시로 송아지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사료공급기반 확대

생산비 절감과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국내 조사료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조사료 기반확대를 위해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을 알선하며, 조사료 기계화 단지를 육성하고 국내산 조사료 옥수수 종자도 생산하여 보급토록 했다.

쌀생산의 부산물인 벃짚을 한우사육에 활용하기 위해 공동작업단(3~5호) 단위로 벃짚수거장비를 보급하고, 벃짚 암모니아 처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축의 능력별, 성장단계별, 사육형태별로 농가에서 적정 영양소를 직접 배합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업농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자가배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배합비율 등 배합에 필요한 기술을 농가에 직접 지도 보급토록 할 계획이다.

농가의 사료 자가배합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사료공급기지를 설치하여 저율의 할당관세로 수입되는 알곡의 효율적인 원료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조사료 자원개발을 위한 생산투자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마. 한우고기 유통구조의 개선

한우고기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측면에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대적인 유통체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를 새로 건립하여 우리 한우고기의 유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축산물종합처리장(LPC : Livestock Processing Center)을 생산·유통의 계열주체로 형성시켜 전방으로는 원료공급을 위한 고급육 생산농가와 연계시키고, 후방으로는 도축된 한우고기를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체인가맹점에 공급하도록 하여 향후 한우고기의 40%가 이러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계열화과정을 통해 근대적으로 유통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5단계인 한우유통구조는 3단계로 축소되어 생산농가는 높은가격을 수취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살 수 있게 된다.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군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 브랜드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가 있는 고급브랜드육을 생산할 때 생산농가의 고소득 보장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59개인 브랜드 참여업체를 2001년까지 100개소로 늘리고, 국립동물검역소의 한우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고품질의 상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9년까지 한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우전문판매점 700개소를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육과는 구별된 한우고기를 살 수 있는 한우전문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는 전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소매단계에서도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여 1등급 한우고기의 생산, 소비를 장려하고, 부분육 유통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과 공판장에 부분육 상장, 경매기능을 보장하며, 소매단계에서의 부위별 구분판매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육처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지속 실시하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늘려나가며,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하여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을 식육유통업계의 핵심인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육점 시설의 규모화로 냉장육 판매 및 등급별·부위별·축종별 구분판매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정육점의 신규개설 시설면적 기준을 10평이상으로 정하고, 정육점 신규개설을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허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01년 수입 개방시에도 250~260만두의 한우사육두수 유지와 쇠고기 자급률 40%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생산기반 확충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와 이에 부설된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영농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영농의 편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환지를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마을주민들간 공동영농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업농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대규모로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등 농촌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기초 사업이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이 사업비가 저렴한 평야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진척됨으로써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야 할 대상 지역은 이미 완료한 지역보다는 급경사 지역, 산간지역 등 대부분이 산간농촌지역으로 사업여건이 열악하여 소요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지원하고 있는 예산단가보다 높아 지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식량자급에 필요한 적정면적의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위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지원기준 개선은 물론, 자체적인 사업비 절감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97년중에 경지정리 대상지를 보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등 대상지를 보완·조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쌀 생산비를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투자가 필요하며, '97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5,290억원과 지방비 1,281억원 등 6,571억원을 투자하여 '96년 가을에 착수한 27천ha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가을에 28천ha를 착수할 계획이다.

<표 3-2-4>

일반경지정리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총계획	'96까지	'97	'98이후
사 업 량	1,206	902	713	27	162
- 진 흥 지 역	744	735	651	27	57
- 진 흥 지 역 밖	462	167	62	-	105
사업비(억원)		93,866	40,523	6,571	46,772

주 : 면적은 마무리 기준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70년대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평야부의 우량농지이나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수로와 배수호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아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필지 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 정비 및 구조물로 현대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통행과 농산물의 운반에 편리한 규모로 확장·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2-5>

연차별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96까지	'97계획	'98~2004
사 업 량	200	25	16	159
사 업 비	43,000	6,874	3,760	32,366

주 : 봄마무리 기준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개발목표 200천ha를 2004년까지 시행하기 위하여 1996년까지 25천ha를 마무리하였고, 1997년에는 지난해 가을에 착수한 16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새로이 16천ha를 착수하는 등 쌀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밭 기반정비사업

우리나라의 전체 밭 면적 769천ha 중 농업진흥지역의 품목별 주산단지(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단지 등)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고, 농업인의 사업희망도가 높은 지역, 집단화가 용이한 지역, 지형, 경사, 토양, 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밭 110천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94년부터 '96년까지 2,332억원(국고 1,683, 지방비 649)을 투자하여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단지 13.5천ha에 진입도로, 경작로, 관정,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밭작물의 생산기반을 정비하였으며,

'97년에는 예산단가를 10% 인상(당초 22 → 24백만원/ha)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비도 '96년보다 63% 증액된 1,973억원(국고 1,586, 지방비 387)을 투자하여 8천ha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단가를 현실화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밭농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표 3-2-6>

연차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96까지실적	'97계획	'98이후
사 업 량	110	13.5	8	88.5
사 업 비	25,794	2,332	1,973	21,489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보급으로 첨단화, 대형화 되어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로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의 논 735천ha와 이미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내의 논 62천ha 등 797천ha내의 주요농로 22,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95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96까지 1.5천km를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 용이, 생활환경 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97년에는 '96년보다 km당 단가를 5% 인상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비는 '96년보다 62% 증액한 2,02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표 3-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천km, 억원)

구 분	총계획	'96까지	'97	'98이후
사 업 량	22	1.5	2	18.5
사 업 비	28,650	1,449	2,028	25,173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심의관실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 최근의 지속적인 풍년농사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수리답률은 87%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98년까지 46천ha를 더 개발하여 진흥지역내 수리답률을 93%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몽리면적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몽리면적 3,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남 하사, 경북 성주, 전북 동화 3개 지구 10,752ha가 추진중이며, 몽리면적 50~3,000ha 지역을 개발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28개 지구 36,76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25개 지구 5,717ha는 '97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몽리면적

50ha미만인 소규모 지표수개발은 45개 지구 1,521ha를 시행하여 금년에 32개 지구 1,032ha에 대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생산량 증가로 소득증대 등의 효과가 큰 만큼 앞으로 '97년 이후 확대하여 2010년까지 207천ha에 대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수령논 또는 저습답 개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배수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상습침수 해소,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며, '97년에는 시행중에 있는 새만금지구 등 7개 지구에 국고 2,491억원과 농지관리기금 670억원 등 총 3,161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율 31%에서 39%까지 높일 계획이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수리시설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10,573개소의 수리시설 중 '61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34%인 3,567개소이고, 용수로의 경우는 31천km 중 65%인 20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용수로의 콘크리트화 등 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80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392개소 등 전국 1,472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1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35년 이상 노후시설이 67%인 990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 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 붕괴 및 해수 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97년에는 2,221억원을 투입하여 186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4. 농업 기계화

수도작의 규모화와 일관작업을 위한 대형 기계화를 추진하고, 채소, 과수, 축산 등 밭작물의 기계화와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작업의 생력화와 저비용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급·이용 및 사후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할 계획이다.

소형 농기계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형 농기계는 이용조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기계 보조지원에서 탈락된 농가 및 농기계이용조직 등에 대해서는 융자로 지원하는 등 농기계 보조지원(반값공급)원칙을 지키면서 일반용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50ha이상)의 조성을 내실화하여 대형 기계화 촉진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소규모 10ha이상, 대규모 30ha이상). 아울러 대형 농기계에 의한 일관기계화로 규모화된 농장을 가족노동력으로 경영토록 쌀전업농에 대해서도 농기계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계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수리용 부품 확보 및 수리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수리기사 병역특례 확대 등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의 수리인력 기준을 보장하며, 농업기계 사후봉사기능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 설치를 확대 지원하여 농기계의 고장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5.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가. 원예 및 특용작물

'97년에는 채소,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정비, 생력 농기계 공급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총 389개소에 454,51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 인삼류

한국인삼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이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수요확대가 유망한 품목이며, 가공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인삼 생산·유통지원 사업에 182,588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출증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표 3-2-8〉

'97 원예·특작, 생산·유통 및 인삼류 지원사업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지 원 계 획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원예·특작 생산·유통	389	454,514	91,578	91,128	180,906	90,902
○ 채 소	79	127,485	26,172	25,722	50,094	25,497
- 시설채소	40	80,520	16,104	16,104	32,208	16,104
- 양념채소	10	32,680	6,536	6,536	13,072	6,536
- 고랭지채소	29	14,285	3,532	3,082	4,814	2,857
○ 과 수	150	222,450	44,490	44,490	88,980	44,490
○ 화 훼	15	34,758	6,952	6,952	13,903	6,951
○ 특 작	145	69,821	13,964	13,964	27,929	13,964
인삼산업육성	2,470ha (52개소)	182,588	3,278	2,438	29,595	147,277
○ 인삼생산	2,470ha (50개소)	178,388	1,598	1,598	28,755	146,437
○ 종합처리장	(2개소)	4,200	1,680	840	840	840

자료 : 농림부 원예특작국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97년도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2천여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며,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송아지 입식 과일 진정과 산지 소값 안정을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지원하고 있으며, '96년 축산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한우·젖소·돼지·육계는 호당 3억원씩 지원한도를 늘리고, 산란계는 5억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한우·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료 생산관련 부문을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여 대폭 확대 지원하고 있다.

〈표 3-2-9〉

'97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지원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한우	900	56,300	-	-	39,412	16,888
젖소	300	28,571	-	-	20,000	8,571
돼지	500	238,600	-	-	167,000	71,600
닭	300	109,289	-	-	76,500	32,789

자료 : 농림부 축산국

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육·냉동육 유통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94년도에 3개소, '95년도에 2개소를 건설 추진중에 있고 '97년도에는 7개소를 선정 중에 있으며, 2000년까지 12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97년에는 1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질에 따른 공정한 등급판정으로 고급육 생산 및 차등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6년 7월 1일부터는 등급판정 시행 도축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매단계 유통개선을 위하여 도축·도매단계의 등급제를 소매단계까지 연계 추진하여 소매단계에서 식육의 등급별·부위별 구분 진열 판매를 제도화하고 한우고기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한우전문판매점 설치(105개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육유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육처리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 3 절 농업기술 개발과 정보화 촉진

1. 농업기술 개발

가. 개 황

우리나라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정연구사업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의 시험연구사업을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특세를 재원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사업은 첨단기술개발사업과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산·학·관·연 협동으로 6대 핵심기술분야를 개발하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정부 정책상 긴요한 기술을 일관연구 개발하는 기획연구과제로 구분된다. 또한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현장의 애로기술분야를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하는 현장애로과제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촌지도기관과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시험연구사업은 경상연구사업과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연구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는 기본연구와 작황시험 및 위탁시험연구로 구분된다. 또한 공동연구사업은 신기술 및 농자재를 개발하는 대형공동연구와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국제공동연구, 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이 지역적응성 검정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이와같이 농업기술개발은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그 연구성과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골고루 환원되는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술개발사업은 21세기 선진농업국 진입과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확보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우리농업의 자생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농업을 기술·자본집약형 종합생물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97년도에 농특세 재원으로 5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첨단기술개발사업과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97년도에는 첨단농업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도모하고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중점애로기술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품목별 일관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기술개발에 선도농가(단체) 등이 직접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개발과제의 선정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D/B 구축과 기술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분야별 기술개발

(1) 지속적인 쌀 증산기술 개발 보급

지속적으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취반용 쌀은 2004년까지 밥맛은 일품벼 수준, 숙색은 화성벼 수준, 쌀 수량은 550kg/10a에 목표를 두고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초다수성 벼의 경우는 쌀수량 목표를 1,000kg/10a에, 특수용도 쌀 품종과 유색미의 경우는 500kg/10a를 목표로 키가 작고 도복에 강하며, 저온발아성의 직파적용 양질다수성 품종과 도열병 저항성 다계품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농가조기 보급이 필요한 우수품종에 대해서는 신품종을 조기육성 보급하고 종자생산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벼 생력 및 수량안정화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대별 품종별 질소소비량 및 재식밀도를 구명하여 단위면적당 벼알수 확보기술 개발과 시비량, 재식밀도, 도복방지 등의 종합기술을 개발 투입하고 물질생산, 양분이용능력 등을 구명하는 등 다수확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광합성, 양분이동 등을 구명하여 냉해 생리생태 등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레이저균평기를 이용한 정밀균평작업과 눈그누기를 통한 담수

직파의 입모을 향상 및 직파/이양 유훈체계와 방제약제 등을 통하여 건담직파의 잡초방제체계를 확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향상

품목별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현장 적용 핵심기술 개발과 채소, 화훼, 과수류의 싯품종을 농가에 조기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품목별 현장연구 및 기술개발 보급체계를 강화하고, 농가 및 주산단지외 기술상 문제점들을 발굴 선정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작물의 품종 육성에서는 맥류의 용도별 다수성 품종 ‘밀양 81호’와 ‘익산 46호’를 육성하고 콩은 용도별로 나물콩 ‘수원 182호’와 밥밀콩 186호, 참깨는 내탈립성, 콤바인 적응형 품종 ‘수원 151호’ 등을 중점 육성해 나가며, 생력 저생산비 영농실현을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에서는 맥주보리 대단위 재배 종합기술투입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고, 벼 수확 동시 맥류 파종기술에서는 입모을 향상과 월동률 제고기술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과수 및 채소, 화훼의 품종 육성에 있어서 사과외 경우 색이 좋은 고향기성 7계통과 외국 기호성 중소과형 배 4계통, 일시수확형 고추, 완숙형 토마토 등과 생명공학기법 이용 내병성, 고탕도 과수와 나리, 선인장, 국화 등의 국제기호성 화훼류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재배기술 개발면에서는 인공수분을 통한 과수의 정형과 생산율을 20%에서 75%로 향상시키고 대표생산, 저수고형 대목 이용으로 초밀식재배 생력화 과원모델을 개발하고 주요 과수의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20%의 수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 과채류 전용 양액 및 플러그 공정육묘기술 개발을 통한 고품질 채소 연장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시설구조 보완과 저온에서 잘 자라는 품종 및 대목 선발을 통한 시설하우스 난방에너지 절감기술, 근권온도조절을 통한 비모란 점목선인장의 고향색유지 환경조절기술, 그리고 묘 저온처리에 의한 개화조절로 꽃의 연중생산기술 등에 연구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에 있어서는 소의 수정란 이식기술을 이용하여 수정란 생산효율을 5~6개/회에서 6~8개/회로, 수태율을 35%에서 40%로 향상시킬 것이며, 돼지사육에서는 조기이유, 생균 혼합급여, 비육 후기 항생제 무첨가 사료급여 등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에 힘쓰고 비육돈의 후기사료 제한급여 기술 적용으로 등심량이 적고 저지방인 수출규격돈 생산기술을 확립할 것이다. 또한 닭의 경우는 생명공학기법 이용 형질 전환 가금을 생산하고 점등조절로 초기 생장 억제, 후기 생장 촉진으로 수출용 육계의 급사증후군 발생 감소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3)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환경농업기술

쾌적한 농촌환경보전과 지속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환경 유지 및 폐자원을 농업생산에 적극 활용하는 기반기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먼저 밭토양의 지속적인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 '99년까지 전국 밭 토양 중 경사가 15% 이하인 583천ha에 대한 세부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97년에는 117천ha를 실시하고 동시에 경사지에 대한 토양유실 방지대책 및 농경지 토양정보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을 위해 휴폐광산 인근 농경지 25개소, 농업용수 70개소에 대해 농경지 농업환경 변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물상 변동, 논 메탄가스 경감기술, 권역별 환경농업 모형개발 등 농업생태계 환경보전기술 집중개발과 토양, 수질, 비료 및 농약 등 8개 지표에 대해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며, 지구환경보전 차원의 대응대책으로써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유용천적의 대량증식과 온난화가스의 자동측정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4) 우수농자재 및 품질관리기술

우리 농업여건에 적합하고 저에너지 투입 환경보존형 고효율 우수 농기자재의 개발과 이러한 농기자재를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생력저생산비 영농과 환경보존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약은 안전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저독 안전성 농약인 고추 역병 방제용 미생물 살균제에

대한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환경에 안전한 항균성 물질 합성 유도제 25종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료는 환경오염 경감에 역점을 두고 환경보전형 비료개발을 위하여 송진을 이용한 고추, 양파 등 전작용 완효성 비료개발과 피복소재, 점결제 등 완효성 비료제조용 신소재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농업기계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난립하여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은 농업시설자재 및 기계장치들을 표준화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역작업의 자동화와 기계사양에 맞는 채소류 재배양식의 표준화, 그리고 작물별 기계화 일관작업체계의 확립 등으로 생력 저생산비 영농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수 농자재의 보급 유통을 위하여 기준미달 비료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제조 및 검사시설의 실태를 민원발생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하고 부산물 비료 원료를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해 나가겠으며, 연간 비료 품질관리요원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계는 성능, 안전성, 내구성 및 조작성의 난이도 시험으로 실시되는 형식검사의 대상기종을 반전집초기, 사료배합기 등 신개발기종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5) 생명공학 및 주변 과학기술의 농업접목 실용화

농업분야에 첨단 기초과학기술을 조기 정착하고, 농가현장에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재해저항성 신품종 육성 및 유용기능성 유전자의 농업적 이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작물의 유전형질개량에 생명공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수량·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주변 첨단기술인 전자·전기·기계·신소재·로봇 등을 이용하여 저비용 생력재배 기술체계를 확립하며, 이와 더불어 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도 병행한 첨단기술의 복합적 이용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연구 추진내용으로는 실용화를 위한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의 수집, 특성평가 및 안전보존, 총해저항성 배추, 기능성 토마토 등 형질전환에 의한 새로운 작물개발과 바이러스 저항성, 항균성 등

형질전환에 의한 내병성 고추 품종 육성, 벼 유용유전자 대량 분리분석 및 분자유종기술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전자 조작기법을 이용한 진단법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닭 전염성 기관지염 등 3종에 대해 유전자 재조합 백신개발과 가축질병 신속진단법 개발, 돼지 전염성 위장염 등 3종의 간이항체검사법을 개발할 것이다. 또 농업기계는 근적외선, 초음파를 이용한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기술개발과 전자제어에 의한 자율주행 대단위 작업용 무인트랙터 개발, 토마토 수확로봇, 채소 자동접목로봇 등 주변 첨단기술을 농업기계 개발에 접목시켜 실용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축산물 안전성 향상 기술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수량 증대와 더불어 더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기술 개발 보급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농산물에서는 포식용애, 애꽃노린재, 진딧물 기생벌, 온실가루이좀벌 등 병해충 생물적 방제를 위한 유용천적 대량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채소 종류별 질산염 허용농도에 알맞는 시비기준 설정과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로 질산염 함량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해함량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또 농약의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중 잔류농약을 신속하게 정밀분석하는 방법과 잔류성 및 독성에 대한 농약안전성 평가기술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에서는 유해 미생물, 유해 약물 등 유해 잔류물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기술개발과 농약잔류물질 12종, 동물약품 잔류 29종에 대해 조사, 분석방법을 확립하여 사료 중 유해물질분석 및 원료사료의 안전성 확보기술을 개발하고, 돈육생산 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물 중 약물 잔류요인 제거기술 개발 및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또한, 원유 중 항균물질 잔류예방 위생관리 프로그램 10건을 개발하고 체세포수 증가원인을 조사하여 젖소 원유 중 약물 잔류방지 및 유방염 방제기술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7) 국제 농업기술 교류협력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국제농업기술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선진농업국의 연구기관,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의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제반건조열대농업연구소」와 「식물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상주연구관을 추가로 파견하여 품목별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 첨단농업기술개발을 위한 국외특별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신 선진농업기술의 조기도입 및 분석·보급을 위하여 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 권역별 해외농업 동향 분석을 활성화하고, 쟁점분야 전문요원 및 국제전문가들에게 소양교육과 토론회 개최, 분야별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화 훈련을 통한 우리나라의 견해를 반영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간에 단계별 교류협력 및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북한농업 연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의 식량생산 및 수급상황을 정밀분석 추정하는 한편, 남북한 농업연구·지도체제의 통합에 관한 방안을 거시적으로 수립하여 북한농업생산 지원기술을 발굴하고 북한농업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2. 농업기술 보급

가. 개황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가실용화를 목표로, 중앙은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지방은 농업인 현장교육·기술보급·한자리 종합상담체계를 확립하고 새기술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품목별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인력육성, 농업기술의 홍보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 농업기술보급 계획

(1)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기술·정보 보급체계 확립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농촌 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지침을 수립, 3,500부를 배부하여 지역농업 개발을 위한 시군산학협동심의회를 162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지도공무원을 전국단위 품목별로 조직화시킨 30개소의 전문지도연구회를 구성하여 기술정보의 교류와 관내에 보급을 도모하고, 지도공무원 6,696명이 지방직화 이후에도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3년1기로 계속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정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시험연구결과 지도사업 활용자료 2,000부를 제작 지원하고, 중앙의 전문기술지원단을 14개반 186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에 지원하는 한편, 주간·월간농사정보의 전산화, 경영상담실운영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92개소 설치 등 총 937억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모든 기술보급방법을 종합적으로 투입한 입체적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시범사업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시험연구결과 새기술을 시범요인으로 하여 시범포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근농가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육성품종시범 등 식량작물분야 322개소, 자동물방울물주기 채소시범 등 소득작목분야 151개소, 토양환경개선시범 등 환경농업분야 646개소, 농촌여성일감갖기시범 1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376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뿐만아니라 인근 농업인까지 참여한 생육단계별 평가회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범요인이 신속히 확산되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3) 품목별 전문경영능력배양을 위한 농업인 교육

1~2월 중 품목별 교육희망 전농가를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738천명에게 실시하고, 주요영농단계별 핵심기술과제 및 새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 상설교육과정을 설치하여 454천명을 교육하는 등 총 1,192천명을 대상으로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3월에 개교하여 6개학과 240명을 실기중심의 교육으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정예농업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4) 농업기술의 홍보강화

대중매체를 통한 새기술·정보의 집중홍보를 위해 신문보도 500건, TV·라디오 방송보도 800회, 기술농업의 실용화 교재인 “농업기술지”, 첨단농업과학기술정보지 “연구와 지도”, 작목별 핵심기술 비디오 교재 등을 제작 지원하고 신개발기술 및 지도자료를 입체적으로 전시한 농업과학관을 연중 개방운영하여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까지 견학을 유치하여 기술보급은 물론 우리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농산물 애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3. 농업정보화 촉진

가. 추진배경

WTO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새로운 국제 환경은 우리 농업에 대하여 선진국들과의 무한경쟁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현대과학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고도정보사회의 등장과 정보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우리 농업이 명실공히 경쟁력을 갖춘 미래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하에 농림부는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2000년까지의 농업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확정·시행으로 이제 우리 농업부문에든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열리게 되어 앞으로는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배의사를

결정하고, 원격화상 멀티미디어로 영농기술상담을 하며 방에 앉아서 전국 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부문에서의 본격적인 정보화의 추진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세계화·개방화로 야기된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 타산업 또는 타국의 농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농림수산 정보화 촉진 계획

농림부는 “2000년대 정보화된 선진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업정보화 기반을 확충, 이용자 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농업정보 개발·보급, 농촌지역정보의 활성화 촉진, 정보화 응용 지원사업의 확대, 정보통신 이용교육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정보화 인식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분야별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농업부문의 취약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림수산 정보망의 고속화와 함께 13개 농림관련기관·단체의 2차 산하기관에까지 통신망을 확장하며,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정보망을 확대하고 농림수산정보망(AFFIS)의 기능을 전국 광역통신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0〉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이용현황

구 분	접속건수(월/회)	이용시간(월/시간)	가입자수(명, 누계)
'94년	9,507	1,559	837
'95년	32,388	5,754	7,857
'96년	87,689	16,031	25,591
'97. 5까지	60,911	8,043	30,357
'97년 (계획)			55,00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2) 실용적인 농업정보의 개발·보급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경영 등 영농관련정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품목별, 분야별로 전문화된 고부가가치 DB를 집중 개발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과 농가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영농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농업용 S/W를 중점 개발·보급함으로써 과학영농 및 경영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표 3-2-11〉

경영지원용 S/W개발 현황(정보화지원사업)

분 야	구 분	S/W 명
농업경영	법인경영체	농업경영체 종합관리시스템
	농가경영	복합농가 경영분석시스템
원 예	채 소	채소농가 경영관리시스템
		시설채소농가 경영분석시스템
	화 획	화획 경영관리시스템
	과 수	과수원 종합관리시스템
축 산	낙 농	착유우 농장종합관리시스템
		낙농경영분석시스템
	양 돈	양돈경영분석시스템
		양돈경영관리시스템
	양 계	양계농장 종합경영관리시스템
	한 우	한우농가종합관리시스템
기 타	생활개선	농가생활설계시스템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표 3-2-12〉

국내의 농림수산물정보 제공현황

분 야	DB 명
중앙기관·단체	농림부광장, 산림청광장, 축협한우리정보 등
정 책 정 보	농어촌발전대책, 농지법, 농안법해설 등
유 통 / 무 역	농수축산물가격, 청과경락가격, 무역통계 등
수 산 / 임 업	수산물정보, 목재유통정보 등
자 재 / 기 술	농기계정보, 종자정보, 특허정보 등
문 헌 / 인 물	농림수산물관련문헌, 농수축산신문, 보도자료 등
상 품 / 관 광	품질인증농산물, 전통민속농산물 등
지 역	도농어업방(7), 내고장군자랑 등
해 외	해외농업뉴스, 인터넷정보 등
대학별 품목정보	농업생태환경기술, 인삼·양계·고추·마늘종합정보 등
기 타	인터넷홈페이지 등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3) 농촌지역정보의 활성화

농촌지역의 취약한 정보화 기반을 보강하고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PC 보급을 늘리고 전국 9개도 142개 시군 농업통계출장소의 기능을 보강하여 이를 지역정보화의 거점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군 통계출장소는 그 지역의 작목, 토양, 기상 등 농업생산 관련정보와 지역별 농산물 출하동향, 거래량, 가격 등에 관한 유통정보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한편, 각 지역의 지역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대학, 농·축·수협등 지방소재 농업관련기관과 연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농업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4)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의 확대

농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유통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정보망을 현재 13개 시장에서 신설되는 모든 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시설채소 주산단지 작목반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유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가 농촌지도기관, 정부,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소비자 등을 직접 연결, 농산물의 생산, 출하,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종합정보를 얻고 스스로 영농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의 물류센터 및 집배송센터를 대상으로 물품관리, 출하관리 등을 전산화할 수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장별 출하 분산과 역류 방지 등으로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3>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시스템 구축 현황

대상품목	대 상 지 역
시설오이	전남(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진주, 창녕)
풋 고 추	경남(진주, 밀양, 창녕)
참 외	경북(성주)

제 공 정 보	서 비 스 내 용
생 산 관 리	- 식부의향 및 생산계획 - 지역간 생산·출하 정보관리 및 동향분석
산지유통정보	- 산지공판장 경락정보 검색관리 - 출하 및 경매예상량 검색
품목별 전문 DB	- 품목별 전문 멀티미디어 DB서비스 (종묘, 자재, 토양, 기상, 병충해, 산지시황 등)
통신서비스	-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응용한 농산물 직거래 - 농산물홍보 - 전자계시판, 전자우편 등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표 3-2-14〉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 구축계획

구 분	도 매 시 장 명
'97. 5	서울(가락동),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청주, 충주, 전주, 울산, 천안
'97. 12까지	구리, 안양, 안산, 일산
'98 이후(계획)	부산, 인천제2, 포항, 진주, 원주, 대구제2, 고양, 대전제2, 성남, 순천, 구미, 마산 등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표 3-2-15〉

농산물 물류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구 분	대 상 사 업 장
농산물물류센터	양재, 창동, 청주
생활물자물류센터	기흥, 화순, 구미, 전주, 창원, 강릉
농가공제품 물류센터	성수
수도권 양곡마케팅본부	양재, 강남, 영등포, 중부, 청량리
집배송센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5)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 구축 운영

농업인이 영농기술 상담, 농업정책 문의 등을 위하여 직접 지도소나 정부기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화상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농사지도 전문가나 정부 관계관과 직접 대화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6) 정보화 응용 지원사업 확대

이밖에도 농업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선 영농현장이나 농업 행정부문에 응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알선, 수출사례정보, 국가별 수입규제, 관세율 등 무역정보에 관한 DB를 개발·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가별 해외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내 농업인 및 수출관련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며, 동·식물검역체제의 정보화로 국내 농축산물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토양, 지형, 용수, 경지정리 등 농지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지형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농사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7) 정보통신이용교육 강화

농업 및 농촌지역에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정보통신이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을 보강, 농업인에 대한 정보이용교육을 담당토록 하며, 교육에 필요한 전용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PC 이용, 영농S/W 활용방법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림수산정보화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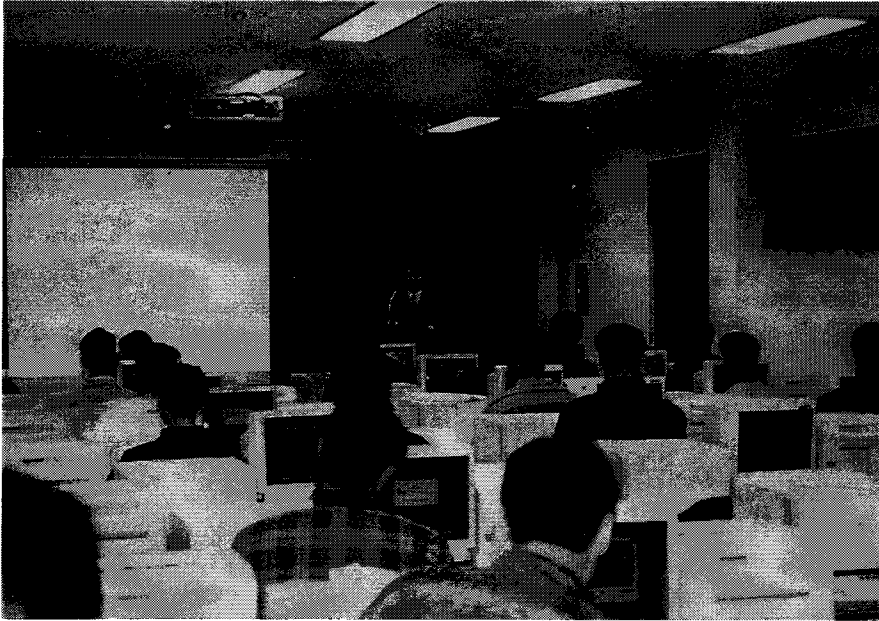
<표 3-2-16>

정보통신이용 교육현황(정보화 지원사업)

(단위 : 명)

구 분	계	정보교육	경영교육	특별교육	순회교육
'96까지	7,727	2,988	751	-	3,988
'97. 5까지	1,985	882	540	138	425
'97 (계획)	3,200	1,200	1,500	-	500

자료 :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



〈 농업인 정보통신이용 교육실시 장면 〉

(8)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 · 운영(<http://www.maf.go.kr>)

농업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 · 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농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림부 홈페이지에서는 농업관련 기본정보는 물론 해외정보 · 산하기관 정보까지 수록하여 농업관련정보가 필요한 농업인은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편, 농정마당을 마련하여 일반국민이 농정당국에 대하여 궁금한 의견이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직접 농정담당자와 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 · 축협등 농림관련 산하기관 · 단체를 망라한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림관련정보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 4 절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

1. 추진배경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다수의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수집과 분산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또한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데다 부패하기 쉬워 유통과정에서 많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산물 유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4년에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산지와 소비지에 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도매시장 운영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규격화를 비롯한 산지유통여건이 아직 미비하고, 도매시장거래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97년에는 그동안 유통구조개선대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와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국내외 급격한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의 시설투자 중심에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물류 흐름에 더욱 중점을 둔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을 마련하고 '97년 7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계획

가. 산지유통체제 확립

우선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농산물의 규격화·브랜드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선 산지유통 개선이 시급한 품목의 30개 농협을 '97년 시범농협으로 선정하여 선진산지유통모델을 정착 시키고 이를 전 농협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97년에는 간이집하장 200개소, 포장센터 29개소, 산지가공공장 134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3개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산지규격품 생산과 공동출하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운영도 내실화할 것이다.

'96년까지 3천개소가 건설된 간이집하장의 경우는 생산·출하시기가 계절적으로 제한되어 일부 시설의 경우 활용도가 부진하므로, 100평

규모 이상의 기존 간이집하장에 품목별로 필요한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여 금년중 200개소를 소규모 포장센터로 발전시키고, 비수기에는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창고, 기타 마을공동시설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포장센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 단위로 농산물을 수집·선별·포장하여 “균일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생산자들은 아직 공동선별·출하에 익숙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선별·포장된 것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산이 계절성이 강해 시설의 활용이 특정 계절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정부는 시설지원과 함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생산과 출하·유통 기능을 겸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자에게도 포장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자의 도매시장으로의 규격 농산물출하 확대를 유도하고, 포장센터와 대형유통업체간 직거래를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포장센터 규격포장품 경진대회, 우수규격품 생산자단체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배포 등 포장센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통공사 유통교육원에 포장센터 관리자반을 신설하여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나. 산지가공공장의 사후관리 강화

'96년까지 1,231개소가 설치된 산지가공공장의 경우, 농업인 등 사업주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시설설치와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주체의 능력 등을 사전평가하여 시설의 설치에 따른 허가절차안내, 기계·장치의 구입 안내, 원료수급, 생산 및 판매 등에 대하여도 상담·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지가공업체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인 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우선 서울 서초구에 생산자 종합전시직판장을 1개소 개장하고 대도시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 전문판매장

설치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제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산지가공업체를 위한 공동물류시설 설치운영을 강화하고, 가공업체에 대하여 제품기술·자금관리·판매·디자인 등 분야별로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 유통경로의 다원화

정부는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적당한 값에 팔 수 있도록 도매시장 건설을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2001년까지 전국에 34개소의 도매시장을 건설한다는 기본 계획하에 이를 착실히 추진해 가고 있다. '97년에 구리·안산·안양·익산에 4개의 도매시장이 개장하게 되면 총 18개의 도매시장이 개장 운영되고, 나머지 16개소의 건설이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유통단계 축소방안의 하나로 2004년까지 16개소의 물류센터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97년에는 서울 양재동에 1개소를 개장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사전에 계약에 의해 규격상품을 물류센터에 공급하면 물류센터는 소매점·대량수요처 등 실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하는 여러 종류의 농수산물을 “세트”로 배송해 주는 형태의 유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중간상인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절감되는 유통마진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편, 생산자의 판로를 보장하고 중간상인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산지와 소비지에 농협공판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8개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97년에는 7개소를 추가로 지원하고 '98년까지 모두 67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좀더 많은 도매시장이 들어서고 물류센터 등 다양한 유통시설이 건설되면 유통경로간 경쟁이 치열해져 그만큼 출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출하된 농수산물도 제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다 농업인들이 선별포장을 해서 실수요자와 직접 주문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공정거래의 문제도 대부분 해소되리라 전망된다.

라. 물류표준화로 물류비용 절감

최종 소비단계에서 농산물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물류의 표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외국 유통업체와 대기업 대형매장이 소비자 시장을 급속히 잠식함에 따라 이들이 요구하는 대량의 균질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인건비 상승,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도 악화되어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농산물유통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97년에는 물류표준화를 통해서 하역·수송을 기계화하고 거래를 효율화시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물류표준화에 의한 일관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75개 농산물 포장규격을 단위적재 시스템(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하고, 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규격상품의 대량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포장재 구입비 131억원을 보조하며, 공동규격출하자금 1,540억원을 융자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조직·도매시장·물류센터 등에 표준파렛트(pallet) 10만매, 지게차 175대, 전동차 300대, 컨베이어 30대 등 구입자금도 융자하고, 단위적재시스템 규격에 맞는 차량을 보급하고 차량개조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 산지 포장개선 시범사업 실시

농산물 규격포장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과실류와 과채류는 포장화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배추·무·수박 등 일부 품목은 포장화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장내에서 다듬기로 인한 비용추가와 도시쓰레기문제를 야기하고 불공정 거래요인이 되며 수작업에 의한 운송·하역비 증가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년부터 69억원을 투자하여 배추, 수박, 무, 양배추, 사과, 마늘, 양파 등 포장화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가락,

구리, 안양도매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포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포장화 사업은 소비지에서 쓰레기 발생 방지, 상품성 향상, 공정거래 실현, 기계화 가능 등 많은 잇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용사회에서 고유상표 단위 유통을 실현하는 기초이므로 '98년부터 타도매시장으로 확대 실시하여 농산물 포장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95년 1월부터 시행한 전품목 상장제도 실시,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도매시장 평가제도 강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도매법인의 형식적인 기록상장행위가 존속되고 출하자 및 중도매인의 경매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는 등 운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상장매매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을 중도매인에게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품목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입송장 및 거래실적 보고서 제출, 장부기장 의무화, 위탁 수수료율 징수확인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질서유지와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중도매인의 부당임대·전대행위 근절 자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경매결과의 즉시 공개 및 전산경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설도매시장의 입주상인과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시장개장 초기부터 거래질서가 유지되고 조기에 시장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제도를 보완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법인은 재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화해 나가 고자 한다.

도매시장에서의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하역비 결정과정에서 출하자(생산자단체)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비포장산물, 포장 및 파렛트 적재 등 출하형태에 따라 하역비가 차등 적용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반입물량이 매일매일 크게 달라짐에 따라 나타나는 매일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진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법인별로 매일의 적정처리 가능 물량을 판단하여 사전에 출하예약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 일부 품목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사.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품질 차별화

'90년에 들어서면서 국내 농수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값싼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이들 외국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산농산물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91년 7월부터 도입하였고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95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1월 1일부터는 원산지표시의 범위 및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가공품 54개 품목에 대하여도 원료의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97년에는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1,084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발포상금 상향조정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아. 농산물 안전성 조사품목 확대 시행

우선,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품목을 현행 20개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농약과 중금속의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부적합 품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또는 폐기하도록 유도하며, 해당농가에 대한 농약의 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오염된 토양과 수질을 개량하고, 독성이 낮은 농약과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비료 등 환경보전형 농업자재도 개발 보급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쇠고기·닭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 대한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의 검사를 강화하고 우유에 대해서도 항생제 등의 잔류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자. 품질인증제의 내실화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산자·유통종사자들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한 농수산물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96년에는 76개 농산물 119천톤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였으며, '97년에는 이를 80개 품목 135천톤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쌀·채소류에서 잡곡·과실류까지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품질인증품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차. 생산자조직 중심의 사전적인 수급안정체제 구축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사업, 생산출하약정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재배면적과 작황변동이 심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은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부 중심의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에서 민간중심의 사전적인 수급안정대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 책임하에 전국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품목별 전국협의회나 전국적인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품목별 전국협의회를 통해 지원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자금('97년 1,030억원)을 확대 지원하고,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여러 사업자금을 품목별로 통합하여 전국 품목별 조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농업관측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권고의 이행여부, 공동출하, 규격출하의 이행여부 등을 평가, 약정가격

과 시증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약정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보전 대상은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자율적인 생산조정 능력과 자조금 조성의사가 있는 생산자조직 및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차액보전은 시장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조직이 공동으로 조성한 자조금으로 안정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 소득을 지지해주는 방안이다.

아울러, 과일 생산되었거나 과일 생산이 예상될 경우 규격미달품의 산지 폐기, 정부수매, 민간수매지원 등을 통하여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산지폐기가격은 최저가격에서 폐기시기별 미투입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금년에는 농안기금에서 100억 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와 같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규격상품화·브랜드화되어 유통되고,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에 의해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이며, 도매시장·물류센터·대형유통매장 직거래 등으로 유통경로가 다원화됨으로써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선진국 수준의 농산물유통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절 농축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과 환경농업 육성

1. 농축산물 안전성과 품질향상

농축산물안전성 검사의 목적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다

'97년도에는 '96년도의 조사대상 20개 품목에 3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1개 품목 3,300점에 대한 농약잔류, 중금속, 아프라톡신 등의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품목 내역은 곡류는 쌀을 비롯한 3개 품목, 채소류는 딸기·오이·콩나물 등 33개 품목, 과일류는 복숭아, 포도·사과 등 10개 품목, 그외 버섯·참깨 등 5개 품목이다. 앞으로 분석시설·장비·인력 등을 확충하여 2000년도 이후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연간 10,000점 이상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쇠고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도축시 지육검사('97년도에 45,000건)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도축 전의 소는 항생물질을, 돼지는 설파제 등에 대한 생체검사('97년도에 30,000건)를 실시하며, 축산물 위생처리를 위하여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중점관리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system)를 도입하여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인력 및 분석장비·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즉, 화학, 농화학등 관련학문을 전공한 자를 선발, 전문분석요원을 양성('96) 62명 → ('97) 92 → ('98) 128)하고, 시·도 지소에 안전성조사 분석실을 설치(('96) 5개소 → ('97) 8 → ('98) 12)하며,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GC, HPLC 등 첨단 분석장비를 확충(('96) 409대 → ('97) 652 → ('98) 885)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해 '97년도에 중금속 분석기등 6종(국고 1,896백만원)의 검사 장비를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 지원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2. 환경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환경과 농업을 조화시키고, 국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며, 국제 환경농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7년에도 환경농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환경농업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농업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방향은 농업전반에 걸친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적·계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등)은 자체품질보증 등을 통해 민간자율로 생산·판매토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97년에는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중앙단위와 민간단체를 통해 총 900여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89천 명에게 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가 종전 보조 50%, 자담 50%로 농가 희망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농토개량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개별농가 지원이 아닌 들녘별 6년 1주기로 전 농경지가 개량되도록 추진하고, 객토사업은 '96년까지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경영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이 사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국고사업으로 전환, 융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특히, 16개 광산의 인근 농경지 169ha의 개량을 위해 '97년도에 30cm이상의 복토 및 석회 시용을 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전국 28천개의 주요 농업용수원의 수질측정망을 '96년 150개소에서 금년에 175개소로, 향후 2000년에는 534개소로 점차 확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유기농·자연농 등 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은 '97년에 177억원을 지원하여 '96년보다 18개소 증가한 118개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육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 절감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환경농업 동향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 6 절 농산물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1.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가. 수출여건 및 전망

우선, '97년도 농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배 등 수출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4.8%가 늘어난 21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2-17〉

'97 농산물 수출전망

(단위 : 백만불, %)

	'94	'95	'96	'97목표	전년대비 증 감 률
국 가 전 체	96,013	125,058	129,715	142,000	13.5
농 립 산 물	1,463	1,747	1,829	2,100	14.8
농 산 물	836	1,087	1,164	1,243	6.8
축 산 물	116	156	260	417	60.4
임 산 물	511	504	405	440	8.6

주 : 수출전망 추계 - 국가전체(통상산업부), 농축산물(농림부), 임산물(산림청)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우리 농산물은 해외농산물과 비교할 때 가격차가 크고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낮다.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과 수출선유지·확보가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 힘입어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각 나라마다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차 완화해 가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만큼 수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존의 비용절감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시장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을 바탕으로 경쟁력 실태를 재점검하고 농어촌발전 대책 경쟁력강화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 두고 추진방식, 지원내용 등에 대한 품목별 수출진흥실천대책을 개선·보완하여 품목별 수출목표 설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화훼, 과실 등을 중심으로 63개소의 수출단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단지 조성시에만 우선 지원될 뿐 지속지원 등 수출에 관한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단지당 30ha 규모의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해서 그곳에 기술지도와 국제경매장, 검역시설까지 일관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어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한편, 기존 수출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 생산시설, 선별포장, 가공시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관리와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해외정보 제공과 시장개척 활동 등의 지속적 지원, 단지별·농가별 수출실적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설치·운영중인 「수출애로상담실」을 통해 생산자, 수출업체가 품종선택, 재배, 포장, 가공, 수송 등 생산·수출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가 국제유명박람회에 적극 참가하여 전시, 홍보, 수출상담 등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상품·시장동향 등 수출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본·홍콩 등 주요 수출시장에 신선 농축산물, 전통 가공식품에 역점을 두고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해외판촉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경 등에 해외 권역별로 설치·운영 중인 6개의 농업무역관을 활성화시켜 현지화 적응상품 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각종 안내 등 수출지원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돼지고기, 김치 등 우리 수출품 홍보를 위해 현지 소비자에 직접 파고들 수 있도록 “옥외전자광고판”을 일본 동경에 이어 '97년에는 홍콩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수출업체, 전문 생산농업인, 기술지도요원, 수출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시장조사단 및 수출촉진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수출품목 및 수출가능품목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포장실태 조사를 통한 현지 소비자의 기호와 성향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라. 농업무역정보망 구축

주요 품목별 생산·교역량, 가격동향, 각국의 수입제도 등 수출입 관련 정보를 생산농가, 무역업체, 정책담당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96년 1월, 오이·돼지고기 등 35개 주요품목에 대한 무역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여 신규품목(35개) 및 갱신품목에 대한 수출시장 심층조사 실시와 S/W 추가개발 등 D/B 구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농업무역 전문해외모니터를 지정하여 현지 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는 농업무역 전문해외모니터제를 실시하고, 모니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종합정보망과 연결하여 수출업체,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직접 분산·전파할 계획이다.

마. 수출 관련 지원체제 강화 및 개편

농산물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구매자금을 929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유통자금도 3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업인, 관련업계·단체, 정책·지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농업부문 정부 포상 확대를 추진하여 '97년 6월 11일 농정개혁평가회의시 성공사례 발표 및 유공자 포상도 실시하였다.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국제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각종 농업관련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수출입업체 및 해외바이어에 대한 수출입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농수산물 무역장벽의 완화, 기술·상업농시대의 전개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21세기 농수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요율 인하 및 보상비율 인상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입관리대책

가. '96년도 평가

WTO이행 첫해인 '95년에 보리, 옥수수 등 164개 품목, '96년에 15개 품목이 추가 개방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농림수산물 수입 증가율은 '95년에 21.1%에서 '96년도에는 13.1%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수입 내역을 보더라도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과 목재류 등 우리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입한 것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수입 증가 현상은 모조분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2-18〉

'96 농림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총수입액	불가피한 수입					기타
	사료	목재류	사탕수수당	사료곡물제외한 시장접근물량	계	
10,940 (100%)	2,765 (25.3)	2,543 (23.2)	443 (4.1)	1,236 (11.3)	6,987 (63.9)	3,953 (36.1)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이는 농산물이 일시에 보호장치없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고율관세 및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한 뒤에 개방되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품목별 경쟁력제고 사업의 결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GATT/BOP협약과 WTO협정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 온 품목들이 연차적으로 자유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들에 대한 적절한 수입관리와 구조조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표 3-2-19〉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개방품목수	주요품목	수입자유화율
'94 말	1,180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3.1%
'95.1.1	164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96.1.1	2	포도, 사과주스	94.8
'96.7.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97.1.1	37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3
2001.1.1	8	소, 쇠고기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98.9
계	1,420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97년도 수입관리대책

(1) '97. 7. 1 개방품목 수입관리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등 37개 품목이 개방되었다. 이들 품목은 '89년 GATT/BOP협약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개방을 유예하기로 함에따라 그동안 개방을 미루어 왔으나, 이제 그 유예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7월 1일을 기하여 수입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20개 품목중 쌀 16개 품목과, 생우와 쇠고기 8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을 개방함으로써 자유화율이 98.3%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개방된 품목들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들이기 때문에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국내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수입 수요를 억제하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급증시 적절한 산업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수입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이외에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장기적인 대책에 있어서도 '92년부터 추진해온 품목별 경쟁력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 농산물 등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수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이 '88~'90년 평균 국내소비량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용옥수수, 대두, 종돈, 종계 등의 농업용 원자재 9개 품목과 참깨, 맥아등 가공용 원료농산물 12개품목에 대하여는 저율관세 물량을 필요한 만큼 확대하여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2)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 성격을 고려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83개 주요품목은 국영무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등 25개 품목은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수입하여 그 이익금을 징수,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국내 생산시기를 감안,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보호와 WTO 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3) 관련법상의 각종 제도의 적극 활용

저가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농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무, 당면, 표고버섯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표고버섯 : 30%→90%). 또한 낙화생, 메밀 녹두, 고구마, 감자 등 60개 품목의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낙화생, 메밀 등 14개 품목은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모조분유의 수입량이 '93년 3천2백톤에서 '95년 2만8천톤으로 870.6%나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96년 5월 축협중앙회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하여 무역위원회에서 '96년 10월 모조분유 수입 피해 판정이 내려졌고, '96년 12월에 관세율 조정이나 수입수량 제한을 건의하여 산업피해 구제조치로서 1997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수입수량 제한조치('97. 3~'98. 2 수입쿼터 20,521톤)를 취하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산분유 재고가 점차 해소되고, 분유가격도 회복되어 국내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수량 제한 조치에 대해 EU 등 이해당사국들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해 당사국들과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농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조도를 활용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4)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 강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유통되는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산(180개), 국내산(143개) 및 가공품(81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확립 및 차별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5) 동·식물 검역 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라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2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계획('96~'98년)을 추진하여 2000년대의 선진검역 검사체제를 확보하는 등 동·식물검역기능을 강화하여 외래 병해충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농업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6) 수입동향 점검

WTO 체제출범이후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입동향을 점검하여,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개방체제하에서의 적극적인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및 관련사업 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제 7 절 농촌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가. 정주생활권 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과 함께 주택 등 생활환경을 마을단위로 집중 개발하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중심마을 위주로 신규 택지 개발 또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구당 2~3만평에 100~300호 규모의 현대식 기반을 갖춘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정비가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97년도에는 총예산 3,498억원(국고 80, 지방양여금 1,643, 지방비 704, 융자 1,071)을 투입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256개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54개면에 대한 보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2개 지구를 추가로 착수하고, 계속지구 72개 지구에 대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21개지구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4년까지 전국 772개면에 대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의 제1단계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2~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최고 45억원(보조 30, 융자 15)을,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50억원(보조 20, 융자 30)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구당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표 3-2-20〉

도로포장 현황

(’95년말 현재)

구 분	총 연 장(km)	포 장 도(km)	포 장 륜(%)
고속도로	1,825	1,825	100
일반국도	12,043	11,993	100
특별시·도	14,082	12,759	91
지방도	12,925	9,853	76
시·군·도	29,439	19,958	68
농어촌도로 (’96년말)	62,459	14,077 (15,398)	23 (25)

자료 : ’96년 건설교통통계연보 (농어촌도로는 내무부 제공)

낙후된 농어촌도로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농어촌도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특세예산을 추가지원하여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96년 현재 25%에서 2004년에는 47% 수준까지 높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을 추진할 것이다.

〈표 3-2-21〉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구 분	계	’94~’96	’97계획	’98~2004
사업량 (km)	17,168	3,469	1,280	12,419
사업비(억원)	44,210	9,336	4,117	30,697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

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표 3-2-22〉

상수도 보급현황('95년말 현재)

(단위 : 천명)

구 분	총인구	급수인구	미급수인구	보 급 륜(%)
○ 도시지역	37,313	34,694	2,619	93
- 특별시, 직할시	21,893	21,446	447	98
- 도의 시지역	15,420	13,248	2,172	86
○ 농촌(군)지역	8,661	3,413	5,267	39
계	45,974	38,107	7,886	83

자료 : '96 상수도 통계

농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95년말 현재 39% 수준으로 도시지역 (93%)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었으며, 특히 면단위 이하에 산재된 자연마을중 상수도공급을 받은 마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보건위생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지하수개발)을 '94년부터 추진하여 '96년까지 1,15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 3-2-23〉

농촌생활용수 개발 계획

구 분	추진목표	'96까지	'97계획	'98이후
사 업 량(개소)	5,000개소	1,151	313	3,536
사 업 비(억원)	8,500억원	1,730	800	5,970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라. 농촌생활여건 개선

'97년에도 농촌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농작업환경 개선, 농촌여성 일감갹기 등의 주요 사업과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금 438억원을 지원하여 12,500호에 부엌과 목욕실을 개량하거나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20만호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로는 82개소에 29억원(개소당 35백만원, 국비 50%)을 들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62개소를 육성하여 종합적인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관리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건강관리실을 2000년까지 시군당 3~4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에 대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자긍심과 농촌정착의지를 고취시키고, 농가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촌 여성일감갹기사업장을 신규로 국비 10개소, 지방비 41개소를 육성하고, 기존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품질향상과 포장개선, 판로 확보 등으로 우수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96년부터 육성해온 제2차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109개소에 대해서는 1차년도 요구조사와 여건조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활력화를 위해 생활개선사업 차원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원들이 앞장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근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근검절약 실천대회, 생활용품교환 바자회, 교육(3,630회, 158천명) 등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위해 농가용 가계부를 제작·보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문화의 정착 지도, 우리콩으로 담근 간장·된장 보급,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생활문화 보급 등을 추진하며, 생활개선회 5만 5천여 회원을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주도할 선도실천자로서 육성하고, 과학적 생활기술 보급을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도, 시군 지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가. 농공단지 운영 지원

농공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지정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위하여 '94년 5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91년 12월부터 중단된 지방비 융자재원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였고,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 조립비 납부를 면제시켰으며,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94년 9월과 '96년 5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400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400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이며, '97년도에는 5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농촌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과수, 화훼, 축산 등 작목 입식과 휴게소, 식당, 직판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과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을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표 3-2-24>

농촌휴양자원 개발 계획

구 분	합 계	'96까지	'97계획	'98이후
사 업 량 (개소)	1,176	506	91	579
- 휴 양 단 지	68	11	1	56
- 관 광 농 원	700	332	55	313
- 민 박 마 을	408	163	35	210
지원액 (백만원)	305,473	109,538	26,000	169,935

주 : 관광농원의 경우 자부담 개발 사업량은 제외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다. 농촌특산단지 조성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성과 전통성이 있는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를 육성하고, 특산단지의 내실있는 육성을 위하여 특산단지제품의 판매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판로 개척과 정보망 구축에 힘쓰고 수출전문 회사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표 3-2-25〉

농촌특산단지 조성 계획

	총 계획	'96까지	'97계획	'98이후
조성단지수(개소)	1,600	664	60	876
지원액(백만원)	293,397	159,949	10,740	122,70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라. 한계농지 등의 개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유휴농지가 증가 추세에 있어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 산업화, 전원생활 욕구 증가 등으로 토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방안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업목적으로 이용가능한 곳은 화훼, 과수, 초지 등 고소득 성장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도·농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휴양 자원으로 개발토록 하며, 입지여건이 농어촌택지조성, 공단조성, 체육시설 등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 곳은 인접 준보전임지등과 함께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할 계획이다.

한계농지 및 인접 준보전임지 등 토지자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 이용·보전·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자원조사를 '9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94년 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한계농지, 산지 등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6년에는 3개 지구를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마.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실시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새품종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조화형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작목별로 주재배 지역 및 집단사육지역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자동점적관수 채소재배, 과수 토양수분 자동관수, 백합·튤립 종구생산,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가축분 발효 퇴비화시설 등을 시범 투입한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172개소(원예 113, 축산 59)를 설치하여 농민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 인근농가에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기술, 새품종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919개소('95년 11종 241, '96년 11종 302, '97년 13종 376)를 작목별, 축종별로 수입 개방에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우선 설치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97년도에는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시범 183개소,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시범 76개소,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20개소 등 376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96년 11종 302개소의 2년차 사업과 '95년 8종 288개소의 3년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업인 복지증진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기회 확대

'9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도는 농어민이 피부로 실감하는 농정개혁의 하나로 정착, 농어촌사회의 활력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7학년도에는 전국 338개 대학중 300개 대학이 실시하여 16,000여명의 농어촌학생에 특례입학기회를 부여하여 15,000여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26>

'97 농어촌학생 특례입학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실시 대학		모 집 정 원		합 격 생 수	
	실시대학	비율(%)	모집정원	비율(%)	합격생수	비율(%)
계	300	38	16,008	2.83	15,246	95.2
일반대학	153	30	8,711	2.75	8,415	96.6
전문대학	147	8	7,297	2.93	6,831	93.6

자료 : 농림부 농정기획심의관실

농어촌학생에게는 진학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희망을 주는 제도로 농촌사회의 활력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특례입학 모집정원비율을 '96학년도에 2%에서 '97학년도에는 3%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재학중 읍·면지역이 시지역으로 변경된 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나.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사업 추진

농어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새마을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97년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며, '97년도 사업별 투자규모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117천명에 694억원, 대학생 학자금은 2만명에 200억원,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1,554명에 940백만원, 새마을 장학금으로는 2,500명에 4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자녀의 하숙비 감면을 위해 기숙사 건립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어민연금제의 내실화

'96년 12월 31일 현재 농어민 연금 가입자는 1,682천명(농어민 1,175, 비농어민 507)으로 93.2%에 해당되어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미 가입자가 대상자의 6.8%에 해당하는 122천명으로 농어민연금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료 납부제도개선, 「효도연금 보내기 운동」 등을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아울러 연금 수급사례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1)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4~'96년까지 1,820억원의 사업비로 생활권역별 민간병원 47개소를 지역 중심 병원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보건소 70개소 등 155개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여 진료기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등 농특세 재원에서 '94~2004년까지 총 4,785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의료보험 부담 경감 및 급여 확대

노인 의료비·고액진료비를 직장·공교·지역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조합간 재정조정 사업으로 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급여비 국고지원예산의 일정액을 소득수준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산정, 농어촌 지역에 유리하게 차등지원하여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며, 농어촌 주민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실시, 노인단독세대에 보험료의 50% 감면, 노인의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3,000원(치과 3,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감,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연중 보험급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어촌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등 농어촌 주민에게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대비 물리치료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96년의 240일에서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부터 연중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2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6년도 임업동향

제 2 편 1996년도 임업의 성과

제 3 편 1997년도 임정시책

제 1 편 1996 년도 임업 동향

제 1 장 국내외 임업동향

제 1 절 해외 임업동향

1. 세계의 산림자원 현황

'95년 현재 세계 산림면적은 3,454백만ha로서 지역별로는 남미 25%, 구소련 24%, 북중미 16%, 아프리카 15%, 아시아 14%, 유럽 4%, 대양주 2%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1-1-1>

세계의 산림면적

(단위 : 백만ha)

	'90	'95	연평균변화량	연평균변화율
세 계	3,511	3,454	△11.3	△0.3%
아 시 아	491	474	△3.3	△0.7
아프리카	539	520	△3.7	△0.7
유 럽	144	146	0.4	0.3
북 중 미	538	537	△0.3	△0.1
남 미	894	871	△4.8	△0.5
대 양 주	91.1	90.7	△0.09	△0.1
구 소 련	813	816	0.6	0.1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그리고 국가별로는 러시아연방,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자이레 순으로 산림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

국가별 산림면적

계	러시아연방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인니	자이레	기타
100(%)	22.1	15.9	7.1	6.2	3.9	3.2	3.1	38.5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세계산림은 1990년~1995년까지 5년동안 연평균 11.3백만ha씩 감소하였다. 산림면적 감소의 주요원인은 화전경작과 농지, 공업용지 및 주거용지로의 전환과 열대목재의 남벌 등이다.

열대림의 경우 1980년말 1,910백만ha이던 산림이 1990년에는 1,756백만ha로 10년동안 154백만ha의 열대림이 사라졌다. 이는 연간 15.4백만ha가 감소된 것으로 열대림의 0.8%가 매년 파괴된 것이다. 지역별 연간 열대림 감소추세를 보면 아시아지역이 매년 3.9백만ha, 중남미 4.1백만ha, 아프리카 7.4백만ha로서 각각 1.2%, 0.7%, 0.8% 감소되었다. 1990년말 현재 중남미에 918백만ha(52%), 아프리카에 528백만ha(30%), 아시아에 311백만ha(18%)의 열대림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산림축적은 1990년 현재 3,837억m³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미, 구소련, 북중미에 64%가 집중되어 있다.

<표 1-1-3>

지역별 입목축적

(단위 : 억m³)

계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舊소련
3,837	557	658	970	514	193	103	842
(100%)	(15)	(17)	(25)	(13)	(5)	(3)	(22)

자료 : FAO, Forest Resources Assessment 1990(Global synthesis), 1995.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인공조림지에서 생산한 목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 1-1-4>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국

국 가	산림면적중 조림지비율(%)	인공림에서 생산된 원목이 산업용재로 쓰이는 비율(%)	비 고
아르헨티나	2.2	60	
브라질	1.2	60	
칠레	17.1	95	
뉴질랜드	16.1	93	
잠비아	0.5	50	
짐바브웨	0.4	50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개도국 지역의 인공조림지는 80% 이상이 아시아-대양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90년 현재 100만ha이상 인공조림지를 가진 나라는 아래 표와 같이 브라질, 칠레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대양주권 5개국이다.

<표 1-1-5>

개도국의 인공조림

(단위 : 백만ha)

구 분	'80		'95	
	조림면적	비율(%)	조림면적	비율(%)
계	40.2	100	81.2	100
아프리카	3.1	7.7	5.2	6.4
중 남 미	4.5	11.2	9.1	11.2
아시아,대양주	32.6	81.1	66.9	82.4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표 1-1-6>

인공조림지 보유 주요개도국('95)

국 가	중 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한 국	칠 레	아르헨티나	태 국
면 적 (천ha)	33,800	14,620	6,125	4,900	1,470	1,400	1,015	547	529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2. 세계의 목재수급 동향

세계의 원목 생산량은 1994년도에 급격히 증가하여 34억 6,000만m³에 달하였다. 산업용 원목생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서 크게 회복되고 있으며, 개도국에서도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1994년 세계산업용원목생산량은 약14억 6,700만m³로 이는 1990년 수준보다 약 9% 감소한 수치다. 연료용 목재생산량은 개도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연료용 목재생산량은 원목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지역에서 목재가 여전히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5%를 목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0.9%에 비해 개도국은 에너지의 15%를 목재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는 58%, 남미 15%, 아시아 11%로 저개발 지역일수록 목재에너지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목재(제재목과 목재판넬)와 종이의 대부분을 선진국이 소비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이 개도국의 10배 이상이 된다. 1인당 연간 목재소비량을 보면 선진국이 가공목재 0.3m³, 종이 0.15톤이고 개도국은 가공목재 0.03m³, 종이 0.012톤에 불과하다.

<표 1-1-7>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현황('94)

	구분	연료목·목탄 (백만m ³)	산업용원목 (백만m ³)	제재목 (백만m ³)	목재판넬 (백만m ³)	종이·판지류 (백만톤)
세계	생산	1,891	1,467	413	127	269
	소비	1,890	1,476	411	126	267
선진국	생산	191	1,051	303	92	213
	소비	193	1,070	298	97	199
개도국	생산	1,700	417	110	36	57
	소비	1,697	406	112	30	67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7.

목재시장은 1993년 미국의 태평양연안 북서부지역에 대한 벌목규제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4년 중반 미연방방법원이 태평양연안 북서부지역의 연방소유 산림의 벌목금지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본래의 정상가격으로 회복하였다. 열대산 원목공급은 주요 아시아 생산국들의 환경규제와 관리규제의 강화로 크게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조치들로 열대산 목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수입국들이 열대산 목재를 온대산 목재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지역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칠레나 뉴질랜드 등의 온대지방 국가의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1994년에 세계 목재판넬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가 증가하였다. 열대지방의 개도국에서 베니어판 생산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제국의 수출주도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제지 및 판지의 세계생산량은 10년간의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힘입어 5%가 증가하였다. EU(8.5%), 북미(4.5%),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구소련지역과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정등급의 제지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써 가격이 1993년의 가격폭락 이후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였다.

<표 1-1-8>

품목별 5대 생산국('94)

구 분	국별 생산비중 (%)
연 료 용	인디아(14), 중국(11), 브라질(10), 인도네시아(8), 나이지리아(5)
산업용원목	미국(27), 캐나다(12), 러시아연방(9), 중국(7), 브라질(5)
제 재 목	미국(23), 캐나다(15), 러시아연방(7), 중국(6), 일본(6)
목 재 판 넬	미국(25), 독일(8), 인도네시아(8), 캐나다(6), 일본(6)
종이.판지류	미국(30), 일본(11), 중국(10), 캐나다(7), 독일(5)

자료 : FAO, Yearbook of Forest Products, 1994.

1994년, 세계 목재펠프 생산량은 EU과 북미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제지산업의 수요가 확대됨으로써 크게 회복되었다. 목재펠프와 목재칩의 교역량과 가격은 1993년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1994년 세계 제재목 생산량은 북미, EU,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로 1993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침엽수 제재목의 가격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1993년보다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발틱연안 국가를 제외한 중앙 및 동유럽과

구소련지역에서는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침엽수 제재목 생산량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4년도 생산량은 900만m³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생산량에 비해 35%나 감소한 것이다.

목재펄프의 세계생산량은 지난 5년간의 정체이후 1994년에 5%나 증가하였다. 이는 재생용지의 수급이 압박을 받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목재펄프 생산량은 선진국의 환경적 제약으로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목재 펄프가격은 1994년말 급등하기 시작하여 1990년의 최고가격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재고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4년, 임산물의 세계 교역액은 펄프 및 제지 수출가격이 크게 회복되고 수출량이 증가함으로써 전년대비 5%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원목·제재목 그리고 목재판넬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교역량은 원목과 열대산 제재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산물에서 증가하였다.

FAO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목재 소비량은 1993년에 약 3,400백만m³이었으나 2010년에는 50%가 증가한 5,100백만m³으로 예측하고 있고 제재목은 1993년에 432백만m³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에는 745백만m³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재판넬은 1993년에 133백만m³을 생산하였으나 2010년에는 313백만m³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상응한 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 환경보존의 강화를 세계적인 규범으로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원보유국의 자원보존 의지가 보다 강해지고 있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목재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림·육림에 의한 자원축적량의 증가와 소비절약, 기술개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대체재 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3. 임업분야 국제회의 및 협약체결 동향

가. 임업분야 국제회의

(1) 일반동향

산림문제는 특정지역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 차원에서 산림 자원의 중요성과 환경적 기능성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새로운 형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임업관련 기구인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주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각종 방안과 기준, 지표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자원생산국과 소비국 등 이해 당사국간의 다자간, 양자간 협력을 위한 회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산림에 관한 국제적 규제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회의

'96 현재 열대목재 생산국 27개국과 26개 소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열대목재 기구는 '96년 5월 제20차 이사회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고 '96년 11월 제21차 이사회를 ITTO 본부가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나라는 '95년 ITTO 임산공업위원회의 부의장국에 이어 '96년 도에는 의장국으로 선임되어 아국의 수석대표가 소관 위원회의 주제 및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였다.

'96 국제 열대목재기구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는 '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국제열대목재협정'94(ITTA)』의 이행과 『ITTO 목표 2000』 달성을 위한 국가별 이행상황 중간평가, 소비국의 생산국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었으며, ITTO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UNCSD, IPF(정부간 산림판넬)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ITTO 목표 2000”은 2000년부터 무역 거래되는 열대목재는 반드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산림내에서 생산된 것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까지의 각 국가별 이행상황을 발표하였다. 목재의 무역거래시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산림내에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는 목재증명제(Certification 또는 Labelling)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는 '97년도 23차 이사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96 회계연도 행정분담금 납부 22만 4,540달러, 투표권 보유 115표(일본 386, 중국 128표에 이어 제3위)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특별사업비(Special account)를 '96년에 1만달러, '97년에 10만달러를 확보함에 따라 ITTO 회원국, 특히 생산국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3) 국제식량농업기구(FAO)

'96년에 개최된 FAO의 임업분야 관련회의는 제13차 아·태지역 산림위원회('96.1.14~1.22, 미얀마 양곤), 제4차 식물유전자원보존기술회의('96.6.17~23, 독일 라이프치히), 제20차 국제 포플러위원회('96.9.26~10.4,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개최되었다.

제13차 아·태지역 회의에서는 아·태지역 국가의 산림에 관한 UNCED 협약 후속조치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가별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며 아태지역 임업분야의 미래과제에 대한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아·태지역 국가는 연료 및 목재부문에서 전 세계의 27%인 1,100억 달러를 생산하고, 전체 열대목재제품 공급의 4분의 3을 점유하여 임업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크므로 지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제3차 식물 유전자원위원회에는 세계 150여개 국가 80여개 NGO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식물유전자원 현황보고서 검토, 전 지구적 실천계획(Global Plan of Action : GPA)의 중요 의제에 관하여 격론을 벌였다.

식물 유전자원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식물 유전자원(Plant Genetic Resources : PGR)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PGR의 보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자원보유국에 대한 권리 인정과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개도국의 주장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재정지원보다는 GPA에 대한 검토와 기술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빈국으로서 PGR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허용과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정보교류 체제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포플러위원회 제20차 총회 및 제38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노의래 박사가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포플러 및 버드나무 재배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키로 하였다.

(4)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산림원칙」과 「의제21」의 이행 상황을 평가·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엔 지속개발위원회(UNCSD) 산하에 세계 산림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산림판넬(IPF) 회의가 '96년 3월(제2차회의)과 9월(제3차회의) 두 차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산림청의 지구환경전문가가 유엔 IPF 전문가로 선정되어 분야별 협상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주요 논의 분야를 보면 산림관련 유엔환경개발회의 채택사항의 이행 상황,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무역과 환경, 국제기구 및 제도 등으로 향후 산림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공동이해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결론 및 정책권고안을 종합화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성격의 「산림원칙」 성명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산림협약」의 작성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간 산림판넬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정부간 산림판넬은 '97년초까지 4차의 회의를 개최하고 '97년 제5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 및 유엔환경특별총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의에서는 산림원칙 성명에서 규정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온·한대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몬트리올 프로세스, 유럽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헬싱키 프로세스, 남미지역 국가들 중심의 타라포토 프로세스 등 지역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원국으로서 동 회의에서 작성된 기준과 지표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다.

또한, '97년 유엔 특별총회 이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최초 회의가 될 제9차 몬트리올 프로세스 회의를 유치하여 '97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2차에 걸친 사막화 방지협약 정부간 협상회의, 세계산림위원회 회의,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목재실무그룹 등의 관련 회의에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다.

나. 한·몽골 임업협력약정 체결

몽골 자연환경부장관의 초청으로 산림청장이 몽골을 방문('96. 10월)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임업 진출기반 조성 협의와 산림·환경 분야에 양국간의 적극적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협력 증진 및 동북아 환경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공동노력키로 하고 한·몽골간 임업협력 약정에 서명('96.10.25, 아국 산림청장과 몽골 환경보호청장) 함으로써 금후 한·몽골간 임업협력협정 체결 및 교류증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4. 외국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가. 미 국

(1) 산림자원과 임산물교역

(가) 산림면적 및 축적

미국은 내수면을 포함한 전체 국토면적의 약 33%인 737백만acre (298백만ha)가 산림(forest land)이며,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산림면적은 1960년 이후 주로 농업용지로 약 307백만acre

(124백만ha)가 전용되어 현재의 산림면적은 1960년도 산림면적의 약 % 정도이다. 산림면적의 약 34%가 연방정부소유림이며 최근 40년간 전체 산림면적 비중이 큰 변화없이 안정되어 있다. 전체 산림면적의 약 6%인 47백만acre(19백만ha)가 원야(wilderness),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산림면적 중 66%인 198백만ha가 용재림(timber land : 연간 산업용재를 1.4m³/ha 이상 생산가능한 임지)이며, 대부분의 목재가 용재림에서 생산되고 있다. 용재림 중 27%는 연방정부 및 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73%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용재림중 20%인 29백만ha를 임산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용재림의 약 70%는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용재림은 몬타나주, 아이다호주, 콜로라도주, 태평양 연안주(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 분포하고 있다.

용재림의 임목 축적량은 약 22,247백만m³으로 ha당 축적량이 112m³이다. 총축적량중 57%가 침엽수이며, 나머지 43%가 활엽수이다. 침엽수 축적량의 66%가 서부지역에 있는 반면, 활엽수 축적량의 90%는 동부지역에 있다.

(나) 임산물 생산·교역

미국은 세계 제1위의 산업용재 생산국가이다. 1996년 FAO 자료에 의하면, 1994년 전세계 총생산량의 25%인 약 400백만m³의 산업용재를 생산하였다.

1995년기준 미국은 7,330백만\$의 임산물을 수출하였으나 9,888백만\$의 임산물을 수입하여 최대 임산물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캐나다, 독일, 한국, 영국 등인데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전체 임산물 수출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4%를 차지하여 4번째로 주요한 미국임산물의 수입국가이다. 주요 수출품목은 침엽수 원목, 침엽수 제재목, 활엽수 제재목으로 전체 임산물 수출액의 27%, 17%, 16%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임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로는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중국 등이며, 캐나다에서 전체 임산물 수입액의 72%를 수입하고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임업정책

(가) 임업정책의 변천과정

미국의 임업정책은 국유림을 주대상으로 하여 변천되어 왔으며, 주·사유림에 대한 정책은 산불 및 병해충에 대한 방제사업과 보호사업, 합리적인 산림경영 및 개발사업, 조림용 묘목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19세기 중반까지 서부지역의 개발과 대규모 목재산업의 발달에 의한 대면적의 산림벌채가 실시되어 많은 산림이 황폐된채 방치되었다. 19세기 후반 개발위주의 벌채방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와 동시에 공유지내 원시림의 벌채가 산림황폐의 주원인으로 간주되면서 이때까지 취해온 공유지 처분정책에서 공유지 보전정책으로 급격한 정책전환이 요구되었다. 공유지의 보전을 위해 1891년 산림보유지법(Forest Reserve Act)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Yellowstone Reserve가 최초의 산림보유지로 지정되었다. 1907년에는 국가적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산림보유지를 국유림(National Forest)으로 개칭하였으며, 1934년까지 국유림의 확대정책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유림에 대한 정책은 국유림의 확장과 산불예방 등의 산림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유림에서의 목재생산도 사유림 소유자의 목재 판매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소량 생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목재 소비와 함께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경제 성장과 함께 급증하였다. 사유림에서의 목재생산이 생산량을 초과한 벌채때문에 점차 감소하자 급증하는 목재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목재를 국유림에서 충당해야 했으며 목재생산을 위한 국유림의 집약경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산림휴양 이용자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산림에 대한 보전운동도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주의와 보전주의가 동시에 대두되는 사회적 배경은 유역보전과 목재공급이라는 국유림 경영목적 이외에 산림휴양에 대한 목적설정이 요구되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 산림의 다목적 경영(Multiple Use)이라는 개념이 이 당시 도입되었고, 마침내 1960년에 다목적-보속수확법(Multiple Use-Sustained Yield Act)이 제정되어 목재의 지속적인 생산에서 목재이외의 산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산림경영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연보호 단체와 목재산업과의 대립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고, 특히 보전주의자들에 의한 국유림 개별에 대한 반대논쟁이 심화되었다. 보전주의자들은 국유림의 개별에 의한 목재생산이 다목적 경영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개발론자들은 동령림 경영에 의한 개별의 경제적 우수성을 주장하였다. 서로 이해가 다른 쌍방의 주장에 대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목재와 환경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가 주·사유림을 포함한 전국 산림자원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제안함에 따라 1974년 산림·방목지재생자원계획법(Forest and Rangeland Renewable Resource Planning Act : RPA)이 제정되었다. 한편, 1973년 웨스트 버지니아주 소재 국유림의 개별이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1976년 국유림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RPA가 일부 개정되었고, 국유림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개별에 대한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림경영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이 제정되어 국유림 자원의 경영에 관한 경영지침과 표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RPA에 의해 미국은 매 10년마다 50년에 걸친 국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산림, 초지, 하천 등에서 얻는 유형, 무형의 재생가능 자원(목재, 광물자원, 야생동물, 담수어, 물, 휴양)에 대한 이용실태 및 전망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50년에 걸친 RPA Program이라 불리는 재생가능자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임산물의 수출정책에 관해서는 1988년 반점올빼미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천연림의 벌채제한을 발표하고, 1990년 “산림자원 보호 및 부족완화법”을 제정하여 서경 100° 선의 서쪽 국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원목 소비처에의 원활한 원목 공급을 위하여 주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부터 오레곤주의 주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1991년부터는 워싱턴주 주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의 75%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다가 1992년부터 주유림에서 생산된 원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3) 최근의 산림자원정책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산림원칙의 후속조치로 미국은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태계관리(Ecosystem Management)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여러 재생가능 자원의 생산 극대화에서 산림생태계의 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5년에 수립된 RPA Program은 생태계 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 황폐 생태계 복구, 생태계의 수용능력내에서의 다목적 편익의 제공, 조직 효율성의 증진을 향후 산림경영 정책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생태계의 건강과 다양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특히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고산 및 수역생태계의 건강도의 지표로서 중요한 하천 및 수생 생태계의 보호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고 있다.

황폐생태계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국제협력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림에서 제공되는 목재생산과 다양한 편익의 제공도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보전과 임산물의 효율적 이용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목재 수요량은 1989년이후 1억1천만m³로 추정된다.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주택건축 부문에서는 목제품의 공업제품화, 건축공법의 다양화, 판넬화·특성화 및 집성재의 진출 등이 현저하다.

특히 판류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급면에서는 삼나무를 중심으로 공급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업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장재, 공공시설 분야에서 목재의 특성을 살려 비목질계 자재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험·연구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구조재 등에 있어서도 품질이 보증된 제품을 정시(定示), 정량 그리고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의 지역 관리시스템 도입, 제재공장등과의 제휴에 의한 목재의 안정적 공급체제 확립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 또한 임업경영 기반의 강화, 임업 노동력의 확보와 임업 사업체의 육성, 가공·유통부문의 재편·근대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산림자원은 인공림을 중심으로 임업생산 활동 등을 통해 적절히 정비되어, 임산물의 공급, 국토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국민생활 확보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한편 임업, 목재산업의 정체로 인해 산촌의 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임업의 진흥, 도시간 교류 촉진,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의해 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95년 신설 주택 착공호수는 147만호로 4년 만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지, 펄프산업은 정보용지의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되고 있으나 목재산업은 수익성의 악화로 어려운 경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목재 수입은 엔고의 지속으로 수입이 증가되고, '94년은 20% 늘어남 72% 였다. 또한, 산지국의 자원문제 등으로 북미,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유임야 사업은 국민의 요청에 부합하여 보전림의 정비,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한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24개소 31만ha에 산림생태계 보호지역, '94년도 초에 설정한 산림생물 유전자원 보전림의 증대 등 산림자원의 건전성 확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 거대한 산림국이고 목재 수출국이다. 캐나다의 산림면적은 3억 5천만ha이고 1인당 산림면적은 13ha에 달한다. 캐나다의 산림은 온·한대에서 생육하는 침엽수 고목의 원생림이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천연림 채취임업 단계에 있다. 침엽수의 생산량은 대단히 높아 전세계 침엽수 생산량의 15%인 1억6천만m³의 막대한 양에 달하고, 그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다. 침엽수 제재품의 세계 무역량 8,500만m³의 50%정도를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다 (1993년 FAO통계).

캐나다에서 역사적으로 먼저 산림개발이 추진된 곳이 BC(British Columbia)주로 캐나다 임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산림면적은 약 6,000만ha에 달하는데, 사유림은 겨우 1.8%에 지나지 않고 거의 모두가 국유림이다. 주 임업성 「목재 통계연보」(1995)에 의하면 산림 가운데 57.4%가 비경제림이고, 이외에 공원 및 보호림이 7.9%로 목재생산의 대상이 되는 경제림은 27.6%이다. BC주의 목재생산량은 70년대 이후 일관되게 증가 경향을 보여 왔는데, '87년의 9,059만m³을 최고로 하여 감소 경향을 나타내 '94년에는 7,565만m³을 생산하였다. 이것은 캐나다 목재생산량의 약 반을 차지하는 양이고, 세계 침엽수 생산량의 7%에 달한다. 또 침엽수 제재품의 수출량은 2,400만m³로 캐나다 수출량의 약 반, 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BC주의 산림정책의 전환배경은 첫째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고조와 더불어 그린피스의 발생지인 BC주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이며, 둘째는 세계 각국에서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산업이 BC주의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위치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의 대량 수출국으로서 산림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바뀐 산림자원 정책의 기본방향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토지이용의 재편성을 실시하고, 벌채대상이 되는 산림 그 자체를 축소하였다. 둘째는 산림의 영구적인 보속생산을 확립하기 위해 연간 허용벌채량(AAC)을 삭감하였고, 셋째는 환경유지를 배려한 집약적 임업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시업규제를 강화하였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개별이 규제되고, 남부에서는 40ha, 북부는 60ha로 상한이 결정되었다. 대면적 개별시대는 끝났고, 벌채적지에 건전한 차세대 임분이 성립하기까지 인접지에도 벌채가 금지되었다. 또 다른 수확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임분에 대해서도 개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업, 야생동물 서식지, 문화적 유산, 생물다양성, 토양, 레크리에이션 등 비목재적 가치보호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졌다.

BC주는 세계최대의 금벌구역에 강, 하천, 기타 수면에 가깝게 설정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관광목적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는 산림미관이 벌채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되었다. 규정위반에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회에는 최고 100만달러, 2회 이후는 최고 200만달러가 부과되며, 무책임한 산림시업을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박탈한다.

라. 뉴질랜드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94년 4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의 1년동안 임산물 수출액은 2,557백만 NZ달러를 기록, 뉴질랜드 전체 수출액의 12.7%를 점하고 있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의 13.5%에 비해 감소되었다. 주요 수출시장은 호주(30.5%), 일본(29.0%), 한국(14.6%), 대만(5.3%) 및 미국(5.2%)이다.

주요 임산물별 수출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원목, 목재칩, 합판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된 반면, 화학펄프, 신문용지의 수출물량은 감소되었다.

<표 1-1-9>

뉴질랜드의 주요 임산물 수출실적

품 목	1993. 4. 1~1994. 3. 31	1994. 4. 1~1995. 3. 31
원 목 (m')	4,253,000	4,762,000
제 재 목 (m')	969,000	1,052,000
화 학 펄 프 (톤)	356,010	320,619
기 계 펄 프 (톤)	317,383	322,311
신 문 용 지 (톤)	258,269	235,471
화 이 버 보 드 (m')	340,839	393,884
합 판(m')	39,392	109,955
목 재 칩 (BDT)	177,796	208,188

자료 : 임업연구원 임업정보 제 52호, 1995.

1995년 라디아타소나무 원목의 수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10>

뉴질랜드의 라디아타소나무 원목수출가격

원 목 등 급	1994. 12.	1995. 3.
가지치기가된 원목-일본, 한국	226 ~ 250	226 ~ 250
A - 등급 - 일본	115 ~ 134	125 ~ 130
K - 등급 - 한국	87 ~ 97	100 ~ 105
J - 등급 - 일본	94 ~ 105	105
펄프용재 - 일본	50	50

주 : NZ\$/JAS FOB 가격임.

자료 : 임업연구원 임업정보 제 52호, 1995.

최근 뉴질랜드 부동산저널인 NZ Property Investor가 1994년 토지판 매통계치를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OIC에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한 토지판매 신청액이 353백만NZ\$, 면적으로는 72,507ha에 달하였다. 이 토지면적 중 절반이 임업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미국의 투자자가 다수를 점유하였고, 영국, 말레이시아, 일본투자자 순이었다.

제 2 절 국 내 임 업 동 향

1. 산림자원 현황

우리 나라 산림면적은 '96년말 6,448천ha로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유림이 1,399천ha(22%), 공유림이 490천ha(8%)이며 사유림은 4,559천ha로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적은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택 및 산업시설 용지 등 타목적 전용으로 '91년까지 매년 평균 8천ha가 감소되었으나 '92년 이후에는 매년 4천여ha씩 감소되고 있다.

'96년말 현재 총 임목축적은 323,780천m³이며 이중 국·공유림이 131,625천m³(41%), 사유림이 192,155천m³(59%)이다.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50m³으로 일본의 124m³와 미국의 118m³등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표 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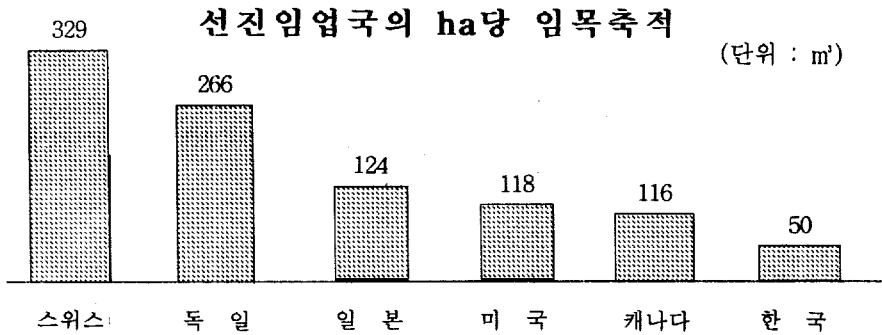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면 적		축 적		ha당축적
		%		%	
계	6,448천ha	100	323,780천 m ³	100	50m ³
국 유 림	1,399	22	108,261	34	77
공 유 림	490	8	23,364	7	48
사 유 림	4,559	70	192,155	59	4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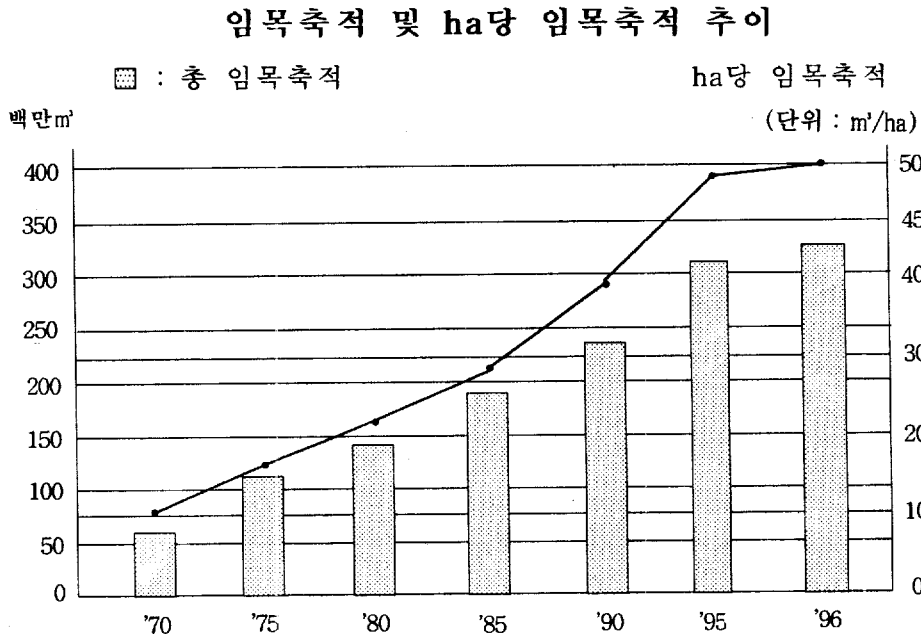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73년부터 추진한 1,2차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으로 임목축적은 '72년에 비해 4.5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한편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846천ha로 전체의 44%이며 활엽수림이 26%(1,674천ha), 혼효림이 27%(1,727천ha)를 차지하고, 기타 죽림·무림목지가 201천ha로 3%이다.

<그림 1-1-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세계 산림자원 평가보고서」, 1990

<그림 1-1-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한편, 나무 나이별 산림면적을 보면 20년생 이하가 전체 산림의 56%인 3,510천ha이고 21년생 이상이 44%인 2,737천ha이며, 축적은 20년생이하가 전체 총 축적량의 33%인 105,989천m³이고 21~30년생이 41%인 131,145천m³, 31년생 이상이 27%인 86,646천m³이다.

<표 1-1-12>

임상별 · 영급별 임야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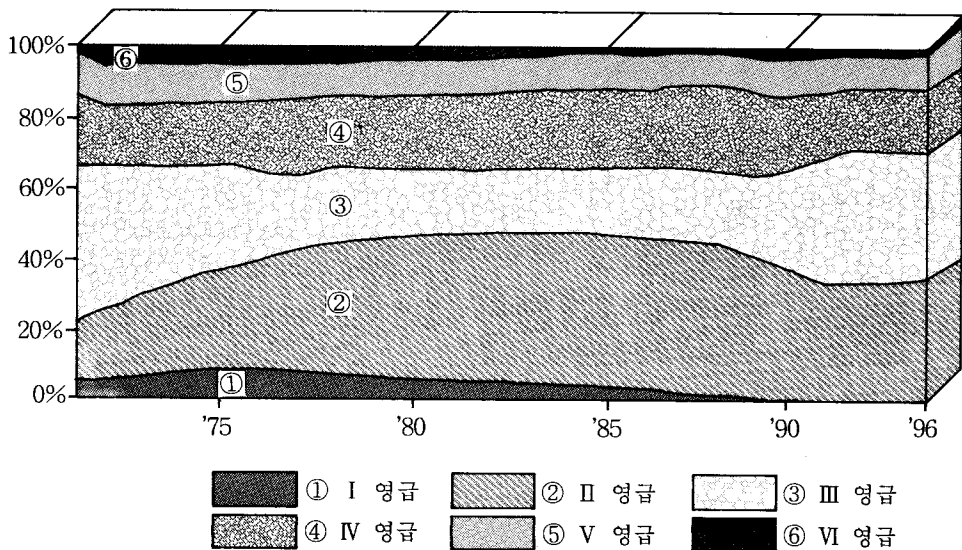
(단위:천ha)

	계	1~10년생	11~20년생	21~30년생	31년생 이상
계	6,247 (100%)	1,061 (17%)	2,450 (39%)	1,993 (32%)	743 (12%)
침엽수림	2,846	705	1,152	791	198
활엽수림	1,674	194	486	646	348
혼효림	1,727	162	812	556	197

주 : 총면적에서 죽림과 무림목지등 201천ha는 제외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그림 1-1-3>

영급별 임목축적 추이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2. 우리나라의 임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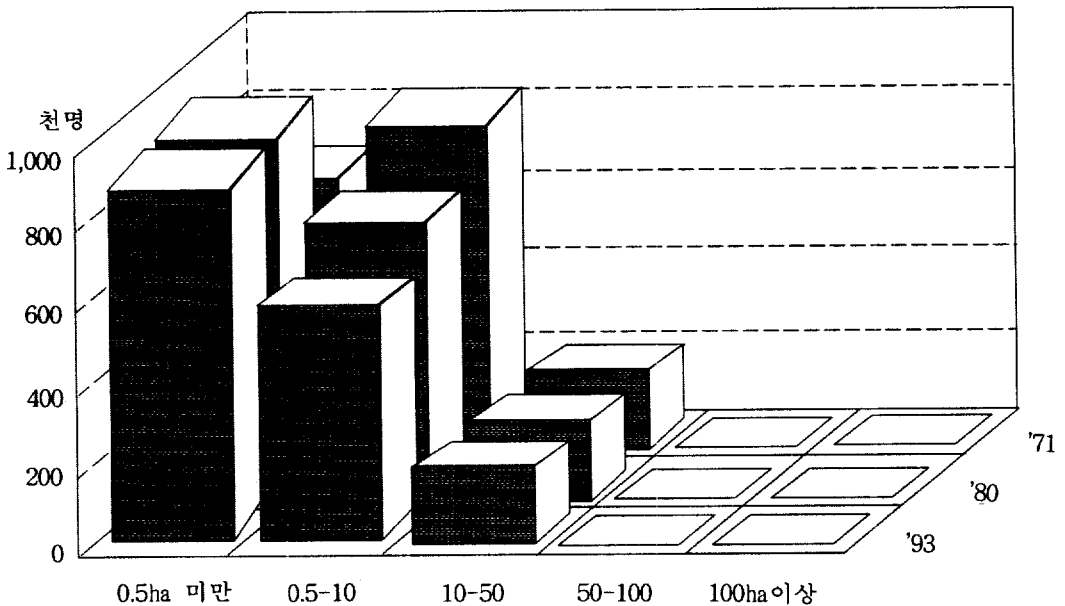
우리 나라 임업성장은 고도 경제성장기간 동안에 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지면서 소유규모 등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1인당 평균 소유 산림면적은 0.14ha로서 아시아 평균 소유면적 0.2ha보다 적으며 사유림의 전체 산주수는 '93년 현재 1,954천명으로 산주 1인당 평균임야 소유면적은 2.4ha로 '71년의 2.6ha보다 다소 감소된 것이다.

'93년 소유규모별 산주비율을 보면 10ha미만의 산주가 1,874천명으로 96%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2,461천ha로 사유림 전체면적의 52%에 불과하다.

<그림 1-1-4>

소유규모별 산주수 추이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전체 산주중 부재산주 비율은 '71년에 15.6%에서 '93년에는 44.9%로 증가하였고 부재산주의 소유면적이 '71년 20.6%에서 54.1%로 2배이상 증가한 것도 산림소유 형태변화의 특징이다.

<표 1-1-13>

사유림 소유형태별 추이

(단위 : 천명)

	산 주 수			면 적		
	계	소재산주	부재산주	계	소재산주	부재산주
1971	1,760 (100%)	1,485 (84.4)	275 (15.6)	4,583 (100%)	3,641 (79.4)	942 (20.6)
1993	1,954 (100%)	1,077 (55.1)	877 (44.9)	4,586 (100%)	2,105 (45.9)	2,481 (54.1)

주 : 시·군·구별로 조사하여 총 산주수와는 일치하지 않음.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러한 산림의 영세한 소유규모는 임업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부재산주의 비율이 증가한 현상은 산림경영보다는 재산증식이나 토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업활성화의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이용구조 재편과 소유제도의 확립, 적정규모로의 경영구조개선 등 전반적인 임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아울러 임업을 이끌어 나갈 임업경영의 주체로 전업임가, 임업후계인력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장 임산물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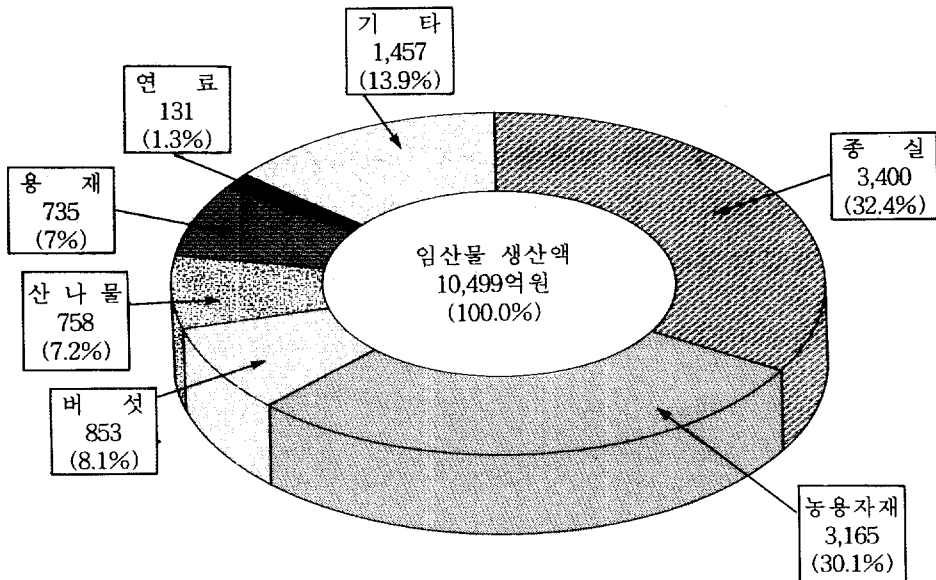
제 1 절 임산물 생산동향

'96년도 임산물 생산액은 10,499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2%가 증가되었는 바, 종류별로 보면 종실, 산나물, 용재가 증가한 반면 버섯류, 연료 등은 감소를 보였다.

산림법상에는 임산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총생산(GNP) 산출시 채석업으로 분류하는 토석류 생산액은 전년도의 11,032억원보다 4.1%가 감소한 10,575억원인 바 이는 '96년중에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수입물량확대 및 산림훼손 억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2-1>

1996년도 임산물 생산액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토석류를 제외한 임산물 생산액의 품목별 구성비율은 종실류와 농용 자재가 전체 임산물 생산액의 62.5%를 점유하여 제일 높고 그 다음은 버섯류 8.1%, 산나물이 7.2%순이다.

'95년 대비 생산액 증감내역을 보면 종실류 15.0%, 산나물 9.9%, 용재는 8.7% 증가한 반면 연료는 43%, 버섯류 6.7% 감소하였으며 특히 산나물류 등 자연식품의 생산액 증가 추세가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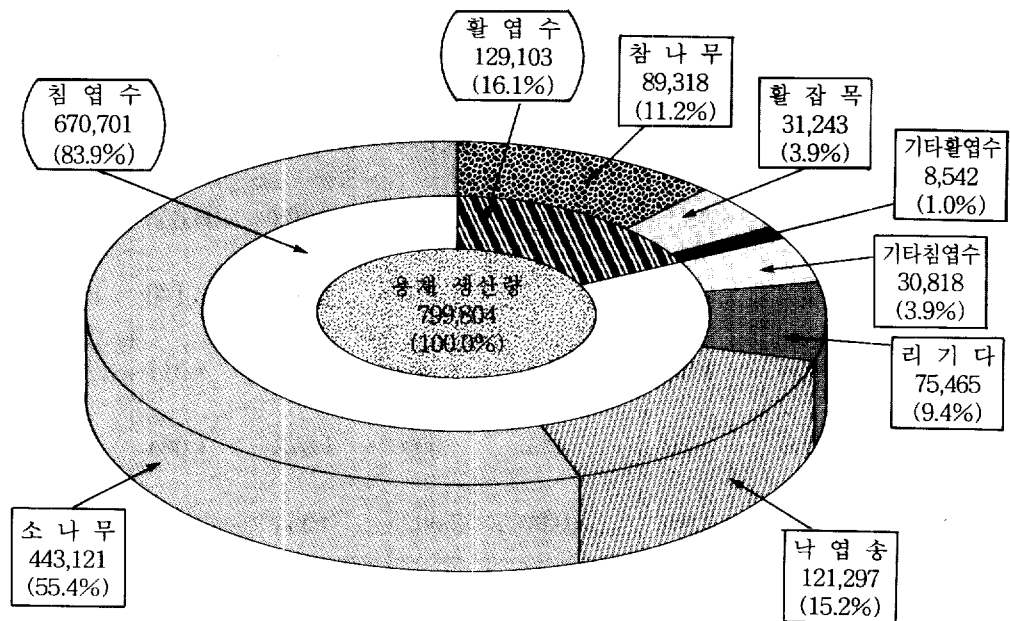
1. 용 재

'96년도 용재 생산량은 800천m³이고 생산액은 735억원으로 임산물생산액 10,499억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종별로는 소나무 443천m³, 낙엽송 121천m³, 참나무 89천m³, 리기다 75천m³, 활잡목 31천m³ 등으로 이들 5가지 용재가 전체 용재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2>

1996년도 용재 생산량

(단위 : m³)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96년도 국내재 이용량은 825천m³로 '95년도에 비해 28% 증가하였다.

용도별 이용실태를 보면 펄프용재 247천m³, 갱목용재 97천m³, 건축용재 117천m³, 표고자목 용재 78천m³, 토목용재 72천m³, 연료용재 45천m³, 포장용재 19천m³, 농용재 21천m³, 기타 129천m³가 이용되었다.

수종별로는 침엽수가 총 663천m³로서 소나무 416천m³, 낙엽송 125천m³, 리기다소나무 75천m³, 잣나무 33천m³, 삼나무 5천m³, 해송 7천m³, 편백 2천m³가 이용되었고, 활엽수가 총 162천m³로서 참나무 95천m³, 오리나무 1천m³, 아까시나무 0.5천m³, 자작나무 0.5천m³, 기타수종은 65천m³가 이용되었다.

2. 종실류

임산물 생산통계 조사대상 종실류는 밤, 호두, 대추, 잣, 도토리, 은행, 비자, 산딸기 및 기타 종실류인 머루, 다래, 산초, 개암등이다.

<표 1-2-1>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단위 : M/T)

	'90	'91	'92	'93	'94	'95	'96
계	95,801	102,005	117,549	93,136	119,169	112,070	126,741
밤	85,043	89,747	101,742	80,994	100,163	93,655	108,346
대 추	5,953	7,578	11,216	7,038	12,560	13,180	13,969
호 두	906	1,023	1,118	1,173	1,514	1,311	1,149
잣	868	715	435	969	1,578	1,084	496
기 타	3,031	2,942	3,038	2,962	3,354	2,840	2,78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96년도 종실류 생산량은 126,741M/T이고 생산액은 3,400억원으로
임업 총생산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5%가 증가
하였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밤 108,346M/T, 대추 13,969M/T, 도토리
1,433M/T, 호두 1,149M/T, 잣 496M/T등이며, 5가지 종실이 전체종실
류 생산의 대부분(98.9%)을 차지하고 있다.

3. 버섯류

주요 임산버섯은 송이, 표고, 느타리, 목이버섯 등으로 '96년도 버섯류의
총 생산액은 853억원이며 임산물생산액의 8.1%를 점유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은 표고(3,404M/T, 631억원), 송이(168M/T, 190억원), 자
연생느타리(617M/T, 20억원)순으로 생산되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연식품 이용이 일반화되어 밤, 잣, 표고,
산나물 등의 국내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최근 값싼 저질품이 중국 등
으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국내산 선호
로 생산증가와 함께 가격도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1-2-2>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단위 : M/T)

	'89	'90	'91	'92	'93	'94	'95	'96
계	2,903	2,997	2,424	3,647	3,231	3,143	4,106	4,325
송 이	954	945	324	773	137	146	654	168
표 고	1,530	1,648	1,761	2,254	2,580	2,694	2,824	3,404
목 이	26	24	21	64	27	28	25	26
느타리	219	87	107	220	168	134	464	617
기 타	174	293	211	336	319	141	139	11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2 절 임산물 수출입 동향

1. 임산물 수출

'96년도 임산물 수출액은 4억 5백만\$로서 '95년보다 20%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석재, 밤, 합판, 송이버섯, 마루판, 섬유판, 제재목, 표고버섯 등이다.

목제품은 시설현대화 등에 따른 생산력 향상으로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송이, 표고는 생산량 감소, 국내소비 증가 등에 기인하여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석재류는 저가 중국산의 일본시장 잠식 및 국내생산 원가의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어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품목별 수출비중은 석재 30%, 밤 28%, 목제품 14%, 합판 13%, 송이 7%, 제재목 3%, 표고 2%, 기타 3% 순이며, 국별 수출비중은 일본 72%, 중국 15%, 네덜란드 3%, 홍콩 2%, 미국 2%, 독일 등 기타 6% 순이다.

<표 1-2-3>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천\$)

	'94	'95	'96
계	511,132	504,554	405,205
목재류	111,988	118,639	121,806
- 합판	38,987	47,699	53,506
- 제재목	18,259	15,836	11,183
- 기타 목제품	54,742	55,104	57,117
석재류	209,330	176,932	122,563
산림부산물	189,814	208,983	160,836
- 밤	140,707	114,768	112,871
- 송이	25,458	64,527	27,563
- 표고	11,612	14,658	9,415
- 기타	12,037	15,030	10,987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4>

임산물 국별 수출실적('96)

(단위 : 천\$)

순위	국 별	계	목재류	석재류	산림부산물
	계	405,205	121,806	122,563	160,836
1	일 본	289,625	25,866	119,769	143,990
2	중 국	60,278	56,071	64	4,143
3	네덜란드	12,900	12,758	-	142
4	홍 콩	8,482	2,482	132	5,868
5	미 국	6,961	3,119	441	3,401
6	독 일	3,304	2,875	37	392
7	러 시 아	2,423	1,867	458	98
8	대 만	2,087	1,131	173	783
9	싱가포르	1,887	570	406	911
10	베 트 남	1,671	1,659	10	2
11	영 국	1,565	1,554	-	11
12	멕시코	1,398	1,391	7	-
13	기 타	12,624	10,463	1,066	1,095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2. 임산물 수입

'96년도 임산물 수입액은 27억 8천8백만\$로서 '95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목, 합판, 제재목 등 목재류, 석재류, 아몬드, 고사리, 표고 등이다.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원목과 합판은 국내경기의 불황으로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국내 인건비등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가공품인 제재목, 성형목재, 단판, 목탄, 나무젓가락 등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석재류는 외제 건축용 석재 수요증가로 인해 수입이 늘었으며, 도토리, 표고버섯 등 산림부산물도 수입이 증가하였다.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목의 경우 수입량은 8,030천m³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라디에타소나무 수입점유율(수량 4,825천m³, 전체 원목수입의 60%)이 확대됨에 따라 뉴질랜드,

칠레산 원목수입은 증가하였다.

국별 점유율은 뉴질랜드 40%, 칠레 18%, 러시아 10%, 미국 10%, 파푸아뉴기니 7%, 말레이시아 6%, 기타 9% 순이다.

산림부산물은 원산지표시 강화 및 조정관세 부과등 수입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토리, 표고버섯, 은행등 중국산 저가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목재류 92%(원목 36%, 합판 19%, 제재목 17%, 기타 20%), 석재류 4%, 부산물 4%이며, 국별 수입비중은 인도네시아 20%, 말레이시아 16%, 미국 14%, 뉴질랜드 12%, 중국 9%, 칠레 8%, 파푸아뉴기니 3%, 기타 18% 순이다.

<표 1-2-5>

임산물 주요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천\$)

	'94	'95	'96
계	2,552,230	2,778,983	2,787,995
목재류	2,407,152	2,596,257	2,554,726
- 원목	1,011,575	1,047,332	961,860
- 제재목	372,835	408,530	464,494
- 단판	55,460	48,893	63,932
- 합판	535,927	593,861	528,867
- 파티클보드	72,267	91,318	76,734
- 섬유판	68,858	39,596	26,226
- 기타 목제품	290,230	366,727	432,613
석재류	58,122	91,226	113,099
산림부산물	86,956	91,500	120,170
- 대나무	691	511	586
- 로진	15,494	21,486	25,161
- 등나무	786	872	500
- 기타	69,985	68,631	93,92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6>

임산물 국별 수입실적('96)

(단위 : 천\$)

국 별	계	목 재 류	석 재 류	산림부산물
계	2,787,995	2,554,726	113,099	120,170
인도네시아	556,417	550,900	227	5,290
말레이시아	442,723	442,581	-	142
미 국	385,084	347,849	7,798	29,437
뉴질랜드	326,760	326,110	-	650
중 국	246,227	144,063	34,118	68,046
칠 레	233,602	233,367	17	38
파푸아뉴기니	88,768	88,768	-	-
러 시 아	75,052	74,182	51	819
일 본	57,334	32,380	23,693	1,261
카 나 다	55,869	55,446	349	74
솔 로 몬	41,532	41,532	-	-
호 주	36,464	34,611	275	1,578
기 타	242,163	182,937	46,571	12,835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2 편 1996 년도 임정의 성과

제 1 장 21세기 임정추진기반 구축

제 1 절 21세기 우리 산림의 비전 정립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의 땀과 정성,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황폐된 산림을 조기에 녹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산림을 경제적·환경적 자원으로 가꾸어야 할 전환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현실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의 산림부국 건설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녹화임정』에서 『기술임정』을 통한 산지의 자원화, 『경영임정』에 의한 임업의 산업화, 『복지임정』을 통한 산림의 공익화를 기조로 산지와 산림, 산주와 산촌, 국민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21세기 우리산림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1. 산지의 자원화 촉진

대대적인 경제림 육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림목과 우량 천연림의 『육림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며 적지적수를 위한 산림지리정보 시스템(GIS)를 구축하고,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하고자 임도시설을 2010년까지 56천km 구축하고 임업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비를 절감하고자 한다. 또한 산지이용체계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생산·공익·준보전임지로 재편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강원도 홍천지역에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선진임업을 선도하고자 한다. 또한, 목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조림지를 2040년까지 70만ha를 확보하고자 한다.

2. 경쟁력있는 임업육성

우리 나라 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사유림

경영활성화가 경쟁력있는 임업육성의 관건이나 1인당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개인 산주는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영목적 임지 매입시 매매증명제를 폐지하고 재정·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소유규모 확대를 유도하며 생산임지에 한하여 기업체의 산림경영 허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강릉임업기계훈련원의 기능을 보강, 장기적인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임업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하며 대리경영을 통한 부재산주 등 방치산림의 경영을 촉진하는 등 사유림경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산물의 가공과 유통구조 개선 및 간벌재 수요 창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산물 집하장, 직매장, 가공공장, 종합유통센터 등을 보다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과 약성을 활용한 새로운 식·약용 제품 및 첨단 생물공학을 이용한 신물질·신소재 개발 등 임산자원을 소재로 한 첨단연구로 세계화 경쟁에 대응하고자 한다.

3. 산림휴양과 산림문화 보급

국민의 야외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등 산림 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의 휴양기회 확대를 위한 국토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 르네상스의 개화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산림문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그린스쿨, 숲과의 만남 등 산림문화 가치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나무·숲과 관련된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정리 보전하고 산림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산촌을 전원휴양기지로 육성하고자 산림자원과 산림휴양을 산촌소득과 연계시키고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의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내무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산림의 환경기능 강화

산림조성을 통한 토사 유입량 감소로 댐·저수지 담수량을 유지하고, 육림기술 개발로 물의 증발산량을 억제하며, 임상구조 개선으로 물저장능력을 증대하여 산림의 함수기능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산림의 수질개선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5대강 유역의 산림 116만ha를 특별 관리하고자 하며, 산림의 대기기능 정화능력을 증진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림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 보호·규제위주의 산림법을 산주의 자율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진흥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제 2 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1. 산림법령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100분의 70이상 편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산림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5228호. 1996. 12. 31)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체조림비면제, 신고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대상 확대,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을 완화하는 등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농림부령 제1248호. 1996. 12. 31)하였다.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및 임야매매 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법률 제5323호. 1997. 4. 10)하였다.

2. 임업진흥촉진법

1960년대 이후의 치산녹화를 중심으로 한 보호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임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임업의 구조개선·임산물소득원 개발 및 임산물유통·가공업의 지원을 통하여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법률 제5325호 1997. 4. 10)하였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특별회계내에 임업진흥사업계정을 신설하여 임업구조 개선, 임산물가공업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의 등기에 있어서 등기소의 관할, 등기부 등·초본발급, 수수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등 임목의 등기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도록 「임목에관한법률」을 개정(법률 제5168호. 1996. 11. 23) 하였다.

제 3 절 산림행정조직 개편

산림행정 조직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인 임업연구원·임목육종연구소·임업연수원·산림항공관리소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5개지방산림관리청을 두고 있으며, 시·도에는 산림과 또는 녹지과(시·군에 산림과 또는 녹지과)를 두고 산림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도에는 산불의 예방·진화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하여 산불예방·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방지 기능과 진화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대폭개편 하였다.(대통령령 제15249호 '96.12.31)

1. 산림청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종합대책과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업정책국의 보호과를 산불통제관(3급), 산림보호담당 및 산불방지도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2. 임업연수원

산불진화 요원의 훈련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업연수원에 산불방지훈련과를 신설하였다.

3. 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기를 권역별로 배치해 산불을 신속히 진화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 소속하에 익산지소 및 양산지소를 각각 신설하고, 산불공중진화요원 인력(5개팀 40명)을 증원하였다.

4. 인력증원

산불방지 관련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78인(3급1, 4급2, 5급10, 6급9, 7급4, 8급1, 기능직51)을 증원하고, 증원한 인원중 산불공중진화요원 등 기능직 23명은 기능직 사무원등 23명을 상계 활용하였다.

제 4 절 행정규제 완화

1. 추진개요

생산확인용 검인찍기 제도 폐지, 임야매매증명제도 폐지,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분수림 설정 가능 등을 포함하는 산림법 개정안을 '96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되었다.

2. 주요 규제완화 내용

첫째, 산림사고 발생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 한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책임하에 처리토록 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즉보체계를 산불발생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지원요청을 위해서 현행 15분 이내 보고토록 되어있던 것을 신고 또는 보고접수 즉시 보고토록 하였다.

셋째, 산불발생시 보고채널을 시·군 산불대책본부 상황실 → 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로 일원화하고 내무부 등 중앙부처는 필요시 산림청에 자료 요구·활용토록하여 일선업무 부담경감 및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넷째, 기업의 공장용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편입되는 산림의 전용시에 부과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였으며,

다섯째, 택지개발사업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중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100분의 70이상 편입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우량농지보전 및 산지이용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을 뒷받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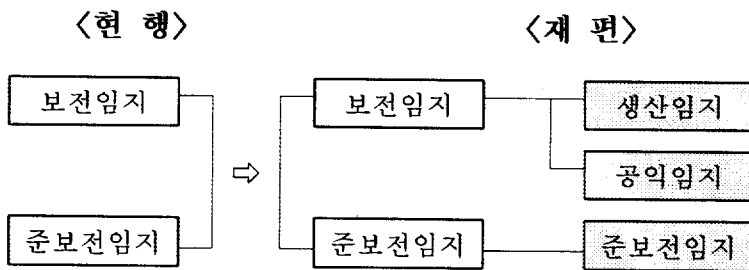
제 2 장 경쟁력있는 임업 육성

제 1 절 산지이용체계 재편 마무리

1. 산지이용체계 재편 내용

1980년대 초반 도입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산지이용 구분체계는 경사도 등에 의하여 단순 구분된 것으로서 그동안 변화된 산지이용 수요와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체계와 서로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는 산림에 대한 수요가 복잡다양해져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림을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재편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종전과 같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구분체계는 유지하되 보전임지를 다시 임업생산 목적으로 활용할 생산임지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목적으로 이용할 공익임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2. 추진경위

산지이용체계 재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 산림법을, 6개월후인 1995년 6월 23일 산림법시행령을 각각 개정·공포 하였다.

개정된 산림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임지별 구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지방공청회 8회, 관계부처협의회 5회 등을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임지별 세부구분기준을 확정하였다.

1996년에는 임지별 세부 구분기준에 따라 시·도 및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산림이용 구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목적에 맞는 산지이용 구분을 위하여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10년동안의 산지이용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산림이용기본도(안)를 작성하고 시·도, 지방산림관리청별로 현지부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과정을 거쳤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14일 산림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임지를 지정·고시하였으며 고시된 도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지별로 보전임지 지정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20일이상 일반에게 공고하였으며, 이 기간중 산주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반영하였다.

3. 산지이용체계 재편 결과

새로운 구분기준에 따라 전국 산림을 새로이 구분한 결과 보전임지는 종전보다 93천ha가 증가한 4,977천ha이었으며, 이중 생산임지가 3,548천ha, 공익임지는 1,429천ha이었으며 준보전임지는 1,475천ha이었다.

<표 2-2-1>

산지이용체계 재편결과

(단위 : 천ha)

구분	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계	생산	공익	
현행	6,452(100)	4,884(75)			1,568(25)
재편	6,452(100)	4,977(77)	3,548(55)	1,429(22)	1,475(23)
증△감		93(2)			△93(△2)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보전임지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종전 준보전임지로 구분하였던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등을 보전임지중 공익임지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며, 이것들은 종전에도 개발이 제한되었던 지역이었으므로 산지이용체계 재편에 따라 실제 개발가능한 준보전임지는 증가하였다.

실질적으로 개발가능한 준보전임지가 증가한 것은 종전 불합리하게 보전임지로 구분되어 있던 지역을 시장·군수 등이 준보전임지로 조정요청한 지역을 용도 조정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10년간의 개발수요를 심사하여 준보전임지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4. 기대효과

산지이용체계 재편으로 종전에는 단순히 경사도 등에 의하여 구분되었던 산지이용체계를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합리적인 산지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임지별 구분내용에 맞는 산지관리를 위하여 생산임지는 정부보조,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집중함으로써 2000년대 임업진흥 기지화하고 공익임지는 정부주도로 관리하여 나감으로써 국민보건 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의 이용구분에 맞는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보전임지는 공공목적 이외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지의 임업이외 타용도 전용은 준보전임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지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 환경의 보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산림자원 조성

1. 조 립

'96년도는 조림·육림사업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과 산불피해 최소화

로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목재 자급기반 확충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성에 중점을 두고 산불·병해충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과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조림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재자급기반을 조성하고,
 5대강유역에 대한 수자원 함양림과 도시·공단주변 등에 대한 환경조
 림의 확대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환경 조성
 에 기여하는 한편 조림수종을 다양화하고 조림기준본수를 경영목적,
 임지여건 등에 따라 조정 식재토록 하여 산림을 탄력적, 능률적으로 경
 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주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였다.



〈 생명의 나무심기 캠페인 〉

'96년 4월 23일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지 3,762ha에 대한 복구계획(인
 공복구 2,942ha, 자연복구 820ha)을 수립하고 '97년도 복구조림을 위한
 피해목벌채와 송이산 복원용 용기묘 생산을 위한 온실을 건축(2동)하
 여 육묘준비를 완료하였다.

<표 2-2-2>

'96 조 립 실 적

(단위 : ha, 천본)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면 적	본 수	면 적	본 수	
계	20,950	58,661	23,247	62,860	111
장 기 수	18,260	54,776	18,613	55,891	102
대 묘 조 립	500	750	589	878	118
환 경 조 립	1,500	2,250	2,573	4,973	172
맹 아 갱 신	390	585	290	435	74
슈은나무재조립	300	300	306	311	102
유 실 수	-	-	876	372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육 립

육림작업은 임목의 성장을 촉진시킴은 물론 양질의 대경목재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1, 2차 치산녹화 및 산지자원화기간(3차) 동안 심어 놓은 많은 나무들이 한창 자라는 단계로 임목간에 경쟁이 치열하므로 적기에 간벌등 육림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성장 둔화와 불량림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임목의 생육단계에 따라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작업 등을 지역완결원칙에 따라 대상지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기 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육림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표 2-2-3>

'96 육림실적

(단위 : ha)

사업별	계획	실적	비율
계	233,861	237,872	102%
보 식	377	378	100
덩 굴 제 거	45,072	46,939	104
플 베 기	92,321	90,213	98
어린나무가꾸기	44,892	44,752	100
천 연 립 보 육	19,929	21,366	107
간 별	31,270	34,224	109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종 요

종묘사업은 임업의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조림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WTO체제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라 급변하는 세계질서속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자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종자산업법을 제정 공포하여 1997년 12월 31부터 시행코자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96년 주요 추진실적은 첫째, 우량종자 공급원 기반 확충으로 유전적으로 형질이 우량한 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잣나무등 20개수종 728ha의 채종원 조성지를 집중 관리하였다. 초기에는 침엽수 일변도로 조성하였으나 최근 환경, 경관, 생태임업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필요성의 대두로 유용활엽수의 채종원 조성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양묘용 종자는 채종원산 종자로 전량 수급하여야 할 것이나 일시에 대면적의 채종원을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종원산 종자로 양묘용 종자를 전량 수급시까지 잠정적으로 형질이 우량한 모수집단(母樹集團)을 채종림으로 관리(1,351ha)하고 채종림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양묘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잣나무등 45수종에서 77,173kg(채종원 2,008, 채종림등 75,165)의 종자를 채취하였다. 한편, 낙엽송·해송·편

백·삼나무 등 종자결실이 불량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한 128ha의 채종림을 지정해제하고 60.8ha의 전나무 채종림을 신규 지정하였다.

둘째, '97년 조림 21,475ha에 소요되는 '96년산 묘목 58,472천본(국유림용 8,198천본, 민유림용 48,496천본, 사방용 1,778천본)을 생산 공급하여 성공적인 조림사업 수행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묘포작업의 기계화로 시업의 생력화를 기하는 한편, 풋트묘 등 양묘방법 개선을 위해 광릉 중부임업시험장내에 온실 2개동, 1,320㎡(1개동 660㎡)를 시설하여 양묘사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유림에서는 임간 묘포지 1개소를 '96년도에 조성해 묘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OECD 규정에 따른 종자생산지 표시등 품질보증표에 색깔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과 불량 종자 유통 통제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제 3 절 임업경영기반 확충

1. 임업전문인력 확보

가.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육성

비교적 대면적의 사유림을 소유하면서 산림경영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하여 독립가로 인정하고, 10ha내외의 산림을 소유하고 농산촌에 정착하여 산림을 경영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 육성함으로써 이들이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또한 지역내 산림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배려를 집중하고 있다.

'96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독립가는 335명, 임업후계자는 337명으로, 독립가는 고령화, 상속 등에 의해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임업후계자는 '95년 8월 산림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96년도에는 75명의 임업후계자를 새로 인정하였다.

인정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는 정부에서 영림계획에 의한 자율시업을 최대한 인정, 조림·육림등 국고보조 사업량 우선배정, 의무조림비 예치 면제, 별채 시업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의 행정,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개발기금중 독립가 육성자금 15억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금 15억원을 장기저리(5년거치 10년상환, 연 3%)로 융자 지원하는 한편, 각종 임업기술정보 제공, 우수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국내외 선진임업연수 기회부여 등을 통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표 2-2-4>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96년말 현재)

구 분		선 발 요 건	선발권자
독립가	법인	소유산림 500ha 또는 조림실적300ha이상	산림청장
	모범	" 300ha 또는 " 100ha이상	산림청장
	우수	" 100ha 또는 용재림 50ha 또는 유실수 20ha	시·도지사
	자영	" 50ha 또는 용재림 20ha 또는 유실수 10ha	시장·군수
임업후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가의 자녀 -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 - 10ha이상의 국·공유림 분수·대부자 - 고교이상 임업분야 학과 졸업자로서 5ha이상 산림소유자 - 전문대이상 임업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임업경영자 또는 경영희망자 - 3ha이상 산림소유자로서 산림종묘, 분재 소재, 버섯, 야생화등 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희망자 	시장·군수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2-2-5>

연도별, 시·도별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	합계	독 립 가					임 업 후계자
			계	모범	법인	우수	자영	
연도별	1990	582	443	67	11	166	199	139
	1993	587	374	62	12	133	167	213
	1994	610	371	63	12	130	166	239
	1995	602	336	56	13	115	152	266
	1996	672	335	57	14	113	151	337
시·도별	부산	2	2	-	-	1	1	-
	대구	2	2	-	-	1	1	-
	대전	2	2	-	-	1	1	-
	경기	54	29	7	1	14	7	25
	강원	117	65	16	1	28	20	52
	충북	62	32	4	3	13	12	30
	충남	61	19	2	-	7	10	42
	전북	69	35	3	2	10	20	34
	전남	106	47	13	1	14	19	59
	경북	70	37	5	4	8	20	33
	경남	126	65	7	2	16	40	61
제주	1	-	-	-	-	-	1	

자료: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영림단·기능인 양성

임업기능인 영림단은 '95년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능인의 취업 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능인영림단을 '96년까지 299단, 3,515명이 조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에 따라 2010

년까지 12,000명(1,000단)을 확보하여 전체 산림사업의 90%선까지 영림단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후생복지 대책의 강구로 영림단이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 임도시설의 확대·내실화

가. 현 황

임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산림내에 시설하는 도로로서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 운반뿐만 아니라 조림, 육림, 임목생산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오지 산림의 개발과 미이용 자원의 활용도 제고등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교통수단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공도이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 국유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민유임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1996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시설 거리는 10,853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1.7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나. '96 계획 대 실적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96년도에는 총 사업비 105,645백만원을 투자하여 1,698km를 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6>

'96 임도시설 실적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1,698	105,645	1,717	105,410	
국 유 임 도	320	27,000	325	26,526	
민유임도(보조)	1,200	68,493	1,171	68,066	
민유임도(용자)	178	10,152	207	9,983	
민유임도(순지방비)	-	-	14	835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임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계획에 따라 효용도가 높은 간선임도망을 구축코자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 및 지역개발촉진 등 다목적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간선임도를 시설하고 있다.

또한, 견고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설계, 시공 등에 필요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양성 배치토록 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토목사업소를 조직 운영하여 임도시설을 전담케 하는 등 임도시공기술 축적에 노력한 결과 시공기술이 향상되고 설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 문제점 및 대책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유임도 시설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으나, 산주 자부담 10%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영세 산주들은 부담이 과중하여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60%가 넘는 부채 산주들을 일일이 찾아 협의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개노선상에는 2km기준 평균 10~13명의 산주가 있어 의견의 일치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계획 노선에 따라 시설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부산, 대구, 대전, 경남, 제주도에서는 산주 자부담 1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계획성 있는 임도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견고한 임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나, '97년 예산에 반영된 임도시설 km당 단비는 민유임도 63백만원으로 매우 빈약하여 절·성토면의 고정시설이나 피복이 어렵고 각종 공작물을 적지적소에 구축할 수 없어 여름철 폭우시에는 피해의 예방에 그 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려면 km당 시설비가 최소한 8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겠다.

<표 2-2-7>

연도별 임도시설 추진실적

(단위 : km)

구 분	'68~ '90	'91	'92	'93	'94	'95	'96	누 계
계	650	1,047	1,214	1,163	1,109	2,022	1,717	10,853
국유임도	203	484	497	443	388	380	325	3,344
민유임도	447	563	717	720	721	1,642	1,392	7,509
누 계	2,581	3,628	4,842	6,005	7,114	9,136	10,853	10,853
ha당(m)	0.40	0.56	0.75	0.93	1.10	1.40	1.68	1.68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은 장기적 투자사업으로 자금회임기간(50~100년)이 길고 산주의 산림소유 규모가 영세하여 경영참여가 저조하며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농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임업노동력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임업기계·장비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우리여건에 맞는 한국형 임업기계 개발을 추진하는 등 10년간 108,854대, 157,740백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추진하여 '96년까지 기계톱, 예불기 등 25,145대를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2-8>

임업기계 · 장비보급 실적('96)

(단위 :대)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업협동조합
25,145	1,986	11,185	11,974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 '96 임업기계화 시범 및 영림단 경영대회 >

4. 임산물 유통 · 이용 · 가공

가. 임산물 유통시설 확충

산지자원화 시기('88~'97)에 조림한 임목이 간벌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국내 목재생산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밤, 버섯, 잣, 산채등 단

기소득 임산물 또한 국민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무공해 자연 식품 선호경향으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대부분이 다수의 영세생산자에 의한 부업적 소량·분산생산으로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국내 임산물유통시장의 대부분이 중간상인이 지배하고 있는 등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이 높아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낮은 반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수입임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불리해지고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임산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임산물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유통기반시설의 설치를 생산자 단체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조직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96년도에 설치한 임산물 유통시설은 밤, 잣, 버섯 등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 중심으로 생산, 수집, 판매, 알선 등이 용이한 양주, 삼척, 인제, 청원, 아산, 부여, 김제, 영광, 보성, 안동, 영양 등 11개지역에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국내산 소경 간벌재 생산·유통량이 많은 산청에 목재집하장 1개소, 무주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 등 총 13개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설치하여 품질이 우수한 국산 임산물의 안정공급과 생산자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UR파고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 축적과 유통시설의 체인화 실현,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으로 유통시설지의 대부분이 매출액 증가, 경영수지개선 등 점진적인 운영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산물 유통시설의 확대설치 및 운영개선에 따른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이 우량한 국산임산물의 적기 공급등 국내산 임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국내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9>

임산물 유통시설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계	'85~'90	'91	'92	'93	'94	'95	'96
계	76	12	8	9	11	11	12	13
임산물 직매장	55	서울,전주,대전,창원,춘천,진주	광주,영동,부안,강진,창녕	수원,횡성,옥천,서산,곡성,예천	대구,보은,옥구,예산,여천,신안,진도,통영	청주,양양,진천,이익,구례,해남,경주	부산,홍천,원주,음성,연기,남원,영암,나주,봉화,성주,남제주	양주,삼척,인제,청원,아산,부여,김제,영광,보성,안동,영양,
목재 집하장	12	가평,문경,평창,제천,문경	화성	양평,울진	청원	금산	임실	산청
임산물 가공공장	5	아산	가평	담양	순창	강화	-	
임산물 저장시설	4	-	-	-	예천	청양,태안	-	무주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나. 임산물 가공·이용

산림자원 보유국의 목재공업화 정책추진과 최근의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벌채 및 수출규제 강화와 국제 원목가격의 상승으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목재수요의 96%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목재 가공산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목재가공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책으로 '96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시설현대화자금 86억원, 원자재구입자금 61억원을 융자지원하였고, 현재 활엽수 위주의 합판생산 가공시설을 침엽수합판 생산시설 교체 및 보드류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7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목재수급의 안정과 가구분야등의 사용원자재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표 2-2-10>

임산물 가공·이용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 년)

	지원사업명	지원액	융자조건등		
			금리	기간	융자기관
계		21,975			
농특회계	·가공이용시설 지원	7,936	5~8	10(3)	임업협동조합
	·가공원자재 구입	6,110	5.5	5(3)	"
	·산지가공공장 설치	700	5.0	10(3)	"
재특회계	·합판 및 보드류시설 지원	7,229	7.0	10(3)	한국산업은행

주 : ()내 숫자는 거치기간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4 절 임업기술 개발

OECD가입 및 WTO체제 등 새로운 세계 질서하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현장화 및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산림환경, 임산공학, 산림생물, 산림경영, 생산기술, 개량종자생산 및 신제품개발, 생물공학응용 신물질개발 등의 분야별로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1. 산림환경 분야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면서 「산림원칙 성명」 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청되었다. 또한, 지난해 고성 산불이 발생되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산불이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관하여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 및 산불발생 경보, 진화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를 중점 추진하였다.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조사는 계방산, 광릉시험림 등에 영구조사지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였다. 도시권역 산림생태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리단위(정밀식생도)별 생물환경, 자연경관 인자 등에 근거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를 위해 대기중 SO₂ 농도, 강우산도(PH)에 의한 기초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였고 도시, 공단, 해안, 산악지역별 식생변화를 조사하였다.

산불위험 예보 및 진화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습도측정봉을 제작 배부한 후 100개소의 측정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산불위험예보제를 개선하였다. 산불진화 모델개발을 위하여 연소지역의 지형도, 경사도, 등고선도, 임상도, 방위도별 입체모델을 구축한 결과 단순사면형, 능선사면형, 구릉형, 요철사면형, 골짜기막장형, 비화발생형 등 산불의 연소형태를 규명하였다.

2. 임산공학 분야

간벌재 등 소경재 활용 증대와 목재로부터 다양한 유용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 추진하였다. 먼저 국산재 신수요 개발을 위해 핑거조인트에 의한 구조용 집성재의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목구조 접합부의 개량기술을 연구하여 경골 목조주택 건축기술을 개발하였다.

날로 증가하는 환경오염을 임업부문에서 줄이기 위한 연구로 폐목질 자원, 산림미생물을 이용한 환경정화기술을 개발하여 목재부후 발현기구를 이용한 중금속 해독균주 개발 및 산림부식질의 난분해성 물질흡착반응기구를 해명하였다. 또한 FRI 20621에 의한 폐수중 크롬제거 시스템 및 수피에 의한 중금속 제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첨단연구로서 액화목재의 기능소재를 개발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가정용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이용한 목질정화조를 개발하였는데, 처리용량은 700g/일, 20일간 연속처리가 가능하였다.

국민건강 증진과 술잎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류 잎으로부터

생리활성기능 구명 및 유효성분 분석을 통해 솔잎발효차를 제조하였고 저장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침엽수 정유로부터 방향제 이용기술을 연구하여 공기청향제 제조 및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3. 산림생물 분야

산림내 야생조수 및 다양한 생물자원 조사·보존연구를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주요철새의 이동경로 및 한강, 낙동강등 주요 도래지(9개소)를 조사하였고, 중국의 조류생태 관련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해 한·중 공동연구로 양국간을 이동하는 두루미등 327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솔잎혹파리 및 천적우화 상황을 조사한 결과 수간주사 적기는 6월 4일에서 6월 30일, 천적방사 적기는 6월 4일에서 6.20일로 구명되었고, 솔껍질각지벌레 발생선단지는 서해안에서는 둔화되었고, 남해안에서는 14km씩 확산되고 있었다.

그밖에 수렵조수 서식환경의 모델화연구 및 솔잎혹파리 종합방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자동 수간주사기를 개발, 산지적용시험 결과 방제효과는 5.3%~14% 증가되었고 작업인력은 ha당 3인에서 2인으로 방제작업 생력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주의 소득향상을 위해 천마재배용 균주 및 원목수종을 선발하여 농가실연재배를 하였고, 표고 경영단위 실연재배 연구를 통해 표고 우수 경영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기존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재배방법을 기계화하여 표고톱밥재배용 및 배지입봉지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4. 산림경영 분야

WTO등 세계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함과 아울러 국내 산림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추진 하였다. 임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통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표고버섯, 잣 등의 피해액을 산출하였고 유통구조 및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목재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원목, 제재목, 보드류 등 국내주요 임산물의 시장분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계열분석 및 임산물 시장구조를 조사·연구하였다.

또한, 장차 GR을 대비하여 우리 임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림 환경기능의 내부화 연구 및 Green GNP대비 산림 자원계정을 체계화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을 위하여 목재인증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21세기 산림정책 비전제시를 위하여 산림자원 조사 및 변화전망에 대한 장기예측체계 구축모델을 개발하여 2040년까지의 목재생산량, 축적, 벌채가능량 등을 조사하였다.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자 현재의 임업경영 실태 조사를 통해, 주업적 경영규모 산출 및 지역임업 추진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함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자원을 원격탐사에 의해 측정하는 기법을 연구하여, 한반도의 산림자원량 및 토지이용형태, 임상분류 등을 조사하였다.

5. 생산기술 분야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양묘, 조림, 육림, 임도, 기계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느릅나무 등 주요 산림유용 수종 124종에 대한 종자 표준품질표를 작성하여 임목종자 품질표준화에 기여하였고 스트로브잣나무 등 64종에 대한 양묘시업기준을 확립하였다.

묘목의 대량생산과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양묘를 이용한 묘목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생육단계별 적정단위 환경을 구명하였고 임목종자품질 향상기법도 개발하였다.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을 위해 생태적 갱신·육림시업법을 개발하여 임산 유형별 적정시업 및 경영모델 개발을 위한 지역별 실연사업지를 조성하였다.

임업기계화 추진을 위한 벌채·집재등 산림수확작업 기계화를 위한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임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임도 도로망 계획과 활용도 연구를 통해 농산촌 도로망과 연계하는 지역임도망 계획방법과 설치 위치에 따른 임도의 활용범위를 조사하였다.

6.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개량종자 생산

산지자원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잣나무, 낙엽송등 주요 경제수종 20수종을 대상으로 채종원 728ha를 조성하여 '96년까지 총 28천kg의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62천ha를 조립하게 되었다. '96년도에는 5천ha를 조립할 수 있는 약 2,000kg의 종자를 생산하였다.

채종원이 조성되지 않은 고급 용재수종의 종자공급을 위하여 피나무 등 14수종에 대해서 우량형질 임분 1,352ha를 채종림으로 확대 선정 관리하고 있다.

<표 2-2-11>

채종원 조성면적 및 종자 생산량

수	종	채종원 면적 (ha)	'96종자 생산량(kg)
계		728	1,988
소	나	109	223
해		22	132
리	기 다 소 나	50	67
리	기 테 다 소 나	82	221
낙	엽	270	15
잣	나	91	1,290
삼	나	30	24
편		40	16
전	나	10	-
기	타	24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7. 단기소득원인 유실수 신품종 개발

수익성이 높은 유실수 신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우량 품종간 인공교배 및 차대검정 시험을 실시하여 재래종보다 감미가 높고 내피 박피가 용이한 밤나무 교잡종 동농2호×함종 등 4품종 및 내한성이 강하고 대립 다수성인 호도나무 교잡종 레이크×상촌4호 등 3품종을 개발 육성중에 있다. 그 밖에도 대립 다

수성인 은행, 산사, 다래나무 우량품종 및 천연 도료로서 이용가치가 높은 옷나무, 황칠나무의 우량품종을 육성중에 있다. '98년 이후부터 접수 공급용 채수포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산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8. 생물공학 응용 신물질 개발

천연 항암제인 택솔은 2000년대 60억불의 수요가 예상되지만 공급량의 절대부족과 공급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특허를 취득('95.8.28. 특허 88413호)하였다.

이 국유특허는 공매('96.6)에 의해 (주)보락에 낙찰되었고 3년간의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산업화 관련 기술을 이전중이다.

산업화 연구과정에서 소규모 공장 규모인 500리터급 식물세포 대량 배양용 탱크를 자체 제작하여 택솔 생산세포를 대량 배양중에 있다. 이 배양 탱크는 세포배양 뿐만 아니라 기타 이용방안을 모색하던중 대학, 국가연구소, 기업 등의 공동연구 제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백합, 씨감자 등 농업용 종묘생산에도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기술이 확립되면 항암제 택솔을 비롯한 유용물질을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의 방법보다 우수한 농업용 우량종묘의 대량생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절 국유림경영 개선

1. 국유림 책임경영제 실시

국유림 경영을 기능(조림·육림) 중심의 관리소 사업조직에서 지역 담당자 중심의 현장 책임경영 “팀”제로 전환하여 경영방법을 혁신하고, 임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118개팀 361명의 국유림

경영팀을 구성하여 책임경영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팀의 사기양양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특별교육·훈련(770명), 책임경영제 Workshop(4회), 국유림경영팀 운영평가대회 및 우수경영팀 해외연수(일본 19명) 등을 실시하고 책임경영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산림관리청에 사업계획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6급이하 임용권 등을 위임하였다.

2.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

가. 사업목적

21세기 한국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녹화 규제위주의 산림관리 시책에서 경영임정의 시대를 여는 전환기로서 미래의 다양한 산림기능을 제시하며 주변 농산촌지역 여건에 맞게 농림복합소득원을 연계 개발하여 풍요로운 산림지역 경제권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 사업내용

강원 홍천군 내면·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일원 국유림 24,480ha를 대상으로 10년간('96~2005) 1,16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시험연구동(5,280㎡), 일반관리사(561㎡), 청소년수련원, 산림박물관, 산림욕장 등이 있으며, 간선도로망(508km), 임목육종시험지, 조림무육시험지 등도 시설한다.

다. 추진실적

'93년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95년도에 환경부와 사업환경타당성 검토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반조성사업으로 간선도로 실시설계 53km를 완료하였으며, '96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간선도로를 7km를 개설하였다.

3. 국유림 확대 및 관리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대부분 주요산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용

재생산은 물론 수원함양, 국토보존, 대기정화 및 국민휴양공간제공, 맑은물, 깨끗한 공기등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2%에 해당하는 1,411천ha로서 일본의 31%, 독일 40%, 미국 50%등 임업선진국의 국유림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제적인 환경보존운동이나 산림자원의 증축, 날로 증가되고있는 산림환경기능 제고, 산림문화 창달등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국유경영림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유림률을 30%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난 '88년부터 확대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국유림의 확대는 기존국유림에 개재되었거나 인접되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지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상호교환하는 한편, 일본인 명의재산이나 소유자 미복구 재산등 무주부동산을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확대소요재원은 대도시의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등을 연차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충당하고 있다.

'96년도에는 20,788ha의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산림경영적지 사유림 매수 5,749ha, 국유림과 사유림과의 교환취득 102ha, 무주부동산 국유화 13,517ha등 총 19,368ha의 국유림을 확대하였다.

<표 2-2-12>

연도별 국유림 확대실적

(단위 : ha)

구 분	계	'92	'93	'94	'95	'96
합 계	47,961	6,045	2,356	8,229	11,963	19,368
사유림매수	18,321	4,455	1,221	1,513	5,383	5,749
교환 취득	3,664	955	211	2,219	177	102
무주재산 국유화	25,976	635	924	4,497	6,403	13,517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제 6 절 해외 산림개발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목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산림의 대부분이 30년생(89%) 이하로 국내 목재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목재수요의 대부분을 외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자원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확산과 자국의 목재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원목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리우환경회의 이후 범세계적인 환경보존 운동의 대두로 벌채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는 국내 목재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1996년말 현재 해외 산림개발 진출현황을 보면 31개업체(44개현지법인)가 17개국에 진출하여 있으며, 진출지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 PNG, 솔로몬, 피지, 호주, 뉴질랜드 등 대양주 5개국과 칠레, 미국, 러시아, 가이아나, 중국, 니카라과 등이다. 진출형태는 임지개발, 합판, 단판, 성형목재, 칩, 해외조립 등이다.

<표 2-2-13>

업종별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현황('96)

임지개발	합 판	단 판	제재목	성형목재	칩	해외조립지확보
천ha	천m ³ /년	천m ³ /년	천m ³ /년	천m ³ /년	천m ³ /년	천ha
4,951	603	85	592	108	57.9	25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해외자원 개발을 개발목 도입실적에 따라 국별로 보면 1969년이후 1996년까지 인도네시아가 5,142천m³으로 전체 물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진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임지개발에 집중된 결과이고, 최근은 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2-14>

국별 개발목 도입실적

(단위 : 천m³)

	계	인도네 시 아	말레이 지 아	PNG	솔로몬	미국	러시아	가이아나	칠레	중국	기타
'69~'96	8,661	5,142	446	831	681	748	513	73	69	72	86
누 계	(100%)	(59)	(5)	(10)	(8)	(9)	(6)	(1)	(-)	(1)	(1)
'96	315	18	37	53	34	22	11	15	33	72	20
	(100%)	(6)	(12)	(17)	(11)	(7)	(3)	(5)	(10)	(23)	(6)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96년도 해외산림개발 성과는 1,372천m³을 생산하여 315천m³을 국내에 도입하여 생산대비 18.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2-2-15>

품목별 개발목 생산 및 국내도입실적('96)

구 분	계	원 목	합 판	제재목	단 판	성형목재	칩
생산(천m ³)	1,372.4 (1,811.8)	734.5 (734.5)	471.2 (834)	69.3 (102.4)	24 (34)	21.2 (31.2)	52.2 (75.7)
국 내							
수 량 (천m ³)	248.3 (315)	117 (117)	21.2 (38)	18.4 (27)	23 (32)	19.4 (29)	49.3 (72)
도							
금 액 (천\$)	65,495	25,792	7,545	11,274	5,038	10,356	4,825
입							
생산대비 (%)	18.1	15.9	4.5	26.6	95.8	91.5	94.4

주 : ()은 원목으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품목별 동향을 보면 '96년 원목생산은 선경이 진출한 가이아나와 러시아의 현대자원개발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생산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년대비 49% 증가 생산되었는데 코데코가 이리안자야 산림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기 때문이다.

'96년 합판생산은 인도네시아(코데코, 인니동화, 립바선경)에서 전년대비 12% 증가 생산되었으나 수출가격이 좋은 일본으로 생산량의 56%를 수출하여 국내도입이 저조하였으며, '96년 제재목 생산은 미국에 진출한 영창약기가 생산 및 도입이 저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업체가 생산한 제재목 수출도 고율의 수출세 부담으로 전량 내수용으로 공급되었다.

<표 2-2-16>

전년대비 주요품목 생산 및 도입실적

(단위 : 천m³)

	생 산			도 입		
	'95	'96	비 고	'95	'96	비 고
원 목	825.8	734.5	△11%	211.8	117.0	△45%
합 판	433.0	471.2	증 9%	43.9	21.2	△52%
제 재 목	97.0	69.3	△29%	35.1	13.8	△6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한편 '96년 해외조림은 한국남방개발(주)가 신규로 진출하여 5개업체가 6개국에 7,454ha를 조림하였다. 그리고 해외조림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30억원을 산림개발기금에서 용자지원하였다.

<표 2-2-17>

연도별 해외조림 실적

(단위 : ha)

	'93	'94	'95	'96
장기계획	1,000	3,000	5,000	5,000
실 적	508	1,498	3,591	7,454
비 율(%)	50.8	49.9	71.8	149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2-2-18>

연도별 해외조립 용자금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93	'94	'95	'96
신 청 액	344	1,208	2,192	7,405
지 원 액	178	828	1,000	3,014
비 율(%)	51.7	68.5	45.6	40.7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3 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 1 절 환경임업 육성

1. 산림의 녹색댐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물수요량은 연간 286억톤('92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물공급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산림은 물저장·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 거대한 녹색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울창한 산림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깨끗하여 식수로 가능하고, 산림의 연간 강수 저장능력은 9개 다목적댐 최대 저수량의 1.4배에 해당되는 180억톤이며 산림을 잘 관리할 경우 저수능력을 19%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제고를 위하여 수질개선 및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5대강유역 주변 산림 1,159천ha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취수장 상류지역산림 330천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 지역에는 수질정화기능이 높은 수종 식재, 복층림 조성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시업을 하였다.

또한, 수원함양에 따른 수자원 보전으로 주요산업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한·수해 예방을 위하여 157천ha의 수원함양보안림을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다.

<표 2-3-1>

5대강유역 조림실적('96)

(단위 : ha)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기 타
13,761	6,038	2,750	1,408	832	1,036	1,697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환경림 · 공해방지림 조성

우리나라 산림은 치산녹화기를 거쳐 자원조성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산림의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활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환경림 조성계획을 수립, 대도시와 공단주변에는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 해송, 산벚나무, 버즘나무 등을, 주요도로 · 철도 · 관광지 · 사적지 · 마을주변 등 경관조성대상지에는 은행나무 · 느티나무 · 복자기나무등 조경수 위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공해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기여 하였다.

특히,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한 도시 · 공단 등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운동을 통하여 많은 시민과 주민이 나무의 고마움을 느끼고 푸른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조림에 솔선참여하도록 권장하였다.

<표 2-3-2>

환경조림실적('96)

(면적: ha, 본수: 천본)

	개소수	면적	본수	비고
계	5,399	2,573	4,973	
도시지역	5,130	2,150	4,210	
공단지역	269	423	763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산림환경 보전운동 전개

가. 녹색수업

우리 주위는 푸른 숲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숲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황금만능사상과 개인주의는 어린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변질시켜 왔으며,

옛날 조상대대로 부터 전해오는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전통적 가치관에 혼동을 가져옴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에 빠지게 하여 각종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린시절부터 대자연의 근원인 푸른 숲속에서 마음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체험교육을 통한 정서의 순화와 호연지기 그리고 자연과 국토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하여 녹색수업(Green School)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업과정은 청소년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연관찰, 모의실험교육, 숲과 우리생활과의 관계, 소양교육, 체험을 통한 자기 완성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주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이며 '95년에는 3,100명, '96년에는 4,500명을 실시하였고 서울·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나. 푸른 산 사랑 운동

'91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여 온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하여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지청결 대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각계 각층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월 첫째 토요일을 『푸른산 사랑 운동의 날』로 지정하고, '96년에는 시·도·지방산림관리청 주관으로 민간환경단체등과 협조, 전국에서 9,049회에 걸쳐 959천명이 참여하여 국민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9,740톤의 산림내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산림내 무질서한 취사관행과 오염행위의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단취사행위자등 2,150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02,280천원을 부과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환경조성과 산지오염의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푸른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취사관행이 이루어지는 행락위주에서 심신단련을 위한 산행으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실시함은 물론 산지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산림휴양시설 확대

1. 자연휴양림 조성

급증하고 있는 보건휴양 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아울러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도록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다수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자연생태계와 경관보존을 원칙으로 국·공유림에 우선 조성하고 사유림에도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의 조성적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96. 12월 현재 국유림에 65개소, 공유림에 49개소, 사유림에 45개소 총 159개소 165천ha의 산림이 자연휴양림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그동안 조성실적은 '88~'96년까지 6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7년에는 6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 방태산 자연휴양림 개장 〉

휴양림의 기본시설은 진입로·오솔길·야영장·벤취·광장·급수대·숲속의집·어린이놀이터·오물처리장·화장실·숲속교실 등이 있으

며 특수시설로서는 임산물판매장·낚시터·식물원·수렵장·동물원·산지과수원·조수사육장 등의 시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성사업비는 국유림은 전액 국고로, 공유림은 국고 70%, 지방비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는 휴양림 조성비 일부를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하고 있다.

<표 2-3-3>

자연휴양림 조성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계	'88~'96	'97	'98~2004
100	61	6	33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2. 수목원 조성과 산림박물관 건립

수목원과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산림과 인간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산림내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지역별 향토수종을 일정 지역에서 관리·보전과 아울러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 대국민 계도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87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광릉에 있는 임업연구원 중부임업 시험장 시험림내에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박물관을 건립하였다.

이 수목원 규모는 약 500ha로서 난대식물원을 비롯한 수종별 특성에 따라 15개 수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재수종은 약 2,8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산림박물관은 각종 산림사료와 동·식물 표본, 자연학습장으로 뿐만 아니라 휴양공간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88년부터 이 같은 수목원을 각 도별로 1개소씩 확대 조성할 목표 아래 우선 1단계사업으로 '89년에 시작한 제주 한라수목원은 '94년에 완공하였으며, 강원 춘천, 충북 청원, 경북 포항, 경남 진양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

'90년부터 충남 공주에 건립하고 있던 산림박물관은 '94년에 완공하

였으나 내부전시물과 영상시설을 위하여 개관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 한편 '94년부터 경남 진양박물관을, '97년부터 전북 순창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는 '98년부터 건립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제 3 절 산촌 종합개발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특색있고 살기 좋은 임업촌락을 조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산촌” 구현을 목적으로 '95년부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150개 마을을 개발할 목표로 '96년말 현재 4개마을을 조성하였으며 5개마을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다.

그 중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마을은 농산어촌 현대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농림부,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집중 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나머지 3개 마을도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자체의 개발의욕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였다.

사전 설계 5개 마을에 대하여도 소득증대를 도모 할수 있는 자연휴양림 입구마을 등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WTO 출범과 더불어 농산어촌지역이 더욱 어렵게 되고 특히 산촌지역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 졌으나, 산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산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1, 2, 3차 산업이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투자되는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사업개발로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표 2-3-4>

산촌개발 마을현황('96)

계	조 성	설 계
9개마을	4개 마을	5개 마을
	시범 : 강원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일반 : 충북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전남 보성군 응치면 대산리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제 4 절 야생 동·식물 보호

1. 야생동물 보호

조수보호 사업의 지속적 실시와 산림조성과 관리를 통한 산림생태계의 회복으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총기류, 독극물, 불법엽구 등을 활용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특히 멸종위기 또는 희귀조수에 대한 밀렵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2-3-5>

야생조수 서식밀도 현황

(단위 : 마리/100ha당)

구 분	서 식 밀 도		
	'91	'96	증 가
평	18.9 마리	21.3 마리	1.1 배
멧비둘기	23.8 "	30.4 "	1.3 "
참 새	382.0 "	254.5 "	△0.3 "
멧 토 끼	7.2 "	8.2 "	1.1 "
고 라 니	3.7 "	3.8 "	1.0 "
멧 돼 지	4.3 "	3.9 "	0.1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이에 따라 총기사용에 의한 밀렵행위를 방지하고자 산림청은 경찰청과 협조하여 공기총 영치제도를 실시('96.7)하는 한편 밀렵 단속을 실시하여 206건을 적발 의법조치 하였다. 또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는 일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야생조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국민 야생조수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조수 보호 관련단체로 하여금 야생조수 보호연합회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여 밀렵추방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산야에 걸쳐 700여회 135천명이 참여 불법엽구 7,300여점을 수거하여 폐기하는 한편 밀렵감시단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불법밀렵 예방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야생조수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야생조수보호기본계획('97~2001년)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은 불법밀렵 단속, 조수보호구의 성역화, 야생조수 서식지 환경개선, 인공증식 및 방사, 국민계몽운동 활성화를 기본방침으로 향후 5년동안 667억원을 투자하여 조수보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야생식물 보호

가.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많은 부분을 산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 또는 이와 연계된 지역이다.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로 식물종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는 국가이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리나라 고유의 특산식물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자생식물종의 보호를 위해 자생지 조사, 수집 및 증식, 복원,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 자생식물종 보존사업 현황

(1)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리지침 작성

지난 3년간 자생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4,500여종 식물자원중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종이거나 희귀 및 멸종위기에 처한 217종을 목록화 하였으며,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2) 자생식물자원 조사 및 수집

'96년까지 총 56종 76개 지역에 대한 자생지조사를 실시하고 증식을 위한 종자 및 생체수집, 증식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표 2-3-6 >

연도별 특산식물자원 보존사업 실적

구 분	'95	'96
자 생 지 조 사	24종 31지역	32종 45지역
생 체 수 집	26종 1,087개체	26종 292개체
종 자 수 집	15종 4,595립	9종 630립
증 식	20종 2,000본	30종 800본
보전시설 설치	1종 1지역	1종 1지역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복원사업 현황

'96년까지 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 12종을 복원하였다.

<표 2-3-7>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복원 현황

복원년도	식 물 명	식재본수	복 원 장 소
1990	칭 사 조	4	전북 군산
1991	산개나리	12	서울 북한산
	나비국수나무	10	서울 수락산
1992	섬개야광나무	30	울릉도 도동
1993	죽 질 초	30	제주도 서귀포
1994	갯 대 추	30	제주도 남원읍
	칠보치마	30	수원 칠보산
	서울오갈피	5	서울 수락산
1995	깽깽이풀	20	서울 용마산
	개불알꽃	30	서울 관악산
	박달목서	30	제주도 절부암
1996	문배나무	10	아차산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제 5 절 산림문화 장달

‘심고 가꾸는 문화’에 젖어있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소중함과 가치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산림문화사업을 실시했다. ‘산림문화 창달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산림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림 관련 행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림문화 안내달력(리플릿)을 제작하여 기관·단체 등에 배부했다. 그리고 산림공무원 사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작품중 10점을 그림엽서로 제작·활용하였고, 전시작품은 자연휴양림내 ‘숲속의 집’에 게시 활용하는 등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했다. 임업협동조합·유한킴벌리의 내설악 나무관찰 캠프를 후원하는 등 민간단체의 산림문화 관련행사를 후원하였다.

한편, 국토의 등뼈인 백두대간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고문헌, 논문집, 종주 보고서, 신문보도 등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백두대간 관련자료집」을 발간·배부하였으며, 백두대간 개념정립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민간 환경보호단체의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를 후원하였고,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 산악·환경단체 등과 백두대간 보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제 6 절 산림재해 극복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95년부터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등으로 산불방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적극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발생 건수(’95 : 630건 → ’96 : 527건)는 예년보다 감소되었으나 발생면적은 ’96년 4월23일

고성 대형 산불(3,762ha)로 증가('95 : 1,013ha→'96 : 5,368ha)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앞당겨 설치(봄철 : 2. 15~5. 15, 가을철 : 11. 1~12.15)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산불 공중진화대 발대식 〉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위험지역에 입산통제(2,392개소, 1,456천ha) 및 등산로를 폐쇄(909개소, 3,468km)조치 하였으며, 산불위험시기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계도, 순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재난 방지 차원으로 내무부, 국방부, 기상청등 11개 관련부처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주력하였다. 연중 지속적인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와 산불위험 지역에는 산불경보발령등 예보제를 시행하고 아울러 TV·라디오 방영등 각종 대중매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하여 일선기관장, 유관기관, 산림보호 지도요원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친서 발송과 산불방지에 관한 대담방송, VTR제작 방영, 고속도로 전광판에 산불조심 자막 홍보, 철도, 지하철, 대중교통 수단에 안내방송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산불발생시 조기발견, 즉각출동 및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므로 지상감시를 위해 유급감시원(7,789개소, 9,594명)과 공익근무요원(5,877개소, 9,898명)을 감시탑(805동), 감시초소(1,764동)에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경비행기에 의한 공중감시 및 계도를 실시하고 보유 헬기 23대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여 긴급출동, 집중 진화하도록 하여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6년 4월 23일 강원도 고성에서 강한 계절풍 및 돌풍으로 정부수립이후 최대규모(3,762ha)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동두천에서 산불진화중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방지의 절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교훈삼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불의 다발화·대형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예방·진화·사후복구 체제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육성과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의 피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산불증가의 주요원인은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입산인구 증가 및 농촌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로 연결되는 등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인재로 전국민의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절실하다고 보겠다.

<표 2-3-8>

산 불 발 생 현 황

	5년평균 (’92~’96)	’95 (A)	’96 (B)	증△감
건 수 (건)	410	630	527	△ 103(△16%)
면 적 (ha)	1,911	1,013	5,368	4,355(430%)
ha / 건당	4.7	1.6	10.2	-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표 2-3-9>

원인별 산불 발생현황

	'95				'96			
	건 수	비율(%)	면 적	비율(%)	건 수	비율(%)	면 적	비율(%)
계	630	100	1,013	100	527	100	5,368	100
입산자 실화	312	50	421	42	248	47	744	14
논·밭두렁소각	138	22	313	31	73	14	156	3
성묘객 실화	34	5	51	5	38	7	100	2
어린이불장난	18	3	11	1	30	6	47	1
기 타	128	20	217	21	138	26	4,321	80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2. 산림병해충 방제

지구상의 약 60여만종의 곤충중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사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총 3,367종으로서 그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등 10여종이다.

'96년말 현재 우리나라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70천ha로서, '95년말 발생면적 372천ha보다 약 2천ha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약 6%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에 발생하고 있다.

이중 피해가 가장 심한 솔잎혹파리는 '88년도말에는 발생면적이 327천ha까지 달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방제에 힘입어 '96년말 현재에는 발생면적이 209천ha로서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이며 특히 강원도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3-10>

연도별 산림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 천ha)

	'91	'92	'93	'94	'95	'96
계	367	359	360	354	372	370
솔 잎 혹 파 리	224	212	211	212	215	209
흰 불 나 방	44	42	43	41	37	34
오리나무잎벌레	20	18	17	16	14	13
솔 나 방	11	10	8	4	8	6
솔껍질깍지벌레·기타	68	77	81	81	98	108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표 2-3-11>

연도별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천ha)

	'91	'92	'93	'94	'95	'96
계	227	234	247	288	285	254 (301)
솔 잎 혹 파 리	52	53	64	80	105	115
솔껍질깍지벌레	7	8	8	12	11	14
소나무재선충	2	2	2	3	3	1(3)
잣나무넓적잎벌	7	6	10	11	8	9
밤 나 무 해 충	65	71	76	91	76	38(82)
흰불나방등 기타	94	94	87	91	82	77(78)

주 : '96 ()내는 중복방제에 의한 연면적임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에 목표를 두고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높이고자 우리나라 소나무 3대 해충인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등을 중점 방제계획하에 130천ha를 방제함으로써 계획면적 125천ha의 104%를 달성하였고, 흰불나방 등 환경저해 돌발해충은 발생 전면적을 방제 계획하여 77천ha를 방제하였으며, 특히, 잣나무넓적잎벌·밤나무해충에 대한 대면적 항공방제를 위하여 연 363대의 헬기를 지원, 연면적 91천ha를 적기에 방제하여 산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방제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방제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산림병해충 퇴치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표 2-3-12>

'96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천ha)

구 분	계 획	실 적	비 율 (%)
계	250	254	102
솔 잎 혹 파 리	110	115	105
솔껍질깍지벌레	14	14	100
소 나무 재 선 충	1	1	100
솔 나 방	5	5	100
흰 불 나 방	38	33	87
오리나무잎벌레	14	12	86
잣나무넓적잎벌	9	9	100
솔알락명나방	7	7	100
밤 나무 해 충	38	38	100
기 타 해 충	14	20	143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3. 산사태 예방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지질·식생 등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연속강우량 200mm이상, 시우량 30mm이상일 때 그 발생빈도가 높다.

'96년에는 전국의 산사태위험지 109개소 89ha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우기 이전까지 비닐피복, 우회수로등으로 응급 보완 조치하였으며,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관계공무원 비상근무등 피해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경기 북부·강원 영서지역 일원에 내린 유례없는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지역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총 97억원의 복구비를 투입, '97년 우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복구사업이 진행중이다.

<표 2-3-13>

'96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현황

		피해면적	복구비	인명피해	비 고
계		ha 257	백만원 9,699	명 2	
경기	동두천	5	171	-	- 주요지역 연속강우량(7.26-7.28) · 연천 687mm, 철원 527mm, 화천 427mm - 최대시우량 · 철원 43mm(7.26 07:00~08:00) · 강화 49mm(7.27 01:00~02:00)
	파주	2	79	-	
	양주	1	38	-	
	연천	37	1,272	-	
	포천	2	59	-	
	가평	1	12	-	
강원	철원	162	6,108	-	
	춘천	6	224	-	
	화천	29	1,227	2	
	양구	4	186	-	
	인제	8	323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2-3-14>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추이

	피해면적	복구비	인명피해	비고
평균	171ha	29,521백만원	8명	
'92	--	-	-	
'93	109	3,525	9	
'94	66	2,203	-	
'95	423	14,094	31	
'96	257	9,699	2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제 3 편 1997 년 도 임 정 시 책

제 1 장 '97년도 임업정책 방향

제 1 절 임정의 목표와 방향

금년은 산림청이 개청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의 마지막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지난해에 정립한 21세기 우리의 산림비전을 토대로 기술임정, 경영임정, 복지임정을 기조로한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의 실현을 위해 '97년도에는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임업인의 동참과 임정의 활력을 진작시키는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산림의 질적 전환을 위해 지역·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과 경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다양화해 나가며 전체 산림의 89%가 30년생 이하인 청년기의 우리 산림을, 이제부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경제림으로 가꾸어 나가하고자 한다.

둘째, 산림은 경제적·공익적·문화적 기능과 가치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의 조성·보호·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임도를 확충하고, 기계화를 촉진하며,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림경영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넷째, 산림의 환경적 기능과 휴양적 기능을 증진시켜, 국토경관의 보전과 국민의 자연친화적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다섯째,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의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하고자 한다.

여섯째,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인 산촌의 정주환경과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터잡고 살만한 곳으로 진흥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일곱째, 재편된 산지이용체계에 따라 생산임지는 임산물생산 중심으로 산림경영에 주력하고, 공익임지는 환경기능증진 위주로 산림을 관

리하며, 준보전임지는 산업용지 공급과 산림경영을 병행하는 등 임지별로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관리하여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여덟째, 우리 산림은 풍부한 약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첨단생물공학 제품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아홉째, 산림문화를 국민생활 문화로 정착시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책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제도개선, 새로운 시책의 지속적인 개발로 산림경영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지난날의 산림행정 발자취를 되돌아 보면서 산지자원화계획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4차 10년계획을 알차게 준비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 건설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제 2 절 임업부문 예산

1. 임업예산

'97년도 임업부문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국특, 농특, 재특)를 합하여 모두 5,182억원으로서 정부전체 예산규모의 0.44%이다.

<표 3-1-1>

임업부문의 예산비율

(단위 : 억원)

	'96		'97		증△감	
		%		%		%
정부전체예산	1,038,885	100	1,182,708	100	143,823	13.8
임업부문예산	4,310	0.41	5,182	0.44	872	20.2

자료 : 산림청 기획관리관실

<표 3-1-2>

사업별 투자예산

(단위 : 백만원)

	'96	'97	증 △ 감	%
계	431,037	518,159	87,122	20.2
I. 사업비	263,045	336,487	73,442	21.2
1. 기관운영	309	434	125	23.8
2. 임정관리	1,047	1,050	3	12.7
3. 산지계획	1,027	1,495	468	2.5
4. 항공관리	10,073	15,546	5,473	28.4
5. 산림보호	23,976	36,754	12,778	15.5
6. 자원조성	60,882	73,364	12,482	17.1
7. 산림토목	15,047	19,404	4,357	6.3
8. 기술지도	5,662	5,878	216	8.5
9. 경영기반확충	7,714	9,272	1,558	28.3
10. 공익증진	11,312	14,862	3,550	108.3
11. 임업연수원	111	854	743	54.6
12. 임업시험	3,118	4,588	1,470	9.4
13. 산림조사	403	272	△131	50.5
14. 육종연구	3,789	4,678	889	13.4
15. 수목원관리	2,136	1,770	△366	71.8
16. 다목적산림경영단지	1,064	1,374	310	123.5
17. 국유림경영	84,318	106,030	21,712	2.7
18. 국유재산관리	29,568	37,291	7,723	9.0
19. 법정부담금	1,489	1,571	82	43.9
II. 기본적경비	55,698	60,498	4,800	15.9
III. 투융자(농특)	102,294	111,174	8,880	4.9
1. 구조개선사업계정	67,071	77,508	10,437	18.7
2. 농특세 전입금사업계정	35,223	33,666	△1,557	△14.1
IV. 재 특	10,000	10,000	-	-

자료 : 산림청 기획관리관실

2. 임업자금 지원

산림경영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은 국토보전, 수원함양등 공익적 기능이 큰데 비하여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은 낮아 산주들이 투자를 기피하므로 산지자원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보조와 더불어 장기저리자금 및 세제지원을 통하여 산림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각종 임업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조림·육림·임도시설등의 사업은 산림개발기금에서, 표고 생산기반 조성, 양묘·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연휴양림 조성·임산물이용 가공시설등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밤·표고출하조절자금 및 밤·표고·송이등의 수출수매자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에서 각각 지원해 주고 있다.

'97년도 용자계획은 1,808억원(전년대비 414억원 증)으로 산림개발기금 4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34억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595억원, 재정용자금 10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 표 3-1-3 >

임업자금 용자현황

(단위 : 백만원)

	'96 실 적					'97 계 획				
	계	산림개발 기금	농 특 회 계	농 안 기 금	재 정 용 자	계	산림개발 기금	농 특 회 계	농 안 기 금	재 정 용 자
계	141,467	32,800	46,570	52,867	9,230	180,858	47,900	63,432	59,526	10,000
조 립 · 육 립	10,786	10,786	-	-		14,366	14,366	-	-	
임 도	10,152	10,152	-	-		10,152	10,152	-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3,000	3,000	-	-		3,700	4,700	-	-	
임업협동조합육성	3,410	3,410	-	-		6,155	6,155	-	-	
임목생산및임산물수집	2,900	2,900	-	-		6,893	6,893	-	-	
양 묘	5,356	-	5,356	-		6,326	-	6,326	-	
임산물이용가공시설	14,746	-	14,746	-		18,416	-	18,416	-	
표고생산기반조성	8,116	-	8,116	-		11,116	-	11,116	-	
자연휴양림조성	1,470	-	1,470	-		1,260	-	1,260	-	
조경수및분재소재생산	12,204	-	12,204	-		14,023	-	14,023	-	
출 하 조 절	12,332	-	-	12,332		16,080	-	-	16,080	
수 출 수 매	35,900	-	-	5,900		37,146	-	-	37,146	
기 타	21,095	2,552	4,678	4,635	9,230	34,225	5,634	12,291	6,300	10,00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제 2 장 『경영임정 구현』을 위한 중점추진 시책

제 1 절 산지의 자원화

1. 조 립

금년도 조림사업은 이제까지의 획일적, 양적조림에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소구역 벌채조림, 혼효림 조성, 복층림 조성 등으로 생태·환경적 조림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 경제적·환경적 기능 제고를 위한 조림수종의 다양화, 수종별 다양한 특성을 이용한 조림 추진 등을 조림시책방향으로 정하고 병해충 피해지, 산불피해지, 불량림, 수종갱신 대상지 등에는 경제수 위주의 조림을 실시하여 목재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철도, 도로, 사적지, 관광지, 마을주변 등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큰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기 조성할 계획이다.



< 제52회 식목일 행사 >

작년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하여는 파괴된 산림자원 및 환경의 조기복구로 주민들의 생활 및 정서안정을 위하여 금년 중에는 소나무 파종조림 400ha, 송이산 복원을 위한 용기묘 조림 300ha, 큰 나무 조림과 경제수조림 260ha를 실시하여 피해지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한다.

<표 3-2-1>

'97 조 립 계 획

(단위 : ha,천본)

사 업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면 적	본 수	계	국 고	지방비	자 력
계	18,675	54,639	54,430	37,389	13,253	3,788
경 제 수	16,875	51,951	42,615	31,171	7,656	3,788
큰 나 무	1,800	2,688	11,815	6,218	5,597	-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육 립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임목생장 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지별, 생육단계별로 적정한 육림사업을 적기 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권역을 선정, 통합육림 실행, 지역완결, 통합사업, 보조율 단일화원칙을 육림정책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도로변부터 사업구역을 연차별로 실행하고, 육림사업별 사업량을 사전에 조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연중 사업추진과 적기실행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자 한다.

시장·군수등 일선기관장이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에 대하여 총 사업량과 예산범위내에서 ha당 단비를 통합 조정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일선기관장 책임하에 작업을 탄력적·능률적으로 실행,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사업단비 현실화와 국고보조율을 향상하여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표 3-2-2>

'97 육림계획

(단위 : ha,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력
계	258,639	120,944	63,174	38,513	19,257
풀베기	95,036	31,024	14,686	10,892	5,446
덩굴제거	67,913	12,138	5,662	4,317	2,159
어린나무가꾸기	38,588	31,507	15,007	11,000	5,500
천연림보육	23,234	19,618	12,267	4,901	2,450
보식	267	116	116	-	-
간별	33,601	26,541	15,436	7,403	3,702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종 요

종요사업은 산주 희망수종 중심의 향토수종 종자를 확보토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 건묘 54,320천본(민유림용 46,020, 국유림 8,300)을 책임생산 공급토록 추진중이다.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종자 생산 공급원인 채종원, 채종립중 종자 과잉수종 및 결실 불량수종을 정비하고 조림 확대 및 새로운 수종을 신규 조성 및 지정되도록 하고 통일을 대비한 산림복구용 녹화 수종(아까시, 오리나무 20ha) 채종립을 지정 확대할 계획이다. 채종원은 참나무, 편백나무 5ha를 '97년에 신규 조성하며 연차별로 소나무등 75수종에 860ha의 채종원을 2005년까지 조성 정비하여 2040년부터는 조림용 묘목 생산종자를 채종원 종자로 전량을 공급함으로써 국가보급률 100%를 달성코자 추진중이다.

묘목생산에 있어서는 산주 희망도와 적지적수를 감안하여 향토수종을 중점 생산토록 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고 수형이 아름다운 단풍나무, 느티나무등과 수원함양 내화수종도 아울러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다. 전나무, 분비나무등 유용수종의 속성 시설양묘를 위한 온실 신축(2동)과 산지묘포 확대조성(1개소)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이 생산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종묘 생산지 표시등 품질인증제 실시로 우량 종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임업의 산업화

1. 임업 전문인력 확보

가. 독립가·임업후계자 육성

일정규모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산주를 발굴하여 독립가로 인정하고, 농산촌에 정착하여 산림을 경영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이들이 사유림경영을 선도하고 또한 지역사회 임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는 사유림경영 선도자로서 우선 지원 대상자인 만큼 이들의 선발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도 및 시책홍보를 펴는 한편,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단 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는 정부에서 영림계획에 의한 자율시업을 최대한 인정, 조림·육림등 국고보조 사업량 우선 배정, 의무조림비 예치면제, 벌채 시업신고시 첨부서류 생략등의 행정,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개발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독립가 육성자금 27억원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금 20억원을 장기저리로(5년거치 10년상환, 연3%)융자 지원하는 한편 각종 임업기술정보 제공, 우수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해외연수 기회부여등을 통하여 사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산림 투자욕과 긍지를 심어줄 방침이다.

나. 영림단·기능인 양성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 기술능력을 갖추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인으로 육성코자 2010년까지 12,000명(1,000단)을

목표로 '97년 42단 499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국유림이 집단화(1,000ha이상 부락)된 산촌부락을 대상으로 부락 전주민이 참여하는 산촌부락작업단을 조직·운영하여 “고향산”은 내가 가꾼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락작업단은 농업과 임업을 겸업한 “시범부락작업단”으로 육성하여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하고 있다.

<표 3-2-3>

'97 임업기능인 및 시범부락 작업단 조직계획

(단위 : 단,명)

	계		국유림		민유림	
	단 수	인 원	단 수	인 원	단 수	인 원
임업기능인	42	499	12	139	30	360
시범부락작업단	21부락	-	21부락	-	-	-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다. 협업체 조직 육성

산림청에서는 소유규모가 영세한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한·독 임업기술 협력사업 일환으로 '74년 경남 양산에 협업체를 조직한 것을 시작으로 '96년말 현재 217개의 협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표 3-2-4>

협업체 조직현황('96)

시·군	협업체수	산림면적(ha)			산주명(명)		
		구역	가입	비율	총산주	가입	비율
44개	217	482,562	163,428	34%	103,741	23,493	23%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협업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업지도원 85명을 배치하고 인건비, 운영비 및 산림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5년부터는 협업체 회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산림소유자, 일선 시·군 및 임업협동조합의 협업 경영에 대한 관심부족 및 자립경영 기반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협업체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경영방법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협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까지 조직·운영하고 있는 협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수협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협업경영계획에 의한 일괄지원제도 실시등으로 협업 경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라. 임업전문학교의 설립 추진

최근 산림과 임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임업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이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농산촌 인구의 격감과 인력양성 체제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중에서 농산촌 인구의 격감은 주로 임업 기능인 계층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왔으며, 인력양성 체제의 구조적 결함은 중간 기술자와 상위 관리자 간의 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에서는 지난 80년대 초반 부터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임업기계훈련원 등 3개 사회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여 기능인 인력난에 대처해 온 바 있으나, 현지 임업경영에 걸맞는 전문기술자를 양성할 직업훈련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제도화 하고, 전환기의 임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산림경영 하부구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농림부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을 제정·공포하였고, 학교 설립·운영의 계획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98년 개교를 위해 현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임업기계훈련원과 연계하여 임업전문학교를 설립, 인력·시설·장비·실습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기술 인력양성을 해나가고자 한다.

2. 임도시설의 확대 · 내실화

가. '97 임도시설 계획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산업화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시설하던 민유임도를 '95년부터 농어촌 특별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사업량 및 km당 사업단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견고한 임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97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5>

'97 임도시설 계획

(단위 : km, 백만원)

	계 획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용 자
계	1,548	104,632	61,595	26,308	6,577	10,152
국 유 임 도	310	28,710	28,710	-	-	-
민유임도(보조)	1,050	65,770	32,885	26,308	6,577	-
민유임도(용자)	188	10,152	-	-	-	10,152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기본방향

국·민유임도의 연계는 물론, 지역공도와 연결된 간선임도 위주의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산림시범단지등 조림·육림, 벌채보속사업지에 집중 시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역건에 부합하는 설계 시공으로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여 임도피해의 최소화와 기설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시설방법도 과거 물량위주에서 탈피하여 숲 속의 임도개설지에 따른 산림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급경사지 및 토사 유실등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임도시설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가 구축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다. 추진계획

합리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사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각종 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로서 국·민유림이 연계되고 지역 개발 효과가 높은 간선임도망을 우선 선정 시설할 계획이다.

임도설계는 현지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산림훼손의 최소화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되, 예산에 의한 물량 위주의 설계는 지양하고 견고한 임도가 설계되도록 시공난이도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단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질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였다.

민유임도의 경우는 시설비중 산주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소유규모 영세성,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자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산주 자부담을 산림개발기금에서 용자·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지원한다.

임도시공에 있어서는 전년도 사전 설계분은 해빙과 동시 착공하고 '97설계분은 설계완료 즉시 발주 착공케 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을 방지하고, 임도시공 기술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성실 시공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한다.

임도는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한 다음 관리를 잘하는 것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므로 각 기관별, 노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한 후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등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해피해 우려지와 상습지는 우기전 현지를 확인하여 사전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라. 임도시설 장기계획

우리나라 산지특성을 감안하여 ha당 적정 임도밀도를 10m로 책정하고 2010년까지 56,000km를 시설하는 장기계획물량을 감안,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6>

임도시설 장기계획

(단위 : km, 백만원)

	추진실적 ('68~'96)	1 단 계		2단계	3단계	누 계	
		'97	'98	'99~2004	2005~2010		
사	계	10,853	1,548	2,500	17,000	24,099	56,000
업 량	국유임도	3,344	310	500	3,400	7,446	15,000
	민유임도	7,509	1,238	2,000	13,600	16,653	41,000
사	계	424,738	104,632	161,854	1,137,188	1,587,860	3,417,272
업 비	국유임도	137,041	28,710	36,580	285,322	544,749	1,032,402
	민유임도	288,697	75,922	125,274	851,866	1,043,111	2,384,870
ha당(m)		1.68	1.92	2.31	4.94	10	10

주 : ha당 임도밀도 - 일본 5m, 미국 10m, 독일 40m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3. 임업기계화 촉진

임업기계화 10년 계획을 수립하여 임업기계·장비보급을 확대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및 확대 보급을 통해 임업생산성을 향상코자 다목적 산림차와 집재장비를 '97년부터 '99년까지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개발중이다. 임업기계·장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센터』를 운영하여 독립가나 산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가능하도록 9개조합(832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97년 시범설치하고 성과 분석후 '98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보급되어 있는 임업기계·장비의 실연작업을 통해 임업 노동력 생산성 향상 및 기계·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종별로 시범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임산물 유통·이용·가공

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체제 출범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유통기반 시설확충과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원강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임산물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권역별 임산물유통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4년까지 총 140개의 임산물유통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97년도에는 임산물생산 주요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13개소, 목재집하장 1개소, 임산물저장시설 1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15개를 시설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제고로 보다 많은 이익을 생산자에게 환원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전문조직 육성으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로 개발토록 39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하우스재배 등 생산시설 교체 및 현대화·선별·포장·저장시설 설치, 출하조절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조직단위로 지원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속하고 실제 활용가능한 다양한 유통정보제공을 위하여 목재집하장 등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조직

을 유통정보 담당기관으로 육성, 임산물유통 전산화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데이콤, 하이텔을 통하여 살아있는 유통정보를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나. 임산물 가공·이용

국내 목재는 간벌 소경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 미숙재이며 생산시설이 노후되어 가공수율이 낮다. 최근 3D업종으로 인식, 취업을 기피하여 인력난에 직면할 뿐 아니라 임금상승 등 경영이 악화되어 감소되고 있다.

임산물 가공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 및 국내목재의 이용극대화를 도모키 위하여 농특회계에서 시설현대화·원자재구입 및 산지가공공장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재특회계에서 합판시설 및 보드류시설 증설 등을 지원할 것이며, 금후 운영개선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5. 임업기술 개발·보급

가. 임업기술 개발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산림의 공익화를 위한 임업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실사구시의 임업연구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여, 세계화 시대에 상응하는 연구수준의 향상, 산·학·연 협동체제로 현장중심 연구체제를 확립, 연구인의 자율적 책임의식 고양 및 연구관리 기능 강화 방향으로 '97년도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개발, 산지 및 산림자원의 합리적 관리, 산림생물 피해 방제기술의 고도화, 임산자원의 고도이용과 신용도 개발, 임업경제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단기소득 임산물 개발, 산림환경보존과 공익기능 유지증진, 산림재해 방제기술연구, 산촌개발 및 산림문화창달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임업기술 보급

임업기술의 지도·보급사업을 '97년도에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배치한 임업기술지도원 787명을 현장

위주로 최대한 운영하여 산림사업 현장지도 위주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도보급 업무를 경영주체별(독립가, 임업후계자, 협업체) 실시하도록 임업기술지도원을 전담배치하여 산림시책 홍보, 경영기술정보, 행정편의를 집중 제공하여 산림경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임업경영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도원으로 하여금 파악 보고토록하여 이를 곧바로 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지도원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피부에 와 닿는 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은 현세대와 차세대의 노력이 계승되어야 결실을 맺는 미래관리 사업임을 홍보하는 등 산주들의 산림경영의욕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기술지도보급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5ha이상 사유림 소유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임업기술지도원들에 대한 급여, 기동장비 제공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지도원의 급여가 현실화되도록 정부 예산에 지속반영 추진하고 있는 바, 금후에도 지도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업기술 지도보급에 가일층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여건 개선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

<표 3-2-7>

임업기술지도원 배치운영 상황

	계			본회·도지회			조 합 지도원
	합 계	지도사	지도원	소계	지도사	지도원	
합 계	787	10	777	68	10	58	719
중앙회	9	2	7	9	2	7	-
경 기	109	1	103	7	1	6	97
강 원	87	1	86	7	1	6	80
충 북	60	1	59	7	1	6	53
충 남	82	1	81	7	11	66	75
전 북	67	1	66	7	1	6	60
전 남	120	1	119	7	1	6	113
경 북	137	1	136	7	1	6	130
경 남	108	1	107	7	1	6	101
제 주	13	-	13	3	-	3	1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6. 국유림경영 개선

가. 자립경영체제 확립

(1) 책임경영제 조기정착

'96년부터 국유림경영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지방산림관리청 사업현장에 경영팀 118개팀 361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에 필요한 경영팀의 기술능력 강화 및 산림작업의 성력화를 위하여 경영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개선 연찬회 및 산림작업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한편, 국유림 경영인력 강화를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경영팀 소속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하여 책임경영제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2) 국특회계 운영개선

국유림내 특정자원을 세입원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고정 세입원 발굴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토지매각대 위주의 국특회계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국유림경영특례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유림의 자립 경영체제 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으로 선진임업 선도

21세기 선진 임업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를 강원도 홍천군, 평창군 일원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계획으로 국비 1,169억원을 투자하여 임업기술의 첨단 과학화 기지를 조성하여 시험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연계하여 농림복합경영으로 주변지역을 풍요로운 산림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기반조성 사업으로 간선도로 11km개설 및 주요 건축물(연구본부동, 후생시설동)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한다.

다. 국유림 확대 및 관리 강화

산림자원의 증축, 산림환경기능 제고, 산림문화 창달 등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국유경영림의 최소 필요면적을 확보하고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말 현재 전체 산림면적의 22%수준인 국유림률을 2020년까지 30%수준으로 끌어 올릴 목표하에 국유림확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확대방법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 매수, 국·민유림 교환취득, 무주·은닉재산의 국유화조치 등이며, 사유림 매수는 지역별로 국유림 분포가 균형을 이루도록 매수하되 국유림률 30%이상 지역은 사유림 매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국가시책등 취득이 불가피한 산림에 한하여 매수(강원, 제주도)하며 국유림률 30%미만 지역은 국유림확대 거점(100ha이상) 지역을 설정하여 우선 매수추진하는 등 지역간 국유림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타 무주재산의 국유화조치 및 교환취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유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97년에도 15,000ha의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경영관리에 적합한 임지 및 국유림확대 거점지역(100ha이상규모)으로 판단되는 산림을 집중 매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유지를 정당한 사용절차없이 사용중인 무단(불법)점유지를 일제 정리하고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한편 도시주변 자투리땅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을 계획적으로 처분하여 국유림확대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산림의 공익화

1.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공급기반 확충

가. 5대강유역 산림 특별관리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으로 대기, 수질 등 자연환경의 악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므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공급원천인 5대강유역 산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과 직접 관계되는 취수장과 상류지역 산림 330천ha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

가고 있으며, '97년도에는 조림, 육림등 13,706ha와 산지사방 5ha, 야계사방 16km, 사방댐 7개소, 임도 65km, 병해충방제 7,714h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수원함양기능과 수질정화기능이 높고 뿌리의 양이 많은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와 자작나무, 전나무 등을 식재하고 병해충방제도 약제살포를 지양하고 생물적, 임업적 방제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표 3-2-8>

5대강유역 산림사업 계획('97)

	단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그외지역
조림	ha	1,136	440	355	128	103	85	25
육림	"	10,284	2,508	4,022	961	444	1,775	574
간벌	"	2,286	1,029	595	193	39	297	133
사방								
- 산지	ha	5	-	2	1	-	-	2
- 야계	km	16	-	4	4	-	6	2
- 사방댐	개소	7	-	2	4	-	1	-
임도	km	65	9	34	5	-	1	16
병해충방제	ha	7,714	1,748	1,812	713	47	1,499	1,895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나. 환경림 · 공해방지림 조성

국민소득 향상으로 사람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갈구하는 반면, 도시화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생활의 원천인 자연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맑은물, 깨끗한 공기의 공급과 보건 · 휴양공간의 제공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로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시지역, 산업시설지, 사적지, 관광지 주변 등의 산림과 공한지에 공해에 강한 수종과 지역별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색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조성방법은 조경적 설계에 의거 조림대상지의 지리, 입지, 묘목의 크기 등에 따라 식재본수와 수종을 달리하고, 단목보다는 군상식재, 단층일제림보다는 복층림으로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공기정화, 소음차단, 차폐효과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등의 환경을 푸르게 단장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푸른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한다.

<표 3-2-9>

월드컵대비 국토경관 조성계획('97)

구 분	단위	사업량	구 분	단위	사업량
환경조림	ha	7,513	해안사방	ha	10
도로변산림정비	"	67,161	야계사방	km	63
가로수식재·보식	천본	178	사방댐	개소	47
산지사방	ha	90	훼손지복구	ha	218
무궁화식재	천본	2,000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2. 산림휴양시설 확충

가. 휴양시설 확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내 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개발하여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공간 주변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언제나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0>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96까지 실적	'97계획	'98~2004
계	200	96	14	90
자연휴양림	100	61	6	33
산림 욕장	65	20	8	37
숲속수련장	35	15	-	20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나. 휴양시설 조성·운영 개선방안 강구

전국에 조성·운영중인 61개 휴양림에 대하여 4계절 운영체제 확립 등 기본시설 위주로 보완함으로써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매년 급증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휴양시설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은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준높은 휴양림 조성에 힘써 나아갈 계획이다.

3. 산림문화 창달

가. 추진배경

'90년대 들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와 '생활의 질'을 중요시함에 따라 산림과 관련한 문화·휴양적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식주 중심의 생활양식이 정신적·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한 문화적 복지 추구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등산·산림욕·산악레포츠 등 산림문화와 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림정책은 국토녹화·산지자원화 정책과 같은 경제적 사업에 집중한 결과, 위와 같은 산림에 대한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산림정책도 경제적 기능 증진 위주에서 한걸음 더 나

아가 산림의 본질과 고유기능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문화·복지적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금수강산을 복원하는 「산림르네상스의 개화」와 임정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산림문화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나. 기본방향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 르네상스 개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산림문화운동의 이념적 지표를 정립하고 인식을 확산시킨다. 자연조화적 전통산림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국민친화적·자연친화적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한다. 국민들의 산림체험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산림의 문화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다. 추진계획

(1) 이념적 지표 정립과 인식 확산

산림공무원에게는 '산림문화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산림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산림문화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임정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윤리, 산림이용자의 행동강령 등을 담은 「산림헌장」의 제정과 「산림문화상」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산림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숲속의 문화 문화속의 숲」 책자발간('97. 2)을 통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을 주제로 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산림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2) 전통산림문화의 계승·발전

문화유산은 민족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을 지켜주는 뿌리임을 인식하여 산·나무·숲과 관련된 전통 문화유산을 발굴·수집·보전하

며, 민족의 정기가 서려 있고 생태계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황장금표(黃腸禁標) 등 유형적 산림문화재의 발굴·복원 및 무형적, 제도적인 산림문화를 연구·정리하여 「산림문화총람」을 발간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민간공동의 백두대간 보전협의회 구성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백두대간의 합리적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산림문화공간 조성(Hardware 개발)

산림속에서 자연을 배우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국민친화적인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생활환경림, 마을숲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숲을 새롭게 단장하여 국민들의 자연생태교육장 및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등산로에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을 설치하고 훼손지를 복구하는 등, 등산객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등산로를 합리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4) 산림체험의 확대와 문화상품화(Software 개발)

산림문화 교육의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산림문화를 국민생활문화로 확산시켜 나가고, 산림의 문화상품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기안내서(self-guided booklets)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산림의 기능과 숲의 혜택 등에 관한 국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림유적지·휴양지·주산단지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 답사코스를 구상할 계획이다.

(5)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법적·제도적 기반조성)

산림문화진흥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설예정인 ‘산림정책기본법’에 산림문화 내용을 반영하고, 임업진흥기금을 산림문화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산림문화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산’관련 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며, 산림문화협회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산촌개발

산촌지역은 국토의 보전은 물론 수자원함양, 자연환경보전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문화적·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단순 농림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이 산촌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할수 있는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먼저 '96년에 설계한 5개마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 내무부 소관 연관사업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7 설계대상지 16개소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위하여 지역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산촌실태조사를 통해 개발대상 산촌을 구분·지정하여 대상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마을의 특성과 개발여건 등에 부합하는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촌개발을 도모코자 한다.

<표 3-2-11>

산촌종합개발 세부사업 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2,240	
보조금	소득기반조성	공동저장시설, 공동판매장시설, 밀원단지 조성, 임간방목장, 산촌휴양시설등	1,000	
	주거환경정비	소하천 정비, 절개지 복구,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처리시설등	600	
용 자	소득원개발	향토수종 및 관상수 생산, 야생화원 조성, 산채생산, 특용작물생산, 임간방목장지원, 저온저장고 및 건조장	315	연리 5%
	주택개량	주택 증·개축, 주택신축	325	연리 3%~5%

자료 : 산림청 산림경영국

5. 야생 동·식물 보호

가. 야생동물 보호

(1) 야생조수 보호 증식

산림이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다양한 식생환경을 지니고 있어 먹이식물이 풍부하므로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조수보호기본계획(제3차)을 수립하여 1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야생조수의 서식지 확보 및 보호 목적으로 '96년말 현재 조수보호구 560개소(121,914ha), 금렵구 14개소(20,110ha)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서식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계획의 추진, 산양방사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회의, 제2회 한·일철새보호협력회의 개최, 철새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중에 있다.

(2) 야생조수 보호 국민계도운동 전개

산림녹화와 조수보호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야생조수 밀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서식(남·북한포함) 고유종의 13%에 달하는 65종이 멸종되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야생조수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과 근거없는 속설에 따라 아직도 보신용으로 선호하는 후진성 국민의식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계층의 불법밀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계도활동 전개와 민간단체로 하여금 밀렵감시단을 구성(8개팀 80명) 운영하고, 민간단체 중심의 국민계도 및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국민의식 전환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3) 제도개선 추진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밀렵 단속강화, 수렵제도의 개선, 조수보호구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중에 있다.

나. 야생식물 보호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95년부터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에서 추진해온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보존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식물분류 전문가와 합동으로 연구원에서 울릉도의 섬땃강나무, 단양의 줄땃강나무 등 멸종위기 식물과 전남 대홍사의 대홍란, 지리산의 석곡, 설악산의 만주바람꽃 등 희귀 및 특산식물(40지역 40종)을 대상으로 자생지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생지외에서 자라는 멸종위기 및 특산식물을 보전 및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식물생체, 종자를 수집하여 온실과 묘포장에서 증식 보전을 실시하며 현지내(자생지)보전 및 현지외보전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년에는 평택에서 물부추 또는 제주도에서 삼백초를 대상식물로 복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자생식물협회가 주관하여 일곱 번째 우리꽃 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꽃 사랑운동 확산과 농가소득 및 수출자원으로 육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광릉숲 보전대책

광릉숲은 1468년 세조능림으로 지정된 이래 500여년간 보전·관리되어온 우리나라 산림을 대표하는 숲이며 2,240ha의 산림에 식물 2,931종, 동물 2,88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크낙새, 장수하늘소 등의 천연기념물 22종이 분포하는 한국 최고의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러나 '87년 광릉수목원이 일반에게 공개된 이래 최근 입장객과 차량이 급증하고, 주변지역에 요식·숙박업소 등의 개발이 가속화 되어 광릉숲의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대뿐만 아니라 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다.

현재의 임상, 용도등을 정밀조사한 후 권역(극상림상태의 천연림지역, 산림생물 유전자원이 풍부한 지역, 산림조성 및 생산관련 시험연구 대상지역, 산림·임업에 대한 국민교육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기능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학습 및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전 예약을 한 사람에 한하여 주중에만 개방허용하도록 수목원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광릉숲 파괴의 주원인인 교통량 저감을 위하여 중형이상 화물트럭의 통행과 최대속도 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광릉숲을 관통하는 기존의 314번 지방도를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릉숲의 오염방지와 생태섬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릉숲 주변지역중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국가가 매입하고 제한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광릉숲에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 4 절 산림재해 예방

1. 산불방지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5%가 산림이며 이중 97%가 임목지로서 낙엽등 불에 잘타는 가연성 지피물이 두껍게 쌓여 있으며 연소진행이 평지에 비하여 급속히 확산(약 8배)되는 산악형 산림이고 수종도 불에 잘타는 침엽수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륙성 계절풍으로 봄·가을 건조기가 지속되고 해풍과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군사훈련 등 인재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산불피해는 인명 및 임목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국토경관 등 공익적 기능까지 파괴되고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수십년의 장구한 세월이 걸린다.

특히, 지난 '96년 4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3,762ha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인명피해 산불까지 발생하여 산불피해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산림의 중요성 산불방지의 절박성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96년 4월 26일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거 '96년 7월 2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차원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불의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96년 12월 산림청에 산불통제관을 두고 하부조직 2개과를 신설,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산불진화 교육을 위해 임업연수원에 산불방지훈련과를 신설하여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에 마련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임을 인식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조심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산림의 고마움과 산불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산불예방 내용을 반영하고 산림보호지도요원을 확대운영하여 범사회적인 산불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단계별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널리 알려 산불조심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불조심표어를 현상공모(1월)하였던바 전국에서 무려 5,043편의 표어가 제출되었고 그중 우수작 13편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는 한편, 산불조심 캠페인, 광릉수목원에 “산불조심표어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 전국 산불조심 캠페인 〉

또한, 취약지의 산불예방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논·밭두렁, 농축산물 소각시 종전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벌칙도 종전의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군사훈련에 의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격장 주변에 방화선 설치를 의무화하고 군부대에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산불의 진화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림청→시·도→시·군을 기본축으로 하는 진화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진화를 위하여 공중진화대(5개팀 40명) 및 지상진화대(420개팀 5,197명)를 조직·운영하여 지상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에 헬기로 공중진화대를 투입, 헬기와 합동으로 진화하는 등 조기출동·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진화장비·시설확충에 있어 '97년에 대형헬기를 5대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99까지 헬기 35대를 확보하는 등 진화장비 현대화 3개년('97~'99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헬기 격납고는 김포, 익산, 양산에 이어 '97년에 강원 원주에 추가로 설치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임업연수원에서는 산불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실습위주의 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임업연구원에서는 산불생태연구, 우리 체형에 맞는 진화장비 개발 등 산불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97 봄철 산불발생 상황은 '96년에 마련한 산불방지종합대책을 토대로 산불방지에 힘써온 결과 지난해에 비해 발생건수는 11%, 면적은 59%를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2.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철저히 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함으로써 방제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하에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 지면약제, 천적방사, 항공엽면시비 등 가능한 방제방법을 총동원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솔껍질각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및 기타해충도 발생전면적에 대하여 초동방제하며, 효과적인 방제방법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저독성농약 및 자연친화적인 방제 확대에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방제 계획량은 261천ha를 책정하고 사업비 585억원(국비 293억원, 지방비·기타 292억원), 총 투입인원 976천명, 사용약제 858톤, 헬기 연848대를 투입하여 연중 종합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2>

'97 산림병해충별 방제계획

(단위 : 천ha)

계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재선충	잣나무넓적잎벌	밤나무해충	흰불나방
261,389	118,087	16,148	800	9,627	38,210	78,517

자료 : 산림청 산불통제관실



〈 '97 산림병해충 방제 촉진대회 〉

3. 산사태 예방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원활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7산림분야 풍수해방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주요예방대책으로는 전국의 산사태위험지를 장마기 이전까지 일제조사하여 재해위험지로 지정 고시후 특별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기상상황에 따라 산사태발생 예보제를 실시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해발생위험지는 우선 장마기 이전에 비닐피복, 우회수로 등으로 보완 조치하고 위험지의 완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방사방, 사방댐 등을 시공하고 있다.

임도에 의한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도시설지중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98년부터 사방사업 연계시공을 위하여 6월말까지 완료 목표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발생시 복구대책으로는 우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곳과 피해확대 우려지역은 흙마대쌓기, 우회수로 설치 등으로 응급복구 조치하고 복구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한 복구계획으로 건설한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3>

'97 산사태위험지 현황

(면적 : ha)

계		I 등급		II 등급		III 등급		비고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97	86	21	22	25	20	51	44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표 3-2-14>

산사태 발생예보 및 행동요령

예보의 종류

	산사태 주의보	산사태 경보	비 고
연속강우량 (mm)	100~200 미만	200 이상	발령권자 : 시장·군수
시 우 량 (mm)	20~30 미만	30 이상	
일 강우량 (mm)	80~150 미만	150 이상	

행동요령

	산 사 태 주 의 보	산 사 태 경 보
행정기관(단체)에서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주의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 근무 체제 유지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 실시 및 주민대피 준비 ○ 응급복구자재 점검 및 기동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에 산사태경보 전파 ○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비상근무 체제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량 파악 ○ 위험지구 점검 실시 및 주민대피 조치 ○ 피해발생대비 복구계획 점검
주민(임업인)이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 대피 준비 ○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평사육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TV, 라디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태 위험지구 주민 대피 ○ 산림부산물재배시설, 양묘장, 평사육시설 등 피해예방 조치 강화 ○ 기상정보 및 강우상황 등 청취 (TV, 라디오 등)

자료 : 산림청 자원조성국

제 5 절 임업의 세계화

1. 임산물 수출입

가. 임산물 수출여건과 전망

현재 우리 임산물은 가격, 원자재 조달 등에서 불리한 실정이며, 종실·버섯류 등은 국내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과 수출선 유지 등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또한 목재류는 원자재인 원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이 근접해 있고 밤, 표고, 송이 등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선진국의 경기호조 및 개도국의 성장세 지속으로 우리 임산물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97 임산물 수출진흥시책

'97년도 임산물 수출목표는 '96년도 수출 4억5백만불보다 약 19% 증가한 4억8천만불로 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우수임산물 구매지원자금으로 371억원을 확보(밤 255, 송이 66, 표고 50)하여 수출업체에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물량의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자금지원, 기술지도, 우수품종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해외시장의 정보를 조사하여 수출업체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업체의 수출애로요인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수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재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원목에 대하여는 할당관세(기본 2% → 할당 0%)를 적용하여 업계의 원가부담을 줄이고 수출 유망품목인 합판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정관세(기본 8% → 조정 15%)를 부과하는 등 국내산업을 지원하고, 주 수출상대국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등을 통하여 수출촉진 여건을 조성하는 등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5>

'97 임산물 수출목표

(단위:천불)

		'97 목표	'96 실적	증 감(%)	비 고
계		480,000	405,205	19	
목재류	소 계	150,000	121,806	23	
	합 판	70,000	53,506	30	
	제 재 목	10,000	11,183	△9	
	목 제 품	70,000	57,117	23	
석재류	소 계	95,000	122,563	△23	
	원 석	10,000	16,609	△41	
	가 공 석	85,000	105,954	△20	
산림부산물	소 계	235,000	160,836	47	
	밤	130,000	112,871	15	
	송 이 버 섯	60,000	27,563	114	
	표 고 버 섯	20,000	9,415	122	
	명 개 잎 등	25,000	10,987	15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다. 수입관리대책

WTO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밤, 잣, 대추의 최소시장 접근 물량에 대하여는 국내산 집중 출하기를 피하여 수입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생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임산물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수입임산물 부정유통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급증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토록 하는 등 관련산업 및 생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 해외산림 개발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452천ha로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의 산림이 성숙기에 달하지 않아 원목수요의 8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년대 중반에 가셔도 총 목재자급율이 50%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어서 장기적으로도 수입목재에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더구나 자원보유국의 목재공업화 추진과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를 전후한 전 세계적인 환경보존 운동의 대두로 각국은 절벌정책과 원목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장기·안정적인 목재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산림청은 생육조건과 투자환경이 유리한 투자유망국에 2040년까지 70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하고 총 목재수요의 32%를 공급한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사업물량 및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투자의 유인 및 확보된 조림대상지의 조기조림을 촉진할 계획이다.

'96년까지 업계 신청액의 40~60%밖에 지원하지 못했는데 '97년에는 업계 신청액의 86% 정도인 58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조림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상지 및 노동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날로 투자여건이 악화됨을 감안하여 장기계획상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조림사업비 이외에 관련 부대사업비에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후, 목재관련 산업은 자원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존 운동과 자원 민족주의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제품의 단순구매나 단순벌채를 위한 임지개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필연적으로 해외조림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요구되며,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해외조림 투자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자금지원, 투자환경 개선, 정보제공, 자원 협력강화 등 해외조림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업계의 참여가 요망된다.

3. 국제협력 강화

세계 산림자원 부국들의 자국 자원 보존정책 강화 추세와 국제시장에서 원목 등 임산원자재 가격 상승의 잠재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의외교 활동의 강화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에 원목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뉴질랜드와는 '97년 4월에 양국 관계당국이 임업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협의와 공동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대양주 등 개발도상국 산림공무원을 13개국에서 23명을 초청하여 '97년 6월 중 4주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열대목재기구(ITTO)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피지, 가이아나 등 4개국에 임업분야의 특별 사업지원금 11만불을 공여할 계획이며, 또한 몽골,도미니카 등 개발도상국에 임업전문가를 파견하여 기술지원과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량농업기구(FAO), ITTO, CITES 등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 입장 표명과 국익 우선의 활동을 전개하고 다자간, 양자간 협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제 3 장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제 1 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산림법이 개정(법률 제5323호. 1997. 4. 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목구조 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대체조립비 면제대상 확대, 채석단지 지정시 채석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사유림휴양림의 입장료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법률 제5325호. 1997. 4. 10)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업인의 범위, 재정지원사업, 협업·대리경영, 임산물소득원 개발·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9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수의 번식기간중 조수보호구안에 무단출입행위를 통제하고 수렵면허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5348호 1997. 8. 22) 되었다.

한편, 산림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과 임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보전·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림경영 활성화와 투자재원 확보 등을 통한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과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경영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행정규제 완화

1. 추진상황

제도개선종합계획과제 12건, 행정쇄신과제 8건, 자체제도개선과제 4건등 총 24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주요 규제완화 내용

공부상 지목이 임야더라도 입목·죽이 10년 이상 상실되어 산림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대체조립비와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활동과 국토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죽공예품의 대체물량이 많아 죽가공업이 쇠퇴하고 대나무는 맹아성장률이 높으므로 대나무벌채 신고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확인용 검인제도 및 생산확인표 부착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5ha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농업인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국유림에 조경수 재배목적으로도 분수림 설정이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

산림경영 및 임야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야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도록 되어있는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그동안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내 오물투기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모든 산림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 3 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계획 추진

'96년 들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요인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의 체질이 약화되고 있음에 따라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해 시급히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 3 대책」(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정책추진방향) 후속조치로 '96년 10월 9일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산림부문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기능과 이용목적에 따라 산지이용체계를 재편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산지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공단개발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제외), 준보전임지 70% 이상을 활용하는 주택·공장 등 설치시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 등 산지활용시 각종 부담금 면제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복구예치비 면제를 확대하고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확대 및 허가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며 1ha 이상 임야매매시 의무적으로 첨부하던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여 산지이용 원활화를 도모하고 소유규모의 경영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둘째,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임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산주의 임업수취율(21%) 제고를 위해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반출시 찍는 검인제를 폐지하여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임산물집하장,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부채산주·방치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협업경영, 겸업·기업임업을 육성하며,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체

계를 강구하고 있다.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산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실용기술과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기계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형 임업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생산비를 대폭 절감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임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국유림 분수림 설정 대상을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셋째, 경비절감과 의식개혁으로 산림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경비별 절감기준을 마련 시행해 나가며 경비절약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원감축,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식개혁과 회의문화 개선, 전산능력 향상, 사무능률 향상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부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지이용 규제완화와 산림경영의 활성화 지원강화를 위한 산림법 개정과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97. 4. 10 공포)하여 '97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 4 장 제4차 산림기본계획 수립

1. 기본계획수립 배경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년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까지 3차례에 걸쳐 매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간 3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기녹화 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은 지난 1·2·3차 산림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임업여건을 감안, 21세기 우리 임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격에 걸맞는 산림복지국가 건설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림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계획이다.

2. 여건변화와 정책목표

가. 여건변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될 21세기의 경제·사회·임업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경제는 WTO, OECD 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어 기술, 자본, 상품 등 국제교류의 자유화가 가속화되고, 사회구조는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심화되어 휴양, 레저 등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이며, 지식·정보통신분야 산업이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의 성숙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산림사업의 자율성 보장요구가 확대되고 남북통일의 가능성에 대비한 한반도의 산지제도 검토가 요청된다.

임업여건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평가 등 산림문제가 범지구적인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물부족에 따른 산림의 수자원 함양

기능의 증진 요청과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도시 환경립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도시적 용도의 토지수요 증가와 함께 산지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산촌정주환경의 악화로 산촌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노동력 부족과 고임금 등으로 산림경영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나. 정책목표

21세기는 경제와 환경이 통합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을 통한 산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제4차 계획의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제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도산업사회의 산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임정을 정립하고자 한다.

3. 추진계획

그동안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림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임정발전심포지엄,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97년 8월까지 제4차 산림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7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에서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지역 산림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제4차 산림기본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주요농정일지

< '96. 1월 >

- 1. 1 농지법 시행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 국내산 농수산물 227개 품목, 가공품 54개 품목
- 1. 4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표시방법” 고시 제정
 독일산 원피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 1. 5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 '96년도 농림수산분야 핵심추진과제 보고
- 1. 9 낙농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1. 10 가금상습지역특별대책 기본방침 확정(소요사업비 8,623억원)
- 1. 13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제정 고시
- 1. 15 쌀생산종합대책 보고
 '96 주요업무계획 수립
- 1. 17 「6대 국정운영과제」장·단기 실천계획 보고
 - 농정개혁 추진, 농수산식품의 품질향상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가축질병예찰협의회규정 개정
- 1. 19 '96 농림수산 정책방향설명회 개최
- 1. 19 ~ 28 베를린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 1. 20 농촌용수 10개년 계획('95~2004년) 수립
 - '95~2004년 기간중 총296천ha 개발에 14조 4,200억원 투자
- 1. 23 전국산림관계관 회의
 - '96 산림시책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설명
- 1. 23 ~ 26 화란 원예박람회 참가
- 1. 24 전국 연구·지도기관장 쌀증산다짐 연찬회

- 1. 25 해외전염병연구센터 준공(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내)
- 1. 26 제40회 수의사국가시험 실시
- 1. 26~2. 16 축종별(한우, 젓소, 돼지, 닭) 경쟁력강화사업 대상자 교육 실시
- 1. 27 前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
- '96 업무계획, 농발대책 추진상황 설명 및 농정여론 의견청취
- 1. 29 수출진흥기획단 구성
- 차관보(위원장)외 14명

주요 농작물 종자협의회 개최
- 벼, 보리, 밀 콩 등 주요농작물종자 신규장려품종 지정(26개 품종)
- 1. 30 환경보전형 농업정책협의회 개최
- 우리부, 3청, 농·축협, KREI, 시도과장 등 60여명 참석
- 1. 31 '96 쌀생산종합대책추진 관련기관회의 개최
- 시·도 부시장·부지사, 농진청 차장,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진공 부사장 등 참석

한국농어민후계자연합회 회장단간담회 개최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협의회 개최

< '96. 2월 >

- 2. 1 '96 쌀생산종합대책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사료표준분석방법 개정 고시
- 사료내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분석방법 추가 등

'96 육류중 유해성잔류물질 검사요령 제정 고시
- 2. 1~4. 20 주요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 2. 4 ~ 7 해외농무관 연찬회 개최(파리)
- 2. 5 '96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달
- 2. 7 원산지표시 민간인 명예감시원제도 시행

- 2. 9 초다수성 쌀 식미검정
 - 공시품종과 비교품종에 대한 밥맛, 찰기 검정 등
 쌀생산대책반 구성(반장 : 농업정책실장)
- 2. 13 '96 육류중 유행성잔류물질 검사요령 고시
- 2. 14 농협 양재동 물류센터 착공
- 2. 15 '96 농어촌개발 시험연구발표회 개최
 - 전북대 구자웅교수의 3명발표
- 2. 16 수출애로상담실 설치 운영
 - 농림수산부(무역진흥과), 농검(11개 지소), 식검(본소1, 지소5),
 농유공(본사1, 지사10)
- 2. 16 역대 농림수산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 2. 20 농어업전문인력 및 경영체 육성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 2. 24 네덜란드산 소 수정란·정액 및 반추수육류 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 2. 24~3. 3 제5회 전국 난 전시회 개최
- 2. 26 ~ 28 제24차 한·일 식량관계관회의(동경)
- 2. 26~3. 8 '96 폐농기계 수집 캠페인
- 2. 28 농어촌교육 활성화방안 간담회(2. 28, 경남거창고교)
- 2. 29 축산단체장 및 학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

< '96. 3월 >

- 3. 5 휴경지 생산화 세부지침 시달회의 개최
 - 시·도, 농진청, 농협 관계관 등 45명 참석
- 3. 5 ~ 8 제10차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참석
 농기계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농업인 여론 및 실태조사
- 3. 6 돼지고기 수출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 3. 12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개최
 - 질병예찰 및 질병별 중장기 박멸대책, 축산물 위생기준 향상 추진
- 3. 12 ~ 15 일본특별기획전 개최
- 3. 14 동·식물 검역인력 증원
 - 70명(동물검역소 38, 식물검역소 32)
- 3. 18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서울)
- 3. 19 '96 식육처리기술교육 개시
- 3. 19 ~ 20 국유림책임경영제 Workshop 실시
- 3. 2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을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3. 24 수의사국가시험 관리기관 이관
 - '97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수의과학연구소로 이관 실시
- 3. 29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 '96. 4월 >

- 4. 2 21세기 산림비전 심포지엄 개최
 제1회 농어촌여성정책자문회의 개최
- 4. 3 생명의 나무심기 캠페인 실시
 자영자양성 농수고 '95 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 및 '96 사업계획 확정 시달
- 4. 4 환경보전·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계획 수립
- 4. 5 제51회 식목일 행사
- 4. 6 인삼산업법시행령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 9 ~ 13 서울식품기술전 참가
- 4. 15 PC를 이용한 민원사무처리제도 시행
- 4. 16 1/4분기 종료심의회 개최(9품종 등록)

- 4. 16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
인삼산업시행령 제정 공청회(농경연)
- 4. 16 ~ 17 자연휴양림 Workshop 실시
- 4. 16 ~ 19 싱가포르 식품호텔박람회 참가
- 4. 19 낙농제도개선대책 공청회 개최
- 4. 20 산불조심 캠페인 실시
- 국무총리, 농림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등 250명
사료검사업무지침 개정
-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검정항목 추가 등
- 4. 22 광산인근 중금속오염 농경지 개량대책 보고
- 4. 23 쌀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 4. 23 ~ 26 제1차 한·중 임업협력 실무회의
- 4. 24 농가경제조사결과 보고
- 소득 21,803천원, 부채 9,163천원
- 4. 25 사료의 공정규격 개정고시
RPC 중심의 쌀계열화사업지침 시달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관련토론회 개최
- 4. 26~5. 5 제6회 우리꽃전시회 개최
- 4. 30 상시영농체제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96. 5월 >

- 5. 2 ~ 9 봄맞이 전통가공식품 판매행사 개최
- 5. 5 ~ 8 시카고 식품박람회 참가

- 5. 5 ~ 10 CODEX 집행이사국 방문 김치규격화에 대한 사전설명 및 지지요청
- 5. 7 '96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농업회사법인 경영효율화 전략개발세미나 개최
- 5. 9 '96년산 두류 및 옥수수 수매계획 예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활성화방안 수립
농업기계간담회 개최
- 학계, 업계, 관계기관 관계자 등 19명 참석
- 5. 10 농림사업 종합평가결과 확정
- '95년 지자체가 실시한 사업중 29개 사업의 추진결과 평가
- 5. 15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축공사 기공식(경기화성)
종자분쟁조정요령 제정
- 5. 16 사료품질관리 교육실시
- 5. 19~8. 1 양축농가 해외연수
- 일본, 덴마크, 네델란드, 독일에 8개반
- 5. 20 농림수산부 휴경논 모내기일손돕기 실시
- 5. 21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실시
쌀산업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농수산수석 주재)
- 5. 22 '96 임도사업 연찬회
여름철(6~8월) 기상전망에 따른 재해대책추진 철저 지시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농림수산계 특성화대학 선정·지원계획 확정
- 5. 23 시·도 농어촌발전 투자계획 승인
- 시·도 투자계획에 의한 시·군별 투자계획 조정 등 후속조치
계획시달

- 5. 23 농어민후계자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장관 주제)
- 5. 25 '96 미곡종합처리장 관련자 교육 및 토론회 개최
- 5. 28 '97 예산 시·도 설명회 개최
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시행령 개정
- 5. 29~8.10 소값안정을 위한 산지소 구매실시
- 5. 31 농업인의 날 제정 (제1회 행사 11월 11일 개최)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완료
- 일반 24천ha, 대구획 20천ha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보망 구축사업을 위한 설명회
- 5. 31~6. 9 '96 대한민국 꽃박람회 개최(한국무역종합전시장)

< '96. 6월 >

- 6. 1 축종별·규모별 가축분뇨자원화처리 모델설정 및 홍보
- 6. 3 농립수산 종합정보망 구축계획 수립·시행
- 6. 3 ~ 22 외국산림공무원 초청 훈련
- 인니, 베트남등 13개국 13명
- 6. 5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계획 수립
- 6. 7 특성화대학 지원지침 설명회(장관 주제)
- 서울대 농생대 등 16개 대학장 참석
- 6. 8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수립
CODEX 집행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서 김치규격화 추진승인으로
총 8단계중 1단계 완성
- 6. 11 임업기계화시범 및 영림단 경영대회
제8회 고능력짓소 평가 및 경매행사
농업기계산업 표준심의회 개최

- 6. 11 ~ 14 상파울로 식품박람회 참가
- 6. 14 제4차 농정개혁추진회의 개최
- 6. 15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개정 고시
- 6. 17 ~ 21 농정개혁추진상황 및 쌀산업발전종합대책 특별교육 실시
- 6. 18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개최
호우(6.17~6.18)로 인한 피해지역 벼 재배관리 철저 지시
- 6. 20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수립 공청회 개최
농협 창동 농산물물류센터 착공
- 6. 20~8. 3 '96년산 보리수매
- 6. 21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개정고시
- 원유중 세균수·체세포수 등급기준 강화(7. 1시행)
재호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 6. 24 쇠고기, 닭고기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규제검사 실시(7. 1시행)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과 도체의 등급판정방법 기준 및 적용조건규정
개정 고시
- 6. 25 재해에 대비한 여름철 농작물 관리요령 시달
- 농진청, 각 시·도, 시·군, 농림부 산하단체 등
한·몽골 임업협력 약정 체결
- 6. 25 ~ 26 쌀 전업농·전문경영체와의 간담회(농수산수석 주제)
- 6. 26 신경제 장기구상 공청회 개최
- 6. 27 영농조합법인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 6. 28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계획 확정
- '96. 8월부터 20개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실시
- 6. 29 인삼산업법시행령 공포(대통령령 제15087호)
농지개량조합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
- 6. 30 농림수산사업 중간평가결과 발표(사업별 평가)

< '96. 7월 >

7. 1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 시달
밭작물 생력기계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공포(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 인삼류 및 인삼종자·종묘의 검사기관 지정, 검사수수료 고시
종자분쟁 조정요령 시행
- 종자피해 발생시 피해규제 절차를 체계화하여 종자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7. 2 농업재해 피해조사보고요령 개정
산불방지 종합대책 확정(중앙안전대책위원회)
7. 4 인삼업무 인수(재경원 → 농림수산부)
7. 5 광릉숲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7. 8 2/4분기 종묘심의회 개최(16품목 등록)
법인경영체 운영개선을 위한 공청회
7. 9 '96 쌀 생산비절감 대책위원회 개최
7. 10 쌀산업발전관련 농어민후계자와의 간담회
7. 11 ~ 12 경지정리사업 토론회 개최
7. 12 농약관리법시행령 경제장관회의 상정
축산물시험방법중 개정고시
- 유의방부제 및 세균발육억제물질 검사법을 개량, TTC법 또는
항생물질검사법(DISC ASSAY)으로 개량(8. 1 시행)
7. 15 ~ 20 “농림수산환경정책” 시·도단위 교육실시
7. 17 태풍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긴급시달
7. 18 ~ 20 4-H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 7. 19 ~ 20 조립·육성사업 연찬회
- 7. 23 ~ 31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공개발표 평가실시
- 7. 25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안) 수립 실무반 협의회 개최
- 7. 26 병해충 및 잡초방제 독려 장관친서 발송
- 7. 27 대북 분유지원 추진(탈지분유 203톤)

< '96. 8월 >

- 8. 1 경기·강원 수해지역 일손돕기 실시
한국여성 농어업인연합회 창립총회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업무처리요령 제정 고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시행
- 8. 8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명칭 변경
- 수산관련 업무를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정원 90명 이체)
- 8. 8 ~ 9 수리시설 개보수·보강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
- 8. 8 ~ 11 호주 식품박람회 참가
- 8. 12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공동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 8. 12 ~ 13 수해지역(경기 파주) 항공방제 실시
- 8. 12 ~ 14 제5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 8. 12~8. 21 제6회 나라꽃 무궁화큰잔치 행사
- 8. 14 농업창고업법 폐지(법률 제5160호)
- 8. 19 경기·강원 수해상황 및 영농추진상황 농림해양수산위 보고
- 8. 20 들녘별 토양개량대책협의회 개최

- 8. 22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재호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8. 22~9. 21 '96 가을철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8. 24 낙농제도개선대책 확정
- 8. 26~9. 9 낙농진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정부안)
- 8. 29 '97 보리 생산계획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농촌진흥청, 농협, 각 시·도 관계자 참석
 전국도의회 농업위원회(200명)에 대한 시책설명(장관)
 전농회장단 간담회(장관)
- 8. 29 ~ 30 농협합병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8. 31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시달

< '96. 9월 >

- 9. 2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종계장 인증요령 제정 고시
- 9. 2 ~ 4 치산녹화 주역 현지시찰
- 9. 3 농어업인 발명품 전시품목 심사 확정
 농협합동지원법률(안)에 대한 중앙공청회
- 9. 3 ~ 6 북경 식품박람회 참가
- 9. 4 수리시설 및 농경지수해복구 세부지침 시달
- 9. 5 직접지불제 도입관련 정책토론회(KREI 주최)
- 9. 5 ~ 6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 9. 6 들녘별 토양종합관리대책 2차협의회 개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개정
- 9. 6 ~ 7 산림청 간부 정책연수
- 9. 8 ~ 11 호주 식품박람회 참가

- 9. 9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를 위한 관련기관 여론수렴
- 9. 10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발작물기계화추진협의회 개최
- 9. 11 환경농업발전추진위원회 개최
- 9. 12 농정추진관련 한농연중앙연합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 직접지불제, 농어업인의 날 등에 대하여 논의
- 9. 13 한·일 생사류 회담 개최
- '96 견연사 쿼터량을 549톤으로 합의
농지이용계획 승인지침 시달
- 9. 13 ~ 14 한·대만 과실교역회담 개최
- 9. 18 '96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요강 작성 시달
'97 토양개량제 공급관련협의회 개최
인삼산업진흥위원회 회담 개최
- 9. 18 ~ 25 한국농업국별검토(Country Study)실시와 관련 관계자 방한(Carmill Cahill)
- 9. 23 들녘별 토양종합개량대책 수립 시달
- 9. 24 농업기계 사후검사 실시
- 9. 30~10. 1 WTO 한국무역정책검토 수감(제네바)

< '96. 10월 >

- 10. 2 농지보전강화를 위한 농지 및 산지제도 개선방안 수립
- 10. 5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착수(산업별 평가)
- 10. 7 ~ 13 일선 쌀담당 농산공무원 해외연수
- 10. 8 ~ 13 일본 김치특별기획전 개최

- 10. 9 '97 보리생산계획 시달
환경농업법제정 실무반회의 개최
- 10. 10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 심포지엄 개최
- 10. 11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 개최
- 10. 14 ~ 28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순회교육 실시
- 10. 15 농림부 수해지역 벼베기 일손돕기 실시
- 10. 18 산림정책기본법(안) 공청회 개최
'96 벼베기행사 실시
- 10. 18 ~ 20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시·도 설명회 및 여론수렴
- 10. 20 ~ 24 파리 식품박람회 참가
- 10. 21 3/4분기 종묘심의회 개최(22품종 등록)
- 10. 23 '96 첨단농업시설 기자재 전시 및 연구발표회
- 10. 23~11. 8 전국 국화경진대회
- 10. 24 ~ 25 제18회 산림병해충방제 연찬회 개최
'96 밭기반정비사업량 확대(당초 5천ha → 8천ha)
- 10. 25 '96년산 추곡수매 개시(수매계획물량 : 8,800천석)
농업통상정책협의회 설립
- 10. 26 제16회 전국한우경진대회 개최
- 10. 28 '97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발간
- 농림사업 실시 규정(훈령 828호)
- 10. 29 우리농업의 첨단기술 개발전략 국제심포지엄 개최
- 10. 30~11. 6 휴경지 실태조사
-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지역 18개 시군 56개 주요들녘

- 10. 31 직접지불제 공청회 개최(농진공)
- 10. 31~11. 1 육류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개선 세미나 개최

< '96. 11월 >

- 11. 1 육류중 병원성미생물 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작업반 운영
- 11. 1 ~ 30 제1회 「산림공무원 사진전시회」 개최
- 11. 1~12. 31 '96년산 두류 및 옥수수 수매실시
- 11. 2 '96 나무가꾸기 행사
 '96, '97년산 추곡수매에 대한 양곡유통위 건의
- 11. 3 ~ 9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 개최(일본)
- 11. 4 직접지불제 공청회 개최(광주)
- 11. 4 ~ 8 제29차 한·일 농림수산물 기술협력위원회 참가(동경)
- 11. 6 직접지불제 공청회 개최(창원)
- 11. 7~12. 5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순회교육
- 11. 8 세계의 식량수급전망과 우리의 식량대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11. 8 ~ 11 제28회 전국농촌지도자대회
 - 전국농촌지도자 대표회원 등 3,000명 참석
- 11. 8 ~ 17 우리 농수산물식품 대축제 행사개최
- 11. 10 ~ 13 남아공 식품박람회 참가
- 11. 11 제1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도축우 합격표시 검인방법 변경
- 11. 11 ~ 17 '96 서울 국제농림축수산물 기계박람회 개최(한국종합전시장)

- 11. 12 전국 새농민회 품목별 분과위원회 개최
 - 새농민회를 통한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 11. 13 '97 농도배양 사업지침 시달
- 11. 13 ~ 17 FAO세계식량정상회의 참가(로마)
- 11. 14 제4회 인삼의 날 행사

 '96년산 쌀 생산량 확정발표
 - '96년 쌀 생산량 3,696만석, 10a당 507ha
- 11. 18 WTO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보조금분야 통보사항 제출

 농업창고업법시행령 폐지(대통령령 제15171호)
- 11. 20 축산물등급화거래규정 개정 시행
- 11. 26 제27차 농약관리위원회 개최
 - 농약품목 고시 : 신규품목 75개, 적용추가품목 112개
- 11. 28 ~ 29 제24회 사방사업 연찬회
- 11. 28~12.10 농림축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관련 입법예고
- 11. 29~12. 2 폭풍설피해 복구지원지침 시달

< '96. 12월 >

- 12. 4 농업기계 공급대상기종 모델심의위원회 개최
- 12. 5 제3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 12. 7 개정 농약관리법 및 식물방역법 시행
- 12. 9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요령 개정
- 12. 9 ~ 13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참가
- 12. 10 21세기 농림수산 정보화사업 발전방향세미나 개최
- 12. 11 제3회 전국 식육기술경연대회

12. 12 발기반정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OECD 가입
12. 13 야생조수보호 공청회 개최
 양곡관리법 개정, 농어촌정비법 개정
 협동조합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12. 16 '96·'97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11. 29 ~ 12. 2 폭풍설해 복구지원지침 시달
12. 18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농림부 세부실천계획 제출
12. 19 '96 쌀생산 종합대책 사업상금 시상 평가결과 시달
 '97 양질다수성 벼재배 확대방안 시달
12. 20 제48대 정시채 농림부장관 취임
12. 23 '96 쌀생산 종합대책 우수지자체 시상
 '97 비료수급계획 수립 시달
12. 2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예규) 제정
12. 24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 매입가격과 매입량 고시
12. 27 농지조성비 단가 고시
 전국농촌지도기관장 연찬회
 - '96 농촌지도사업 평가 및 '97 방향 설정
 4/4분기 종묘심의회 개최(45품종 등록)
 “식육의 부위, 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별방법”고시 개정
12. 28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고시(1997~2001년)
12. 30 배합사료 부가세영세를 적용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공포(법률 제5195호)

12. 31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 중 개정고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개정고시
 - 원유중 체세포수 등급 상향조정(최하등급 60만→50만초과)
 공동방역사업실시단 운영요령(훈령) 제정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관한법률 제정(법률 제5239호)
 산림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농지조성비 단가조정 고시

< '97. 1월 >

1. 1 개정된 농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지도공무원 지방직 전환
 - 7,324명(연구직 628, 지도직 6,696)
1. 3 '97 쌀 생산대책 세부실천계획 시달
1. 4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제작 시달
 농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계획 수립
1. 6 쌀 생산대책 추진본부 설치·운영
 WTO 체제하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계획 수립
1. 6~2. 28 '97 새해영농설계 교육
 - 벼농사 과정 등 120개과정 755천명
1. 13 양곡관리법 개정법률 공포
 농어촌정비법 개정 공포
1. 15 '97 주요 업무계획 수립
1. 15 ~ 25 약정수매 시행준비를 위한 연습실시

- 1. 17 전국산림관계관 회의
 농업기계용 기종별 면세유 공급기준량 산정지침 개정
- 1. 17 ~ 26 베를린 농업박람회 참가
- 1. 21 토양개량제 살포기 2,300대 공급 완료
 전국농산물유통인(수집상) 대의원 총회
 쌀 전업농 육성사업대상자(6만호) 조기선정지침 시달
- 1. 22 축산관계관 협의회 개최
- 1. 23 '97 쌀 생산대책 교관요원 교육 실시(전국 사·도, 시·군, 지도기관 과장급 157명)
 정부합동 부동산대책회의(차관참석)
- 1. 24 '97. 1. 1~1. 8 폭풍설 피해 복구지원계획 시달
 제41회 수의사국가고시 실시
- 1. 27 ~ 31 농지법시행령개정관련 시·군 농지담당공무원 교육
- 1. 28 지역전문농업협동조합정관(예)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 규약(예) 개정 고시
- 1. 30 원로농업인들과의 간담회(장관 주재)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 1. 31 '96년산 추곡수매 완료(8,618천석)

< '97. 2월 >

- 2. 1 약정수매제 시행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정 공포
- 2. 4 2000년까지 '97 농림수산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수립 시행
- 2. 5 농업용 에너지절약 추진대책 협의회 개최
 前 농어촌발전위원과의 간담회(장관 주재)

2. 6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공포
 농지정보화사업 시연회 개최
 농정발전기획단 발족
 - 농림사업 점검평가 및 '99년 이후 농촌발전 투자계획 수립
2. 9 ~ 13 영국 식음료박람회 참가
2. 10 국회정각회의 농지법 개정요구관련 우리부입장 설명
2. 11 한농연회장단과의 간담회(장관 주재)
2. 13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대책 토론회 개최
2. 14 논·밭용 승용형관리기 신기술농기계로 지정 고시
2. 15 외국의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결과 장관 보고
2. 17 국유림경영팀 평가대회 개최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낙농진흥법개정 취지 및 개정내용 설명
2. 18 한국산업규격 표준심의회(식품부회) 개최
 '97 육류중 미생물검사요령 고시
 -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대장균, O-157:H2 검사요령 등
2. 20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정기총회
 '97 추곡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 등에 관한 요령 고시
2. 21 '97 쌀 생산대책 추진 사업상금 시상평가요령 시달
 '95 농업총조사 최종결과 발표
2. 24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협의회 개최 및 홍보
2. 2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정 공포
 '9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지침 시달

2. 25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98 신규사업 선정
 '97 국가정책개발 연구과제 선정
 - 농림부문 해외인력 활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차등보조제 도입방안
- 농림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신규사업 심의 선정('97 : 1건, '98 : 3건)
2. 26 지역별 주요농기계 적정공급모델 개발 설계세미나 개최
2. 28 밀렵방지 및 불법엽구수거 경진대회
 '97 쌀 생산대책 추진 시·도 농정국장 회의개최

< '97. 3월 >

3. 1 원유 체세포등급 강화시행
3. 7 '97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및 농정시책추진 종합평가계획 시달
 모조분유 산업피해구제조치 시행('97. 3. 7 ~ 2001. 2)
3. 10 '97 농림업관련 세계개선요구안 제출(내무부)
3. 10~4. 9 농업기계 전국 순회수리봉사 실시
3. 11 지역(전문)농협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개정
 농지법개정안(정각회) 상임위 상정
3. 11 ~ 14 일본 FOOD EX JAPAN 참가
3. 12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규정(훈령) 개정
3. 12 ~ 21 제13차 쇠고기 분기별 협의회 개최
3. 14 협동조합합병지원자금 실무정책 조정협의
 농업행정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행
 산불공중진화대 발대식

- 3. 18 농업기계화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달
- 3. 18 ~ 27 '97 상반기 영농공개강좌
- 3. 18~4. 30 '97 추곡수매 약정체결(850만석) 및 선금지급(6,582억원)
- 3. 19 제2차 광릉숲보존 심포지엄 개최
- 3. 20 한국 농업전문학교 개교(경기 화성)
 김치 CODEX 규격안 조정을 위한 한·일 관계관 협의
 대만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
- 3. 21 사단법인 한국쌀연구회 심포지엄 개최(상반기)
- 3. 22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령 제정
 - 살처분가축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의 범위 차등지급
- 3. 23 '96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방재지침 시달
- 3. 24 '97 상반기 중앙단위 환경농업 교육실시
- 3. 25 '97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 지원계획 시달
 전통식품 표준규격 제·개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
- 3. 28 농산물 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 현판식
- 3. 29 사료용 근채류·종자류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개정
- 3. 31 농업기계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97. 4월 >

- 4. 2 농지관리기금 '97수정·'98운용계획 작성지침 시달
- 4. 3 생명의 나무심기 캠페인(중앙)

- 4. 4 가공산업육성 분과위원회 개최
 - '97 산지가공사업자 추가선정 심의
- 4. 5 제52회 식목일 행사
- 4. 7 기상예보 단계별 농업재해예방 조치요령 수립 시달
- 4. 8 농림사업에 대한 외부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착수
 '98 농림부문 예산편성지침 시달
- 4. 9 임정발전 심포지엄 개최
 지방세법 개정요구(안) 제출·협의(내무부)
- 4. 10 산림법개정, 임업진흥촉진법 제정 공포
- 4. 10~6. 10 첨단원예농단 조성
 - 첨단원예농단 사업계획 결정, 사업대상자 평가, 사업대상지역 2개소 확정
- 4. 14 ~ 30 전국 폐농기계 수거캠페인 실시
- 4. 16 총리 영농현장 방문(경기 이천지역)
 '97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사업대상지 선정 통보
- 4. 18 지리산반달곰 보존 심포지엄
 '97 농산물 수출촉진대회 개최
- 4. 21 ~ 24 농기계 보유 및 이용실태 현지조사
- 4. 22 고성산불 피해복구지역 현지시찰
 - 조림, 사방지, 주택복구지 등
- 4. 23 인터넷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WWW.MAF.GO.KR)
- 4. 24 OECD 농업환경지표개발 관련회의 개최
 한국 임정 50년사 발간
- 4. 24 ~ 25 제1차 ASEM 기술협력전문가회의 참석
- 4. 28 '97 쌀 생산대책반 구성·운영
 안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 4. 28 중규모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신규착수 지시
 농지전용조정심의회 개최
- 4. 29 한·뉴질랜드 임업협력 약정 체결

< '97. 5월 >

- 5. 1 '97 농안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98 운용계획지침 시달
- 5. 2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대책 주요사업 발표회
 비료 공급제도 개선방안 보고
 돼지고기 수출촉진대책 마련
- 5. 3 ~ 8 '97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고양시 일산호수공원)
- 5. 4 ~ 7 시카고 식품박람회 참가
- 5. 6 돼지고기 수출분위기 조성을 위한 간담회 및 기술교육 실시
- 5. 6 ~ 10 서울 국제식품기술전 참가
- 5. 7 '97년산 두류 및 옥수수 수매계획 예시
- 5. 1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 2종 법정가축전염병 추가,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의무화
- 5. 10 ~ 11 백두대간 공중탐방 및 백두대간의 밤 행사
- 5. 10 ~ 31 농번기 농기계 긴급 고장수리반 편성 운영
- 5. 12 '97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시험사업 대상자선정 통보
- 5. 12~6. 30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추진
- 5. 20 농림부소관 4대강 수질개선계획 수립 및 환경부에 제출
 '98예산(안) 개요 도별 설명회
 - '98 농림예산 요구방향 설명 및 건의사항 반영
 산림병해충방제 촉진대회

- 5. 20 ~ 30 지하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담당자 교육실시
- 5. 21 제2차 한·일 철새보호협력협의회 개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재해대비 응급복구지원단 편성 시달
농촌발전기획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주제 :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정책방향, 한국농업의 미래와 정부 역할, 양돈산업의 발전과 수출전망 등
- 5. 21 ~ 22 현장임정 활성화 연찬회(중앙)
- 5. 23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 5. 24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
- 소득 : 23,298천원, 부채 : 11,703천원
- 5. 26 모내기 농촌일손돕기 실시
제2단계 유통개혁대책 수립
- 5. 30 '96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완료
- 일반 27천ha, 대구획 16천ha

< '97. 6월 >

- 6. 2 축협조합 경영개선대책 수립(축협조합에 대한 벤치마킹제 도입)
- 지원조합 : 90개조합(1,000억원)
- 6. 2 ~ 27 외국 산림공무원 초청훈련
- 6. 3 장마철 대비 농기계 보관요령 시달
'98 농림수산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6. 4 농토개량종합대책 추진계획 시달
농업기계 시험·검사 및 안전장치확인요령 개정고시

- 6. 4 ~ 7. 3 현장임정활성화 연찬회(지방)
- 6. 9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6. 10 ~ 13 상파울로 식품박람회 참가
- 6. 11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 개최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결과 발표
- 6. 11 ~ 12 '97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자격이수 교육
- 6. 16 ~ 19 주요국가 정보화관련 전시회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진청, 농진공 등 참가
- 6. 17 ~ 18 한·일 생사류 회담(동경)
 - 견연사 수출쿼타 물량 합의 : 563톤(22백만불)
- 6. 18~ 7. 7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6. 22 ~ 29 제22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참석
- 6. 23 '97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고시(농림부 고시 제1997-46)
- 6. 24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 확대실시계획 시달
- 6. 24 ~ 27 '97 한국양계박람회 개최
- 6. 25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수립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생산기반정비, 농촌환경개량)
- 6. 26 백합 절화 품질향상 및 종구자급화 방안 학술회의 개최

'97 하반기 유제품 및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요령 공고
 - 총 13품목(유제품 2, 사료곡물등 11품목)
- 6. 30 엘리노 발생에 따른 영향 종합분석

 협동조합발전기획단 업무종료

1997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7년 9월 일 인쇄

1997년 9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림부

편집 : 농림부 농정기획과

인쇄 :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비매품>